



## 석암 전집

昔暗조헌섭

## 소개글

석암조헌섭블로그를운영하면서매일댓글로올린  
세상사이야기를블로그북으로만들어보았습니다.

## 목차

1	설날 소망	5
2	아내를 위한 한시[漢詩]	7
3	만추(晩秋)의 사랑	9
4	가을 등산	11
5	여름날 아침	13
6	친구야 친구	16
7	내 고향 사계(四季)	20
8	고향의 추억	24
9	신록의 오월	28
10	빗소리 사계(四季)	29
11	앞산	31
12	봄이 왔네	33
13	봄이왔네	34
14	봄비 내리는 날	36
15	봄 마중	38
16	정월 대보름	40
17	우수(雨水)	43
18	설날 추억	46
19	인 생 길	50
20	겨울 추억	52
21	가는 해 오는 해	55
22	내사랑 그대 곁에	57
23	한가위 [秋夕] 석암 조 헌 섭	59
24	“초, 가을” 석암 조헌섭	61
25	‘처서(處暑)’ 석암 조헌섭	63

26	두류공원♡석암 조현섭♡	67
27	내가 쓴 댓글 17년 2월	69
28	내가 쓴 댓글 17년1월	80
29	내가 쓴 댓글 2016년 12 월	91
30	내가 쓴 댓글 16년 11월	102
31	내가 쓴 댓글 16년 10월	114
32	내가 쓴 댓글 2016년 9월	125
33	내가 쓴 댓글 2016년 8월	135
34	내가 쓴 댓글 16년 7월	145
35	내가 쓴 댓글 2016년 6월	155
36	내가 쓴 댓글 2016년 5월	164
37	내가 쓴 댓글 16년 04월	173
38	내가 쓴 댓글 16년 3월	182
39	내가 쓴 댓글 16년 2월	192
40	내가 쓴 댓글 2016년 1월	201
41	내가 쓴 댓글 15년 12월	211
42	내가 쓴 댓글 15년 11월	222
43	내가 쓴 댓글 2015년 10월	233
44	내가 쓴 댓글 15년 9월	244
45	내가 쓴 댓글 15년 8월	254
46	내가 쓴 댓글 15년 7월	264
47	내가 쓴 댓글 15년 6월	273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잘 자라다오.



## 아내를 위한 한시[漢詩]

경국불여 추아부(傾國不如 醜我婦)요--**아무리** 경국지색이라도 내 아내만 못하고

다탕약비 박박주(茶湯若非 薄薄酒)라--**박박한** 막걸리라도 맹물보다 낫도다.

명화불여 춘산경(名畫不如 春山景)이요-**유명한** 그림이라도 춘산의 경치만 못하고

명월약비심강월(明月若非 心江月)이라-아무리 밝은 달이라도 마음의 강에  
비친 달만 못하다.

戊戌년 정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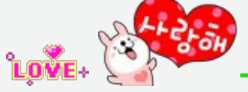
석암 조현섭

구정 초 나잇살만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에 찌든정 하나 안고  
살아가는 아내에게 바치는 절묘한 詩 같아 한시 한 수 올려 본다.



우리 고유의 설날에는 올님의 가정에 건강(健康)과  
행운(幸運)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福 福 福 많이 받으십시오.



김치경=설날 노래 희우 지우 뮤직비디오



**만추(晩秋)의 사랑**  
-----석암 조 현 섭-----

오곡을 귀뒹들인 텃 빈 들녘  
만추(晩秋)만 짊어가네  
갈대가 나부끼듯 임향한 이내 가슴  
사랑한다는 말 당신에게 전한다오.

유수 같은 세월 어느덧 칠순 언저리  
낙엽 같은 이내 몸 쇠락해 가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하얀 민들레처럼  
일편단심이라오.

앞만 보고 허둥대며 쫓아온 나날들  
나 하나만 믿어준 고마운 당신  
우리네 삶도 어느덧 봄 가을 지나  
만추인 듯싶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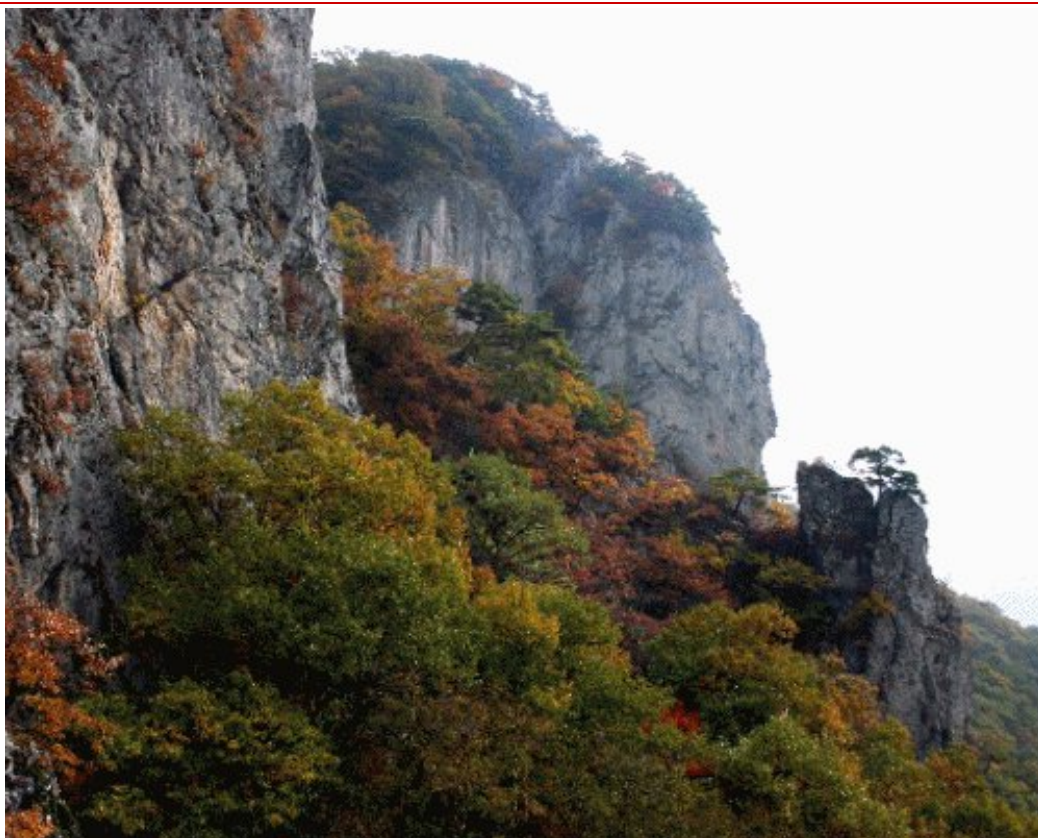
노란 은행잎, 흩날리는 홍엽들.  
못다한 우리 사랑 채워 주려  
움푹 패인 자국마다  
낮은 곳으로 모아누나!

----- 晩秋-----





9



## 가을 등산

석암 조현섭

소슬바람에 한잎 두잎

훅날리는 낙엽들 아름다워

산악인 단풍 찾아

이 산 저 산 노니는구나

가을 단풍 滿山紅葉

아름다운 팔도강산  
단풍 추억 남기려고  
명산마다 찰칵 찰칵

바리바리 둘러메고  
산등성이 지나갈 때  
반갑다고 인사하는  
마음 좋은 산악인!

정상 부근 먹는 중식  
고량진미 따로없네  
확 터인 天, 山, 野,는  
산악인 맛봄일세

정상에서 내려와  
하산 주 한잔하며  
오고 가는 정답에  
돈독한 그 우정!!

2~30년 산 지우는  
이웃사촌처럼  
터놓고 얘기하는  
참 좋은 친구라네.

2016년 秋

여름날 아침

석암 조현섭

동이 터는 새벽이면  
지지배배 끼룩 짹, 짹.  
이름 모를 새소리  
짹을 찾아 노닐며  
단잠을 깨우누나

아침부터 울어대는  
씨롱 매롱 맴맴  
짧은 삶 한탄하듯  
처량한 울음소리  
내 맘도 슬퍼지네

정겨운 친구와  
새벽길 산책하다  
세상소리 나누며  
모닝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간다.



2016년 7월 중복(中伏) 날 아침

## 매미의 삶

철월의 막바지 무더위의 절정을 이루는 중복 날 아침 시도 때도없이 울어대는 매미의 애벌레인 굴뻡이는 구더기와 비슷하여 보기에는 징그럽고 더럽기 짝이 없지만, 동의보감에는 신장, 간장질환, 중풍, 당뇨병, 간암 등의 종합 치료제랍니다.

어릴 적 시골 초가집 지붕에 덮여 있던 짚단을 걷어낼 때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굴뻡이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고대로부터 한약재로 쓰여 왔는데 '제조'라고 부르다네요.

매미의 애벌레는 2~6주 만에 알에서 부화되어 짧게는 2~7년 길게는 13~17년 만에 성충이 되어 허물을 벗어내고 여름의 소프라노인 매미가 되는데, 이렇듯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겨우 하늘을 날며 노래를 부르게 된 매미는 아무것도 먹지않고 오직 맑은 이슬만 먹다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1~3주 만에 죽고 마는 삶! 매미의 삶도 울음소리도 슬프죠!!!

이런 매미에게도 5덕[德]이 있다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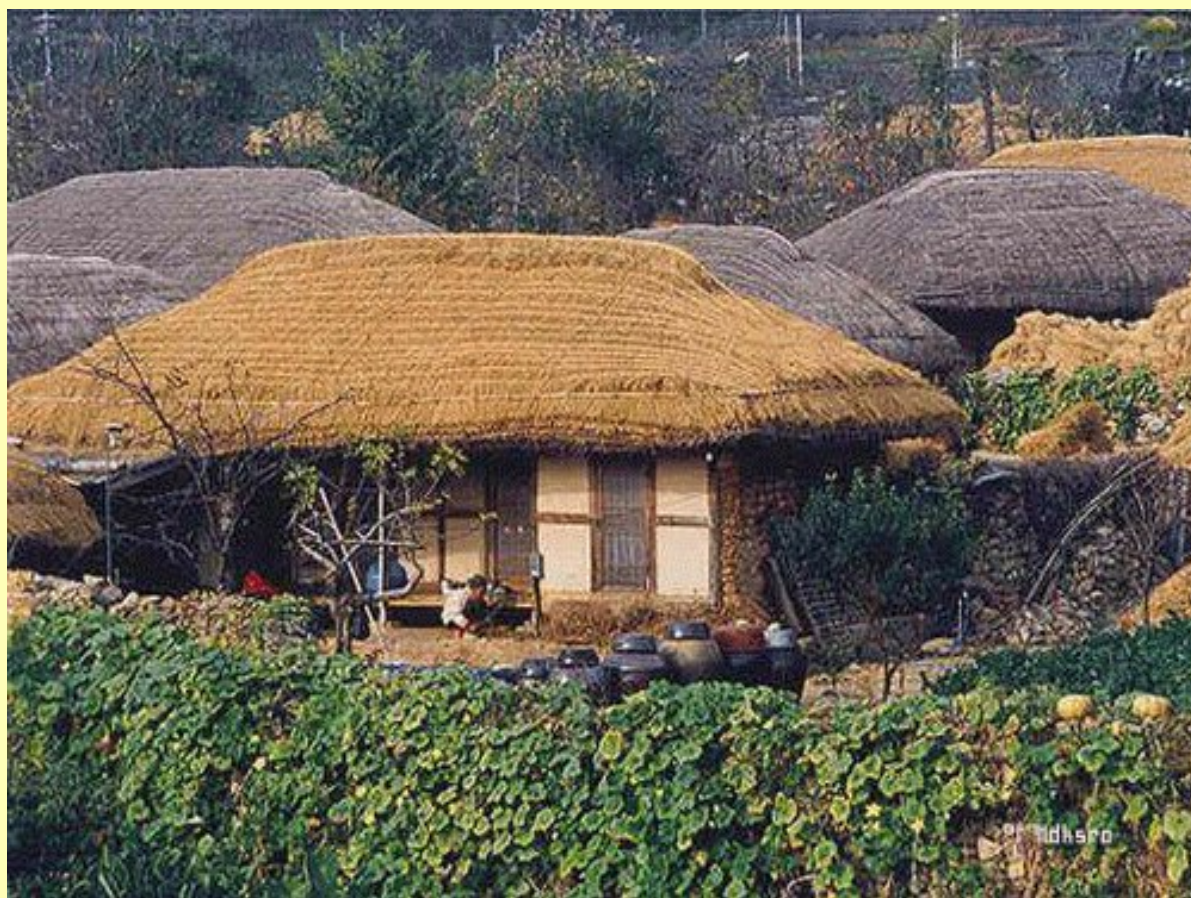
- 5 덕[德,]이란! 문[文], 청[淸], 겸[廉], 검[儉], 신[信]의 다섯 가지 덕인데,  
1, 문덕[文德]=매미의 머리 모양이 선비의 의관을 닮았다 하여 선비의 덕이라 하였고  
2, 청덕[淸德]=맑은 이슬만 먹고 사니 맑고 깨끗한 덕을 지녔으며  
3, 겸덕[謙德]=농부가 가꾼 채소와 곡식을 애벌레와 메뚜기 등의 곤충과 달리 해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추었고  
4, 검덕[儉德]=날짐승과 들짐승, 곤충 등 모든 생명체들이 살 집을 짓는 것과 달리 매미는 집을 짓지 않는 검소한 덕을 갖췄으며  
5, 신덕[信德]=철 맞추어 왔다가 가을이면 때를 보아 떠날 줄 아니 믿음을 갖추었다네요.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매미의 5덕을 닮았으면...늘~미소가득한 날 되소서~

♥昔暗 조현섭♥

쌌시봉=조개껍질 묶어







친구야 친구

석암 조현섭 |

너와 내가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땐  
꺼지지 않는 촛불 되어  
우리 곁을 밝혀주리라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깊은 냇물을 건널 때는  
다리가 되어 주는 그런 친구야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서로 감싸 줄 우리 친구!  
참 귀한 우정이며 재산인 걸

어릴 적 옛친구는 추억 많아 좋고  
지금의 친구(親舊)는  
먼 훗날 추억 만들어 좋다네.

친구(親舊)

친구(親舊)의 한자 구성을 보면 옛부터(옛舊) '친(친할親)'

나무(木) 위에 서서(立) 지켜봐(見)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로

다가와 주고 진정한 친구는 모두가 떠날 때

내게 오는 사람이라네요.

과연 나에게 그런 친구는 몇이나 될까!.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친구일까? !

더위와 장마가 찾아오는 여름에는 건강 꼭 챙기레이 라는

걱정해주며 우리 모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즐겁고 외로울 때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昔暗 조헌섭

영조 =얼굴 좀 보고 살자



◆내 고향 사계(四季)

◆내 고향

사계

《봄》

석암

조 헌 섭

봄이오면 앞

산

응봉산에 올

라

구비구비 휘

돌아

감도는 황강

을 바라보며

진달래꽃 따

다 먹고

빼비 뽑아 먹

던 시절!

엄마 품 같은

그윽한 봄꽃

향기 그림다.

## ◆내 고향

사계

《여름》

석암 조

헌 섭



여름이면 소

먹이며

밀사리 하고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보리 퍼다

참외 사다 먹

고

차디찬 웅덩

이

먹감으며

산새들의 하

모니에

콧노래도 불

러었지



줄거은 시험

## ◆내 고향

사계

《가을》

석암 조

헌 섭

높디높은  
가을 하늘엔

뭉게구름 떠  
들고  
땀 흘려 가꾼  
오곡

여물어가는  
황금빛 들녘

울긋불긋 감  
대추,  
셋 빨간 석류  
능금,

탐스럽게 익  
어가니  
농민 마음 풍  
요롭다.

#### ◆ 내 고향

사계  
《겨울》

석암 조

헌 섭

동지섣달 긴  
긴밤  
동네 제삿날  
이면

제삿밥 비벼  
먹었던 추억  
들...



2016년 신록의 오월

팽이치고 썰

매 타고

눈싸움하며

연 날리고

군고구마 먹

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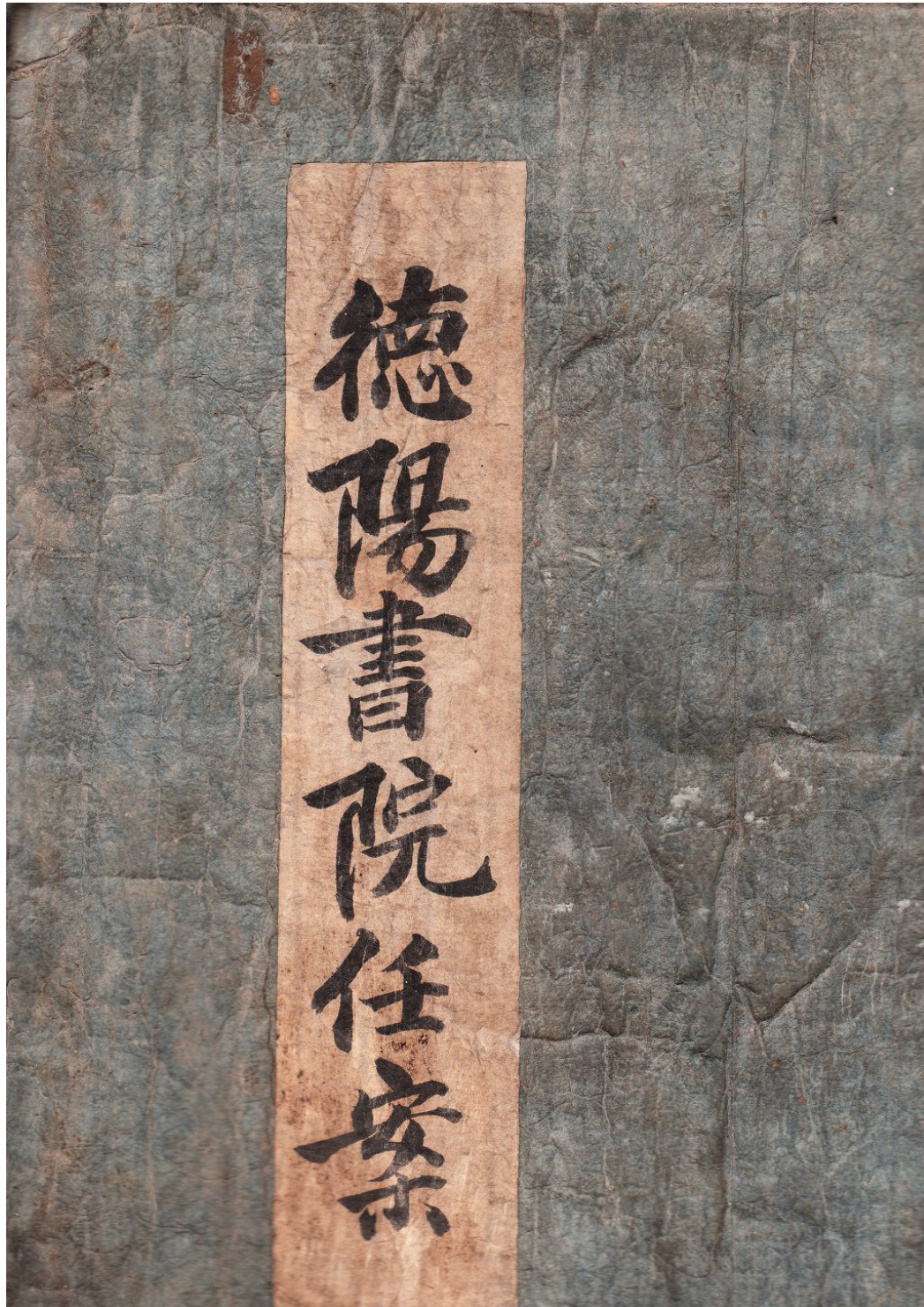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 고향의 추억

석암 조 현 섭

내 고향은 1524년부터 기거한 창녕 조(曹)가의 집성촌,  
남명선생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삼선현의 터전이라  
삼선현(정와, 봉곡, 정곡)의 행적 자손대대 빛이 되니



옛 덕양서원 1784년 초대 노론 원장님이 개원  
1868년 113대 전택립 원장 때 대원군이 금령훼찰  
미 사액서원으로 철폐 당한 덕양제 문화재로 등록됐네

500년 된 정자나무그늘은 동민의 휴식처,  
병풍처럼 펼쳐진 분대산, 해님이 응봉산 정기 받아  
인정 많고 예(禮) 지키는 삼선현의 후손이라네

길가다 인사하면 밥 물나 반갑게 맞아주던  
할배 할매, 아재 아지매, 형님 형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도 많지만, 고향 산천 변함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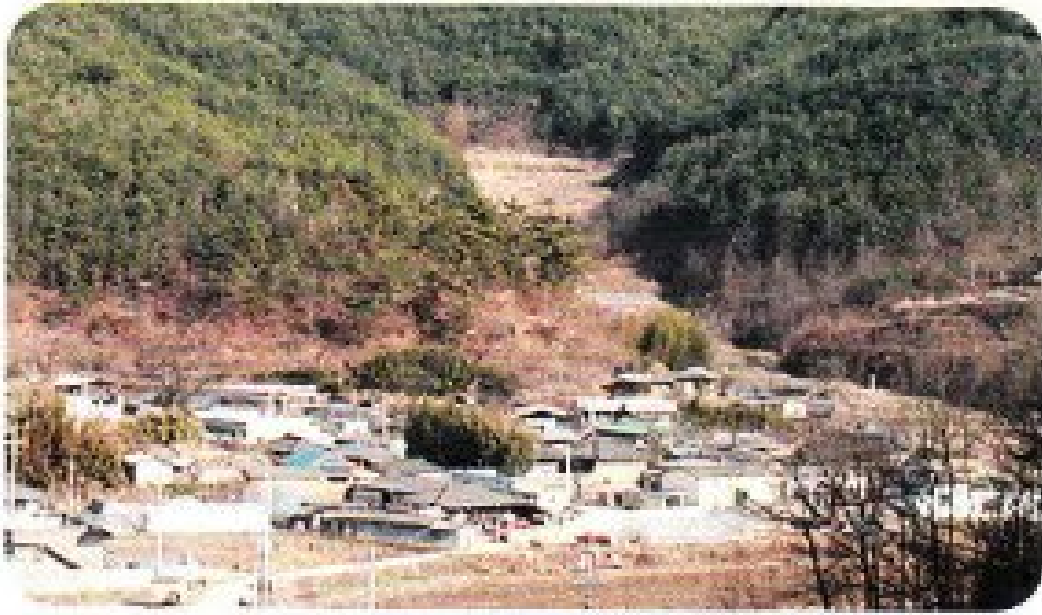
고향 떠난 지 어언 반 백 년 육십 중반을 지나  
고희(古稀)를 바라보니 문득문득 철부지 적  
고향 생각 옛 생각에 잠겨본다.

해마다 정월이면 농악으로 지신 밟고  
해인사로 진해로 밀양으로 창녕으로 방방곡곡  
축제장 전야제 농악 한마당 즐겼던 추억 아련하네.

2016년 신록의 오월



2000년 삼 선현께 제(祭)올리는 동민 모습



**내고향 = 경남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일부 (옛날 사진)**  
**끈땀-뒷골땀-숲골땀-장방골-서원땀-백정 2개 부락으로되어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겨울비는 측은해 보이지만  
나목엔 생명수라 좋은 걸...

사계절 내리는 비  
자연의 섭리인가

빗소리 장단 맞춰  
옛 시 한 수 읊어 볼까나~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앞산

석암 조현섭

새벽길 어둠 뚫고 곱창 골목 들고 돌아  
유서깊은 안일사 노천카페 커피 한 잔

그윽한 커피향에 사랑 담고 우정 담아  
앞산의 벚들은 내 마음을 부른다오.

갈참나무 노송잎은 바람결에 춤 추고  
다람쥐와 청솔모 양식 찾아 해메이고

산새들의 울음소리 사랑의 하모니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지지베베 끼룩 짹짹, 사랑 찾아 노닐구나.

정상에서 바라보는 팔공산과 비슬산,  
동쪽에는 금호강 서쪽에는 낙동강

굽이굽이 돌고 돌아 대구시민 감싸주는  
엄마 품 같은 앞산은 시민의 안식처라네.

‘대구의 앞산’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새 학기, 새 교복에 명찰 계급 다시 달아  
등 하곳길 악자지껄 하하 호호 웃음소리  
동네방네 사람 사는 동네 같은  
모두가 환한 얼굴 새봄 오니 참 좋구나!  
春 3月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마침길에 휘둘러도  
잠잠하면 반겨주는 예쁜 꽃

봄비 내린 호숫가에  
냇시꾼들 때만 난 듯,

옹기종기 모여앉아  
쌈주 한잔 걸치는 맛!

봄비 소리 장단에  
그대와 마시는 한잔의 커피

그 진한 사랑 향에  
애뜻한 그리움이 솟구친다.

봄비 내리는 날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봄 마중**

석암 조헌섭

왔구나! 왔어, 새봄이 왔네  
남녘에서 올라오는 봄 소식  
개구리와 꽃뱀, 달팽이들 기지개 켜고  
금 은빛 하얀 솜털 피어나는 버들강아지

따스한 햇볕 받아 생기 찾은 새 생명  
봄비 속에 뽀족뽀족 고개 내민 풀잎들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계절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탐스러운 매화 우윳빛 목련 하얀 매실 꽃에  
벌 나비도 덩달아 노닐며 춤추누나!  
영산홍과 라일락, 진달래, 개나리  
꽃망을 터뜨릴 채비하니

우리 동네 놀이터 봄꽃보다 더 환한  
개구쟁이 아이들 올망졸망 눈망을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고 신나게 노는구나!  
봄바람 사랑사랑 봄 맛이 가자꾸나...

2016년 3월 2일



정월 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달음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정월 대보름**  
**석암 조 현 섭**

대보름날 건(乾) 나물에 오곡 약밥  
明耳酒(귀밝이술) 한잔하다 보니  
지난날의 추억들...

농악으로 지신 밟아  
성주풀이로 액땜하고  
쥐불놀이 달집 태우는 세시풍속

앞산 만당 만월의 보름달  
휘영청 떠오르면 소박한 소원  
壽山福海, 家和萬事成을 빌어본다.

**정월 대보름날**



### ● 정월 대보름 약밥의 설화 ●

달구경 나온 신라 소지왕은 자신의 머리 위를 맴도는 까마귀를 이상하게 여겨  
신하에게 까마귀를 따라 가보라 하여 가보니 까마귀는 서출지 연못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신하는 신령을 만나 신령은 신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데

겉봉에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글이 씌어있어  
소지왕은 두 사람이 죽는다 하여 봉투를 열지 않으려 했으나 신하가  
"저기 적힌 한 사람은 폐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봉투를 뜯었더니 거기에는 거문고를 둔 갑을 활로 쏘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

소지왕은 왕비의 침전에 있는 거문고 갑을 활로 쏘았는데 갑 안에는 왕비와 정을 통하  
던 신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왕은 이 둘을 문초하니  
왕을 독살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나 처형했다네요.

이후 소지왕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까마귀의 몸 색과 같은 검은 밥,  
오곡 약밥을 지어 고마움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먹으면 액운을 막아 준다고 믿기 시작했고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과 액  
운을 막는 의미로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곡 약밥 드시고 액운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정월 보름 날

♥석암 조헌섭♥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우수(雨水)

석암 조 현 섭

겨울 지나 빗물(雨水)에  
얼음이 녹는다는 날  
칼바람 한파에 앙상한 가지만  
흔들리는 나목(裸木) 들

입춘지나 우수(雨水)에 이르나니  
한 송이 정갈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 인고(忍苦)에 몸부림치는  
산야의 초목들 싹 틔울 채비하네

땅 속엔 개구리, 뱀 기지개 펴고  
나뭇가지마다 움이 터  
애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이  
조금씩 조금씩 터져 나오려는 꽃망울

화무십일홍이라지만,  
고담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꽃구경 오는 손님 맞이하려는  
그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절로...

우수(雨水) 날 아침에...

# 雨水

우수

양력 2월 19일경, 음력 1월중, 태양의 황경이 330°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이다.  
이때 대동강 물이 풀리고 물고기가 올라오며,  
이처럼 우수가 되면 눈이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린다.



**우수 (雨水)** 입춘 후 15일 정도 지난 양력 2월 18~19일경 태양의 황경(黃經)이 330°.

겨울이 지나 눈은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날 우수,

이 때 쫓으면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이트고

우리 조상들은 우수가 되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겨울 찾은 기러기와 철새들 시베리아로 돌아갈 채비 하고,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하였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잘 자라다오.



## 설날 추억

### 석암 조 헌 섭

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  
 설날 아침 설빔 입고 세배하고  
 차례 지낸 음복 술에 세찬(歲饌) 먹고  
 떡국 먹고 나이도 먹는다.

설 덕담과 세뱃돈 받은 때가 엇그제 같건만,  
 덧없는 세월! 언제부터 인가  
 가족 친지, 재롱둥이 손자 손녀  
 세배받고 덕담하며 세뱃돈 주는 기쁨도 있네,

오순도순 가족들 모여 알콩달콩 사랑 나누고  
 선조님 산소 찾아 예 올리며  
 윷놀이하고 재기 차며 잣치기하고 팽과리 치며  
 지신 밟던 옛 추억이 생각난다.



가족 친지 만나 보려 민족의 대이동  
모천회귀하는 연어떼 같은 귀성객들  
정월 초하루 힘차게 솟아오른 태양처럼  
용이 승천하듯 큰 뜻 이루기를 소망해본다.

### 설날 아침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에는 올님 가정에 건강(健康)과  
행운(幸運)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福 福 福 많이 받으십시오. LOVE+  -





살다 보면 인생이란!

햇빛 뽕뽕 비치는 날

구름 덮고 가랑비 내리는 날

천둥 폭우 질풍노도 치는 날도 있듯,

좋은 추억 슬픈 추억 안고

정처 없이 흘러 흘러 떠나는 인생길

먼 훗날 아름다운 한 조각 추억들~

희망 안고 있음은 축복이 아닌가!

인생길 끝자락 서산으로 해 넘어갈 즈음

인생길 뉘엿뉘엿 뒤편길로

인생무상(人生無常)하다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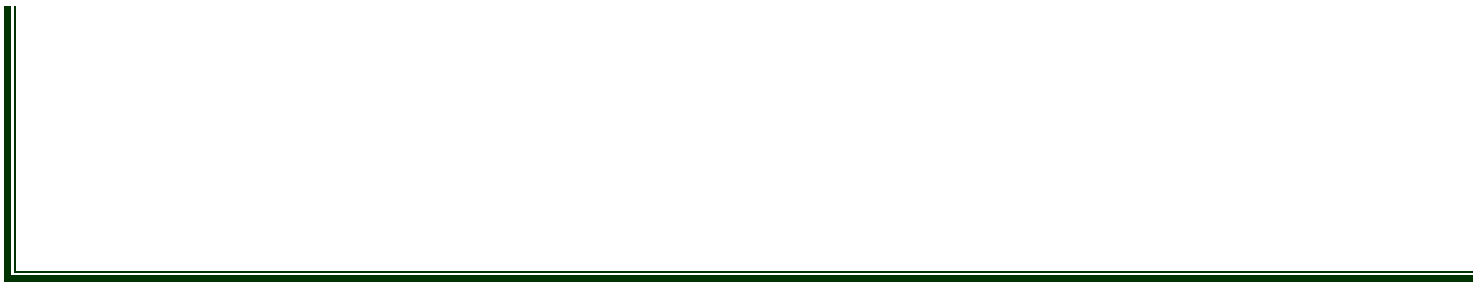
남은 여생 후회없이 살기를 소망해본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통하무 - 통기타 - 눈이 내리네 k-pop



## 겨울 추억

석암 조현섭

엄동설한에 피는 꽃  
노송 가지마다 하얗게 핀 눈꽃  
온누리가 설화(雪花)같네

혹한의 민초들 살을 에는 듯,  
엄습하는 강추위!  
손발이 터질듯한 엄동설한 계동(季冬)이라!

추위야 물러가라  
송곳 찌고 썰매 타고  
맨손으로 눈싸움하던 시절

소죽 솥에 물 끓여  
거북 등 같은 손과 발  
까슬 까슬한, 돌멩이로 때 밀고  
군고구마 구워먹든 그 시절이 생각난다.

해인사 겨우살이 초록잎을 자랑하고  
강인한 인내심 버터내는 야생 난초  
측은하고 안쓰럽다.

삼라만상 변화무상 이리도 무한한가!  
소han과 대한 사이 기승부린 맹추위  
소han 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잡놈 없다지!

입춘이 다가오니 제월광풍 오려는가...

2016년 1월 21일 대한 날 아침에...

## 가는 해 오는 해

석암 조현섭

가는 해는 미련과 추억이 남아 있고  
오는 해는 꿈에 부풀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궁리를 해본다.

사계절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건만  
우리네 인생사 어찌하여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가?

가는 해든 오는 해든 무엇을 탓하랴!  
우주(宇宙)는 가고 옴이 없이  
제자리에 있건만

세월은 속절없이 허공 속으로  
쉬지 않고 흘러~흘러~ 흘러가  
머리카락 파 뿌리 되어 나잇살만 늘어나고

가는 해 붙잡을 수 없으니 갈무리 잘하고  
오는 해 막을 수 없나니  
허망한 꿈 탄식 말고 현재에 충실하여  
숫구치는 햇살처럼 따사롭게 살자꾸나.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에는 황금돼지 해라 하니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굴러들어 올 듯한 느낌!!! ~  
실제로 2019년이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에는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출발하여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길 바라며~  
모든 소망 이루는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昔暗 조 현 섭 拜上♥





## 내사랑 그대 곁에

석암 조현섭

내 가슴속에  
잠들고 있는 당신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대 내 사랑

사랑이란 한번 뺏어지면  
잊을 수도 사라 지지도 않는  
고귀한 선물이라지!

나애겐 단 하루도 당신을 잊고



사는 날이 없을 만큼  
소중한 동반자인 당신!

늘~베풀기를 좋아하는  
정 많은 당신  
우리 사랑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내 가슴엔 오직 당신만 있고  
내 머리는 오직 당신만 기억하여  
내 마음엔 곱디고운 당신 심성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어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2015년 11월 29일 휴일 아침 淸暗



어니언스=사랑의 진실

“한가위 [秋夕]”

석암 조 헌 섭

휘영청 밝은 달아  
중천[中天]에 떠오른  
만월의 풍성한 둥근달  
한가위 날 보름달아.

못난 아들  
효도[孝道]는커녕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반백 년 전 떠나가신 선친님

재롱둥이 손자 손녀  
안아보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신 선비님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네.

오늘같이 좋은 날  
형제 자매, 사촌 오촌,  
서로 만나 어우러져

하하 호호 웃음보 터졌으니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참 좋은 날 한가위

집안엔 신바람 이

보름달처럼 뜨락이 흰하네

오랜만에 만난 혈육[血肉]

자식사랑, 손주사랑

앞뒤를 둘러봐도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어화등등 좋구나, 한가위가 좋구나.

●세월[歲月]이 유수[流水]와 같아 어느덧 저의 선친[62세 때]  
저세상으로 가신지가 1965년 어언 50여 년 전,  
선비[72세]님은 1979년 37년 전, 효도[孝道] 한 번 못한 철부지시절  
후회한들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라,  
아무 소용없네.

지금은 손자 손녀 재롱[才弄] 속에 장모[90세]님의 사랑받고  
함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나 기일이나 명절이면  
부모님 생전 생각에 잠시 잠겨도 보지만 덧없고 허무한 세월이어라!

秋夕 日 夜

부산 장조카 집에서 석암 조 현 섭

“초, 가을”

석암 조헌섭

땀 흘려 가꾼 오곡  
익어가는 초가을 날,  
풍성하게 여물은 황금빛 들녘

울긋불긋 감 대추  
셋 빨간 석류능금  
시기하듯 탐스럽게 익어가고

산에는 구절초 들엔 들국화  
스치는 갈바람에 시샘이나 하 듯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바라보고 웃음짓네

가을 마중 오는  
기러기는 끼룩끼룩 액 액  
뭉게구름 타고 두둥실 노래하고

벌 나비는 국화꽃, 잠자리는 코스모스  
신바람, 갈바람에 노닐며 춤추누나  
시원한 솔바람에 내 마음 설레네.

(秋)



## ‘처서(處暑)’

석암 조헌섭

오늘은 처서 날!

땅에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



이른 새벽 앞산 등산(登山) 길

시도때도 없이 울고 있는 매미들의 울음소리

이젠 마지막 발악(發惡)을 하는 듯,

귀뚜라미 소리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새벽잠도 못 자고 울어대는

처량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등산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듯

산야(山野)의 등성이 넘나 들어

귀뚜라미 가을 소리 갈바람 타고 오려나.

‘처서(處暑) 날 아침에’

처서가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처서와 연관된 속담으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다.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파리, 모기의 극성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가 전해진다.

또한,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순행을 드러내는 절기다.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處暑雨)’라고 하는데 선조들은 처서비를 가리켜 ‘처서비십리에 천석 감한다’라고 하거나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의 든 쌀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처서에 비가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처서의 날씨도 맑고 쾌청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昔暗 조 헌 섭



7080=가을노래

//

22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두류공원★

♡석암 조헌섭♡

동내 어귀 돌고 돌아 두류공원 돌아보니  
말매미, 애매미, 참매미 삼총사들  
소프라노 음악처럼 즐겁게 들리는데,

까막까치, 어치의 삼총사도

정겹게 사랑 노래 부르면,  
길옆 숲 속엔 풀벌레들 장단 맞춰 춤추는 듯  
바람 따라 나뭇잎도 나부끼며 춤추누나!.

온몸엔 땀 방울 삼복더위라던가!  
빗물인지 땀 물인지 뒤범벅이 되었지만  
돌아와 샤워하니 기분은 날아갈 듯...

팔월 삼복을 맞이하여...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자작 詩 를 올려 봅니다. 석암 조현섭

\*어느덧 마감되는 2월 날씨가 따뜻해져 이것저것 형편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등산복 한 벌 사고 나니 등산화도 사고 싶고 모자도 사고 싶은 마음  
하나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상품과 연관된 제품을 연속으로 구매하게 되는 현상

‘디드로 효과’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가 서재용 가구를 선물 받은 뒤  
옷에 맞춰 책상 등 서재 전체의 가구를 교체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말이라나...

옛말에 기마욕솔노(驥馬欲率奴)‘라 하여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하였고,  
득농망촉(得籠望蜀)이라 하여 ‘농 나라를 얻으면 촉 나라까지 바란다.’ 라고 하였고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베개 생각나지요.

나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1차 한잔하고 나면 2차 3차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단잠 자는 것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인생인 걸 어쩔담!!  
블벗님 떠나는 이월 내년을 기약하며 춘삼월 호시절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70228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특검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역대 특검 중 제일 많은  
구속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든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네요.  
우리 모두 하시는 일도 항상 즐기며 하시길 바라면서...  
2월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70227

\*참 좋은 휴일 블벗님! 예전엔 부인의 칠거지악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칠거지악이 생겼다네요.  
1.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으나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라네,  
 2.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할 권리가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네,  
 3.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이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쫓을 수 있다네.  
 4.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했으나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위자료 같은 건 주지 않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하네.  
 5.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 시에는  
 군말 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네요.  
 6.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보는 그런 남편은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네.  
 7.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며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네요.♥석암 조현섭♥

170226

\*2월 끝자락 주말이네요. 조화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 탁월한 인재라는데, 손재주꾼'으로  
 알려진 브리콜레르는 보잘것없는 재료로 쓸 만한 집 한 채를 거뜬히 지어내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의 능력을 융합시킴으로써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던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떠올려 높은 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가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탁월한 인재는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본받았으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할까? 마중지붕((麻中之蓬)이라, 구부러져 자라게 마련인 썩도  
 삼밭에서 자라면 곳곳하게 자라듯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좋은성품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부모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올곧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젠 더 이상 인류 도덕에  
 어긋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불벗님 알찬 주말 되십시오.♥석암 조현섭♥

170225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을 가진 말이 도무지라  
 쓰는데. 이 도무지는 도모지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순우리말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한자어에서 온 말인데. 구한말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나라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학자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엄격한  
 가정의 윤리 도덕을 어그러뜨렸을 때 그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자식에게  
 비밀리에 내렸던 도모지(塗貌紙)라는 개인형벌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도모지 사형이란 글자 그대로 얼굴에 종이를 바른다는 뜻에서 생긴 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부도덕한 짓을 자식이 저질렀을 때 아버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자식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물을 뿜은 창호지를 얼굴에 몇 겹이고  
 착착 발라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종이에 물기가

말라 감에 따라 서서히 숨조차 쉬지 못하게 되어 죽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다나.

현 사회의 흉악범이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범은 도모지 형벌은 좀 심할랑가...

블벗님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조현섭♥

170224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도둑놈은 춘추전국시대의 도척(盜跖),**  
**도척은 모질고 악한 성질이 포악해 날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며**  
**사람의 간을 생으로 먹고 재물을 약탈하였고 수천의 부하를 두고 천하를**  
**횡행하고 여러 나라를 뒤흔들었고 그의 부하들은 도척의 신의를 절대적으로 믿었지.**

갈고리 단추를 훔친 자는 처형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는 말도 있듯,  
이러다간 도척과 같은 나라를 뒤흔든 자가 나을까 걱정이네요.

악한 자들을 소탕하고 참 좋은 세상, 살맛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오늘도 블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70223

**\*블벗님 잘 계시지요. 떼놈(되놈)의 유래를 보면 두만강 근처에 살던 민족(여진족,만주족)**  
**이름으로 돌이-도리-도이- 되'로 변화되었다고 하며 되놈은 북쪽 사람을 의미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되놈이라 비하하여 부르는 까닭은 병자호란으로 되놈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침략했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족(漢族)이 쳐들어왔던 것으로  
오해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두고 싸잡아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은데,

일설에는 미아리고개도 병자호란 때 쳐들어왔던 만주족 되놈(胡人)이 넘어 돌아간  
고개라 하여 되놈이 고개라고 부르기도 하며 한자로 적유령(狄逾嶺)이라 하였다네요.

6, 25 전쟁 당시 인민군과 한국군의 교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많은  
애국지사를 끌고 간 곳으로 가족들의 애끓는 이별의 장소가 되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생겨난 곳이며 되너미를 한자로 옮기면서 돈암동(敦岩洞)으로 불렀다네요.

어쨌든 그 되놈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니 경계하고 또 경계할 진저...

다시는 이 땅에 6. 25와 같은 전쟁 없이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리면 좋으랴만...♥昔暗 조현섭♥

17022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마음이 맑으면 얼굴도 맑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검어지리라.

친하게 지내던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원한이 있다면

맑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면 마음이 편할 듯싶네요.

속절없는 세월은 내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그 용서의 시간마저도 빼앗아 가버릴 것이니...

블벗님께서 곱게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70221

\*블벗님 2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었네요. 제궤어혈(堤潰蟻穴)이란!

한비자(韓非子) 유노(喻老)에 나오는데, 천 길이나 되는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큰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제궤의혈’의 뜻을 되새겨보았으면...

한 여자의 국가 농단 사건에 어설픈 대응한 일이 큰 재앙을 불러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 개조를 하듯 사분오열된 생각들을 한 곳으로 깔끔히 담아낼 수

있도록 난마처럼 얹혀 있는 이 세사를 궤도해 단디해줬으면...

작은 일부터 주의해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이 적을 때 미리 처리하면 적은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참 좋은 한 주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70220

\*블벗님! 반갑습니다. 백아절연은 거문고를 잘 뜯는 유백아를 스승인 성연자가 태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우주의 장관을 보여 주고 봉래 해안의 거센 비바람과 휘몰아치는 도도한 파도를 보여 주어 바다와 비바람 소리도 들려주면서 음악을 가르쳐 백아는 스승의 이러한 지도로써 비로소 대자연이 어울려 화합하는 음성과 신비하고 무궁한 조화된 자연의 음악을 터득

위대한 금곡인 천풍조와 수성조를 완성하여 백아에게는 입신출세의 길이 열려 진나라에서 봉작을 받기도 했으나 백아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음악의 진경을 터득케 해준 스승인 성연자를 찾아갔으나 돌아가시고 고금일장만 유언으로 남아 있어 백아는 상심하여 뱃전에 걸터앉아 탄식어린 거문고 한 곡을 탄주하였는데,

종자기라는 나무꾼이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감상해 주는것에 놀라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만난 것, 유백아와 종자기는 다음 해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종자기는 그만 병들어 죽고 없어 백아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종자기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을 하며 칼을 들어 그의 거문고 줄을 끊어버려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거문고를 뜯어 무엇하느냐고 백아는 슬퍼했다는”백아절연“의 이야기. 참 좋은 휴일 날 되십시오. ♥昔暗 조현섭♥

170219

\*안녕하세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게 되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날  
대구에는 봄을 시샘하는 반짝 추위가 극성을 부리네요.

이때쯤이면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에 초목이 싹이 트고  
우리 조상들은 우수가 되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또 기러기가 시베리아로 찾아가고, "우수 경칩이 되면 우주 만물이 소생한다." 하였으니  
종구나~ 봄이 찾아와 참 좋은 시절이 오겠지요. 불벗님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70218

\*불벗님! 안녕하세요. 또 한 주를 마감해야 할 불금이네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통해 타인을 섬기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신이 내린 사명감이라는 데,

돈을 벌기 위해 요리사가 되어 품을 잡거나 수단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요리사로서의 명예를 얻는 대신 언젠가는 뒤집어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세상의 모든 일 예술을 하든, 정치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자신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하니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잘 꾸며놓은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70217

\*불벗님!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정신 건강이 완벽하고 과거를 한탄하지 않으며 미래의 걱정도 않는다네요.

UN이 발표한 2016년 행복 지수 순위를 보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순... 사회 보장 제도와 사회적  
계층 간 국민소득 불평등 해소의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둔 선진국들이라는 공통점...

한국이 OECD 34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보다 뒤쳐진 58위인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끼리끼리 자기를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OECD 국가 중,

12년 연속 자살률 1위, 산업재해 1위, 노인 빈곤율 1위, 이혼율 1위, 국가채무증가율 1위,  
결핵 환자1위, 빈부 격차1위, 사회갈등1위 노령연금 공지 삶의 만족도 공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한 행태들 때문에 헬조선(지옥같은 한국)이란 신조어가 생긴 듯,♥昔暗 조현섭♥

170216

\*좋은 아침! 불벗님! 입춘 추위는 꺾다 해도 한다 드니 올 입춘은 김칫독, 오줌독 얼어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추웠지요. 이제 우수, 경칩 다가오니 개구리 기지에 펴고 꽃피고 새 울며, 봄 꽃 예쁘게 꽃단장하고 오는 새봄을 즐겁게 맞이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네요.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인이 미운 남편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며, 남편이 미운 부인은 교만하기 때문이라 하니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사랑도, 헌신도, 희망도 없고 일상의 삶에서  
나를 낮추어야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네요.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70215

\*불벗님 어느덧 2월도 반달을 지나가네요. 오복이란 것은 “첫째는 수명, 둘째 부유함, 셋째 편안함, 넷째 훌륭한 덕이고 다섯째 평안하게 제명에 죽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 즉 천수복(天壽福)으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과 건강하게 선행과 덕을 쌓으며 살다가 편안히 죽는 일이라. 참으로 바라고 바라는 일이 아닌감?  
혹자는 노년기에 신 오복을 건(健), 처(妻), 재(財), 사(事), 우(友)라 하여 건강하면서 배우자와 남에게 빌리지 않을 만큼의 재물과 일거리,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이니, 어쨌거나 올해는 황금박쥐 꿈이나 잘 꾸어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하여 먼 훗날 고종명(考終命)하시길 바라면서~ 고운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70214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보공(寶公)이 말하기를  
무지인전막설(無智人前莫說)=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  
타이색신성살(打爾色身星散)=그대의 몸을 두들겨 패서 산산이 흩어지게 할 것,  
“지혜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지혜인 듯,

정치인들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또는 세상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건을  
무심코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평소에는 엄청 친하게 지내던 친척이나 친구, 가족 관계에도 견해 차이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급기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일...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말을 잃어버리고

그 말을 해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지요.  
우리 모두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말과 정치적인 말을 내 말이 옳다고  
고집하면 친한 이도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갔으면...♥석암 조현섭♥  
170213

**\*불벗님! 정월 대보름 휘영청 보름달에 소원을 빌며 오곡밥에 명이주 한잔 드셨는지요.  
버튼의 책 속에 사람이 우홀해지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커다란 원인이라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며  
사악함의 온상이고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는 것,**

**한 의사의 말에 병을 낫게 하려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한가로운 시간이라 하였다네요.**

**사도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 모두 무슨 일이든 좋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昔暗 조현섭♥**

**\*대보름날 아침**

**매서운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곡밥, 귀밝이술. 부럼, 아홉 가지 나물**

**많이 드시고 1년 내내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팔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액운을 없애기 위해**

**지신밟기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생각들 많이 나시죠?**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그 시절 나름대로 정겹고 즐거웠던 것 같네요.**

**불벗님 보름달처럼 밝찬 사랑과 행복 가득하시고 바라는 소망 꼭 이루소서...♥昔暗 조현섭♥**

**170211**

**\*불벗님! 정월 대보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이춡네요. 정월 대보름 약밥의 일화에는  
달구경 나온 신라 소지왕은 자신의 머리 위를 땀도는 까마귀를 이상하게 여겨 신하에게  
까마귀를 따라 가보라 하여 가보니 까마귀는 서출지 연못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신하는 신령을 만났는데 신령은 신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데 걸봉에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글이 씌어있어**

**소지왕은 두 사람이 죽는다 하여 봉투를 열지 않으려 했으나 신하가  
"저기 적힌 한 사람은 폐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봉투를 뜯었더니  
거기에는 거문고를 둔 갑을 활로 쏘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 소지왕은 왕비의 침전에 있는**

거문고 갑을 활로 쏘았는데 갑 안에는 왕비와 정을 통하던 신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왕은 이 둘을 문초하니 왕을 독살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나 처형했다네요.

이후 소지왕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까마귀의 몸 색과 같은 검은 밥, 오곡 약밥을 지어  
고마움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먹으면  
액운을 막아 준다고 믿기 시작했고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과 액운을 막는 의미로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먹게 되었다네요. 넬 오곡 약밥 드시고 액운 소멸하시길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70210

\*불벗님 부족한 저의 불방을 찾아 저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축원의 덕담과 안부의 글 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오늘날에는 교통의 발달로 지역별 속민의 품성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옛 기질은 조금씩 남아 있는 듯하지만,

이제는 외국 거주인이 거의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니 글로벌 시대로  
단일 혈통의 백의민족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인가!?

아무튼 무위자연(無爲自然) 속에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  
우리 모두 무병장수하시길 바라면서...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70209

\*중진님 참 좋은 아침!!! 장자(莊子)의 고분이가(鼓盆而歌)에 보면,  
장자가 여름날 아내와 산길을 가는데 소복 입은 젊은 여인이 무덤에 부채질하고 있었는데  
이유인즉 남편이 죽기 전 내가 죽으면 무덤에 풀이나 마르거든 개가하라고 유언하여  
그렇게 되려면 울여름도 그냥 보내야 하기에 풀을 빨리 말리기 위해 부채질을 한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장자의 아내는 분개하며 자신은 절대 개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장자의 아내는 소복을 입고 풀을 부채질하는 여인보다도 지조가 없어 장자가 죽은 상중에  
조문 온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가 장자가 살아나 처는 부끄러워 물동이를  
뒤집어쓰고 마당가 우물에 빠져 죽자 혜자(惠子)가 조문을 와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상처(傷處)를 뜻하는 고분지통 또는 고분지탄(叩盆之嘆)이 나왔다고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 미소 가득한 날 되십시오. ~ ♥석암 조현섭♥  
170208

\*불벗님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내일 또 내일 하세 하니 내일이 어찌 이리도 많을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만 가지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니...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보고 갑니다. ~ ♥석암 조현섭♥

170207

\*블벗님! 2월 첫 주일 잘 지내셨지요. 저는 순천 송광사에서 고운 추억 남기고 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 보람차고 알차게 열어 가시길 바라면서--- 당나라 시인 설도(薛濤)가 지은

"춘망사"라는 한시를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金億)이 우리말로 옮긴 것을 댓글로 올려봅니다.

♥춘망사(春望詞)♥

화개 불동상[花開 不同賞]--꽃 피어도 함께 바라볼 수 없고

화락 불동비[花落 不同悲]--꽃이 저도 함께 슬퍼할 수 없네

욕문 상사처[欲問 相思處]--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나

화개 화락시[花開 花落時]--꽃 피고 꽃이 지는 때에 있다네

남초 결동심[攬草 結同心]--풀 뜯어 동심결로 매듭을 지어

장이 유지음[將以 遺知音]--님에게 보내려 마음먹다가

춘수 정단절[春愁 正斷絕]--그리워 타는 마음이 잦아질 때에

춘조 부애음[春鳥 復哀吟]--봄 새가 다시 와 애달피 우네

풍화 일장로[風花 日將老]--바람에 꽃잎은 날로 시들고

가기 유묘묘[佳期 猶渺渺]--아름다운 기약 아직 아득한데

불결 동심인[不結 同心人]--한마음 그대와 맺지 못하고

공결 동심초[空結 同心草]--공연히 동심초만 맺고 있다네

나감 화만지[那堪 花滿枝]--어찌나 가지 가득 피어난 저 꽃

번작 량상사[翻作 兩相思]--날리어 그리움으로 변하는 것을

옥저 수조경[玉箸 垂朝鏡]--거울에 옥 같은 두 줄기 눈물

춘풍 지불지[春風 知不知]--봄바람아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석암 조현섭★

170206

\*새로운 달 2월 첫 휴일

대구엔 봄비가 내리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쓰는 것도 오가는 정에 좋은 말과  
고운 글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나쁜 행동을  
멀리하고 좋은 행동은 가정과 국가의 평화에 밑거름이  
되어 건강하고 평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더덕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昔暗 조현섭 ♥

\*참 좋은 입춘 날 아침! 예로부터 입춘날 대문이나 기둥에 써붙이는 춘련에는  
壽如山 富如海==몸은 산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며 마음은 바다처럼 넉넉하게 부유하고  
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부모는 천 년을 장수하시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며,  
掃地黃金出 開門百福來==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去千災 來百福==온갖 재앙은 가고 모든 복은 들어오며,  
災從春雪消 福逐夏雲興==재난은 봄눈처럼 사라지고 행복은 여름 구름처럼 일어나며,  
立春大吉 建陽多慶==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옵소서---  
춘련의 뜻을 불벗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오며 드립니다. ♥석암 조현섭♥  
170204

\*입춘 전날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서민들의 장사가 꿈꿨던 얼어붙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네요.  
내가 올바르게 잘살고 있다고 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단죄해서는 안될 듯~  
남의 단점은 태산처럼 보이고 나의 단점은 티끌처럼 보인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 남의 약점도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며 나의 선함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면서 살아갔으면...불벗님의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70203

\*불벗님! 오늘이 2월 2일 둘,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네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며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요인도 되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 싹틔워 자란 식물은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보다  
그 힘이 강한 것은 온갖 역경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기 때문일 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듯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의 고통을 견디어 낸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기에“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했대지요.  
요즈음 크고 작은 인간말종 사건들을 보면서 우선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식을 나태하게 만들어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닐는지?  
오늘도 참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즐감해봅니다. ♥昔暗 조현섭♥

170202

\*1월 한 달도 신정 구정 쉬고 나니 어느덧 2월~~~

쌀쌀하던 어제와 달리 대구의 오늘 아침에는 포근하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만 하려 할 뿐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듯,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벽이 두터워지는 것은 아닐는지!

상대방의 말을 참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일 듯...

블벗님 2월 한 달도 웃음과 기쁨, 사랑 가득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 조현섭♥

170201

\*설 연휴 잘 지내셨지요. 저도 부산, 합천으로 좋은 추억 남기고 일상의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환경이 안정되어 평안하고 풍족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태한 청어들이 천적인 송어에게 잡혀 먹히듯이  
편안한 생활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파멸로 가는 것은 아닐는지?  
경쟁자는 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듯.  
“사람의 몸도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뇌도 가만두면 녹슬어”  
못쓰게 되니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여 건강하고 현명하게 살았으면...  
불벗님께서 곱게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31

\*불벗님 설 연휴 끝자락 애주가들이 좋아 할듯한 이백 님의 옛 시 독작을 올려 봅니다 .  
독 작(獨酌) 이백 詩  
天若不愛酒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악불애주  
酒星不在天 하늘에는 주성이 없었을 것이고,  
주성불재천  
地藥不愛酒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약불애주  
地應無酒泉 땅엔 응당 주천이 없었으려다,  
지응무주천  
天地既愛酒 하늘과 땅이 술을 사랑한 터에,  
천지기애주  
愛酒不憚天 술사랑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애주불괴천  
하지만 술이란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면 보약이요, 과하면 독약 명심하시길...♡애주가 曹憲燮♡  
170130

\*똑똑, 똑, 방가 방가 러브  
설 세배 굿신 굿신 굿신을드립니다.

새해에는 國泰民安 家給人足 하고  
불벗님 가정에 歲在丁酉萬事如意亨通하십시오.~ ♥석암 조 현 섭♥

170129

**\*설날**

**\*빋길 안전운전 바라면서~ 설날 새벽에 가장 먼저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해에는  
운수대통 한다네요. 설 연휴 나흘 동안 꽃 같은 좋은 향기를 심어 보십시오.  
꽃의 향기는 십 리를 가고 여인의 향기는 천 리를 간답니다.**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마세요.  
여자의 한이 오뉴월에 서리 내리면 남자의 한은 칠 팔월에 함박눈이 오지요.  
내 몸이 도끼 되고 네 말이 비수 되어 한 맺고 원수 맺어 죽어 다시 만난 곳이 부부 자식으로  
만난다고 하오니  
어떤 일이든 비관적인 말은 하지 말고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좋아 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등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 훗날 좋은 일만 있었으면---  
블벗님 설 잘 보내시고 福, 福, 福 듬뿍 받으십시오~♥석암 조현섭♥  
170127**

**\*오늘 오후부터 민족 대 이동이 시작되겠네요. 고유의 설 명절 복잡한 귀성길 안전 운전하시고  
소중한 일가친척 가족들과 행복하게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고향에 정 듬뿍 가득 담은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블벗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암 조현섭♥  
170126**

**\*블벗님 설날도 코앞에 다가와 바쁘시지요.  
2016년 석암 조현섭 블로그 결산 상위 1%의 넘사벽 신 블로그로 선정되어 기쁘네요.**

**밥은 굵은 사람이 많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으며,  
술은 취한 사람이 많이 먹고 쌀은 새 가마니보다 헌 가마니에 많이 든다지요.**

**우리 모두 무엇이든 많은 경험을 쌓아 나쁜 경험은 버리고 좋은 경험 쌓아 갔으면...  
오늘도 정성 들려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25**

**\*설 세밑 날씨가 춥네요. 못된 인간을 비판한 국선 유학 작가 안국선님 사람을 금수에 비교한 글은  
까마귀=어미에게 먹이를 먹여 봉양하는데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 하는 자는 까마귀보다 못하고  
여우=외세에 의존하여 동포를 압박하는 모습은 여우보다 못하며**

**개구리=우물 속 개구리가 바닷속을 논한다. 외국 형편을 모르고, 천하 대체를 살피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며 잘난 척 하는 인간들...  
벌=꿀은 양식이요, 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나, 인간의 말은 타락하기 끝이 없어**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이 되었고,  
게=창자가 없으니 지조와 절개가 없다 뭐라 하지만, 인간은 창자가 있으나 다 씹어  
지조와 절개가 없어 외세에 의존한다나...

파리=이익을 위하여 악착같이 여기저기 왕래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빗대어 하는 말이고  
호랑이=호랑이같이 무서운 정치 인간의 흥포, 잔인함 포악한 정치와 폭력을 비판하며  
원앙=쌍쌍이 들락거린다. 불건전한 남녀관계 음란한 인간의 성품을 비판 한다니...

동물들의 눈에 비친 인간들의 저급한 모양이 어디 이 뿐이라! 동물과 인간의 본능은 동일할 진데  
탈을 쓴 모양은 천양지차 일 듯. 불벗님 설 차례 준비 잘 하십시오. ♥석암 조현섭♥

170124

\*휴일 잘

지내셨지요

앞산서 내려오니

세밑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 이라!

사슴을 쫓는 사람은 좋은 산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였지요.

우리 모두 쉬엄쉬엄 산 구경 물 구경 두루두루 좋은 추억 남기며 살아갔으면...

불벗님! 구정 세밑 한 주 힘차게 열어가시길 바라면서~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23

\*대구에도 모처럼 하얀 눈이 1cm정도 내렸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과 학교, 사회 구성원 간에 많은 갈등과 부조화를 겪고 있는 듯,~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얘기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되지 않아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며~

왕따니 학교 폭력으로 피어나지도 않은 일부 청소년들이 난폭하고 타락해  
가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불벗님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석암 조현섭♥

170122

\*앞산서 내려오니 엄청 춥네요. 조조가 문인이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바 그의 시 중  
절창으로 꼽히는 단가행의 첫 구절은 '對酒當歌-술을 마주했으면 노래가 나와야지  
옛 중국인들 술을 앞에 놓으면 멋들어지게 노래 한 가락 뽑는 게 기본이었다네요.  
그 중국인 뺨치는 음주 가무족이 한국인 60대 이상이면 다 알 것 같은데,  
그 시절 술자리의 꽃은 노래였지, 무조건 노래를 시키는데 예외는 없었고  
△△동내의 명가수 △△△님을 소개합니다. 노래 하나는 끝내줍니다.쿵짝락 쿵짝~

”점잖게 해서 안 되면 “노래야 나오너라. 쿵따라쿵닥.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 따라 쿵다.  
 엽~전 열~ 닷~냥.” 그래도 버티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아~미운 사람.  
 장가를 가도 애를 못 낳아요. 아 ~ 미운 사람. 애를 낳아도 XX를 낳아요. 아~ 미운 사람.  
 ”나을 때까지 노래가 반복되는 건 기본이지요.  
 불벗님 적당히 술도 한 잔 하시고 음악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가소서~♥昔暗 曹憲燮♥  
 170121

\*산더덕님  
 반갑습니다,  
 소한이 대한  
 집에 몸 녹이러  
 온다는 대한이네요.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음을 인간만사 새옹지마라지요.  
 세상의 일도 돌고 돌아 곧 다가올 따뜻한 봄처럼 현 세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보고 갑니다.♥昔暗 조헌섭♥  
 170120

\*불벗님 반갑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은 치유한다.”라고 했는데,  
 자연은 각종 약의 생산원료가 되는 보물 창고라. 우리 모두 잘 가꾸어야겠습니다.  
 모든 처방한 약의 25%는 식물에서, 13%는 미생물에서, 3%로는 동물에서 유래한다는데,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푸른곰팡이에서, 혈전용해제인 히루딘은 거머리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얻으며 은행은 잎에서 징코민, 기넥신 등 약의 재료로 쓰이며  
 은행 열매를 하루 5개 정도 먹으면 정력 강화, 천식, 고혈압, 면역력 강화 등에 좋고

나비, 딱정벌레, 말벌의 독, 식중독균에서 암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며  
 벌침은 탈모와 관절염에 특효가...구더기는 욕창, 상처, 당뇨 발, 화상 등을 수술 없이 해결하고  
 좁쌀만한 구더기를 환자의 상처 부위에 올려놓으면 죽은 조직을 먹어치워 치료하며,

닥터 피시 물고기는 사람의 피부를 쪼고 핏을 빨아 각질제거 마사지에 효과가 있고,  
 거머리는 버거씨병 손가락이 썩어 절단해야 하지만 상처 위에 붙여 놓으면 썩어가는 피를 빨아먹어  
 통증이 가라앉고 혈액순환을 도와 죽은 부위가 살아나며 또한 손가락 접합 수술에도 투입된다고.

비록 미물이지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치료사이며 어떻게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해충이 되고 익충이 되는 것,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쨌거나 건강하소서...♥昔暗 조현섭 ♥

170119

\*안녕하세요. 불벗님! 도둑질에도 성,용,의,지,인(聖勇義知仁)이란? 도가 있다는데,  
聖은 훔칠 물건이 많은 부자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예측, 선견지명이고,  
勇이란 남보다 먼저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용기, 난간에 부닥쳤을때 해쳐나가는 용기이며  
義는 도둑질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올 때 조직을 위해 맨 뒤에 나오는 희생정신이이고,  
知란 도둑질을 할 때 정보와 지식으로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후각 능력이며,  
仁은 훔친 물건을 배분할 때 아래사람에게 관대하고 위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함인데,

은혜와 의리는 반드시 보답하고, 허락한 일은 반드시 이행 하며, 천리 먼 곳에서도 신의를 지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세상의 평판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성용의지인이 염량세태[炎凉世態]에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구차한 공직자 보다 나을랑가...  
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멋진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70118

\*전국이 건조 주의보가 발생했군요. 겨울 비라도 내렸으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지요. 이 말은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처럼 흔히 있는 일을 말하는데  
송나라 때의 시인이자 화가인 산곡 도인 황정견이 지은 차시(茶詩)에

(靜坐處 茶半香初) “정좌 한 자리에 / 차를 반쯤 마셨는데 / 향기는 처음 그대로일세  
(妙用時 水流花開) /묘용의 시각에 / 물은 절로 흐르고 / 꽃은 홀로 피고 지네 /” 라는  
선귀를,

이를 번역하지 말라, 번역하면 비단을 뒤집어 놓은 격이니 선귀의 더 높은 경지는  
원문 그대로 음미하는 것이 좋다고 사천의 다술사 주지였던 효당 스님이 말씀하셨다네요.

절묘한 댓구를 이루어 공간의 정적인 분위기와 시간의 동적인 현상이  
신비한 대비를 이루듯. 그윽한 다선삼매(茶禪三昧)의 선정 속에 심취해보면 어떨는지? ...  
불벗님! 건조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고운 불방에 쉬어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17

\*새해 1월도 과반을 지나 새롭게 시작하는 셋째 월요일이네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사계절과 삼한 사온이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사라져 가고 있는 듯 하네요.

지위가 있는 사람은 학문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하니  
우리 모두 지위가 있든 없든 말은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70116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한담을 하려나 엄청 출네요. 많은 효과들 중에  
스노브[snob] 효과란!아랫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속물을 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이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려고 특별한 의상을 입는다든지, 진귀한 예술품이나  
희귀한 스포츠카를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는 백로효과 또는  
속물효과라고도 하는데 혼자서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는 백로와 비슷하다는  
의미와 속물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우리 모두 모든 물을 흡수하는 바다처럼  
이것저것 받아들여 좋은 지혜로 삼았으면...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블벗님!♥昔暗 조현섭

\*블벗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경기조차 끄끄 얼어붙어  
장사하시는 분들 그의 모두가 올상 들이라네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다가왔다지만 공동체만의  
갈등과 반목, 민주주의 비토주의, 빈부격차 심화 낮은 법치 수준 ,

덕본재말(德本財末)덕이 근본이 아닌 나만 잘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재본덕말(財本德末)이 모든 사건의 모르쇠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을 소홀히 하고 말단을 소중히 여기면 백성이 서로 빼앗으려고 타투는 꼴~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청지기(머슴)처럼 살았으면...  
엄동설한의 주말! 정성 담아 올려주신 고은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14

\*반갑습니다. 블벗님 대구의 날씨도 세찬 바람과 함께 겨울 맛이네요.  
설도(薛濤)의 원적은 장안이었으나 하급관리였던 아버지가 성도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그곳으로 이주해 살았는데, 8, 9 살에 능히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아버지가 죽자 16세에 악적(樂籍고급기생) 올랐으나 설도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 났으며  
아주 총명하고 말재주도 뛰어나 성도지방의 군사장관이었던 웨이가오(Wei Gao)의  
총애를 받아 설도를 공식적인 관명인 "교서(校書, Collator)"를 부여해 주고  
웨이가오는 805년 죽을 때까지 20여 년을 돌보아 주었다는데,

젊은 시절 사모했던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시들어 가는 꽃과 늙어 가는 자신을 비교하며

**쉴쉴해 하는 설도에 심취해 보면서… 올려주신 작품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13**

\*안녕하세요.새해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 묻혔지만, 한화그룹 3남 술집에서 폭행과  
훔수저 인턴조차도 금수저에게 돌아간다 하니 씁쓸하네요.  
물질만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박수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인간 백정이라 불리는 스탈린은 1953년 뇌출혈병으로 죽었지만, 히틀러와 더불어  
지독한 독재자인데 청년 시절 그는 열심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여 레닌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1922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 스탈린 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어 자기를  
반대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수백만 명을 고향에서 강제로 이사하게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러시아에 건너가 살고 있던 한국동포(고려인)도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

김정은도 인제 그만 독재자 스탈린처럼 되지 말고 남북통일에 매진하였으면…  
블벗님 언제나 행복 가득, 미소 가득한 날 되소서…♥석암 조현섭♥

**170112**

\*블벗님 벌써 1월 중순이네요. 옛날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한의사가 살았는데,  
송청은 많은 환자를 치료해 큰 명성과 부를 얻어 하루는 가난한 의원이 송청에게  
“이토록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와  
“글쎄요. 굳이 나에게 비결이 있다면 ‘구불약’ 덕분”이라며  
“아홉 개의 ‘불(不)’을 치유해 주는 신비로운 약”의 의미를 설명한 것을 보면…

- 1, 불신(不信),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 주고
- 2, 불안(不安),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며
- 3, 불앙(不殃), 나에게 앙심을 품지 않게 해 주고,
- 4, 불구(不勾), 내 마음이 곧다는 사실을 알려 주며
- 5, 불치(不值), 내가 약값을 속이지 않음을 믿게 해 주고
- 6, 불의(不倚), 나와 상대방의 거리감을 없애 주며
- 7, 불충(不衷), 내가 성의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 주고
- 8, 불경(不敬), 내가 공손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없애주며
- 9, 불규(不規). 내 언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

명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동이 명약…  
만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구불약!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의 웃음이라네요.  
언제나 웃음과 감사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무병장수 하소서… ♥석암 조현섭♥

**170111**

\*블벗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초부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치솟는 물가로 서민 생활이 자꾸 움츠러들고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계란, 버스요금, 채소값, 생필품 값,  
식재료, 기름값까지 모든 물가가 고삐가 풀린 상태인 듯,

가끔 골목길 모퉁이 실내포장 앞을 지나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합찜에 소주  
한 잔과 푸짐하게 떠주는 홍합 안주로 얼었던 몸을 훈훈하게 녹여 정다운 친구와  
옛이야기 나누며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갔지만, 소주 한 병에 4~5천 원하니 지금부터  
막걸리 사다가 집에 친구 불러 먹어야 할 듯싶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애주가 조현섭♥  
170110

\*블벗님! 포근한 휴일 잘 지내셨지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가며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가는 듯,

또한,  
인생의 반을 타인을 사랑하는데 소모하고  
인생의 반을 타인을 비난하는데 소모하며,  
우리의 일생은 타인에게 얹매어 있는 듯도 하며,

나를 비우면 행복하고 나를 낮추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행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부족한 면과 서로 의견이 달라도 포근히 감싸주고 다독여주는 살맛 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70109

\*좋은 아침! AI 참사부른 밀집사육 지난 3일까지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3036만 마리~  
친환경적 사육 환경으로 89개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기르는 103만3000마리  
산란계 가운데 살처분된 닭은 1개 농장 1만3000마리(1.1%)에 불과하다네요.  
A4용지보다 좁은 ‘닭 감방’ 다닥다닥 비좁은 공간서 지내 스트레스받아 면역력 떨어져...  
AI 순식간에 전염 지난해 11월 16일 AI 발생 이후 3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2300억원 2003년 첫 AI 발생 이후살처분 비용 등 1조 원~  
EU는 2012년 ‘밀집사육’ 금지법으로 13년간 AI 발생 영국 3건, 스웨덴 1건뿐,  
그 돈 1조원을 친환경 사육 지원했다면...아니 지금부터라도 EU처럼 ‘밀집사육’ 금지법을  
만들어야지 세계 어떤 나라가 해마다 AI 참사를 부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정부는 무얼하는지...  
스트레스받아 면역력 떨어진 닭과 계란을 먹으면 사람들 스트레스받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친환경 농장 닭이 좋을 듯, 참 좋은 휴일 되십시오.♥석암 조현섭♥

170108

\*정유년 첫 주말이네요. 2017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데, 한 달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인지?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창기 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공기업과 대기업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톡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 법'은 최저·최고 임금 격차가 30배로 임금격차를 줄임도 있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CEO와 경영진들이 더 많은 연봉과 퇴직금 등을 챙기려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지는 것, 임금격차를 줄여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블벗님! 주말 잘 쉬이소,♥석암 조현섭♥

170107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가보니 '능견난사'라는 진귀한 물건... 위로 포개도 아래로 포개도 그 크기가 딱 들어맞는다는 오래된 바루(눗그릇) 29점, 수작업으로 두들겨서 만든 그릇인데도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위로 포개도 맞고 아래로 포개도 그 크기가 딱 들어맞는 신기한 그릇

원감국사의 바루(눗그릇)를 본 숙종은 궁으로 돌아와 신하들에게 “송광사의 바루가 유명한데, 우리도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명하여 조선 팔도의 유명한 장인들을 불러모아 만들게 하였으나 송광사 바루(성보박물관)처럼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었지만, 두 개 이상을 포개보니까 한 줄로 포개지지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자

숙종 曰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만들기는 어렵구나.”그래서 숙종은 송광사에 있는 바루에 지금의 능견난사(能見難思)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네요. 눈에는 보이나 마음을 알 수 없고 겉은 보이나 속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가? 블벗님 지금 우리에게 사분오열된 생각들을 한 곳으로 깔끔히 담아낼 수 있도록 난마처럼 얹혀 있는 이 세사를 깨도해 주었으면... ★석암 조현섭♥

170106

\*블벗님 !!!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이지만, 봄날 같은 날씨!

"소한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라는 데,  
울 소한은 이상 고온이라 포근하고 좋지만,  
겨울 맛이 안 나네요. 요즘 목감기가 유행이라니  
따뜻한 도라지 차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 현 섭♥  
170105

\*내일이 소한인데 올해는 소한땀이 없이 포근해서 좋네요.  
신년이면 수목 위주로 그려진 매화 · 난초 · 국화 · 대나무[四君子] 그림의  
장점을 고결한 군자의 인품에 비유하여 추위 속에서도 스스로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널리 애호되었던 것,  
특히 대나무는 예로부터 강직하고 지조와 절개가 곧은 사람을 대나무에 비유하지요.  
대나무의 5덕이란, 1, 속이 비어 있어 통하였고 2, 강한 재목이 된다는 것이며,  
3, 몸이 곧고 4, 마디가 없어지지 않으며 5,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오래 살고 무리하게 번성하여 옛 선현들은 사군자를 닮고자 하였다네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세태를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 가난함 속에서  
울곧은 마디로 곳곳하여 청빈의 세월을 지키고 선 대나무의 자세가 필요한 때일 듯...  
블벗님께서 정성 담긴 덕담에 올해는 다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昔暗 曹憲燮★  
170104

\*블벗님 신정 잘 보내셨지요?  
마음이 바뀌면  
    표정(表情)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行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習慣)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人格)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運命)이 바뀐다네요.  
2017(정유)년에는 우리 모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보입시더...  
희망에 찬 새해 힘차게 출발하소서... ♥석암 조현섭♥  
170103



**\*紅酉의 해 정유년 따뜻함과 함께 시작하려나 봅니다.**

**새해 첫 일요일 먼 훗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드셨는지요.**

**블벗님 2017년 丁酉년 새해에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암 조현섭★**

**170102**

\*사랑하는 불벗님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홍신(紅申)의 해 병신년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나 봅니다. 희망에 찬 "붉은 닭의 해" 정유에는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昔暗 조현섭♥

161231

\*잊을 수 없는 불벗님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丙申年의 12월도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새롭게 찾아오는  
丁酉年 닭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네요.

연초 계획했던 일 다 못하셨다면 丁酉年을 기약하면서 쉬엄쉬엄 하시고  
참 좋은 친구들과 한 해의 못다한 얘기들 나누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막걸리 한 대포에 정담 걸치며 송구영신(送舊迎新)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 현 섭♥

161230

\*불벗님 丙申年 한 해도 막 달음질하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인적,물적 자원의 중심이 되는 영역을 뜻하는 말인 듯,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로마인은 만리장성보다 10배, 20배나 긴 도로를  
쫓았기에 현대인으로부터 '인프라의 아버지' 라고까지 불리는 로마 민족---  
우리 근대사의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의 원인은 조선왕조가 조선초나 고려 이전처럼  
개방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쇄국정책과 사대주의에 빠져  
메이지(明治) 혁명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일본에 의해 치욕적인 지배를 받은 듯,  
로마인이 생각하고 있던 인프라에는 도로, 교량, 항만, 국방, 치안, 조세, 의료, 교육,  
통화 등의 시스템까지 포함한 것은'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책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길은 어디로 가는지? 일부 이상한 야당 정치 세력들처럼  
평양으로 가는 것 아닌지? 아니면 오늘의 지도자와 그 추종 세력들처럼 우리끼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끼리끼리 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네요.~♥조현섭♥

161229

\*불벗님! 많이 출지에 가마귀에 관한 옛 詩의 의미를 생각하며 댓글로 올려봅니다.

◆정몽주 어머니의 詩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白鷺)야 가지 마라.  
성난 가마귀 흰빛을 시샘하나니,  
창파(滄波)에 곱게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이직님의 오로시(烏鷺詩)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白鷺)야 웃지 마라 .  
것치으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  
아마도 것희고 속검을손 너뿐인가 하노라.

◆작가 미상

가마귀 너를 보니 애닢고도 애닢아라.  
너 무삼 약을 먹고 머리조자 검었느냐  
우리는 백발 검을 약을 못어들가 하노라.

◆병와 가곡집 작가 미상

가마귀 검거나 말거나 해오라기 희거나 말거나  
황새 다리 길거나 말거나 오리 다리 짧거나 말거나  
세상 옳고 그른 시비는 나는 몰라 하노라.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한 詩속에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듯,  
♥석암 조 현 섭♥

161228

\*블벗님 한 해 동안 소중하고 다양한 지식과 좋은 글,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 하여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짓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네요.

좋은 습관은 얻기가 어렵지만, 몸에 익히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즐거운 것,!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227

\*블벗님! 크리스마스 축복 마니많이 받으시고 잘 보내셨는지요?

채근담 이란 송나라의 대학자 주희가 저술한 소학에 같은 시대의 학자 왕신민의  
「나물 뿌리를 먹고도 족함을 느낀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라는 말은 여기서  
따온 것이라 전해지는데,

채근담의 첫 번째 매력은 홍자성 저자의 청렴한 윤리관이며,  
둘째, 사회의 속박을 떠나 자연을 벗 삼고 내키는 대로 노니는 즐거움이  
후 집에 기술되어 말로는 하지 못할 편안함이고  
세 번째는 처세의 슬기와 지혜, 즉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도리어

그 공격을 받아 낭패를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듯,

채근담은 일상에 조연과 격려, 위로의 말로 가라앉았던 마음을 일으키고  
들뜬 기분을 경계하게 되어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인생 수양의 처세술이며  
지침서이니 몇 번만 읽어봐도 양식이 될 듯,~~~ ★昔暗 曹憲燮★  
161226

**\*Marry Christmas,**

사랑과 축복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사랑과 추억 잘 간직하시고  
블벗님 가정에 건강만땅 사랑만땅 행운만땅 하옵소서...~ ^^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Marry Christmas, ~^^  
161225

**\*어느덧 성탄절의 이브가 시작되었군요.**

즐거운 성탄절, 하하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러브  
Christmas 이브 많은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  
블벗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Marry Christmas,^^ 愛 ♥석암 조현섭♥  
161224

**\*또 한주가 후딱 지나가려나 봅니다. 오유선생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거짓으로 꾸민 가상의 인물 이지만, 어쨌거나 까마귀와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가 있으니 고구려의 거문고도 왕산악[王山嶽]이 중국 진나라의 칠현금을 연주하니  
까마귀가 춤을 추었다 해서 “검은고”에서 거문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태양 속의 금 까마귀와 달 속의 옥도끼 금오옥토[金烏玉兔]이야기와  
고구려 벽화의 삼족오[三足鳥]에서 반포지효[反哺之孝]의  
효경생활에 이르기까지 까마귀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부인할 수 없고  
기러기에게는 장유의 서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하였지요.

이렇듯 까마귀에 관한 한 떨어질 수 없는 일은 분명한데...

세상사 살다 보니 별일도 많다.

청문회 때 얼마 전에 한 일도 모르쇠로 딱 잡아 때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오유선생을  
여럿 만나는 일상이라...블벗님 금쪽같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昔暗 조현섭♥  
161223

\*대구엔 겨울비가 그칠랑가 흰해지네요, 불벗님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활 솜씨는  
고구려 벽화에 기마자세를 하면서도 뒤돌아 활을 쏘는 무사들의 모습을 자주 보는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신기에 가까운 활 솜씨가 있어  
화살촉 하나에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떨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중국의 창” “일본의 칼” “한국엔 활”이라  
소개하여 고려인이 몽골군 총원수인 살레탑을 활로 쏘아 죽사케 하였고  
고구려의 철궁이 당나라 이세민의 눈을 정통으로 쏘아 맞혔는가 하면  
당나라의 맹장 방효태 군을 전몰시킨 연개소문 철궁예기는 명중률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명궁이었음을 증명하듯,

올림픽 때면 개인전 단체전 할 것 없이 금메달을 따내는 것을 보면 명장의 피가 흐르는 듯...  
불벗님 비온 후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61222

\*어느덧 동짓날 중국의 형초세시기에 동짓날 팔죽을 쑤 유래를 보면 '공공씨'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전염병 귀신이 되어 그 아들이 평상시에 팔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 귀신을 쫓으려 동짓날 팔죽을 쑤어 악귀를 쫓았다고 하네요.

동지가 지나면 하루에 1분씩 밤이 짧고 낮이 길어진다는 동짓날  
동지[겨울冬 이를쫓]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밤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긴 날이며 옛사람은 설날로 삼아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데,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길 이 없고, 오는 시간 또한, 막을 길 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묵묵히 일하는 청지기처럼 살아갔으면...  
불벗님님 액운 소멸하는 동지팔죽 드시고 행운만 깃드시길 빕니다.♡석암 曹憲燮♡  
161221

\*불벗님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보잘것 없는 저의  
불방을 찾아 고운 댓글  
남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유로움 속에서 잔잔한  
미소가 어우러지는 즐겁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정성 드려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1220

\*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가끔 사찰이나 유적지 기둥에 주련이 해서로  
쓰여있는 것을 일행 중 한 분이 그 내용을 물어 올 때가 가끔 있는데,  
五言詩, 칠언시로 쓰여있는 글의 독음도 되지 않는데 독해를 부탁하니 낭패를 볼 때가...  
대충 아는 글자를 엮어서 어설픈 해석을 하니 영 미답지가 않는 모양인데,

학문이란 게 딱 정해놓고 해석하는 율이 있는 게 아닌데 글쓴이의 심중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많은 어휘를 통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감? 옛사람들은 평생을 글공부에  
매달려도 세월이 짧다고 뉘두리를 하지 않은가? 어쨌거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을...나처럼 낭패 보는 일 없기를...석암 曹憲燮  
161219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엔 초등 모임 송년회에 부어라 마셔라 하였더니  
아침 산행도 못 가고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중국이 우리 민족을 지칭했던 동이신궁(東夷神弓) 이족은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동쪽의 거대한 우리 민족’이라는 뜻이었다는데,**

**이(夷)자는 큰 대(大)와 활 궁(弓)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쇠철(鐵)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鑢'(쇠철)라는 글자였지만,  
글자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쇠를 만든 것은 이족(오랑캐족)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에 사실은 중국 민족의 수치심에 의해 삭제, 왜곡,  
구 쇠철(鑢)이 현 쇠철(鐵)로 변조되었다네요. 불벗님! 휴일 잘 보내십시오. ♥昔暗 조현섭♥  
161218**

\* 산더덕님! 세월이 너무 빨라 한 주가 화살같이 지나 또 주말이네요.  
꽃은 쉬이 지고 바람은 철 따라 변할손고,

우리네 인생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 흘러 덧없이 흘러가는구먼...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산과 바다, 바위巖 너뿐인가 하노라.

덧글속에 오고 가는 우리의 우정도 변치 않길 바라면서,~ ~~  
주말 아침 살포시 다녀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217

**\*앞산서 내려오니 칼 바람 한파에 엄청춥네요. 따스한 옷 입어야겠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존슨은 긍정의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여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였고**

**열 살 때 양복점 봉제사로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벌고 결혼한 후에야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워 그 이후에 존슨은 정치에 뛰어들어 주지사, 상원의원이 된 후에  
16대 대통령인 링컨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로부터**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 라고  
맹렬한 비판을 당하자 존슨은 침착하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그리스도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 지지입니다."  
이 한 마디로 상황을 역전시켜 당선되어 알라스카를 러시아에서 사들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  
블벗님께서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216

\*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바다의 넓은 마음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면 한강 물이나 대동강 물, |  
낙동강 물 구별 않고 온 세계 어떤 강물도 받아들이듯이  
우리 모두 잘나고 못남 없이 소중하고 평등하게 받아들였으면...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  
자리한 불 평등심을 없애야 하겠지요.  
|블벗님 반달 남은 12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丙申年 못다 한일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 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61215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송년회 모임 등 바쁘시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가족 간, 사회 구성원 간에 많은 갈등과 부조화를 겪고 있는 듯,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얘기만 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되지 않네요.

특히 정치분야는 건전한 보수, 진보가 쌍두마차가 되어 정책으로 승부를  
거루지 않고 책임정치는 온 간데없이 당동벌이[黨同伐異]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으니...

블벗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昔暗 조현섭♥  
161214

\*블벗님! 반갑습니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찾아가 이제 이 나라에 이로움을 주시겠지요.  
하고 여쭙었는데, 맹자曰 하필이면 이(利)입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하면 대신들은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고  
선비와 백성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할 것이지요.

맹자 해왕편에 이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이익만 추구하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조선왕조가 제각기 이를 추구하다 멸망하였다는 견해도 있듯,  
작은 이득을 보려다간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지요.

조선왕조까지 의 군왕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덕본재말(德本財末)덕이 근본이 아니라 재본덕말(財本德末)재물이 근본인 정치를 하여  
국가 보조금은 눈먼돈이라 물질 숭배가 극단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석암 조현섭★  
161213

\*블벗님! 날씨가 화창하여 참 좋았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도 친구와 한티재를 넘어 제2 석굴암 경유하여  
군위의 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인생이란! 너무 세게 움켜지면 죽어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날아가 버리는  
한 마리의 비둘기와 같은 것~~~

우리의 삶도 너무 느슨하게도  
움켜지려고도 하지 말고  
중도의 삶 살아갔으면...  
잠시 다녀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212

\*어느덧 12월도 중순에 접어드네요. 요즘 공무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듯,  
내가 알기는 80년대 중반 이후 쪼음 나아졌지만, 그 이전에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  
월급이라야 하루 저녁 괜찮은 술상 한 번 보면 빈 봉투가 일쑤였지요.

그렇게 생활하였으니 손톱으로 여물을 쓴다거나 공무원 똥은 개도 안 묵는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청빈 세월을 건디온 다수의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알랑가?  
옛날 훈장을 보면 관학훈장은 교수, 훈도라 하여 품계가 6품 정도 되어 밥술이라도 걸쳤지만,

사학 훈장(시골 서당)은 수학철에 쌀, 보리 한 말 장작 한 짐 정도가 일 년 치 수업료...  
그래서 책씻이라는 잔치를 열어 천자문이나 동문선습을 때면 축하의 시루떡을



서당에 보내어 훈장과 학동들이 나누어 먹게 하였대네요.

또한, 부모들이 매질하여 가르쳐 달라고 보내준 싸리 회초리를 쓰고 남은 것을 빗자루를 역어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 이를 걸복(乞卜)이라 !!! 참 옛날 얘기라 요즘 젊은이는 알랑가 몰라...  
어찌 된 판인지 요즘 일부 부류층은 55명 중 53등해도 연대, 고3때 17일 출석해도 이화여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개천에 용나기는 어렵겠지요? 불벗님! 참 좋은 휴일 되십시오.♥석암 조현섭♥

161211

\*초, 겨울  
주말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천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는 사람이라네요.

타인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테니...  
나를 이길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나 자신뿐,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하니,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주소... 불벗님 주말 즐겁게 보내이소~♥석암 조현섭♥  
161210

\*불벗님 대통령 탄핵 날 날씨도 오후부터 꽤 추워진다니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라면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된 지 3년 되던 해에 부인 예안 이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네요.

추사는 15살 때 동갑내기인 한산 이씨와 결혼하였는데, 안타깝게도 5년 후 상처를 하여  
23살 때 예안 이씨와 재혼을 했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었던 추사는 양자를 들여  
육십이 돼서야 부모 소리를 들었다.고 기뻐했지만,

두 번에 걸친 10년의 귀양생활과 아내의 죽음으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낸 추사에게 단란한  
가족은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천하의 명필이지만 추사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는 알아보기 쉽도록 일부러 한글로 써서 보냈다는 것,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금쪽같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석암 조현섭♥  
161209

\*불벗님 설한(雪寒) 추위에 몸은 자꾸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늘~ 활기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꽃 같은 좋은 향기를 심어 보세요.

꽃의 향기는 십 리를 가고

여인의 향기는 천 리를

간다네요.

우리가 살면서

원한을 사게 되면

여자의 한이 오뉴월에 서리 내리고

남자의 한은 철 팔월에 함박눈이 온다지요.

내 몸이 도끼 되고 너 말이 비수 되어 한 맺고 원수 맺어 죽어 다시

만난 곳이 부부로 만난다네요.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208

\*블벗님!

반갑습니다.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지만 대구엔 눈은

내리지 않고 출기만 하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할 듯...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로그 참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석암 曹憲燮 ♥

161207

\*대구에도 오늘 아침은 많이 춥네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이 서로 앉아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병약한 친구가

쓰러져 죽어 같이 있다가 죽었으니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다급해진 이 사람은

송강 정철에게 응소장(應訴狀)을 부탁한 글의 내용을 보면,

『독한 술이 곁에 있으나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아니하고

썩은 노끈이 손에 있으나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응소장(應訴狀)을 받아들고 읽어보니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게 쓰여 있어

대감 어째서 저를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철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건 장난삼아 한번 써본 거라며 소장을 다시 써준 내용은.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절로 꺼지고.

동헌에 누른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가을이면 그냥 떨어진다.』

그 사람은 이 응소장(應訴狀)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또에게 가져갔는데,

사또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으나. 소장(訴狀)을 읽어 보더니 죽을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은 게로 구면이라며 무죄 판결 하였다네요.

어떤 일이든지 생각하기에 따라 양면의 칼날...블벗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소서, ♥昔暗 조현섭♥

161206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도 대덕 산악회 제22주년 정기총회에서  
2차 노래방까지 한 잔 들쭉 했습니다.

술아 술아 푸른 술아 너는 아직도 늘 푸르고

이놈의 인간세상 어찌 이리도 혼탁할꼬! 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는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등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훗날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고운말의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잘 꾸며 놓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205

\*포근한 휴일 아침!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듯  
그중에서 특히 정치 분야는 봉당 정치에 해당할 패거리 형태를 벌이고,  
자기편이 아니면 정책이고 이론이고 무시하고 당동벌이[黨同伐異]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개진하면 좌파, 우파 몰아붙이는 이념적 파당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

중국 노나라 계강자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여쭙어보니.

군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하였다네요.

임금은 임금답게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고위 공직자는 청렴결백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은 술하게 들어 왔지요.

우리 모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으면...블벗님 좋은 휴일 되시길... ★석암 조현섭★

161204

\*그트머리달 12월 첫 주말 아침 제가 매일 새벽 05시 산행 가는곳! 대구 앞산 중턱에 있는

안일사의 유래를 보면 927년 영조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태조 왕건이 후 백제 견훤에게

패하여 은적사에서 쫓기어 도망가다 지금의 안일사 근처 왕굴에 숨어있다가 견훤이

지나간 후 안일암에 내려와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냈다고 해서 안일암이라 하였다네요.

또한, 1915년 1월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 13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 국민 회복 운동을 할 것을 서약하고 비밀결사대 중앙 총부를 조직하였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하며 상해임시정부를 도울려고 군자금 조달 운동을 벌인 일제 강정기하에 항일운동의 중심이 된 유서깊은 사찰, 놀러 오시면 010~9533~1065 연락 주이소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석암 조 현 섭★  
161203

\*블벗님 기온 차가 심한 초겨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선조님이 즐겨 잡수셨던 막걸리 장사 한 번 해볼까요.  
막걸리에 항암물질인 "스쿠알렌"이 들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막걸리는 흔들어 먹어야 "스쿠알렌"의 효능이 더 많다네요.

막걸리 1병에 유산균이 요구르트 100~120병과 맞먹는답니다.  
막걸리는 몸에 유익한 유산균 덩어리, 막걸리는 알코올이 든 영양제.  
막걸리 한 병에는 700억~80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 있어 과음만 피하면 어떤 건강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하오니, 술을 못드시는 분은 반주로 소주잔 한 잔 정도라도 좋을 듯...

저도 열심히 반주로 막걸리를 마신 덕분인지 엇그제 건강 검진을 해본 결과 위염, 지방간, 고지혈증이 신기하게 없어져 담당 의사와 저도 놀랐으며, 막걸리 덕분에 건강하게 지냈답니다. ㅎㅎ  
우리 조상님의 현명한 지혜에 감탄하면서...  
와인이나 양주, 소주보다 막걸리 알맞게 드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 ♥막걸리 애주가 조현섭♥

161202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흘러~  
병신년 달력이 어느덧 한 장 달랑 남았네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거창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 한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무심히 지날 뿐, 내 마음의 불꽃은 식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끄트머리 한 달 남았지만, 열심히 정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으면...  
언제나 잘 꾸며 주신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 현 섭♥  
161201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흘러~  
병신년 달력이 어느덧 한 장 달랑 남았네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거창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 한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무심히 지날 뿐, 내 마음의 불꽃은 식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끄트머리 한 달 남았지만, 열심히 정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으면...  
언제나 잘 꾸며 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 현 섭♥  
161201

\*블벗님! 어느덧 11월도 마감하려나 봅니다.  
우리의 삶에 댓글로서 만나는 잠시 스쳐 가는 인연  
일지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뒤 돌아보지 않을 듯이 등 돌려 가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는지 모른다지요.  
혹여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좋은 기억만을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12월에는 늘 건강과 웃음, 행운이 함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130

\*쌀쌀한 아침!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욕을 듣지 않고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다 아는 사실”  
상식적인 문제를 두고 염치라 하지만, 염치가 없으면 물염치 또는 파렴치라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후안무치한 사람이라!

또한, 예의염치의 국가관에 대한 덕목을 일명 사유[四維]라고도 한데는,  
사유란! 禮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게 되고, 禮·義가 없으면 위태로워지며,

禮·義·廉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禮·義·廉·恥가 없는 국가는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니  
곧 예의염치[禮義廉恥] 네 글자는 나라를 존재케 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왜 정치가 위기라고 하는 것일까?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것마저도 태어날 것 같지 않을 때"를 위기라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듯, 위정자들이여 제발 예의염치를 알고

만백성이 걱정하는 후안무치한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불벗님 걱정거리 올려 죄송...♥昔暗 曹憲燮♥

161129

\*불벗님! 11월과 12월 교차하는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12월 맞으시길 바라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너그럽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되 자신이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듯,~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 축원이기 때문에

삶은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오니

내 가하는 일은 불가능이란 없어,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오늘도 잘 꾸며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 헌 섭♥

161128

\*대구에도 주말 첫눈이 꽤끔 내렸네요. 첫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는데.

싸락눈 내리면 춥고 함박눈 내리면 따뜻해질 징조라네요.

첫눈은 누군가엔 설레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짜증의 대상이기도 할 것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첫눈 오는 날이 만우절[萬愚節]과 같은 날이었다네요.

왕실에서는 첫눈이 오는 날에 한하여 임금을 속일 수가 있었다고 한것은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왕을 속여도

너그럽게 눈을 감아주는 우리 선현들의 아름다운 삶을 엿볼 수 있는 듯,

첫눈 내리는 날에 임금을 속일 수 가 있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풍속인가?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느긋하게 즐감하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昔暗 曹憲燮♥

161117

\*블벗님 만추의 11월 끝자락 주말 촛불 집회가 언제 꺼질는지 낭패인 듯,  
우리는 흔히 계획한 일이 틀어져 곤란한 처지가 됐을 때 낭패란 말을 쓰지만,

낭패란 원래 뜻은 , 이리낭(狼) 이리패(猯)는 전설상의 동물로서.  
낭(狼)은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가 없고 앞다리뿐인 이리이고,  
패(猯)는 앞다리가 없고 뒷다리뿐인 이리인 지라

이 두 녀석이 걸어가려면 어지간히 사이가 좋지 않고서는 넘어지기 일쑤인데,  
두 녀석의 성격은 낭(狼)은 성질이 흉포하지만 지모(智謨)가 부족하고, 패(猯)는 순하며  
지모가 뛰어나, 함께 먹이를 찾으러 갈 때는 패(猯)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 자존심에 혼자 걸어가려면 곧 낭패를 당할 수밖에...  
우리 모두 낭패 보는 일 없이 주어진 운명에 순리대로 살아갔으면... ♥昔暗 조현섭♥  
16112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 앞산엔  
양상하게 붙어 있든  
낙엽이 그의 다 떨어져  
땅바닥엔 낙엽이 쌓였네요.  
사람을 함부로 등지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 하며 포용하는 삶 살아갔으면...  
블벗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십시오. ♥석암 조현섭♥  
161125

\*블벗님 오늘 아침 앞산서 내려오니 날씨가 차갑습니다. 외출시 따뜻한 옷 입으십시오.  
예로부터 삼희성(三喜聲)이라 하여 듣기 좋은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갓난아이 울음소리, 글을 읽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는 담장 밖으로  
새어 나가도 좋다고 여겼지요.

우리의 조상은 이 삼희성 소리가 어떤 명창의 노랫소리보다도, 대 음악가의  
연주보다도 듣기 좋고 즐거운 소리로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로 꼽았다는데,

요즘엔 삼희성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다 하여 이웃 간에 싸움질할 판이니...

삼희성 소리는 옛말이 되어 들어보기 어려울 듯싶네요.

만추의 11월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잠시 머물다 갑니다.♥昔暗 조현섭♥

16112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누구든지 처음은 있는 법.

독수리도 기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가요.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잦겠지만,

지난날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을 비교하여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는 것...

모르는 건, 참 좋은 세상이라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시는 일,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갔으면...

오늘도 잘 꾸며주신 불벗님 블로그 즐감하고 다녀갑니다. ♥昔暗 曹憲燮♥

161123

\*일 년 중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 날 아침 바람결이 쌀쌀하지만,

하늘은 끝 간데없이 꾸무리 하네요.

구천이 저렇게 꾸무리하면 그 마음이 오히려 슬퍼지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죄업이 많으면 죽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하는데 구천이란 어디를 말함일까?

하늘은 철 따라 봄(蒼天), 여름(昊天), 가을(旻天), 겨울(上天) 사천이 있고,

동(蒼天), 서(昊天), 남(旻天), 북(上天), 동북(變天), 동남(陽天), 북서(幽天),

남서(朱天), 정 중앙(均天)을 구천이라 한다는데,

또한 손자병법에 아홉 가지의 땅 구지(九地)가 있지만 지루할 것 같아 이만 ...

불벗님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소서~ ♥昔暗 曹憲燮♥

161122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11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우리는 항상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지요.

가족의 기쁨도 지향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네요.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결국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 ~~~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알차게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기쁨과 행복을 ^^  
최상으로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석암 조 현 섭♥  
161121

\*안녕 하세요. 참 좋은 포근한 휴일 아침입니다.  
요즘 젊은이는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칭찬하는  
소리와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듯싶네요,

쓴소리, 거슬리는 소리, 비방하고 흠 뜯는 소리도  
기꺼이 수용해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을 듯하오니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갔으면---

쓴소리 좋은 소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얘기할 이유가 없겠지요.  
블벗님께서 정성 담아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자연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120

\*주말마다 촛불 시위가 꺼지지 않으니 걱정이네요. 블벗님! 엇그제 수능시험에서 몇명의 학생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탈락한 학생을 접하면서 퇴계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땅히 예로써 우선을  
삼으라 하셨고, 예의가 없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될 수 없고 배움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네요.

사엄생경(師嚴生敬) ; 스승은 엄하고 학생은 공경하여 그 도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고  
사엄도존(師嚴道尊) ; 선생이 엄격하면 그 가르침도 자연히 존귀하다는 말이며,  
사영불가답(師影不可踏);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부일체(師父一體) ; 존경이 숨어 있는 것,

교실에서 권위의 요소는 교사의 지식, 인격, 행동 가르침의 핵심이며 교사가 수업을  
통솔하지 못하면 학생은 선생의 지식을 무시하게 되고 인격까지 무시당하지요.  
교사의 권위는 말씨, 행동, 웃차림, 태도, 교실환경 등에서 우러나오며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가 되면 권위는 생겨나는 것,  
이교효인(以教效人)가르침을 본받을 자세가 필요한 때인 듯--- ♥석암 조현섭♥  
161119

\*좋은 아침! ‘요재지이(聊齋志異)’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포송령(蒲松齡)은 여섯 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는데, 일곱 번 변한다고 한 거자칠변[舉子七變] 보면,

- 1, 고사장(에 입신할 때는 거적이 무거운 거지 신세요.
- 2, 몸수색을 받을 때는 죄수 신세요.
- 3, 칸막이에 방에 들어앉으면 밖을 기웃거리는 새끼벌[蜂子]신세요.
- 4, 시험이 끝나고 밖에 나오면 조롱밖에 나온 병든 새 신세요.
- 5, 합격자 발표 일을 기다릴 때는 목이 묶여 안절부절못하는 원숭이 신세요.
- 6, 합격자 발표 일에 낙방이 확인되면 독[毒] 먹은 파리 신세요.
- 7, 찾김에 세간을 부수고 나면 제알을 짓눌러 깨버린 비둘기 신세라!

임어당[林語堂]의 낙자칠변[絡子七變]에는

1. 만재 : 대기만성형 아인슈타인(고교 시절 수학 외에는 낙제, 취리히대학 입시도 낙방)
  2. 은재 : 재능은 심오하나 스승이나 시험관이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낙자(폴 발레리)
  3. 반재 : 낙방이 계기가 되어 비약적 발전을 하는 낙자(시인 하이네)
  4. 상재 : 낙방 후 거부가 된 낙자(중국 진나라 거부 石崇(석송))
  5. 예재 : 피카소(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한 낙방 5관왕)
  6. 역재 : 반골이 된 낙자(황건적의 黃巢(황소), 洪秀全(홍수전))
  7. 빈재 :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낙자 (이규태 코너 1987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불벗님!
- 161118

\*불벗님 잘 지내시지요.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달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필기하고 생각하며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 하겠지만,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든 한자나 역사도 신문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으니 잊혀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

한자나 역사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귀찮지만 꽤금 사용해본답니다.

불벗님 가정에 늘~기쁨과 사랑, 행운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昔暗 조 현 섭♥

161117

\*안녕하세요. 수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해마다 입시 한파가 따라왔지만,

올해는 꽤끔 출지만 예년만큼 출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내일 수능에 응시하는 가정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행할 일은 명백히 보고 총명하게 들으며  
행동은 공손하고 말은 성실히 하며

모든 일은 조심하고 의심나는 것은 물으며  
화가 날 때는 참고 또 참으소서...  
블벗님의 고운 블방에 머물다 갑니다. ♥석암 조 현 섭♥  
161116

\*블방이 먹통이라 이제 찾아뵙습니다. 블벗님 어느덧 이달도 중반을 지나가네요.  
어미 매는 새끼 매를 먹일 때마다 공중에서 먹이를 떨어뜨려  
곤경으로 유도하여 새끼들은 제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먹게끔 훈련시키며,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천길 벼랑에 떨어뜨려 살아날 길을 배우게하듯,  
우리의 아이들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였으면...

오늘날 마마보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낙상매와 독수리에게 애게  
자녀 양육법을 배워야 강한 아들.딸이 자라나 우리나라가 튼튼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자식을 키울 때 엄하고 강하게 키우라 하지 않았던가요?

생명력이 없는 뗏목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이 흐르는 데로만 흘러가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자기의 먹이와 안식처를 찾아  
거센 물줄기를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지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계속해 나아갔으면...★석암 조현섭★  
161115

\*일요일 잘 지내셨지요?  
높이 나는 새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난 새 모이를 많이 줍는대네요.

우리도 일찍 일어난 새처럼 부지런히 활개치면  
건강하고 먹고사는 걱정 없으련만, 인생사 천차만별, 가지각색이니...  
블벗님께서 정성 담아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114

\*블벗님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 큰 불상사 없이 성숙된 촛불집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유대인의 지혜 중에는 맛 좋은 과일에는 벌레가 몰려들듯

재산이 많으면 근심이 늘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다네요.

하녀가 많으면 풍기가 문란해지고 하인이 많으면 도둑을 자주 맞고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이 풍부해지고 명상을 많이 하면 지혜가 팍 차며  
유익한 말을 들으면 길이 트이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큰 평화가 깃든다네요.

남들이 다 웃을 입고 있을 때는 웃을 벗지 말고 남들이 다 벌거숭이일 때는 웃을 입지 말며  
남들이 다 앓아 있을 때는 혼자 서 있지 말고 남들이 다 서 있을 때는 혼자 앓아 있지 말며  
남들이 다 울고 있을 때는 웃지 말고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는 울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 보리밭에 잔디가 나면 잡초고, 잔디밭에 보리가 나면 또한 잡초이듯...  
잘난 척 하지 말고 큰 물줄기 따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지혜인 듯싶네요. ♥석암 조현섭♥  
161113

\*대통령 해야하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니 어쩌다 이런 일이...우울한 주말이네요. 불벗님!  
우리나라 국가의 록을 갈취하는 경제사범들은 유아무야 전관예우로 넘기지 말고 전자팔찌를  
차든지 탈리오 법칙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전 재산을 몰수해야 당연지사가 아닐는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했는데 국가의 록을 도둑질한 자들은 구속되어도  
서민들이 사는 집보다 더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법이 평등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감이 나네요.

정부 돈 먼저 본 자가 임자라 드니 큰 쥐새끼들을 활보하는 꼴을 두고볼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것은 “난자수참(亂者須斬)하여 얻히고설킨 삼실 덩어리를 칼로 싹둑  
자르는 쾌도난마(快刀亂麻)로 부정부패를 시원하게 쾌도하여 이 난국이 잘 풀렸으면...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나친 관용은 또 다른 허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昔暗 조현섭♥  
161112

\*대구 앞산에서 내려오니 포근한데 비가 올는지 우중충하네요.  
날씨가 우중충하면 우중충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비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폭설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우리 모두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입시다---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 현 섭♥  
161111

\*불벗님 날씨가 포근한 참 좋은 아침이네요.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반 독일적이거나 독일인을 저주하는 책은 유대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스라엘은 아랍인과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네요.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가 같은 한 가족으로 설사 자기가 왼손으로 무엇을  
만들다 잘못하여 왼손을 자를지라도 왼손이 그 보복으로 오른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하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당쟁싸움에 서로 적으로 삼아 자기편이 아니면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며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로  
진보는 보수를 수구 꼰대로 매도하며 영남과 호남, 지식인과 무식인, 청년과 장년으로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몽매한 인성을 바로잡을 통합된 통일 대통령은  
언제 나타날는지...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昔暗 曹 憲 變♥  
161110

\*블벗님!  
아침 날씨가  
제법 쌀쌀하오니  
건강 잘 챙기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한다네요.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온다 하오니.  
우리 모두 행복을 잘 심고 가꾸어 행복한 나날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마음에 와 닿는 고운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109

\*블벗님!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도 아이 갖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듯,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자가 겪는 출산의 고통이 많이 차지한다네요.  
그래서 아내가 출산을 하면 산후 휴가를 남편한테도 상당이 주는데  
출산한 아내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배려인 듯...

옛날에는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 같이 소리를 지르고 뒹굴다가  
해산을 하려 하면 지붕에서 내려와 산실의 문지방에 구멍을 뚫고 상투를 들이밀어서  
산모가 그걸 휘어잡고 힘을 쓰게 하는 상투빌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출산의 고통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진통하고 아픔을 동시에 인고하는  
남자의 역할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의술이 좋아 상투빌이는 옛말이 됐지만

아이 갖기를 꺼리는 이유는 일류대학 보내려고 학원비가 어마어마하다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말인 듯...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되십시오. ♥석암 조현섭♥  
161108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지요.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 날 아침,  
날씨가 화창하여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를 하고 살지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는 법이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서 뜯겨나간 것이라 생각하고.  
가난 속에서도 부탄처럼 행복지수 1위인 국가가 있고, 인생의 의의는 옳게 사는데 있는 듯...

우리 모두 마음 비우고 행복하게 하하 호호 웃으며 즐겁게 살아갔으면...  
블벗님의 고운 블방에 꼭 빠졌다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107

\*블벗님 참 좋은 휴일 아침!! 수능 시험일이 한 열흘 남았네요.  
선조들의 과거장 시험 때는 오불심요(五不心要) 즉 시험일에는 금지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는데---

1. 과거 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간밤의 꿈을 묻지 말라 했습니다.  
나쁜 꿈이면 부담을 갖게 되고 좋은 꿈이면 요행을 바라게 되어 긴장을 늦추게 되니까요.
2. 부처님 등 신에게 빌지 말라 했습니다.  
신에 의지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 수험생에게 부담감을 준다네요.
3. 시험일에는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거나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신체의 리듬이 깨지면 사고의 리듬도 깨진답니다.
4.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붓이나 벼루를 새것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평상시 쓰던 물건이 손에 잘 익어 답안지 작성이 쉬워집니다.
5. 부모,형제가 과거장 밖에서 기다리지 말라 했습니다.  
수험생의 마음은 급해지고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답니다.

고3 수험생을 가진 가정은 오불심요를 마음에 새겨 부디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61106

\*블벗님 만추의 주말 묘제철이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동이 틀 무렵 첫새벽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우환이나 수험생을 축원할 일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정안수라 부르기도 하는 이월은 새벽달이 마지막으로 비칠 때 그 달을 물과 함께

바가지로 길은 물은 물 중에서도 으뜸이지요.

물은 만물의 근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이라!

이런 정화수를 천도교에서는 청수(淸水)라 하고, 카톨릭에서는 성수(聖水)라 하며,  
불교에서 물을 떠, 남에게 주는 공덕으로 선행의 감로수(甘露水)라 하며, 구약시대는  
눗바다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네요.

혼탁한 세상을 이 정화수로 주술 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졌으면...♥석암 조현섭 ♥

161105

\*안녕하세요. 불벗님!

책이 두껍다고 다양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닌 듯,

얇은 책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겠지요.

우리네 삶 저 만 리 운산 오르기도 힘겹고

산 개울 물 살짝 얼은 살얼음판 되듯 힘들지만.

우리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그 또한 즐거움이 가득하네요.

늘~함께해주시어 감사하며,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61104

\*뚝, 뚝, 불벗님 사람 팔자 뒤통박 팔자란 뒤통박 안에 든 물건에 따라

뒤통박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데서 ‘뒤통박 팔자’ 라는 말이 생겼다는 데,

반면에 상팔자도 있지요.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상팔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팔자 3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상팔자라.

재(財돈), 관(官벼슬), 인(印학벌) 돈만 있어도 안 되고 벼슬이 있어야 하고,

벼슬을 하려면 학벌, 즉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상팔자가 되는 길은 고행의 길 인듯...

이를 두고 명리학에서는 재물[財]과 벼슬[官]이 둘 다 한 곳에 임하여 있어 아름답다는

재관쌍미(財官雙美)라! 육십갑자중에 계사[癸巳], 임오[壬午], 이 두 간지를 가리켜 말함이나

가을, 겨울에 계사일, 임오일에 태어나면 좋으나, 봄과 여름에 태어나면 오히려 낮고 천하게

된다 하여 요즘은 임신과 출산도 맞추어 한다나... 좋은 불방에 다녀갑시다, ♥석암 조현섭 ♥

161103

\*불벗님! 안녕하세요. 옛말에 된장에도 5가지의 덕이 있다고 하였는데,

단심(丹心)=된장은 다른 맛과 섞여도 제맛을 잃지 않고

항심(恒心)= 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으며,

불심(佛心)=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고

선심(善心)=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며,  
화심(和心)=어떤 음식과도 잘 조화된다고 칭송하였으며,

또한, 중국사람들은 된장 냄새를 일컬어 "고려취"라고 했는데  
건강한 몸을 "된장 살", "된장 힘" 이라고 부르면서 알 수 있듯이  
된장은 식탁을 넘어선 우리 한국인만이 갖는 동질감의 원천입니다.  
영양 만점, 건강 만점! 우리의 간장, 된장의 항암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된장의 원료가 되는 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포함된 된장, 콩 많이드시고 무병장수하소서...♥昔暗 曹 憲 燮♥  
161102

\*어느덧 시월도 가고 11월 첫날 아침.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지요.  
11월에는 불벗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소서~  
살포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



\*블벗님!

어느덧 시월 상달도

꼬리를 감추려 하네요.

한 달 동안 저의 불방을 찾아

주신님께 감사의 절 굽신 올립니다.

새로운 달 11월에도 변치 않는 우정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1031

\*농촌에는 추수가 마무리 되어가니 휴일 날씨가 싸늘하네요.

남명 조식(南冥 曹植) 선생의 사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실천궁행(實踐躬行)으로

"몸소 배우고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실천유학(實踐儒學)을 강조하셨고,

남명선생의 철학(哲學)은:경(敬)과 아울러 의(義)를 강조한 경의협지(敬義協之)로

"경(敬)으로써 내면을 밝혀 마음을 곧게 하고 의(義)로서 행동을 결단하여 모든

사물을 처리해 나간다,는 생활철학(生活哲學)을 견지하였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시 사회적 현실과 정치적 모순에는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로 임하셨기에 제자들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선 불의를 보고도 바른말 하는 강직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블벗님 시월 끝자락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1030

\*블벗님 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생사강;(천지 만물에 감사, 누구에게나 겸허, 많은 이에게 음덕, 수시 수처에서 참회)와

인간삼륜;(올바른 사람, 모든사람에 이롭고 도움이 되는 사람,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사람)은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들의 공통된 진리를 밝혀낸 햇불이며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소크라테스 철학계를 합한 큰 도리이지요.

우리 모두 현대 시류에 편승하여 사회의 범람한 곡학아세(曲學阿世)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에서 오랜 인류사회의 지성이 정밀하게 걸러낸 사강삼륜(四綱三倫)의

대 진리를 믿고 지켜 우리의 숙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었으면...♥석암 조현섭♥

161029==141028

\*블벗님 대구엔 가을비가 내리네요. 탁족(濯足)의 의미는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이 지은 어부가 빙그레 웃으며 노를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라지니 다시 더불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후세 사람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어부가, 또는 창랑가>라 이름 지어 불렀는데,

맹자는,“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하니, 이것은 물 스스로가 그런 사태를 가져오게 한 것이라며,” (淸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라고 해석을 하였대네요.

행복과 불행은 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처신 방법과 수양 여부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던 것, 그래서 탁족은 언제든지 강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선비의 이상향이자 선비 자신의 내면인 것이죠!

우리 옛 선조는 더위를 이겨내면서도 우주와 세상의 진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 지식인의 참다운 책무에 대해 고민 하였죠! 지금 현재 창랑의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상향을 갈고닦아야 할 때인지? ♥昔暗 曹憲燮♥  
161028

\*좋은 아침! 해마다 봄,가을이면 향우회, 동창회 모임이 많은듯한데, 그 중에도 시골 초등학교 코 흘리기 때 동창이 제일 좋은 듯한 것은 우리 인간의 회기본능, 귀소성(歸巢性)의 한 부분일 듯싶네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들을 지닌 채 살아가지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모하는 곳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이라며, 하늘나라는 따뜻하고 그리운 어머니의 품과도 같고 고향과도 같다는 신자의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송어와 은어는 알을 까고 나온 후 넓은 바다로 나가 마음껏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제 몸의 부화한 곳의 물 냄새를 기억하여 강 물살을 타고 거슬러 올라 강의 상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모천회귀라는데, 귀소성이 가장 강한 동물은 애기슴새인데, 이새는 동지에서 5,500km 나 떨어진 곳까지 밀폐된 용기에 담아 이송해 놓아도 12일 만에 자기의 동지로 되돌아간다고 하네요.

사람도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는 자도 있는 듯... 블벗님 어디서 살던 꿈과 희망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昔暗 曹憲燮♥  
\*반갑습니다.

161027

통할 수 있는 진실한

벗과 교제하고 책과 인터넷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쳐 보려고

애쓰는 자세를 취해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갔으면...

블벗님 이렇게 미천한 불방 찾아주시고 고운 글 남겨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아무튼 고맙습니다. 늘`건강하십시오♥昔暗 조현섭♥

161026

\* 블벗님께 카톡으로 보내온 "우국지심가 "를 댓글로 올려 봅니다.

"우국지심가 "

하늘이 높아가고 소슬바람이 불어

오곡백과 익어가는가을인가 여겼더니 ,,,

밤 마다 지축은 끊임없이 뒤흔들고

성난 비바람조차 기왓장을 훑날리네 ,

북쪽의 망난이는 악마의 주술에 걸려

한 손에는 미사일 또 한 손엔 핵 방망이 !

남쪽의 양떼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목동은 어디 가고 늑대들만 우글우글

조선소는 도크마다 불빛이 꺼져가고

선주 잃은 배들은 바다에서 헤메이네 ,

우글대는 잠룡들도 우를 보니 이무기요

좌를 봐도 독사들뿐

구국의 청룡은 눈에 띄질 않는구나 ,

아 ! 난세로다 ! 이 일을 어찌할꼬 !

이 난파선을 구원해 줄 영웅은 언제쯤 오시려나. ♥昔暗 조현섭♥

161025

\*블벗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우리가 자랄 때 시골 정미소 쥐새끼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어둡고 좁은 구멍으로 드나들며 벼 낱알을 갹아먹는 음흉맞은 쥐 새끼들,

하루를 멀다 하고 뉴스에 보도되는 공금 횡령 사건,

각종 지원금 착복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옛말에 부처님 앉았다 일어난 자리도 삼마 포대기가 있더라, 는

말도 있고 어찌 털어 먼저 안 나는 사람이야 있겠느냐마는...  
우리는 흔히들 간신배와 탐관오리를 쥐에 빗대어  
개인의 집보다 관청에 숨어 사는 쥐는 공공의 적 관창서(官倉鼠)라 하지요.

당나라 시인 조업은 관창서의 폐단을 이렇게 읊었는데,  
/관청 창고의 높은 쥐 크기가 고양이만 한데/ 사람을 봐도 문을 열어도 달아나질 않네,/ /군량미 바닥나고 백성들은 굶주리건만/ 누가 이놈을 보내어 날마다 쳐먹게 하나./  
시월 끝자락 한 주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열어가소서~~~♥昔暗 조현섭♥  
161024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 날 휴일 아침  
사위와 앞산에서 내려오니 이슬비가 내리며 제법 쌀쌀하네요.  
지위가 있는 사람은 학문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지요.  
탐욕이 있는 지위는 오히려 인격을 비뚤어 지게 하고  
타락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저 남한테 빌리지 않고 먹고 살만큼의 얼마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블벗님께서 잘 꾸며놓은 블방에 즐겁하고 다녀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023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주말 아침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  
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겠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띠 집도 안온하고 나물국도 향기롭다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소서... ♥昔暗 조현섭♥  
161022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퇴고란 문장을 다듬고 어휘도 적절한가를 살피는 일이데,  
이 말의 유래를 보면 당나라 시인 가도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詩 한 수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조죽지변수 승태월하문(鳥宿池邊樹僧推月下門)"  
(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자고 중은 달 아래 문을 민다' ) 라는 구절이 있는데  
'문을 밀까' 퇴[推]보다 '두드린다 고(敲)'를 놓고 퇴고 퇴고하면서 어느 쪽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하던 중 가도는 도지사 한유와 행렬에 부딪혀 한유 앞에 불려간  
가도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한유는 '퇴보다 고(敲)가 좋겠다'고 하여  
이 인연으로 당시 대문호인 한유와 가도는 두터운 교분을 맺었고 이후로 시문의 문자와  
어구를 손질하는 일을 퇴고라 말하게 되었다는데, 시나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저항을

느끼지 않는 것을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하였으니...글 잘쓰신분은 무봉탑을 새웠다네요.  
블벗님께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31021

\*블벗님 어느덧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법정 스님 글 중에는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다네,  
매화는 매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 어느 꽃에도 비교하지 않는 것,  
우리네 인생도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시샘과 열등감을 낳을 뿐이기에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어떨까 싶네요.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후회 없는 멋진 삶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조현섭♥  
161020

\*좋은 아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지리산 자락에 조선 영조 때 낙안군수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운조루(雲鳥樓)구름 속 새가 숨어 사는 집)라는 99칸  
대규모 주택이 있는데, 이집 공간 채 앞에 쌀이 두 가마 정도 들어가는  
유명[有名]한 쌀뒤주가 있는데.  
그 뒤주의 마개 부분에 타인능해[他人能解] 라고 써어 있는 것은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인 듯,  
주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편안하게 쌀을 가져가도록 쌀뒤주를 일부러 공간 채  
앞에 둔 것이라는데, 요즈음 말로 하면 더불어 사는 정신, 봉사정신, 보시정신인 것,  
류이주[柳爾胄]는 힘이 장사였으며 28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삼수갑산 새재'에서  
호랑이를 채찍으로 쳐 잡은 장사로 알려졌으며 42세에 남한산성을 쌓는 일과  
수원 화성 축조 등 건축에 능한 무관으로 46세에는 낙안군수가 되었고 은퇴하여  
운조루를 창건하였다네요.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작품에 쉬어갑니다. ♥昔暗 조현섭♥  
161019

\*화사하게 웃으라는 화요일 아침!  
어머니의 습관(習慣)은 아들의 습관이 되고,  
어머니의 인격(人格)은 자식의 인격에 분명한 그림자를 남기며.  
사악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는 사악함을 낳고,  
용감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는 용기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니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오늘 아침에 블벗님 올려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61018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때는 바야흐로 결혼시즌의 계절 예식장에 가보면 반가운 초등학교 선후배를 만나 옛날 이야기하다 보면 국민학교란 명칭이 나오지만, 국민학교란 어려웠던 시절의 6년간 정겹게 부르던 기초 교육을 배운 곳인데,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선인을 일본의 황국신민화 하려는 교육기관의 이름이라 예전엔 국민을 백성 또는 만백성이라 칭하였지요.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고구려 때는 경당이라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서당이라 불렀으며, 1883년 학당이라 불리다가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소학교, 1911년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1938년 심상소학교 1941년 일왕의 칙령으로 황국신민학교 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를 55년 동안 사용하다 1996년 초등학교로 개칭된 것인데, 결코, 좋은 뜻일 수 없는 국민학교란 명칭! 암울하고 가난했던 그 시절엔 우리는 모두 국민학교 동창이었지!. 그러나 국민학교의 국민이란 일본 황제의 신민이라는 뜻이 있어 바뀌었다네요. ♥昔暗 曹憲變♥  
161017

\*참 좋은 계절의 휴일 아침이네요.  
언젠가 뉴스에서 일본이 한국의 고유 음식인 비빔밥을 모방해서 자기네 음식인양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김치,두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 고추장도 이미 일본식으로 개조되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 분통 터질 일... 예전에는 한국 된장이나 고추장을 보고 마늘 된장 냄새난다고 멀리하던 족속들이 이제는 그 발효의 우수성을 왜놈의 고유 음식인양 선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미운 나라 일본이 발 빠르게 우리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영토까지 노려보는 근성에 10년 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제...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소서... ♥석암 조현섭♥

\*블벗님! 어느덧 시월 상달도 과반을 지나는 주말이네요.  
이 세상 내 것이 어디 있나요!  
잠시 말은 청지기(머슴)일 뿐,  
한평생 사용하다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저 큰 것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면 그 또한 행복이겠지요.  
참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올려주신 고은 불방 잘 보고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015

\*블벗님 좋은 아침입니다. 함석헌의 스승 유영모의 추도문에는 내가 책선하는 벗이 의중지인(意中之人),함께 말할만한 사람인데도 그와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함께 말해서 안될 사람인데도 그와말을 한다면 말을 잃게 된다는데,  
 지혜(智慧)있는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네요,  
 즉 말을하여 깨우칠만한 사람과 말을 하면 사람을 얻고 말을하여 전혀 깨우칠  
 가능성이 전혀없는 무식한 사람에게는 말만 잃게 되는 것,  
 종신양로 불왕백보(終身讓路 不狂白步)라,  
 모든 일을 겸양으로 처신하면 잃는 것은 적고 얻는 것이 많다 하오니  
 우리 모두 잘 처신하여 모든 것 이루시길 바라면서~~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1014

\*반갑습니다. 불벗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기요, 계영배요,  
 갈호배와 박만 같은데, 만사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들만 득실대니...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쪽심은 넘치는데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한듯하고  
 여당은 기득권 의지는 넘치는데 양보할 의도는 조금도 없으며  
 야권은 계파 간 주도권 욕심은 넘치는데 힘 합칠 의지는 박약하여  
 그래서 정치는 세고 갈등만 커지는데...  
 모자라도 그렇지만 지나쳐선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잃는 것,  
 대통령은 민심[民心]을 잃고 여당은 정의[正義]를 잃으며,  
 야당은 명분[名分]을 잃고 고 백남기 사망 사건은 공감[共感]을 잃은 듯, 하니  
 정부와 여야, 모든 국민이 서로 양보의 미덕으로 힘을 합쳐 국가에 이바지하였으면...♥昔暗 曹憲燮♥  
 161013

\*오곡이 황금빛으로 물든 탐스러운 참 좋은 계절! 좋은 아침 이네요.  
 로마시대 황제 세베루스는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황금률이라는 계율을 사용하였는데,  
 이 황금률은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내용인 적,  
 기소불욕 물시어인 (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  
 오늘날 성직자들은 세베루스가 소중히 여겼던 그 계율을 황금률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황금률이라 하고  
 세베루스의 황금률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라면서 예수님의 황금률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은율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네요. 황금률이든 은율이든 좋은 말이지요.  
 언제나 불벗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曹憲燮♥  
 161012

\*불벗님 어느덧 시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제법 날씨가 쌀쌀하네요.  
 모든 사람 좋은 습관을 길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었으면---  
 좋은 습관은 성공 나무의 뿌리고, 버릇은 잔뿌리들이며,

노력은 가지이고 용서는 앞이며 감사는 열매라지요.

나쁜 습관은 나무의 해충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고 집중하여 좋은 습관으로 고쳐나가면

운명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뀐다네요.

우리 모두 좋은 습관 길러 행복하게 살아갔으면...고은 불방 잘 보고갑니다. ♥석암曹憲燮♥

161011

\*불벗님 휴일은 잘 보내셨지요?

가을이라 그런지 일요일에 휴게소에 나가보니 산악회, 혈연,학연, 지연, 결혼식 등.

관광차가 뺑뺑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임도 한 나이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어 지팡이 잡고 움직이는 것을 볼 때는 내 마음도 편치않고, 젊은이들 틈 바구니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 갈 것을 생각하면!---

옛날 선비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러 고향을 떠날 때 항상“관광(觀光)하러 간다.”고 했다네요.

관광(觀光)은 글자 그대로 빛(光)을 본다(觀)는 뜻,

여기에 빛이란 태양과 같은 존재인 임금(王)을 말함이며 관광은 임금을 보러 간다는 뜻으로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뽑히면 임금과 독대해서 어주를 받고 3일 휴가를 얻어 금의환향 했다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曹憲燮♥

161010

\*안녕하세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한글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기리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마음을 굳건히 다 저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단기 4349년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기원인 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각조차 왜놈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라우데자네이루와 남한뿐,

거리에 간판들은 온통 영어 간판이 판을 치고, 왜놈 앞잡이들의 재산 환수조차 물거품 되었으니...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해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듯,~ 불벗님 즐거운 휴일 되소서, ♥석암曹憲燮♥

161009

\*불벗님!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날 아침 대구엔 하염없이 줄비가 내리네요.

미소 짓는 얼굴에 항상 남을 칭찬하는 마음씨가 과거의 잘못을 소멸한다는데,

이 지구 상에 가장 미개한 부족의 하나인 남아프리카의 바벳바족 사회에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어쩌다 죄짓는 사람이 생기면 기발하고 멋들어진 방법으로 죄인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세우고 큰 원을 이루어 둘러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죄를 진 사람에게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며칠을 칭찬의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며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은 죄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모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되어 범죄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니...그들을 진정 미개한 부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미소와 칭찬은 돈 들지 않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니 많은 칭찬 하소서~ ♥昔暗 曹憲燮♥  
161008

\*안녕하세요.  
우리는 거의다  
서로가 만난 적도  
없지만, 댓글을 주고  
받으며 기쁜 일은 서로  
축하해 주고 슬픈 일은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며 보듬어 주는  
블벗님과의 진실한 벗이 되기를 소망 하면서---  
올려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1007

\*블벗님 태풍 피해는 없어 신지요? 한국인의 세계에서 활약 중인 굴지의 인물 자랑스럽네요.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한 미국 대사 성김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연임된 김용,

이종석 전 WHO 사무총장, 일본 IT의 신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박찬호, 김연아, 손연재, 조수미 등 한류 스타와 올림픽 금메달 선수 등, 실로 장한 인물들...

유엔 산하 단체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던 국가에서 이제 당당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네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랑스러운 인물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면서, 다녀갑시다.♥昔暗 曹憲燮♥  
161006

\*블벗님! 태풍 ‘차바’ 영향으로 대구엔 밤새도록 비가 내리지만,  
오후에 대부분 그친다니 단도리 잘하시어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미소 짓는 얼굴에 항상 남을 칭찬하는 마음씨가 과거의 잘못을 소멸한다 하오니  
우리 모두 감사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웃음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曹憲燮♥

161005

\*블벗님 3일간의 연휴 잘 보내셨지요.

한방에서는 인간의 오장은 감각 기관에 직결되어 있어 내장에 이상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즉, 간은 눈에, 폐는 코에, 심장은 혀, 지라는 입에 콩팥(신장)은 귀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아 병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지만,

반드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나니 우리 모두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나쁜 일은 삼가고 좋은 일만 하였으면...

오늘도 올려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61004

\*종하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이

개국한 제 4,349주년 건국 기념일 개천절!

이 성스러운 날이 저의 결혼 41주년 기념일이네요.

남은 삶 아내와 가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짐해 봅니다.

황금연휴 끝자락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면서~올려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1003

**\*가을비 내리는 휴일 아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삶의 애착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불 만족스러운 무거운 삶 뿐인 것을...**

**버릴 것이 무엇이며, 가질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무거운 짐인 걸...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벗님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 이른 아침 정기 산행 일이라 살포시 다녀갑니다.♥석암 曹憲燮♥**

161002

**\*블벗님!!! 비가 올 듯 찌뿌등한 10월 연휴 첫날 제68회 국군의 날 아침**

**예로부터 10월은 상달이라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와 결혼의 계절! 이 좋은 계절에 고운 걸음으로 고운 글 남겨 주시니**

**이달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살맛 나는 10월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을 최상으로 쌓아 가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황금연휴를 시작으로 즐거운 시월 열어가입시더.~**

♥석암 曹憲燮♥

161001

\*세월이 빠른 것인지,  
우리의 삶이 바쁜 것인지,  
어느덧 9월도 마감을 하려나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미한 도심을 길러 위태로운  
인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자신에게 공을 들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지요.

아쉽지만 가는 9월 내년을 기약하며 곱게 보내드리고 10월 상달에는  
블벗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석암 曹憲燮 ♥  
160930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는 아침! 우산을 받쳐 들고 앞산서 내려오면서 위인을 생각해보니  
부산대 입구 사거리에 가면 작은 공원에는 부사 민영훈의 거사비가 있는데,  
거사비란? 목민관이 재임 중에 선정을 베풀어 향민이 그가 떠나고 난 후  
그의 공덕을 기려 비석을 세운 것이라는데,

비문에는 “조선 말기 동래부사로 부임한 민영훈은 극심한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흉년을 이겨 내었으며  
만인의 목숨을 구하여 卼그 공덕을 백세 뒷날까지 노래하리라.” 라고 쓰여 있네요.

보통 목민관의 선정 공덕은 영세 불망비, 선정비, 공덕비 등은 재임 기간에 세웠지만  
거사비는 임기가 끝나고 떠난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뜻에서  
세웠다는데 그 뜻이 있는 듯,  
이소중한 유물이 손가락을 곱을 정도로 몇 안 되고 보니 그 가치와 내용에 있어  
목민관의 민본 사상에 바탕을 둔 위민정신이 현 세태를 볼 때 더욱 빛이 나는 듯,♥석암 曹憲燮 ♥  
160929

\*블벗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정자들의 정치 형태가 개판인 듯---이를 때 흔히 개판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앞뒤 순서가 헝클어져 엉망이 되었을 때 일컫는 말이지만,

개판이란!

우리 선조가 성스럽게 이어져 오던 계불의식(稽紱儀式)이란 말에서 잘못 표현된 것이었다네요.

옛날 삼신님께 죄를 지은 황궁이 죄(罪)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제단에 나가 하늘에 속죄해 줄 것을 비는 것을 계불의식이라 하였는데,

이처럼 속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불이 있고, 그 마음이 없으면 계불이 없었다고 하여 계불이 개뿔로 되고 “개뿔도 없다” 라고 하였고 계불의식을 한 장소가 판이 되어 개판으로 폼하 되고 우화로까지 비약 되었다고 하네요.

2~3일 남은 9월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다녀갑니다.♥석암 曹憲燮 ♥  
160928

\*반갑습니다. 불벗님! 오늘 아침 앞산 등산길 비 온 뒤라 그런지 산과 개천이 깔끔하게 씻기는 물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한결 깨끗한 기분이네요.

행복이란!

차 한 잔과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같이 나누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심 없는 진실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우리와 같이 컴퓨터 자판으로나마 진실한 마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또한,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언제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며,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  
160927

\*그 옛날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 하였는데, 등화가친(燈火可親)이란!

당(唐)나라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한유(韓愈)는 자식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아들 창(昶)에게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보내 독서를 권한 詩는 때는 가을이 되어 장마도 마침내 개이고 / 서늘한 바람은 마을에 가득 하여/ (燈火可親)이제 등불도 가까이할 수 있으니 / 책을 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한유의 시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데. 지금은 등산가친이라 하는 것이 어울릴 듯,

요즘 어디 가을이라 청명한 가을 하늘 제쳐 두고 방에 틀어박혀 책(冊)만

읽고 있을쏜가? 바리바리 올려메고 산을 찾는 등산인을 보면 가을은 정녕 燈山可親의

계절이라! 몸은 움직여야 건강하다니 시원한 막새 바람, 갈바람 타고 돌레길이라도

걸어보면 몸에는 보약...불벗님 끝자락 9월 마무리 잘하소서...☒♥석암 曹憲燮 ♥

160926

\*참 좋은 주말 아침! 만해한용운 스님의 제자 춘성 스님은 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생일에 초대받아 한 말씀인즉 오늘은 육영수 보살이 지 에미 ㅂㅈ에서 응아하고 나온 날이다!"  
춘성이 강화도 보문사에 육영수 여사가 찾아왔는데 춘성은 "뽀뽀나 하자"고 달려들었는데 육여사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잘 대응해 육 여사가 박 대통령에게 얘기하니 "근래 보기 드문 큰스님이군 하였다네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가 버스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혔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  
이때 춘성 스님이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놈들아, 내 평생에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내 ㅈ밖에 못 봤다!"  
내 ㅈ은 매일 새벽마다 부활하니 너희들은 내 ㅈ을 믿어라 하니 승객들은 깔깔대며웃어대니  
그 전도사는 혼비백산 사라졌다고 하네요. 불벗님 웃음 가득한 반공일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924

\*어느덧 9월도 딱 일주일 남았네요.  
덕본재말(德本財末)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라.  
근본을 소홀히 하고 말단을 소중히 여기면  
백성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타툰다지요,  
재물은 하늘의 것이고 사람은 잠시 말은 청지기(머슴)일 뿐,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하고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한다네요.  
그저 남한테 빌리려 가지 않을 정도면 흠족 하지요,  
불벗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금쪽같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昔暗 曹 憲 燮♥  
160923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오늘부터 점점 밤이 길어진다고,  
올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데,  
노화로 인한 병사보다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생을 포기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노인들이 많아지니 tonk족 노인들이 유행이라는 데,  
통크족!! 즉, 자식들과 별도로 두 노인 홀 노인만 사는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지를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 후회한들 무슨 소용...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거울삼아 후회 없는 멋진 삶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석암 曹憲燮♥  
160922

\* 오늘 아침은 하늘이 높고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없애보십시오.

고집불통이라 하잖아요.

고집을 부리면 몸 안에서 기가 통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도 되지 않는다네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용서해보면 마음이 훨씬 편하듯,

원망하고 짜증 내고 화내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그게 바로 평온이지요.

병의 근원은 고집불통임을 명심하여 내 마음에서 고치면 99%는 나은 것이라네요.

블벗님 언제나 건강 관리 잘하시고 무병장수 하소서--- ♥석암 曹憲燮♥

160921

\*블벗님 9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활짝 핀 코스모스 향기에 취한 듯,

파란 가을 하늘엔 흘러가는 흰 뭉게구름과 오곡백과가 넘실대는 참 좋은 아침,

언제나 반가운 님과 고운 대화 나누면서 지나친 출세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실을 다져 나가는 겸양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기 담긴 고운 블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920

\*추석 연휴에 선조님 산소에서 바라보니 선조님을 평가한 글이 생각나네요.

남명 조식(南冥 曹植)선생을 당대 내노라하는 문인께서 평가하신 것을 보면...

한강 정구(寒岡 鄭逵대사헌): 조식선생의 기질은 태산교악(泰山喬嶽)으로

행동이 태산과 같이 크다 하셨고,

동강 김우옹(東崗 金宇顥대사헌); 조식선생의 성정은 추상열일(秋霜烈日)로 가을의 서릿발이나

여름의 태양처럼 엄정하고 권위가 있었다 하셨으며,

미수 허목(眉叟 許穆 우의정): 조식선생의 처세를 불구종(不苟從)불구묵(不苟默)으로

불의를 보고 구차하게 따르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침묵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으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좌의정) :조식선생의 공덕은 입유렴완(立濡廉頑)으로

나약한 선비를 강하게 만들었고 탐악한 관료들을 청렴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율곡 이이(栗谷 李瑔 이조판서): 조식선생은 선비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이는

오직 이 세상 남명 뿐이라 하셨고,

택당 이식(澤堂 李植 이조판서): 조식선생은 고고한 자세로 세상을 내려다 보았다고 하였으니

진정한 처사야말로 나 뿐이야 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우리 역사에 유일한 처사요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평가하였다네요.

블벗님 일상으로 돌아온 새로운 한 주 보람차고 알차게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석암 조현섭♥

160919

\*한가위 빛속의 연휴 끝자락 휴일이네요. 주역의 건괘는 용을 네 종류로 크게 나누어,  
잠룡(潛龍)=작은 물에서 고초를 감내하며 덕을 쌓는 것을 말하고  
견룡(見龍)=세상에 나와 능력을 시험하면서 승천을 엿보며,  
비룡(飛龍)=하늘을 나는 용으로 제왕의 위치에 오르고  
항룡(亢龍)=권세와 명예가 절정에 달한 승천한 용이라는데,  
그르나 항룡이 더 오르려고 욕심을 내면 항룡유회(亢龍有悔)라!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했거늘~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상책인 듯...

블벗님 하루 남은 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918

\*대구엔 어제부터

밤새도록 비가 내리네요.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쓰잘대기 없는 비가 오니 성묘길에

비를 흠뻑 맞으며 다녀야 하니 불편하네요.

우리는 하나의 행동을 뿌렸을 때 하나의 습관을

거두게 되고 하나의 습관은 성격을 거두게 되며, 성격은

운명을 거두기 때문에 항상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갔으면~

블벗님의 소중한 유익한 자료에 공감하며 배울 수 있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마음에 와 닿는 고운 불방 즐감하며 잘 쉬어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917

\*블벗님! 추석 차례는 잘 모셨는지요. 가족과 친지분과 덕담도 나누시고

온 가족이 화기애애한 즐거움을 많이 나누셨겠지요.

저의 식구도 부산 장조카 집에서 차례모시고 술 잔에 덕담 나누다가 02시쯤 돌아왔습니다.

선인들은 술이 한 바퀴 도는것을 한 순배(巡杯)하고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잔이 세 순배 돌면 훈훈하고,

잔이 다섯 순배 돌면 기분이 좋으며, 일곱 순배 돌면 흡족하고,

아홉 순배 돌면 지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잔을 돌리거나 권하지 말라 하셨으니.

건강를 위해 과유불급[過猶不及] 명심하십시오. ◆昔暗 조현섭◆

160916

\*블벗님!!!

어제 오후부터

고향을 찾는 귀성길,

대 이동이 시작되었네요.



고향길 성묘길 안전 운행 조심하시고

내 가족, 내 친척,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 장조카 집으로 갑니다. 다녀와서 만나 뵈웁겠습니다. ♥昔暗 曹 憲 燮♥

160914

\*블벗님 많이 놀라셨지요. 사상 최대의 경주 5.8 강진...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으며  
휴대전화·카톡 불통... 안전처 홈피가 먹통이 되어 불안감을 더했지만,  
다행히도 큰 인명 피해가 없어 한숨 돌렸나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강진에 안전지역이 아니어서 단디 단속 해야겠습니다.

경주 강진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추석연휴가 어수선하지만,

매사 여유롭게 대처하여 무사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913

\*블벗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참 좋은 때이지만, 5차 핵실험으로 내우외환이네요.

1945년 8월;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 친일파와 독립군의 대립을  
심어 놓아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란 말을 요즘 한국의 정서를 보면서...

한민족은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 세대 간 대립, 모든일은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인 상생국가가 되어야 함에도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하여 북한의 핵 공격 위협도,  
일본의 독도를 노리는 야욕도 망각하고 정권쟁탈의 투쟁으로 삼고 있는 듯,

일본은 로비의 달인이고, 미국은 한.일 합방을 묵인하여 조선은 일본에 넘기고 필리핀은 미국이

갖는 밀약을 하였으니 과연 미국은 어느 나라 편에 설 것인가? 결코, 안심할 일은 아닌 듯 싶네요.♥석암 曹憲燮♥

160912

**\*블벗님 추석 대목도 물가가 비싸니 장사가 안되어 울상이네요.**

**우리 모두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바로 나의 거울이라 생각하고**

**내 속을 보여주니 나를 묵고 감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무시공(無時空)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힘든 삶에 조금이라도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성 드려 올려주신 주옥같은 고운 불방 즐감 하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911

**\*블벗님 추석 밑 주말! 바쁘시지요. 있어야 할 자리, 나만의 자리는 어딘가?**

지금 서 이 자리는 제자리인가?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시세

보리밭에 자디가 나면 잡초고. 자디밭에 보리가 나면 또한 잡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향기로운 꽃이 되고 머무를 자리가 아닌 데

다리 뻗고 버티면 잡초가 된다는데

옛 성인들은 나아가고 물러남의 관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고,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미리 가파하고 스스로 사직의 길을 택하기도 했으며.  
현직에 있을 때에도 인간 본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네요.

직위에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며 큰 이득을 남기다고 한 말을 되새겨 볼 때  
모라이나 벼꽃은 필만큼 피었다가 때가 다하면 미려 없이 무너져 내리고 후풍에  
흘날려 뒤끝이 사뭇하고 깨끗한 자연계의 말 없는 교훈처럼 우리의 인생도  
깨끗했으며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昔暗曹憲燮♥  
160910

\*좋은 아침!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하였으나 옛날 어느 책(冊)에도 천고마비란 말은 없다고 하네요.  
원래 천고마비(天高馬肥)는 추고마비(秋高馬肥)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데,  
추고마비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할아버지 두심언(杜審言)이  
흥노족과 대치하고 있는 변방의 수비대장 소미도에게 격려시를 보냈는데...  
벗을 위해 쓴 오언율시(五言律詩)를 보면,

운성요성락(雲淨妖星落)--구름은 움직임이 없는데, 요사스런 별은 떨어지고

추고새마비(秋高塞馬肥)--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는구나.

거안웅검동(據鞍雄劍動)--말안장에 올라타면 영웅의 칼은 춤을 추고

요필우서비(搖筆羽書飛)--붓을 휘두르니 격문이 날아오는 도다.

블벗님 천고마비든 추고마비든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니 등산가친이 좋을 듯...♥昔暗曹憲燮♥  
160909

\*백로가 지난 오늘 아침은 제법 서늘한 날씨만큼 기분 좋은 날이네요.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 하여  
늙은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 했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와석종신[臥席終身] 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해로동혈[偕老同穴]해야 할 터...  
블벗님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그런 날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昔暗曹憲燮♥  
160908

\*블벗님 찬이슬이 내려서 가을 기운을 더해 준다는 참 좋은 백로 날 아침!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듯,  
그중에서 특히 정치 분야는 봉당 정치에 해당할 정도로 패거리 형태를 보이며,

자기편이 아니면 정책이고 이론이고 무시하고 당동벌이(黨同伐異) 형태를 벌이고 있는데,  
반대의견을 개진하면 좌파, 우파 몰아붙이는 이념적 파당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네요.

고위 공직자는 청렴결백 사회 모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말은 술하게 들어 왔지요.  
모든 사람이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昔暗 曹 憲 燮♥  
160807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중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네요.  
블벗님! 늘~함께해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60906

\*반갑습니다. 휴일 잘 지내셨지요.  
예의염치(禮義廉恥)란!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말함인데  
예(禮)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義)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의리이며,  
염(廉)은, 청렴, 결백, 검소, 곧고 바름을 말하고  
치(恥)는, 부끄러움과 창피함, 욕된 것을 아는 것을 말함인데,  
  
예전엔 먹고살기는 힘들었지만, 동방예의지국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위정자와 지위가 높을수록 예의와 염치도 인심도 없고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것마저도 태동할 것 같지 않을 때"를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도덕성 위기인가 싶네요.  
블벗님의 소중한 글과 유익한 자료에 쉬어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석암 曹憲燮♥  
160905

**\*블벗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코앞이라**  
**벌초하라 추석 준비하라**  
**바쁘시지요. 채근담에 이르기를...**  
**운명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데**  
**이 세상에 가장 친한 벗도 나 자신이고**  
**가장 나쁜 벗도 나 자신이며, 나를 구할 수**  
**있는 힘도 나 자신 속에 있으며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나쁜 칼날도 나 자신 속에 있으니 결국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네요.  
오늘도 즐겁고 미소 가득한 휴일 보내소서,~^~^ ♥昔暗 曹憲燮♥  
160904

\*고운비 내리는 주말 아침, 조선 시대의 이름난 인물들은 탄핵도 많이 당했다는데,  
세조가 집권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예종-성종 대까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한명회(韓明澮)는 성종 대에만 대간들로부터 1백 7번이나 탄핵당했고,  
동시대의 임사홍(任士洪)은 1백 40번,  
유자광(柳子光)은 56번에 걸쳐 탄핵을 받았으며  
조광조, 정인홍, 송시열, 윤선도, 정약용, 이순신 등 이 사약, 또는 탄핵을 받았다는 사실...

신진 사림파와 훈구파의 세력다툼이라는 배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이 거듭되면 위축되기 마련인 것을...

조선의 탄핵제도는 특정 권신(權臣)의 권력 남용을 막아 집권 세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한것이라는데, 지금의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문란해진 사회 기풍 바로잡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 마나한 청문회 명망 있고 깨끗한자는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으니...  
젊은이들 뵈보고 배울는지... 불벗님 9월의 첫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903

\*대구엔 밤새도록 고운 비가 내리네요. 옛말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하였는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첫 날은 무사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참 좋은 가을엔 불벗님 가정에 하시는 일마다 용이 하늘에 승천하듯 큰 소망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정성 드려 올려주신 주옥같은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902

\*9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명나라 선사인 태을진인(太乙真人)의 칠금문(七禁文) 양생법 비결에는  
1. 말을 적게 해 내기를 기르고  
2. 색욕을 조심해 정기를 기르며  
3. 입맛을 담백하게 해 혈기를 기르고  
4. 진액을 보존해 오장의 기운을 기르며,  
5. 분노를 조절해 간장의 기운을 기르고  
6. 음식을 조절해 위장의 기운을 기르며,  
7. 생각을 적게 하고, 심기를 길러 마음을 잘 다스려,  
태을진인 선사의 말처럼 칠금문의 양생법 비결을 행겨 마음을 잘 다스려서

늘~건강하게 살아가입시더, 블벗님!!! ♥석암 肫憲燮♥

160901

\*유난히도 무더웠든 폭염의 달 8월 미련 없이 보내드리고  
 제철 음식에 입맛이 땡겨 사람이 살 찐다는 천고인비[天高人肥]의 계절!  
 희망찬 9월에는 바람 부는 데로 물 흐르듯 구름 가듯 ~  
 평온한 마음 가지시고 늘 ,~건강 챙기시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하면서...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60831

\*안녕하세요. 고승 열전(高僧列傳)에 나오는 글을 올려봅니다.

<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 >  
 눈(眼)-----도둑은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하고  
 귀(耳)-----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지,  
 콧구멍(鼻)-도둑은 좋은 냄새는 제가 맡으려 하고  
 혀바닥(舌)-도둑은 온갖 거짓말에다 맛난 것만 먹으려 하지,  
 몸뚱이(體)-그 중에 제일 큰 도둑은 훔치고 못된 짓 좋아하는 몸뚱이 도둑,  
 생각(識)---마지막 도둑은 생각 도둑, 이놈은 싫고 저놈은 없애야 한다며  
 혼자 화내고 떠들어 대며 난리를 치지,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도둑일세,  
 우리모두 복(福)받으려면, 우선 이 여섯 가지 도둑부터 없애야겠지요.  
 불벗님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화사하게 활짝웃는 화요일 잘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830

\*동동 팔월도 저물어가니 매미 소리와 반딧불이 서서히 멀어져가고,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스럽게 귀뚫귀뚫 울어대는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

불벗님 가정에 풍성한 결실과 많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면서...  
 8월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고 꺾찬 오곡처럼 풍성한 9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829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최치원 선생의 시 한 수를 댓글로 올려봅니다.  
 삶(人 生) 고운(孤 雲) 최치원

여보게 자네! 내 말 좀 들어보게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고,

내외도 이부자리 안에 내외지.

아무지게 산들 뽀죽할 것 없고

덤덤하게 살아도 밀질 것 없다.

속을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자.

자네 주머니 든든하면

술 한 잔 받아주게,

내 돈 있으면 자네 또 한 잔 사줌세,

너요 내요 그럴 게 뭐고,

거물거물 서산에 해 지면

자넌들 지고 갈 건가? 안고 갈 건가?

8월의 끝자락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블벗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828

\*블벗님! 대구엔 꿀맛 같은 단비가 병아리 눈물만큼 내렸지만 시원해서 좋네요.

옛말에 좋은 친구와 같이 있으면 향기로운 지초가 가득한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이 비린내가 난다고 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했지요.

우리 모두 벼를 사귄때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는 중국의 관중과 포숙,

신라의 다사함과 이사부,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을 본보기로 삼아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는 못되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지란지교 같은 참된 교우가 이루어 졌으면...♥昔暗 曹憲燮♥

160827

\* 대구엔 단비가 짝끔 내리네요. 중국의 성리학자는 키스로 나타나는 반응의 한자성어인즉슨,

이구동성(異口同聲)-다른 입끼리 모여서 같은 소리를 냄

좌충우돌(左衝右突)-입속에서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침

설왕설래(舌往舌來)-혀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함

진퇴양난(進退兩難)-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짐.

혼수상태(昏睡狀態)-결국에는 아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몽롱한 상태가 됨.

셰익스피어는 키스를 “사랑의 도장이라 했으며” kiss의 의미는 단 하나 사랑이라 했고

독일의 천재 시인 괴테(Goethe)의 시에는 고희(古稀)를 넘긴 74살의 나이에도

19살 소녀에게 실연당한 뒤 써내려간 괴테 눈물의 시도 있지만, 생략...♥석암 曹憲燮♥

160826

\*지긋지긋한 폭염도 이제 오늘이 고비라네요.

우리는 무엇이든 노력과 숙련이 필요하다는데.

남이 한 번으로 잘하면 나는 백 번이라도 반복 하고  
남이 열 번으로 잘 하면 나는천번 천 번이라도 되풀이하여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요.

우리 모두 힘내어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불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825

\*안녕하세요. 늦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이지만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덥네요.

하지만, 무더위도 절기를 이기지는 못하고 결실의 계절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겠지요.

어떤 일이든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합니다.

qmfqjt님 하시는 일도 즐기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 憲 燮♡

160823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최복현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편지’에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

나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를 만들어 가는 알게 모르게 수년이 지나고 나면

내 습관이 나를 얼마나 변하게 했는지 알 수 있다네요.

항상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긍정의 말만 하는 습관, 남에게 뭔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습관,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습관,

10년이 지나고나면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승자의 삶을 살며,

이미 만들어진 나쁜 습관들은 하나씩 지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말, 좋은 행동의 반복들이 모여서 좋은 습관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 憲 燮♡

160822

\*참 좋은 휴일이지만 여전히 무덥네요, 세상사 몹시 시끄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무척 어려우며 모두가 자기 본위로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운데, 이 세상에서 사랑

하고 다투며 살아가지만, 마음 편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일 진데...,

그래서 종교, 사랑, 수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해 보지만 해결은 쉽지 않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회로애락은 모두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짜증 내며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못된 이 쓰레기 같은 마음들은 비, 바람에 날려 보내 마음 한번 바꿔 보았으면...

불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멋진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 憲 燮♡



160821

\*하늘에서 해가 땅 위에선 가슴이 타오르는  
정열의 8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승리자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자는 슬픔에 살며,  
승리나 패배를 버린 자는 행복하게 산다네요.  
청도 운문사 입구에 쓰여있던 글귀처럼  
우리 모두 승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블벗님 주말과 휴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曹 憲 燮♥

160820

\*무더위가 기성을 부린 폭염도 아침저녁으로 귀뚜라미 소리에 한풀 꺾이네요.  
71년 전 친일파와 반역자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정신을 팔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독립군 후손들은 친일파 후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후세대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정의가 사라지고 부(富)만 따라가는 것 같아  
 씩씩하네요.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때 왜놈의 조총 앞에 활과 칼로 무뎡포가 승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란 말 밖엔 ... 왜놈들이 전쟁의 책임도 잊은 듯 전범 7인 묘비를  
순국열사로 지칭하여 날뛰고 이제는 전쟁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나,  
위정자들은 국가 예산이나 국방사업비 등을 뽕팡이나 치고,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대처할 생각은 않고 남북으로 동서로 신세대와 구세대로 갈리고 있으니...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참 좋은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819

\*블벗님!  
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아침저녁  
으로 날씨가 제법 산산하여  
오늘도 상큼한 아침공기에 내 마음  
한결 상쾌하고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한낮엔 무더위 불쾌지수가 높으니  
건강 잘 챙기시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불방 머물다 갑니다. ♥석암 曹 憲 燮♥

160818

\*블벗님

지난 밤은

잘 주무셨지요.

휴가철이 지나가니

처성자옥(妻城子獄)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아내는 성(城)이요 자녀는

감옥이란 말, 즉 처자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얹매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말함인데, 황금연휴가

되니 예외 없이 찾아오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피붙이가 북적대며 야단법석을 떠는

정신없는 날들 삼계가 열택인데 이 육신은 그들 뒷바라지에

신경을 쓰니 올 때는 반갑지만 가는 뒷모습이 더더욱 곱게 보인다는

말처럼 다 보내고 연휴가 끝나니 집이 절처럼 고요하니 몸도, 마음도 평온하네요.

백중날이 되니 어릴 적 외서리 하고 불치미 먹던 때가 생각나 저녁엔 대포 한 잔하러오이소. 昔暗 曹憲燮♥

160817

\*블벗님 여름나기 힘드시지요. 제가 처음으로 자작시 올려본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건만, 이것 저것 정리해놓은 것을 올리다 보니

1년 동안 올린 글이 24편 한 달에 두 편 정도

詩라 할 수도 없는 제 이야기만 쓴 것 같네요.

정말 시를 쓰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의 기운이 말복에 굴복한다는 날인데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오늘 아침엔 매일 다니든 앞산행을 포기하고

“뽕 대신 달이라 했던가!”

산 오르기가 너무 무더워 평 길인 두류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니

아침 산책길이 복잡한걸 보니 정말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가 봅니다.

하지만 기온차이는 3~4도 정도 앞산이 시원한 것 같네요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816

\*블벗님! 연휴 잘 지내시지요? 오늘은 36년간 왜놈 한데서 해방된 8-15 광복절 71주년이네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놈들 믿지 말며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러 일 전쟁 발발 후 포츠머스 강화 회담이 1905년 8월 9일~29일까지의 회담에서,

제, 2조에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미군 놈들이

필리핀은 미국이 권리를 가지고 한국은 일본에 넘겨진 포츠머스 강화 회담,  
 독립군은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해방을 했지만. 후손들의 혜택은 미미하여 어렵게 살며  
 친일파 후손들은 평평거리며 살고 있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 땅  
 독도를 빼앗긴다해도 독도를 지킬 분은 소수에 그칠듯싶네요. 여야 국회의원도 못 가게 지랄하니...  
 문제는 고종임금,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명성황후(민비)의 주도권 싸움에 왜놈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미국, 러시아, 영국에 조선을 맡아 달라 친서를 보내 국제정세에  
 세상 물정 모르고 귀를 막고 있었던 것, 당파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으니... ♡석암 曹憲燮♡  
 160815

\*블벗님 많이 덥지요. 소낙비라도 퍼부어 대지를 식혀주었으면... 불과 16년 전만 해도  
 대구가 무덥고 삭막한 도시의 대명사 역대 최고기온(대구 40℃1942년 8월1일)이었지만,  
 지방뉴스를 보면 엇그제 12일 대구 36.9℃보다 높은 경산시 하양읍 40.3℃, 경주 39.4℃  
 영천 39℃,안동, 밀양, 합천 등을 생각하면 덜 덥네요.  
 저의 생각엔 무소속으로 당선된 민선 1,2기 문희갑 대구시장님께서 1차[96년~2,000년]  
 5개년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으로 1,050억 원을 들여 포플라 나무 등 300만 그루를  
 심었으며 학교 공원 아파트 주택까지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 산소와 녹색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였으니 마중물 같으신 문희갑 전 시장님의 성과라 생각 합니다.  
 또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대구 민선 무소속 남구청장 재직 시에  
 삼각로티리 부근 대명동 우리 동네[18~19번 도로] 140여 개의 퇴폐 유흥업소를  
 조직폭력배들의 협박 속에서도 단 몇 개월 만에 모두 문을 닫게 한 분이신데.  
 문희갑 시장님은 한나라당으로 이재용 청장님은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셔서 당리당락에  
 막혀 큰일을 못하시는가 싶네요. 그 후의 단체장들은 정부와 당의 정책에 밀려 일할 수 없는지?  
 20년간 대구가 국민소득 공지를 못 면하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네요. 연휴 잘 보내이소. ♡석암 曹憲燮♡  
 160814--150725

\*블벗님 폭염특보와 열대야에 여름나기 힘드시지요.  
 짭막한 글 하나 올려봅니다.  
 "참 좋은 당신"  
 참 좋은 당신 아무리 찾아봐도 미운 곳이 없는데,  
 미운 그 사람은 하는 짓마다 밍게만 보이네,  
 밍고 고운 그 마음이 둘이 아니랍니다.  
 숨이 막힐 듯 찜통더위지만, 우리 모두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 좋은 주말  
 황금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813

**\*블벗님 전국이 폭염경보에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의 블로그 공개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 지났네요.

12년 8월 9일 이전엔 누구한테도 컴을 배운 곳 없이 저 혼자 무진 작 실패를 거쳐

집요한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유능하신 분과 대화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의 블로그를 공개하였으나,

블로그 글을 직접 쓴 글이다 보니 철자법. 띄어쓰기, 한자 등 많이 부족하여 댓글로 혹은 전화로

수정, 바로잡아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고도 해 주시고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오선자 시오적 도오악자 시오사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라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 하였으니,

많은 충고와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고치고 스승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昔暗 조현섭-◆

160812

**\*반갑습니다. 블벗님! 불멸더위의 절정기인 등등 팔월도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와 고위 관료를 성취하는 방법은 자신의 타이밍인 듯,

삶에서 물러서고, 머무르고, 나아갈 때를 잘 알며 역량을 집중하여 시기를 포착하려는

최대의 노력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의 꽃으로 스스로 운을 만들고

한평생 세 번은 운이 온다 하니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여유와 터닝포인트 까지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유천(大富由天) 소부유근(小富由勤). 큰 부자는 하늘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 하니,

우리 모두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석암 曹憲燮♡

160811

**\* 요즈음 뉴스를 보면 잘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참으로 많지요.**

어떤 걸 그룹은 노래는 둘째 치고 얼짱, 몸짱, 춤짱으로 이웃 나라에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세계스타 빅뱅은 1년 수입이 4~5백 억원이 된다니 또한, 어떤 재벌은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려 한류재풍을 일으켜, 명품 명인이 따로 없이 그들이 명품 명인, 잘 나고 돈 잘 벌고...

예나 지금이나 부잣집이선 귀한 것을 담고 가난한 집에선 여물 같은 것을 담는 뒤웅박 팔자도 있지만,

재(財), 관(官, 인(印) 돈과 벼슬, 그리고 학벌 돈만 있어도 안 되고 벼슬이 있어야 하고

벼슬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상팔자가 된다는 것, 이를 두고 명리학 에서는

**재관쌍미(財官雙美)**재물과 벼슬을 갖추어 아름답다는 것, 육십갑자 중 계사 임오를 말함인데,

최고 일당 5~6억 최저 임금의 1만배가까이 받으니 참 세상은 요지경인가 봐!

블벗님 늘~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잘 꾸민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810

**\*좋은 아침!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 날이네요.**

몇 년 전 과학적으로 입증된 키스의 효능을 보면 안 쓰는 근육 운동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키스를 잘하면 평균 수명이 5년을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와 모닝 키스 한 번은 3.8kcal,

열정적인 키스 한 번에 12kcal의 에너지 연소시켜 다이어트 효과와 충치예방,  
혈액 속의 백혈구 생성을 활성화하여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뇌에 자극을 주어 통증 완화 효과와 안면근육을 강화시켜 침만한 보약이 없다네요.  
또한, kiss를 자주 하는 부부는 부부싸움이 적다 하니 불벗님 사랑 많이하이소,◆석암 조현섭-◆

160809

\*불벗님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지요.

오늘도 불방를 보니 따뜻한

마음을 내려 놓고 다녀 가셨네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과 덕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뿌린 대로 거둔다니 많이 배푸는 삶 살아가입시더 예...♥석암 曹憲燮♥

160808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 날 아침 소나기라도 퍼부어 화기를 식혀주면 좋으련만  
절정기인 휴가철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우리네 인생!**

**세월이 가고 인생도 가고 모든 것이 변천하여 밤낮으로 흘러 흘러 쉬지 않는구려,**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길 없고 오는 시간 또한 막을 길 없으니,**

**인생 60 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고**

**70 이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으며,**

**80 이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 다 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입시더 예...**

**휴일 잘 보내십시오. 정기 산행 일이라 이른 아침 살포시 다녀갑니다♥석암 曹憲燮♥**

**160807==140807**

\* 불벗님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8월 첫 반공일이네요.

남명 조식 선생은 성리대전을 읽고 "벼슬에 나가서는 유익한 일을 하고 집에 있으면

지조를 지킨다는 글귀를 보고 대장부가 벼슬을 하면서 하는 일이 없고 집에 있으면서

아무런 지조가 없으면 배우고 익힌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강조한 남명선생의

성격이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은 아버지 조언형(曹彦亨)에게 물려받았는지?

언형이 정삼품 벼슬인 승문원 판교로 있을 때 강흔이라는 소꿉친구가 있었는데,

강흔은 연산군 때 대문장가로서 연산군의 청에 따라 후궁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쓰게 되자,

언형은 직송상관인 강흔이 감사(監査)가 되어 찾아오자 감사를 맞을 생각도 않고 집으로 가

술독에 술을 서너 잔 마신 후 뒤따라온 강흔과 절교를 선언하는데,

"자네는 개, 돼지보다 더 못한 짓을 했네. 그런 자네가 먹다 남은 이 술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나 조그마한 글재주로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어땠겠나?"

이 말을 들은 강흔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 떠났다고 하는 것이 연려기술이란

역사책에 전해오는 내용인데, 예나 지금이나 지조 없이 윗사람 눈치 보는 정치인이 많은 듯...♥석암 曹憲燮♥  
160806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이 살라카마 첫째 맘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아플끼고 몸이 아프면 맘도 불행해 질 깎니더,  
그런께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나 몸디의 건강도 바랄 수 없다는 기랍니더,

그러니께 몸과 맘이 건강할라 카마 짜증 내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못된  
마음들은 전부다 내빠리고,오직 즐거운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 한문 바까보이소,

마음을 바꾸마 얼굴빛도 바뀔 귀고 얼굴빛이 바뀌면은 건강은 물론 운명까지도 바뀔깁니더.  
불벗님 건강이 엄청 큰 이익이고 만족은 큰 자산이며 맘의 평안이 최상의 행복이리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임시더...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보고 갑니더~♥석암 曹憲燮♥  
160805

\*불벗님 잘 지내시지요. 팔공산과 합천으로 5일간의 휴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합천 박물관이 있는 쌍책면 촌놈인데, 79년도 대구로 와서  
현재 사는 곳은 1945년 3월 5일 대구 부령에 의거 대명1동으로  
발족하여 세 번의 분 동으로 대명 11동까지 늘어났으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앞산 아래 안지랭이의 유래를 보면,  
“예로부터 앉아서 물맞고. 앉아서 비 맞고. 앉아서 놀기 좋다. 는 뜻의  
“안좌령(安座嶺)”에서 지금의 안지랭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양녕대군이 피난 와 머무르면서 살펴보니 대구가 살기 좋은 곳이고.  
자신이 편히 있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늘~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곱게 올려주신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60804

\*내 고향 합천 휴가 와서 쉬다 보니 부설거사(浮雪居士) 팔죽시(八竹詩)가 생각이 나는군요.

- ◆ 이런대로 저런대로 되어가는대로
- ◆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 ◆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대로 살고
- ◆ 읊으면 읊고, 그르면 그른대로 그런대로 보고
- ◆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 ◆ 시정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
- ◆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 그리고 그런세상 그런대로 보낸다오.

블벗님 팔죽詩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803

\*블벗님 반갑습니다. 요즘 내 말이 옳거니 네 말이 옳거니 하며 티격태격 하는 것은 각기 주장들을 자기본위로 해석하기 때문인 듯,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큰 소리에 휩쓸리는 세태를 명경처럼 흰히 보인다는 말은 옛날 진시황 때 함양궁에 소장된 진귀한 보물, 너비가 4척 높이 6척인 앞,뒷면이 모두 밝게 빛나는 거울,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거꾸로 선 모습이 나타나고. 가슴을 어루만지면 그 사람의 오장 육부가 비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환부가 나타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거울, 또한 사람이 흉중에 품고있는 심보까지 알 수 있어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울을 진시황은 이 거울을 이용하여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의 충성심을 확인하였다는데, 진나라 말기에 한 고조 유방에 의해 왕궁이 점령되던 날 유방의 부하 소하장군은 이 거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끝내찾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이 거울의 예기가 후세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린다는 명경(진경)고현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현세태에서는 전설적 거울이라도 높이걸려 위정자들의 속내를 안다면 좋은일만 하려만,♥석암 曹憲燮♥

160802

\*대구엔 어제 예고 없이 한줄기 단비가 내려 아침 가온이 시원하네요.

옛말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하였지요. 8월 첫날 산뜻하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나이가 들면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상속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 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그저 물 흐르듯 ~,구름 가듯 ~쉬엄쉬엄 마음 편히 살았으면 ...

블벗님 저도 휴가인지라 잠시 들렀다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801

\*블벗님!!! 휴가 계획은 하셨는지요?

오늘부터 하계휴가 절정기인가 봅니다.

저도 8월 3일까지 휴가인지라 우리 모두 휴가 때 먼 훗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잠시 다녀갑니다.♥석암 曹憲燮♥

160730

\*어정 7월도 어느덧 끝자락, 똥똥 8월이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지금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가족과 대화는 자주 하시나요?

전화는 자주 하시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당신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홍보영상 글입니다만 가족과 진실한 친구와 친척에게 삼복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29

\*무더운 여름 아침!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치원 대신 천자문을 배웠는데

그 속엔 본초 과학의 지식과 수신 도덕의 지혜도 있으며,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

처세의 교훈 등 사람과 동물까지 결속시키는 철학까지 내포된 고대 중국뿐 아니라

동양의 삼라만상 우주관을 함축하여 드러낸 종합교육임을 알 수 있는 천자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언으로 삼가야 할 주옥같은 말들이 많은 4언 절구가 아닌 8언 절구로

이루어진 문장을 습득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보람 있고 풍요로워질 것이니---

방학 동안 우리의 귀여운 손자 손녀가 8언 절구의 뜻을 하나하나씩 배우면 좋으랴만...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원, 시대 따라 가야 할 듯...블벗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728

\*반갑습니다. 블벗님! 오직 맑은 이슬만 먹다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1~3주 만에 죽고 마는 삶! 매미의 삶과 울음소리도 슬프죠!!~`

이런 매미에게도 5덕[德]이 있다는 데...

5 덕[德,]이란! 문[文], 청[淸], 검[廉], 검[儉], 신[信]의 다섯가지 덕인데,

1, 문덕[文德]=매미의 머리 모양이 선비의 의관을 닮았다 하여 선비의 덕이라 하였고

2, 청덕[淸德]=맑은 이슬만 먹고 사니 맑고 깨끗한 덕을 지녔으며



3, 겸덕[謙德]=농부가 가꾼 채소와 곡식을 애벌레와 메뚜기 등의

곤충과 달리 해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추었고

4, 검덕[儉德]=날짐승과 들짐승, 곤충 등 모든 생명체들이 살 집을 짓는 것과

달리 매미는 집을 짓지 않는 검소한 덕을 갖추었으며

5, 신덕[信德]=철 맞추어 왔다가 가을이면 때를 보아 떠날 줄 아니 믿음을 갖추었다네요.

우리 모두 매미의 5덕을 생각하며 살았으면...늘~미소가득한 날 되소서~♥昔暗 조현섭♥

160727

\*블벗님 참 많이 덩지요. 이렇게 더울 때는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되지요.

진정한 행복이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정의와 선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네요.

오늘도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블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726

\*대구엔 어제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전국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로 잠 못 이루셨지요.

즐거운 휴가철... 요즘 정규직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렵다네요.

조선 시대 매품팔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주인의 아들이 고귀한 신분이라 잘못이

있어도 차마 매를 맞게 할 수 없는지라 멧값을 주고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것,

경기도 지방에 대신 곤장을 맞는 것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매품팔이로

100대나 되는 곤장을 맞고 비틀거리며 집을 왔는데 아내가 술과 고기를 준비해

자신의 고생을 알고 음식을 마련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이 든 순간, 아내는 미리 또

100대에 대한 선금을 받았으니 한 번만 더 가서 곤장을 맞아 달라는 것,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이 일 말고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어 술 한잔을 벌컥

마시고 갔는데, 장독이 채 풀리지 않은데 100대를 맞고나 그만 즉사하고 말았는데

아내는 죄책감에 그만 방황하다 남편 따라 죽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슬퍼네요.

블벗님 7월 끝자락 한주 무덥지만 하시는 일 유종의 미를 남기시길 바랍니다.♥昔暗 曹憲燮♥

160725

**\*블벗님!**

**엄청 덩지요.**

**비라도 좀 많이 와서**

**열기를 좀 식혀주었으면---**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는데**

폭염 주의보는 최고 기온 33도 이상  
최고 열지수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고, 최고기온  
35도 이상 지속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다는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올해도 전국이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란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昔暗 曹 憲 燮♥  
160724

\*블벗님 주말과 휴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공거사(地空居士)란?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고 해서 지공거사라고 한다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장수했다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지만,  
요즘 60은 나이 축에도 들지 않아 아예 자식들이 잔치 열어줄 생각도 않는다지요.  
지공의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 지하철,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되는데,  
찬란했던 청운의 시절은 가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멍멍 하며, 이빨도 시리아리 하고,  
아랫도리도 후들거리며, 화장실 가면 질질 하여 도무지 쓸만한 데는 세 치 혀만 살아 양기가  
혀로 가는지 잔소리만 느는 모양---  
더러는 연년익수(延年益壽)라 하여 80,이 넘도록 팔팔하여 노익장을 과시하려면  
궁당익견(窮當益堅), 노당익장(老當益壯)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견고히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건하라.” 여기 노당익장을 줄여 노익장이란 말이 나온 것이라는데,  
우리 모두 노익장을 과시해 99,88,1,2,3일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살다 갔으면---~♥昔暗 曹 憲 燮♥  
160723

\*블벗님!!!  
오늘이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무덥다는 대서  
대구의 아침은 시원해서 좋네요.  
우리는 흙탕물을 피해서  
맑은 물을 더러움을 피해서 깨끗함을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상황을 꿈꾸지 않나요?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듯싶네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모든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라는데,  
마음이 잘 바뀌어지 않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네요.  
오늘도 정성들여 올려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722

\*블벗님 블벗님 어느덧 어정 7월도 하순, 하극상에도 참 좋은 하극상이 있네요.

정의가 살아 있고 문화유산을 지킨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때 우리의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합천지역 폭격을 요구받았으나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다니  
 간이 보통 큰 게 아니었지!  
 김영환 장군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해인사의 가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역설하였더니  
 유엔 사령관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한국은 운 좋은 나라”라는 칭찬까지 받았대네요.  
 또한, 지리산 공비소탕전에서 공비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사찰을 소각하는 문제를  
 “태우는 건 하루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려면 천 년도 부족하다”며 구례 화엄사를  
 소각령으로부터 지킨 차일혁 총경 이야기와 오대산 상원사를 태우려는 국군 장교에게  
 “그럼 나도 함께 태우라”고 맞선 방한암 선사의 이야기도 감동이네요.

이른 좋은 하극상만 일어났으면---잘 꾸며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60721

\*블벗님! 우린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만나지만 만날수록 정이 쌓여 가는가 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요약해 보면,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들이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며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하라 하였으며,  
 큰돈을 벌고 싶다면 부끄러움을 없애고 주저하지 말며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력을 강화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며 멈추지도 말라 하였고,  
 목표에 집중하되 유연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더라도 판단력까지 잃지는 말라는 것,  
 말과 글로서는 쉬우나 행동은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때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생각하며 행동하여 성공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섰으면...좋은 하루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720

\*안녕하세요. 블벗님! 잘 계시지요 .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들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도 하지요.  
 탐욕과 성냄과 질투로 심신이 시달려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고  
 명예, 재물, 권력 등 세상의 자랑거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 넣는 듯한 세상---  
 자살, 살인, 사고, 전쟁 등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위태롭기 그지없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마치 갇은 구정물이 다 들어오는 혼탁한 연못과 같지만  
 연꽃은 어떤 더러움도 피하지 않고 그 중심에 뿌리를 박고  
 더럽고 혼탁한 물을 먹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찬란한 연꽃을 피우듯,  
 우리 모두 오탁악세의 세상일지라도 참다운 인생꽃을 피었으면...  
 삼복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19

\*블벗님 복달임 잘하셨지요.

예부터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라!

재물은 하느님의 것이고 사람은 잠시 맡은 청지기(머슴)일 뿐---

천석꾼이 되면 천가지 걱정 생기고 만석꾼이 되면 만 가지 걱정이 생긴다는데

위정자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나 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열어가소서...♡석암 曹憲燮♡

160718

\*제헌절이자 삼복더위의 첫 째 초복, 대구 앞산엔 비 온 뒤 산천초목이 깨끗하게

세탁하여 물소리와 함께 바람에 휘날리니 시원하여 내 마음도 한결 깨끗한 기분~

오늘은 찜통 같은 삼복(三伏)더위의 첫 째 초복 날, 간단히 삼복의 유래를 정리하자면,

삼복은 음력 6~7월에 있는 속절로 하지 후 셋 째경일을 초복, 넷 째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경일을 말복이라 하고 이를 삼복이라 하며

삼복은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꺾는 날, 즉 더위를 정복하는 날'

함께해주신 불벗님께 저의 마음으로 장어구이와 복분자 한 병 보내 드리오니

맛나게 드시고 삼복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ㄱ ㄴ\* 초복 날

ㄱ ㄴ 에는

| 복 | 원기

| 분 | 회복

| 자 | 복분자

ㄴ — ㄱ 한 병, 안주는 장어구이. ♡석암 曹憲燮♡ 드림

160717

\*주말 아침 마음 편히 쉬시(休)라고 요순시대의 옛 시 격양가(擊壤歌)한 수 올립니다.

일출이작(日出而作)--해뜨면 농사짓고

일입이식(日入而息)--해지면 휴식하며,

착정이음(鑿井而飲)--우물파 물마시고

경전이식(耕田而食)--밭갈아 식사하니,

제력우아하유제(帝力于我何有哉)--황제의 권력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불벗님 주말과 초복 즐겁게 보내옵소서...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16

\*세월이 무척 빨라 7월 중 반이 지나가네요.

무척 바쁜 건지 바쁜 척하는 건지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 ...

우엇거나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무척 이란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말로는 보통 정도를 넘어서 매우 큰 것을 말하지만,

원래 말은 공사무척[孔蛇無尺] 구멍에 든 뱀의 길이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재주를 헤아리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그 외에 무척(無隻)이란 원한을 품고 미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즉, 원수지간(척)이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한 세상 편히 살려면 척이 없어야겠지요.  
옛날에는 이런 교훈이 있었지요. 남에게 원억(冤抑)을 짓지 말라, 척(隻)이 되어 갇느니라.  
우리 모두 서로 원한을 품고 미워할 척(隻)을 두지 않았으면... 불벗님 불방에 쉬어 갑니다.♥석암 曹憲燮♥  
160715

\*오늘 아침엔 시원하네요. ! OECD 34개국 중 출산율이 쏠라니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여 자식 갖기를 두려워 할 만도하지!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나 인구는 해마다 감소 낭으면 길러주는또 다른 부모가 있어야 할 판인데...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는 말은 옛말, 결혼하여도 아이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  
아예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이 55%라니 지금 낳은 한 명이 노인 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자식 고생시키려 아이를 낳겠는가? 농 어촌엔 지금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해마다 의무취학 아동이 줄어들어 1면 1교도 지탱하기 어렵다네요.  
대한민국이 3만불 시대 이만큼 사는것도 우리의 부모님은 어릴 적 먹고살기도 어려웠지만  
지 복(福) 지가 타고난다며 자식 많은 가정이 다복이라며 자식을 많이낳아형편따라  
공부 시키고 기술을 익힌 덕택이란 생각이 드네요. 불벗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714

\*불벗님  
많이 덥지요.  
태공이 이르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목이  
말라 물을 구하듯이 주저하지 말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먹은 것 같이 못들은 체하라.  
또한,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이란 즐겨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옛 성현의 말씀을 실천궁행 하였으면-- 고운 불방 즐감해봅니다.~♥昔暗 曹 憲 燮♥  
160713

\*불벗님 날씨도 많이 무더운데, 짜증스런 공직기강 무너지는 소리들만 난무하는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발표하는 날 근무 시간에 백화점 옷 수선하러 가질 않나  
AIIB의 흥기택 부총재는 취임 4개월 만에 돌연 휴직 4조 3천억 날아간 국제 낙하산인사에  
나향욱 교육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살만큼의 먹이만 던져주면 되니“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라진 조선 500년의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며  
99%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자신은 1%가 되려는 정신 나간 고위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연구기관장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부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망발하는  
공직기강이 무너진 공무원들을 파면시키지 않고 대기발령 내리는 위정자와 기군망상자들…  
가재는 게 편인가 봅니다.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게 감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12

\*불벗님! 주말과 휴일 잘 지내셨지요, 지시자부(知是者富)란 말이 있듯이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데,  
2015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부탄은 국민소득이 북한과 비슷한 1인당 2,722불이지만,  
그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할지언정 욕심 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행복인가 싶네요.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도 쉽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부탄 세계에서 비경이 가장 잘  
보존된 국가 라네요.  
어정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드는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 曹憲燮♥  
160711

\*참 좋은 휴일 아침! 이열치열이라 했던가요. 불벗님 아침 걷기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30년간 매일 아침 앞산에 05시에 출발 07시에 도착, 걷기 운동이 제일인 듯---  
새벽 5시는 인체의 맥박이 가장 빨라지는 시간으로 잠을 자기보다는 걷기 운동을 하면  
면역이 증가되고 상쾌한 기분도 가지게 되어 병이 발붙일 곳이 없는지 감기조차 안 걸리네요.  
요즘 전국에 시샘이나 하듯 들레길, 자락길, 해변길 등 잘 다듬어 놓았지요.  
예부터 건강장수의 측도는 다리 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팽팽한 젊음을 유지한 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은 불로장생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선 예로부터 육체의 노화방지에 관한 양생법(養生法)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정신을 배양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절제 있는 생활과  
환경 변화에 잘 적응 함으로써 인체 장부가 병들지 않게 예방하여 천수를 누리는 것,  
건강하게 불로장생하옵소서…♥석암 曹憲燮♥  
160710

\*좋은 아침! 송암 박두성 선생이 7년 동안 맹인을 위하여 점자를 만드시며 한 말씀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닫히고 세상도 닫혀 버린다.”  
선생이 만드신 이 점자가 바로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생원 교사였던 송암 선생은 7년 동안 불을 끄고 직접 캄캄한 곳에서 손으로  
익혀 서로 다른 63개의 점자를 탄생시켰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직업교육[침술 안마] 등에 한 평생을 헌신하였고, 시각장애인들을 독서할 수  
있도록 도서 200여 권을 점자로 번역하신 분으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빛이었고,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신 송암 박두성 선생…

송암선생은 2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고 하시며 훈맹정음 창제로  
시각장애인에게 빛과 희망을 주신지가 어느덧 90주 년이네요...좋은 주말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709

\*안녕하세요. 언제나 웃음꽃 활짝 피우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행동에는 교만함이 없이 안색은 꾸밈없이  
누구에게나 신의로 대하여 저속한 말과  
사리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갔으면...  
블벗님의 정성 들어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08

\*반갑습니다. 블벗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한다는 소서(小暑)날 아침,  
예나 지금이나 지조 없이 윗사람 눈치 보는 정치인이 많은 듯...  
지조라 하면 남명 조식 선생도 대단하신 분.....  
남명 조식은 상소문 단성소와 민암부에서 대왕대비(문정왕후)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 또는 아녀자라 하고 22세의 임금(명종)를 물 위의 배에 비유하며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벼슬아치는 백성을 껌데기를 벗기는 탐관오리만 한다고 하였으니,  
왕조시대인데도 온 나라를 진동시킬 만큼 국정을 극렬하게 비판한 것은 조선조 500면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이며, 남명이 이렇게 직방강직한 상소문을 올렸어도  
포도청에 한 번 안 끌려간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석암 曹憲燮♥  
160707

\*상쾌한 아침.^-^ 대구에도 밤새 비가 많이 내렸네요.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비 온 후 앞산에 올라보니 온갖 찌꺼기가 비에 말끔히 씻어 내려가  
내 마음 한결 상쾌하고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는 건 장마에 식중독과 불쾌지수가 높으니  
건강 잘 챙기시어 늘~ 행복하이소.^^  
블벗님께서 깔끔하게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706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허준의 생존연대(1539~1615)가 유이태(1651~1715)의 생존연대보다  
112년 앞서는데 어떻게 허준의 스승이 된단 말인가?  
소설과 사극에 묘사된 유의태는 실존인물 유이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흥미 본위의 드라마를 위한 가공의 인물이었을 뿐이라네요.

또한, 민중의 의사로 묘사되는 허준의 모습 가운데 태반이 유이태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산청군이 허준과 류의태를 브랜드화하여  
홍보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함으로서 좋은 일인 듯...  
언제나 고운 걸음 하시어 감사하며,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憲燮♥  
160705

\*쿤다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는 우중에 동의보감 터전인 산청 왕산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가진 재물도 없고, 누릴 권세와 명예도 없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알콩달콩 소박한 행복을 맛보며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순리대로 살다 가면 그게 행복이 아닐는지요,

우리 모두 세상일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아 가십시오 예.~ ♥석암 曹憲燮♥  
160704

\*장맛비가 내렸다는데, 대구엔 분지라 그런지 눈도 비도 직성이 풀리도록 내리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바가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때 “직성이 풀린다.”라는 말을 쓰지만,  
술자리에 늦게 온 분이 단숨에 썬주 몇 잔 마시고 난 후에 이 말을 쓰면 일품일 듯,  
여기서 말하는 직성이란? 원래 뜻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말아보는 9홀 가지  
별을 차례로 보면, 제웅직성, 토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수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흉한 별이 제웅직성으로 그 해 구설수가 많고 재수가 없다는데,  
남자는 제웅직성이 10세에 들어 19세, 28세, 37세, 46세, 55세, 64세, 73세, 82세 9년마다 오고  
여자는 제웅직성이 11세에 들어 남자보다 한 살 위가 구설수가 많고 재수 없는 해라네요.  
불벗님 제웅직성이 드는 해는 만사 조심하여 만사형통하소서...♥석암 曹憲燮♥  
160703

\*불벗님!!!  
대구에도 새벽엔 비가 좀  
내리더니만 아침엔 그쳤네요.  
새가 죽음에 임하면 그 울음이 애처롭고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그 말이 선하여진다네요.  
우리는 살아 움직일 때 베풀면서 행복을 그 찾았으면 ---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소서. ♥석암 曹憲燮♥  
160702

\*불벗님 세월이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병신년 하반기 첫날~소서, 대서, 초복, 중복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행복이 님의 글을 댓글로 올려봅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늘~자기자랑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며,

일을 의무로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며,

한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며,

늘~투덜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네요.

우리 모두 언제나 행복한 생활에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60701

\*반가운 불벗님!

유월도 어느덧 떠나려나 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7월에는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웃음 하하^-^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다녀니다. ♥석암 曹憲燮♥

160630

\*불벗님!!!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차 넘치는 유월의

누리달도 오늘내일 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를 하고 살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법이니 의롭지 않는 부귀는 나에게서 뜯겨나간 것---.

가난 속에서도 행복이 있고 인생의 의의는 즐겁게 사는 데 있는 듯,

우리 모두 마음 비우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에 꼭 빠졌다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629

\*안녕하세요. 장마라 드니만, 대구엔 시원스런 비는 내리지 않네요.

좌천이란? 지난 한해의 공과에 따라 승진과 좌천을 당하게

되어 낮은 직위로 자리를 옮기거나 한직으로 전근됨을 이르는 말로서

예전에 중국에서 오른쪽을 숭상하고 왼쪽을 멸시하던 데서 유래된 것이라네요,

조선 시대 문무를 총괄하는 영의정, 문관을 관리하는 좌의정, 무관을 관리하는

우의정의 품계는 모두 정1품으로 모두 같으나 맡은 분야에 따라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차이점은 중국은 남향의 옥좌에서 임금이 내려다볼 때 우측이 좌측보다 상석이지만,

조선은 임금을 올려다보니 좌, 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라는데,

지금은 상좌 하우 남좌 여우를 구별 않는 듯--- 불벗님 즐거운 나날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628

\*\*불벗님

휴일 알차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는 적든 만든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맡았다 관리하는

청지기(머슴)일 뿐, 마하트마 간디는

청지기(머슴)의 삶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무덤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게 유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627

\*유월 끝자락 주말 아침 43년 만에 EU 떠난 영국의 블렉시트가 세계금융시장이 폭탄을 맞았네요 .

오늘은 동족이 갈라진 지 66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통일은 멀게만 보이네요.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나왔으면---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는

조건부였지만,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하고 38선으로 갈라져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인지 남과 북은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유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에 쉬어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625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유월도 끝자락으로 접어드네요.

우리 모두 남의 장점은 본받고 단점을 거울삼아 나의 잘못을

고쳐 나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정상의 길로 우뚝 나아갔으면---

불벗님 언제나 여유로움 속에서 잔잔한 미소가 어우러지는

즐겁고 희망찬 나날 맞이하소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면서 머물러 쉬다 갑니다.^^ 감사합니다.♥석암 曹憲燮

160624

\*불벗님 또 만났네요,“신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고 인력과 시간을

소비했으나 MB 정부때 신공항을 무산 시켰던 뼈아픈 기억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났다”며 “

이는 시민들이 정부의 정치 놀음에 두 번이나 꼭두각시 역할 만 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요즈음 위정자들의 이 말 했다 저 말했다 손바닥 뒤집듯 지조 없는 말들이 한심한데,

지조 라면 동탁 조지훈을 빼놓을 수 없을 듯,

문중의 삼불차 정신은 세상을 살면서 3가지를 빌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첫째가 재불차(財不借)=어떻한 일이 있어도 재물(財物)을 빌리지 않는다. 재물을 빌리지

않기 위해 소유한 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대를 물렸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가 문불차(文不借)=문장을 빌리지 않는다. 선비 집안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가 인불차(人不借)=사람을 빌리지 않는다. 즉 양자를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

그래서 370년 동안 양자를 들이지 않고 혈손으로 대를 이어 왔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한 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의

말처럼 자신의 지조를 깨뜨리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으면... ♥昔暗 조현섭♥

160623

\*불벗님

반갑습니다.

나에 대해 가장

무지한 것은 바로 나 자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예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실인 듯싶네요.

수수하게 웃으라는 수요일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622

\*불벗님 반갑습니다. 포대화상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세속의 사람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며

하늘을 지붕으로, 땅을 자리로, 구름을 이불 삼아,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걸림 없는 자유인 이었다네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퍼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포대속의 선물을 많이 준 동양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던 분이랍니다.

“나에게 포대가 하나 있으니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라. 열어 퍼면 우주에 두루 하고  
오므리면 자제하도다.”

이 스님과 비슷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 이미 열반하신 법장스님!!!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주머니를 몽땅 털어 도와주었으며 입적 후에도

시신을 기증하여 다비식도 없는 영결식을 하였디지요.

이 법장스님은

나에게 바랑이 있으니 / 입도 없고 밑도 없어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않고 /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

달불이도[達不二道]라! 높이 높이 올라도 떠나지 않는 진리[道]를 가져 나 또한,

저 바다처럼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 삶을 살고져...♥석암 曹憲燮♥

160621

\* 불벗님 어느덧 유월도 하순에 접어드네요.

툼 위삼의 기러기 이야기 중에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0,000km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여행을 하는데,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갯짓은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요.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라네요.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두 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또한, 서로 앞서 가려 싸움을 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나르는 모습을 보면  
기러기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듯...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석암 曹憲燮♡  
160620

**\*안녕하세요^^ 참 좋은 휴일 아침!**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도 지도해 주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네요.**  
**우리는 자존심 확 버리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아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보람있게 살았으면...**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며 머물러 쉬다 갑니다.~^~^♡昔暗 曹憲燮♡**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낙하산 관행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5조 원 넘고 국민 세금**  
**7조 4천억 들어간 임자 없는 돈 먼저 본 자가 임자 '간 큰 차장 빼들린 180억 내연녀와 '평평'**  
**적자 회사에 성과급 잔치로 큰 재앙을 불러 이 지경이 되었다니...**  
**국가 기관 회사에 대도(大盜)들만 키우고 있나 봅니다.**  
**제례어혈(堤漬蟻穴)이라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큰 독을 무너뜨린다는 말처럼**  
**작은 개미구멍을 소홀히 하면 마침내 큰 독도 무너진다는 뜻으로 어설픈게 대응한**  
**일들이 큰 재앙을 불러 이 지경이 되었다니...국가 개조를 하듯 단디해줬으면---**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기업 2332조 4000억원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1127조 3000억원**  
**▶가계 1085조 3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236조 8000억원 지난해 기업+정부+가계**  
**▶부채 합계가 4781조 원 국민 ▶1인당 빚이 9440만 원 아기가 태어나면 1억 빚지고**  
**노인 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니 출산율이 쪼그라네요, 걱정거리만 남겨놓고 갑니다.♡昔暗 曹憲燮♡**  
160618

**\*불멸더위의 시작인가 봅니다. 블벗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차라리 민들레처럼 발길에 짓밟힐지언정 노리게 꽃이 되지 말고**  
**흰 백합 진한 장미의 화려함보다 산야의 야생화처럼 자연스레 빛나는**  
**들꽃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싶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않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으면...**  
**오늘도 정성 들어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617

**\*블벗님 반갑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항우가 동네건달에게 유방에게 패한 것은**  
**자기 힘만 믿고 부하가 대책을 제시해도 너 따위가 뭘 알아 하며 듣지않고**  
**독단 전횡의 표본 때문이었다는데... 한비자가 리드십에 대하여 말하기를...**  
**삼류의 리드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이류의 리드는 남의 힘을 사용하고**  
**일류의 리드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는데,**  
**부하가 각자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리드십이라며**  
**또한, 닭이 울어 때를 알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고 하듯이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면 위에선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이 없어진다면, 한비자가 말한**

일류 리더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류 리더십!~

오늘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기도 한 ‘소통의 리더십’을 유방처럼 발휘하였으면...

올려주신 고운불방 즐겁 하며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616

\*블벗님! 유월도 중반이네요. 거실이나 방에 걸어놓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문구를 좌우명이라 하는데,

좌우명의 원래 이름은 유자지기(宥坐之器)라는 이 그릇은 노나라 환공이 책상 오른쪽에 두고

물을 적당히 붓지 않으면 기울어 지고 중간 정도 부으면 똑바로 서 있어 이를 지켜 보며 이 그릇이

호용을 과도함과 부족함을 경계하여 양극 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으로 자신을 일깨우며

극단에 머물지 않고 중도에서 양쪽 모두 끌어안으려는 태도가 아닐까?

좌우명은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깨우친다는 뜻을 한의학에서도 놀이터 시소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병적이라 하여 오행 침으로 상생과 상극을 잘 살펴 허(虛)는 보(補)하고 실(實)은 사(瀉)하는

방법으로 12 경락에 오수혈을 사용해 균형을 유지 탁월한 효과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명대사의

제자 사암도인(舍巖道人)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의 삶도 만사 집착하지 말고 상중도하여 허망 분별에서 벗어나 마음과 마음이 상응하는

통한 삶을 살지어...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는 것,♥昔暗 曹憲變♥

160615

\*화사하게 웃으라는 화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요즘은 IET 세상이라 그런지 일류대학을 나와도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드물다네요.

선조는 붓은 글을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문방사우로서 무릇 종이는 진이고

붓은 창칼이며 먹은 병갑이고 버루는 성지라 했지요.

그리고 사재필사재언(史載筆士載言)이라 하여 사관은 붓으로 기록하고

선비는 말로써 일을 처리하였으며, 채도화문(彩陶花紋)에도 붓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나 봅니다.

남서풍님 하시는 일마다 용이 하늘에 승천하듯 큰 소망 이루십시오. ♥석암 조현섭♥

160614

\*블벗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마다 가지런히 벗었는지 뒤돌아 본다면

잘 정돈된 신발처럼 마음도 정갈하게 마음의 오롯함을 만날 수 있을듯---

자기 발밑을 보는 사람은 적고, 남의 발밑을 보는 사람은 많으며,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요,

발을 한번 들어서 내려놓을 때까지의 순간,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을 그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정신으로 남을 향한 눈을 자기에게 돌려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발끝을 돌아 보듯이 스스로 물음을 던지며 살아갔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 曹憲變♥

160613

\*휴일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공기 질이 세계 180개 국가 중 173위, OECD 38개 국가 중 꼴지라네요.

나쁜 공기(환경)가 만 병의 근원이라는데, 위정자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성장위주의

대기업 정책을 하다 보니 폐암환자 기관지 천식 등 병원에는 환자들만 가득~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있는 사람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환경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름다운 강산과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곳인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블벗님! 안 좋은 소식만 늘어놓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석암 조현섭♥

160612

\* 블벗님 참 좋은 주말이네요. 조선조 순조 때 시인이었던 이양연이 절식을 하고자  
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과식을 경계했다는 절식패명(節食牌銘)의 내용인즉,  
적당히 먹으면 편안하고 / 지나치게 먹으면 편치 않으니 /  
의젓한 너 천군(마음)이여 / 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조선조 선비 성호는 일일지기 모무포식(一日之忌 暮無飽食)이라 하여  
날마다 경계할 것은 저녁에 포식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자신을 “천지간의 좀 벌레”라 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하였으니,  
하루 한 끼 먹으면 일식씨, 두 끼 먹으면 이식군, 세끼 다 먹으면 삼식새끼,  
한 끼도 안 먹으면 0식 성님이라고 한다니...  
어쨌거나 먹고사는 일이니 본인은 빈한한 살림에 먹는건 밥과 반주뿐인데 삼식 새끼에  
세참까지 달라하니 집사람 눈치도 보이고 하여 설거지라도 자주 하게 되네요.♥석암 조현섭♥

160611

\*보훈의 달  
6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제가 요즘 올리는 댓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주로 오래된  
예기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그리고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함은 기억을 돌릴 수 없기에...죄송~  
오늘도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610

\*단오 날 아침 반갑습니다. 블벗님! 재스민은 “꽃 향유의 왕”으로 불리는 독특한 향을  
지닌 꽃으로 인도에서는 사랑의 묘약으로 사용되었으며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  
뛰어난 청초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옛날부터 향수나 차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이라 하여 신혼부부의 침대에 재스민의 향수로 쓰이는  
이 아름다운 꽃이 어찌 혁명이란 단어를 만나 무서운 말로 둔갑했을까?  
그것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로 이어진 수백 년 동안 왕정, 또는 군벌이 다스리는  
독재국가가 산유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이슬람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온갖  
특권을 누리지만 일반 서민들은 강권과 억압의 노예적 생활을 하며 하루 한 끼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생활이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봉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지금은 민주화의 열망이 전 아랍국가에 재스민의 향처럼 강렬하게 전파되어 가고 있다 하니...  
북녘에도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다녀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609==140222

\*안녕하세요.

날씨가 후덥지덥

찌뿌둥하지만, 짜증 내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하는 못된 마음들은 전부다

날려 버리고, 오직 즐거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 살아갔으면...블벗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고운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608--140529

\*블벗님! 연휴 잘 보내셨지요. 백산 안희제 선생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독립 운동가 3백 선생 {백범 김구, 백암 박은식, 백산 안희제}중의 한 사람이며 의령에서 20세까지 살다 의령 땅 200마지기를 팔아 부산에서 1914년 백산상회를 경영 무역업에 종사 40년간 독립운동 연락처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민족 자본의 육성 자였고, 민족교육의 선구자였으며,

민족사상의 항일독립투사였기에 경주 최진사와 똑같은 금액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사용했고 백산 상회에 만해 한용운을 두 번이나 피신시켰으며,

1909년 서상일, 신성모, 박중화, 를 비롯한 80여 명의 동지를 규합 항일 비밀 결사대를 조직 구국운동을 전개하여 1914년~1925년 중의일보(현 중앙일보) 사장이 되어 일본의 총독 정치를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동래 구명 학교와 의령 의신학교를 창립하여 교육 사업에 힘쓰던 중

1942년 일본 경찰에 대종교사건으로 체포, 혹독한 고문으로 9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43년 7월 31일 병보석 가출옥, 동년 8월 3일 59세로 목단강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단장 표창을 받은 훌륭한 분을 위정자의 본보기가 되었으면...♥석암 曹憲燮♥

160607--140220

\*참좋은 연휴 끝자락 제61회 현충일! 국토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돌아가신님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호국 영령들을 추

모하는 의미에서 반기를 달아 슬픔을 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블방 느긋하게 즐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昔暗 曹憲燮♥

160606

\*블벗님 황금연휴

유월 첫 휴일이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있는 사람은 두려 하지 않는다네요.

우리 모두 이성적인 판단력과 사랑과 실천으로

살아갔으면--- 연휴 잘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605

\*

\*유월 첫 주말 황금연휴 날 아침 최치원 선생의 시 한 수를 댓글로 올려 봅니다.

홀로가는 구름{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詩}

여보게 자네

품 안에 자식이요

내외도 이부자리 안에 내외지

야무지게 살아도 뽀족할 것 없고

덤덤하게 살아도 믿질 거 없다.

속을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자.

주머니 든든하면 술 한잔 받아주게

나도 돈 있으면 자네 술 사줄세

너요 내요 그렇게 뭐고,

거물거물 서산에 해 걸리면

지고 갈 것인가?. 안고 갈 것인가?.

블벗님 언제나 평온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604==140528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세계 속의 한국 고쳐야 할 부끄러운 일들 ...

\* 자살을 OECD 포함 세계 10년 연속 1위-- \* 노인 빈곤율 순위 1위

\* 남녀 소득 격차 1위-- \* 총외채 비중 OECD 1위-- \* 흡연률 1위--

\*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1위--\* 이혼 증가율 1위-- \* 결핵 환자 발생률 및 사망률 1위

\*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 국가 채무 증가율 1위--\* 양주 소비율 1위--

\* 암 발생 사망율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 대학 교육 가계 부담률 1위

\*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1위-- \* 낙태율 1위--\* 연평균 근로 시간 세계 1위

\*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OECD 최하위 \* 국민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 복지 예산 지출 비중 쟁지다음 \* 소득격차 4.74배 OECD 2위 ... \* 전기요금 2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위 \*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

물론 이게 다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려우나 20대 국회에서는 당리당락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개원하여 고쳐야 할 부끄러운 일들을 고쳐 나갔으면...

금쪽같은 금요일 열어가시길 바라면서---고운 블벗 즐겁하면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603

\*블벗님 의병의 날 잘 지내셨지요. 광재우 장군은 의령출신으로, 황해도관찰사

곽월의 아들이며 남명 조식의 외손서이고 동강 김우옹과는 동서 사이

홍의장군은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상 감사 의령 현감 등이 모두 도망가고 없자

천강 홍의장군이란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국내 최초 1592년 5월 4일 의병 10명으로 시작  
기강 나루 적선을 40여 척을 빼앗았고 왜놈의 조총을 활과 칼로 대적하여 적을 모두 섬멸하여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광재우란 명성이나 10명의 부하에게 똑같은 붉은 옷을 입혀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을 교란시켜 왜놈 장수는 왜군 300명이하는 광재우와 대적을 못하게 하였고  
야간 전투에는 나뭇가지 여러 가지에 횃불을 써 군사가 많이 보이게 한 임란을 승리로 이끈 전술가...  
그 해 6월 1일 선조수정실록에 기록 되어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광재우의 날)로  
지정하여 의령군에서는 큰 줄 당기기와 의령 둔치에서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적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잔치로 운영되오니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았으면--- 유월에는 불벗님의 가정에 늘~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석암 曹憲燮♡  
160602

**\*불벗님!**

새롭게 맞이하는

호국의 달 6월 첫날!

의병의 날(광재우의 날)이네요.

6월은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현충일,

6·10 민주항쟁, 6·25사변, 6·29선언 등

우리 역사에 슬픈 날이 많았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말고 국력을 키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오늘도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601

\*신록의 오월도 푸름만 남겨놓고 떠나려나 봅니다. 어떤 분이 텃밭 양옆으로 한쪽엔 해바라기를, 다른 쪽엔 채송화를 심었더니 채송화 밭에 핀 해바라기는 원래 해바라기보다 키가 훨씬 작고, 해바라기 밭 채송화는 원래 채송화 키의 두 배쯤 되게 크더라는데, ‘꽃들도 자기 옆 친구들과 경쟁하며 자라나 봐. 해바라기 속 채송화는 목을 길게 빼고 비실비실 크더니만 휘청휘청 오래가지 못하고 채송화 속 해바라기도 찝막하고 뭉툭하게 크다가 누렇게 딱잎이 생기면서 말라버려 뽑아버렸다는데 개네들도 주위를 돌아보며 다르게 생긴 자기 모습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죽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때문인 듯, 해바라기 밭에서 채송화로 살면서 아무리 고개를 쳐들고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고, 채송화 밭에서 해바라기로 살면서 아무리 키를 낮추어도 낮춰지지 않아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터, 미처 다 여물지도 않은 아이들 위기상황이 오면 충동적으로 자살할 위험이 높다 하니 ‘자살위기 관리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건 적어도 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부모들의 획일적인 공부에 대한 욕심 버리기’인가 봐… 불벗님! 6월에 만납시다. ♥석암 曹憲燮♥

160531

\*불벗님 참 좋은 휴일 예쁜 추억 만드셨나요. 화분의 꽃이 아닌 야생화가 되려면, 첫째, 뛰어난 인격으로 얻은 지위나 명예는 산야에 피는 꽃으로 그냥 두어도 쑥쑥 자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둘째, 공적으로 얻은 지위나 명예는 화분에 심어진 꽃으로 화분 주인 마음먹기에 따라 옮겨지기도 하고 뽑혀서 버림을 받기도 하며, 셋째, 권력에 빌붙어 얻은 지위나 명예는 꽃병에 꽂힌 꽃으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본 것이기에 우리 모두 산야에 자생화처럼 되려면 인격 도야와 실력이 앞서야 한다는 교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네요. 오월의 끝자락 못다 한 일이 있다면 오늘내일 마무리 잘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530

**\*계절의 여왕 5월!**  
**끝자락 휴일이네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과  
덕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니 많이 베푸는 삶 살아갔으면...  
블벗님 고운 꽃 처럼 미소 짓는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529

\*안녕하세요. 예전엔 산사에 가면 가끔 “잔물 버리는 곳”이란 팻말을 보게되는데,  
이상한 것은 버려놓은 잔물이 하나도 없다는것, 육신의 오물을 버리는 곳은  
해우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수도하는 스님이 버려야 할 잔물은 무엇일까?  
잔물을 버리는 곳이라... 고집스런 이 몸등아리에 찰거머리같이 달라붙은  
부질없는 인연일까? 주접은 살이에 주렁주렁 엉켜붙은 악업덩어리 일까?  
이 세상에 와서 수십 년을 살다보니 씨잘대기 없는 허물이 많기도 할 터,  
아까워 못 버리고, 버릴 줄 몰라 못 버리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하니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버려야 할 잔물, 그것은 마음의 때,  
세상살이에 얽매여 있는 욕심과 번뇌 정욕, 근심 걱정애 휩쓸리는 이러한 속세의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에서 “잔물 버리는 곳”이라 한것라니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아닐런지...  
블벗님 오월의 끝자락 즐겁고 멋진 주말과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528

\*우리의 만남은 댓글로서 만나지만, 만날수록 정이 더 깊어가네요.  
사람의 도리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며  
어린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신중하고 대인 관계에는 너그럽게 하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겠지요.  
블벗님께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527

\*\*반갑습니다. 육일 승천기는 과거 일제시대 대학살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의 상징인 욱일기, 처음에 일본 육군기로지정 되었다가 군함기로 지정 일본군의 상징  
어제부터 남해에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에 일본 함정이  
진해항과 제주기지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는 것은 문제 라는 논란...  
왜놈들이 과거 이웃나라에게 치유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관료와 의원들  
까지 전범이 묻힌 신사를 참배하는 그들의 근성을 잊어서는 안 될듯---  
아베총리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언론(아사히 신문)에 재갈을 물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일부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등 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라도 해야지 원... 블벗님의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526

**\*\*안녕하세요. 불벗님!!! 한의학에 기본 철학이 되는 오행(五行)에서 색깔이 각각 다른 채소나 곡물은 그 색깔과 속성이 같은 장기의 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기 얼굴 색깔과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  
**얼굴이 창백한 사람은 흰색의 폐에 문제가 있어 흰색의 곡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고,**  
**얼굴이 붉은 사람은 적색에 해당되는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얼굴이 누른 사람은 소화기관 즉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며,**  
**얼굴이 검거나 푸른 사람은 신장이나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니**  
**자기 얼굴 색깔과 비슷한 색깔의 채소나 곡물을 많이 먹으면 오장의 기능이 조화롭게**  
**돼오니 병이 깊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건강하게 무병장수 하옵소서...♥昔暗 曹憲燮♥**

160525

**\*참 좋은**  
**가정의달도**  
**일주일여 남았네요.**  
**매일 아침 앞산에 올라가**  
**아침 바람을 길게 들이마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엇그제 4월의 공기와 5월 하순의**  
**공기는 느낌이랄까... 많이 다르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보내소서... 남경님께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524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제가 처음 자작시 올린지가 지난해 말복 날**  
**열달이 다가오지만, 정말 글쓰기가 어렵네요.**  
**호담 김영만 선생님께서 좋은詩 쓰는 법을 심정을 고해성사하듯이 영혼을 고백하듯이**  
**이야기가 있는 서사의 중심으로 사실 그대로의 시어로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는**  
**감동 있는 시어로 서정성과 음울 의 고저로 시의 은유를 찾아 자기중심이 아닌**  
**독자를 의식하는 깨달음으로 삶에 대한 열정으로 쓰는 것이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데 내마음이**  
**궁색하여 이것저것 빌어 쓰잘데기 없는 글을 쓰고 있으니 詩 공부는 커녕 서사 중심의 글이**  
**어렵네요.**

**시집 천 권을 읽어야 몇 줄의 詩라도 쓸 수 있다는 데, 이놈의 머리는 노화가 되었는지**  
**무식한 건지 자질이 없는 건지 식견이 없으니 퇴고해주실 스승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도통 시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 曹憲燮**

160523

\*참 좋은 휴일 아침!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사상에 빠지기 쉽다네요.

높은 덕행은 학문과 사색을 병행함으로 이룩된다 하오니

우리 모두 높은 덕행 쌓아 깊은 이치 통달하였으면---

산내음님 잠깐 다녀갑니다. 휴일 잘 보내이소~~~♥석암 曹憲燮♥

160522

\*\* 불벗님 참 좋은 주말, 부부의 날 아침이네요. 하늘도 청명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앞산 오가는 길엔 길목 담장넘으로 장미꽃이 객혈을 토하듯

붉은 핏덩이를 뭉텅뭉텅 쏟아내고 짙레꽃 향이 코를 찌를 듯 향기롭네요.

가끔 살랑이는 바람결이 훈훈하고 하늘은 끝 간대없이 맑고 깨끗하며 구천이 저렇게

맑은데 그 마음이 오히려 슬퍼지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죄업이 많으면 죽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하는데 구천이란 어디를 말함일까?

하늘은 철 따라 봄(蒼天), 여름(昊天), 가을(旻天), 겨울(上天) 사천이 있고,

동(蒼天), 서(昊天), 남(旻天), 북(上天), 동북(變天), 동남(陽天), 북서(幽天), 남서(朱天),

정 중앙(均天)을 구천이라 하지요. 또한, 손자병법에 아홉 가지의 땅 구지(九地)가 있는데

지루할 것 같아 이만 ...행복 가득한 주말 되소서---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60521

\*여왕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나이별 이치를 보면, 타고난 수명 120세 천수(天壽) 라 는데,

나 역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불혹(不惑 40세)의 나이와

하늘의 뜻을 아는지천명(知天命 50세)의나이,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육순,이순(耳順)을지냈지만,

사물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터득 못 하고 종심(從心)이라고도 하는 70세

고희(古稀)를 맞을 준비도 못 하고 있으니 배움이란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인가 봅니다.

불벗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520

\*불벗님 살다 보니 행복이란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고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미운 소리 고운 소리 사랑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나를 찾아와 차 한잔 대포 한잔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친구가 있으니,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네요.

우리 모두 헌신의 노력으로 좋은 가족 좋은 친구 만드시어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519

**\*5·18 민주화 기념일! 가신님의 명복을 빕니다. 먹는 습관에 따라 개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대체로 현재 주어진 것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으며. 타인보다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이며

**▲빨리 먹는 사람은=‘멀티태스킹’에 강하며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본인에게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신과 잘 맞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날 확률도 높으며,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사람은=인간 관계보다 업무 중심적이며,**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성격에 고집이 강하고 익숙한 것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비벼 먹는 사람은=모험과 경험, 새로운 것을 중시하고**

친구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나

지나치게 일을 벌여놓거나 우선과제를 정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음식을 먹기 좋게 잘라 먹는 사람은=직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며 한 발 먼저**

나아가는 경향이 강하며,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를 즐기기는 어려우며

**▲편식 또는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사람=자신이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나**

명확하게 이야기 할 줄 알며, 뭐든지 스스로 직접 체험해보기를 원한다네요. ♥昔暗 曹憲燮 ♥

160518

**\*블벗님**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며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즐겁게 놀고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네요.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갑니다. ♥昔暗 曹憲燮 ♥

160517

**\*가정의 달 오월! 성년의 날 아침 대구엔 밤새도록 고운 비가 내리네요.**

요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은 간식으로

주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듯,

라면이 세상에 나온 건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약 1700년 전 몽고에서 알칼리성 물의 반죽 효과로 처음 만들었던 것을

모방꾼 일본 애--들이 명치 시대에 일본 음식인양 라면으로 둔갑시켰다네요.

그뿐인가요. 우리의 김치와 도자기도 제 것인 양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여 자기네 것이라 하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오월 셋째 주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열어가입시다--- 블벗님!!! ♥昔暗 曹憲燮 ♥

1605165

**\*어느덧 오월 중반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 휴일이네요.**

스승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제자가 빛을 내어야 더불어 스승이 빛이 나는 것인데,  
 스승과 제자가 동행하는 이야기는 단연 공자와 그 제자 이야기를 일컬어,  
 홍운탁월(烘雲托月), 달을 그리려면 달이 아니라 달을 드러낼 수 있는 구름을 그리듯,  
 스승의 이름을 빛내려면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제자를 빛나게 하라는 옛말을 되새겼으면...  
 위대한 스승은 제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니...구름을 물들여 달을 드러내듯 자신을 태워  
 제자의 앞길을 밝히는 화톳불이 되었으면...블벗님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515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평안하시지요.  
 저의 부부 매일 새벽 앞산 등산 가는 길 안일사!  
 1915년 1월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 13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  
 국민 회복 운동을 할 것을 서약하고 비밀결사대 중앙 총부를 조직하였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하며 상해임시정부를 도우려고 군자금 조달 운동을 하였으며  
 일제 강정기하에 항일운동의 중심이 된 유서깊은 앞산 중턱 안일사에서 공양하고 왔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블벗님!!! ♡석암 조현섭♡  
 160514

\*상쾌한 아침! 화장장에서 세상에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하는 곳이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는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죽은 영혼이 생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데, 지은 죄가 찌끔 있을 때는 바로 천국으로  
 행하기는 무엇하고 천국으로 입문하기 전에 그 죄책을 불로서 깨끗이 태우는 곳을  
 연옥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정죄하기 위해 머무는 곳이라 하며  
 불교에서는 죽어서 연옥으로 가는 것을 없애고 다비라는 화장의식으로 정죄한다네요.  
 한 평생 제명대로 못살고 고인이 되신 모든분, 부디 편한 천국으로 가시어 편히 잠드소서...  
 블벗님이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昔暗 曹憲燮♡  
 160512

\*참 좋은 아침! 고향 글을 올리다 보니 고향의 사계절 동무들과 뛰놀던 아련한 추억이--  
 봄이오면 뒷골 분대산과 앞산 응봉산 진달래꽃 따다 먹고  
 산소옆 뻘비 뽑아 먹던 시절 지천인 나물 향과 엄마의 향 같은 봄 냄새!  
 여름이면 400년 지난 정자나무 소프라노 음악처럼 매미 소리 장단 맞춰  
 구슬땀 식혀주는 동민의 휴식처와 소먹이며 밀사리 하고 보리 퍼다 참외 사먹고  
 높디높은 하늘엔 뭉게구름 떠돌고 땀 흘려 가꾼 농사  
 여물어가는 황금빛 들녘 동민 마음 풍요롭고  
 동지선달 긴긴밤 동네 제삿날이면 제삿밥 비벼 먹든 추억  
 팽이치고 썰매 타고 눈싸움하며 연 날리던 추억 아련하네요.  
 블벗님 저는 가끔 마음이 울절할 때 고향생각에 젖어본답니다. ♡석암 曹憲燮♡



160512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요. 어느덧 5월 중순 산과 들에는 신록의 푸름이 짙어지네요.  
재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처참하게 죽이는 세상! 재산 많은 사람 조심해야겠습니다.  
집승만도 못한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내 부모 내 자식 내팽개치고 개인의  
영위만 안주하게 한 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 인성교육 가정교육 때문인 듯,  
사회 기강이 무너져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자식들  
자라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알 수가 있을는지?  
우리 모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아닐까!  
오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면...  
블벗님 저의 불방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憲燮♥  
160511

\*대구엔 이른 아침부터 고운 비가 내리네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행복은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며  
노력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지요.  
우리 모두 욕심과 이익, 행운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아낌없이 주면 모두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 살아갔으면---  
오늘도 블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510

\*블벗님 연휴  
잘 지내셨지요.  
연휴가 지나가니  
처성자옥(妻城子獄)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아내는 성(城)이요 자녀는  
감옥이란 말, 즉 처자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말함인데, 황금연휴가  
되니 예외 없이 찾아오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피붙이가 북적대며 야단법석을 떠는  
정신없는 날들 삼계가 열택인데 이 육신이 또 그들 뒷바라지에  
신경을 쓰니 올 때는 반갑지만 가는 뒷모습이 더더욱 곱게 보인다는

말처럼 다 보내고 연휴가 끝나니 집이 절처럼 고요하니 마음도 평온하네요.♥昔暗 曹憲燮♥

160509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버이날 묘소나 찾아가볼까 일찍 찾아뵙습니다.

내 고향 합천 시골이라 옛 어머니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살 가게도  
돈도 없어 장미꽃 생화를 어머니께 달아주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용돈도 받는 세상이 되었네요.

저의 선친은 65년도 선비님은 79년도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옷 한벌 못 해드린  
철부지로 살았던 게 후회스럽지만, 불효부모사후회라 돌아가신 후 후회한들 무슨 소용...  
지금은 90세인 장모님 모시고 사랑받고 있네요.

부모님 계신 분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 주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는데,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겠지요.

블벗님 어버이 날 웃음꽃 활짝 피우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508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까치 이야기를 하노니, 작침(鵲枕)이란?

까치가 집을 지을 때 풀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집어넣은 작은 베개 둘인데  
그 둘을 품에 지니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첩에게 남편을 빼앗긴 부인은 “이 사랑의 묘약”을 구하는데  
패물을 아까워하지 않았대네요.

또한, 남작소라 해서 까치가 집의 남쪽방향에 집을 지으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고  
또 까치집을 태워 재를 물에 타서 마시면 정신 이상이 된 미치광이에게 붙은병  
도깨비를 물리치고, 충독에도 특효이며 정월 초 하룻날 아침 대문안쪽 재를 뿌리면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어 아침에 깃, 깃 우는 까치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하였지요.

블벗님께 모든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곱게 올려주신 블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憲燮♥

160507

\*손자 손녀 어린이날 선물 많이 하고 즐겁게 보내셨지요.

누구나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하지 거짓되고 추잡하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산다는 것은 말과 생각도 바로 하고 행동과 생활도 바로 해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할 듯...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매국노나 배신자, 변절자나 살인범, 패륜아나 강도, 매춘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철학(哲學)이란 학문은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학문이며. 언제 죽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죽을 수 있는 마음자리를 비워두었으면...

블벗님! 우리 모두 진실하고 아름답게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입시더...♥昔暗 曹憲燮♥

160506

\*오늘은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 날 이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하(立夏)이네요.

4일간의 황금연휴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소중히 여기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행복이란 누군가가 말을 하듯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가까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네요.

블벗님 가정의 달 5월 하루하루 행복한 날만 있기를 소망합니다..~♥昔暗 曹憲燮♥

160505

\*블벗님 오랜만입니다. 며칠 뜸했지요.

정기산행 20주년 한라산 등반 관계로 찾아뵈옵지 못했습니다.

빈방 아름답게 수놓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왕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에는 블벗님 가정에 날마다 기쁜 소식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504

제

주

도

한

라

산

산행 관계로...

\*좋은 아침! 매일 아침 5시 안사람과 함께 앞산을 오르며 산을 보면서 그 높음을  
 사모하고 그 장중함을 배우며, 수려함을 사랑하고 그 예스러움을 벗어나며, 길 다방 자판  
 커피 한 잔 마시니 진묵 조사전 주련 진묵대사의 칠언詩가 생각나 시 한 수를 읊으니...  
 天衾地席山爲枕 =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게삼아 누우니  
 천금지석산위침  
 月燭雲屏海作樽 =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다를 술통 삼아  
 월촉운병해작준  
 大醉居然仍起舞 = 크게 취하여 술그머니 일어나 춤을 추니  
 대취거연잉기무  
 却嫌長袖掛崑崙 = 어허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리겠구나.

하늘을 이불로 / 땅을 자리로 / 산을 베게 삼아 /  
 달을 촛불 삼고 / 구름을 병풍 삼아 / 바닷물로 술을 빚어...커어...  
 불벗님 가끔은 진묵대사의 이 詩처럼 락(樂)만 적으로 살아갔으면... ♥昔暗 조헌섭♥  
 160429==140430

\*불벗님 대구엔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네요.  
 부자와 빈자는 양날의 칼날,  
 재벌은 상속자만 있고, 효도는 빈자에만 있는 듯하니  
 돈 많다고 좋아할 수도 돈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으며  
 주어진 삶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하고 살았으면...  
 경제가 좀 안 좋다고 조선 해운 철강 빛이 수십조가 된다니  
 세계 1위기업이 어찌다 왜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도 제도도 확 다 바뀌 새롭게 국가 개조를 할 때인 듯싶네요.  
 현 세태의 재벌들이나 부유층 사람들의 재산 상속 과정을 보면  
 불쌍 서럽기 짝이 없고, 법원의 판결도 약자는 돌보지 않고 강자 편이니...  
 동방 예의지국이란 옛말이 되어버린 듯하여 씁쓸하네요.  
 의종은 형제와 소말리아의 형제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었으면... ♥昔暗 曹憲燮♥  
 160428

\*대구엔 밤새도록 지금까지 봄비가 제법 내리네요.

독립운동가 애연 이인 선생의 삼불이란!

불노불소(不勞不笑)——함부로 화내지 말고 함부로 웃지도 말아야,

불급불완(不急不緩)——바쁘지도 느리지도 말아야,

불허불영(不虛不盈)——비어있지도 채우지도 말아야, 연(然)한 삶이 이루어지니...

세상사 일희일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문제 또한 끊이질 않는지...

인간사가 곧 문제 해결의 연속일진데, 넉넉히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는 우리네 삶이 점철되길 기대하면서---

블벗님의 가정에 사랑가득~행복가득~미소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427

\*안녕하세요. 어느덧 꽃피는 4월도 푸르름으로 물들이는 월말이네요.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사는 것 걱정 없고

게으른 사람에겐 불평불만이 따르며

변명하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행복한 사랑이 오지 않으며,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으니,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간사한 사람 되지 말며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갔으면...

블벗님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426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신학기 개학 한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것만,

요즘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볼 멘 소리라네요.

도무지 분위기가 형클어져 수업이 안된다고 불평이며 학생들이 쓰는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듯,

교편(敎鞭)이란? 가르칠 교(敎) 채찍 편(鞭),

학생을 가르칠 때 교사가 가지는 회초리이며

지도편달(指導鞭撻)이란? 가르킬 지(指) 인도할 도(導) 채찍 편(鞭) 매질할 달(撻)

채찍으로 매질해서 가르쳐 인도해 달라는 뜻이라는데.

지금부터라도 학부형과 선생님 모두가 교편과 지도편달의 뜻을 되새겨 올바른 교육이 되었으면...

4월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한 주 열어 가십시오. 블벗님!!! ♡석암 曹憲燮♡

160425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 끝자락 휴일이네요.

승리자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자는 슬픔에 살며

승리나 패배를 버린 자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

청도 운문사 입구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블벗님 승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참 좋은 휴일 되십시오. ♥昔暗 조현섭 ♥

160424

\*봄비 내린 뒤라 우리 집 텃밭에 상추와 쑥갓, 채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네요.

우리의 가정(부부, 자식, 형제, 자매)의 이견 대립이나 친척과 친구, 이웃 간의

다툼이 있을 적에 서로의 생각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즉, 입장 바꿔 생각하고 행동하면 아마도 행복한 화해의 길이 열리겠지요.

우리 정치도 사리사욕만 챙기지 말고 여당은 야당이라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이라

생각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하면 존경받을 텐데...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를 포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스스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하며 양보하면 아름다운 사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듯도 싶은데...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맹자에 나오는 말을 기원으로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된 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을 살리지 못하니 안타깝네요.

블벗님 잔인한 4월 세계 곳곳에 지진과 황사로 난리네요.♥석암 조현섭♥

160423

\*불벌더위가 올는지 아침 안개가 자욱하네요.

저의 블로그를 찾아 주시고 주옥같은 댓글 남겨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내용의 답글 못 해 드려 죄송할 뿐---

하지만 올려주신 좋은 정보와 댓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며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한번 만나기도 어렵지만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먼 훗날 추억의 한 장면에 남겠지요.

블벗님 부디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고운 불방에 다녀갑니다.♥석암 조현섭♥

160422

\*대구에는 밤새도록 고운 비가 내리네요. 블벗님!

동갑이란 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나이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치동갑”은 자칫하면 동갑이 될 뻔했다는데서 나온 말로 아래위 한 살 차이 나는 것이며,

이를 어깨동갑 키가 비슷하여 어깨를 나란히 겨눈다는 뜻으로 어깨동무라고 하기도 하지요.

“띠동갑”은 12년, 24년 차로 12지 동물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같은 동갑나이를

띠동갑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며, 해동갑의 해는 년(年)이 아니라 태양을 가리키는 말로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태양과 같이 한다는 말인데 남편이 발일하러 갔던 남편이

“해동갑하고 집에 왔다.”할 때 쓰는 말 ...조상의 지혜가 담긴 자치동갑, 어깨동갑, 해동갑의

의미가 다르나니...일일지장(一日之長)이라 오뉴월 하루 빛이 무서운 걸...~ ♥석암 조현섭♥

160421

\*블벗님

잘 지내셨지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도와 함께 할

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무한히 펼쳐진대요.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420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불벗님! 오랜만에 저녁에 찾아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자주 만나고 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술과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가끔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헤어지고 나면 도리어 외로움과 헛헛한 마음이 차올라 공복감을 느끼는

현상과 기분이 좋지 않거나 외롭고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배가 고프고,

반대로 누군가와 친밀한 감정을 느끼거나 믿음이 생겼을 때 공복감이 사라지는 것이

“정서적 허기”라고 하며, 원래 위장이 비었을 때 배고픈 신호가 와야 하는데

유령위장이 가짜 신호를 보내 뇌에서 배고프게 인식되어 자꾸 뭔가를 먹게 되고

배는 채워져도 유령위장은 만족이 안 되니 포만감은커녕 허기를 느껴 야식을 많이 하여

혼자 지내는 여성들과 술꾼들이 배불뚝이가 되어가는데,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치유되오니 사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대요... ♥석암 曹憲燮♥

160419

\*불벗님 참좋은 아침.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 의 지진이 발생했다네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태양계 행성들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지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약 30km 인공위성이 초속 약 20km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지구의 자전속도 약 365m 우리는 엄청난 속도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편안히 살고 있지만,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속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 남극과 북극이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다가온다는데, 자기장이

역전되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거의 죽게 되며 지구표면에

수많은 화산폭발, 지진, 홍수 등이 일어나며 우주복사가 증가하여 지구가 불덩어리

같이 기온이 상승하여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네요.

현재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폭설, 홍수, 폭염, 등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원님은 환경적 재앙 예방과 국가 발전에 힘써야 할 터인데

새로운 이전투구 와중(渦中)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석암 曹憲燮♥

160415

\*불벗님

비가 온 후라  
 앞산에 나뭇잎이 새  
 옷 갈아입기에 바쁘네요.  
 선거 결과를 보니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 공천 파동 등 아집이 선거  
 참패를 불러온 결과인 것 같네요. 고집불통이라 하잖아요.  
 고집을 부리면 몸 안에서 기가 통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도 되지 않으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용서하면 마음이 훨씬 편한 것,  
 병의 근원은 고집불통임을 명심하여 병은 내 마음에서 고치면 99%는 나은 것입니다.  
 불벗님 늘~건강관리 잘하시어 무병 장수하소서...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60414

\*반갑습니다. 불벗님! 국회의원 선거의 마지막 날 백중지세의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흔히 자웅을 겨루다.”의 이 말은 원래 밤과 낮을 가리키는 말, 자웅은 역(易)에서  
 나온 말로 자(雌)는(암컷)밤을 나타내고, 웅(雄)은(수컷)낮을 나타내는 말인데  
 즉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  
 난생인 악어의 알도 처음엔 암수의 구분이 없다는데,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에서  
 어미 악어의 가까이에서 높은 온도를 받은 알은 수놈, 바닥에 깔려 열을 받지 못한  
 놈은 암놈이 되듯, 이처럼 생명의 태어나는 모습을 사생(四生)이라 하는데 이를 보면,  
 태생(胎生)=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생명으로 인간 외 포유류 동물이 있고  
 난생(卵生)=알로 태어나 부화하는 즉 두 번태어나는 가금류,파충류가 있으며,  
 습생(濕生)=곰팡이류와 같이 습한 곳에서 번식하는 것이 있고  
 화생(化生)=성적 교접 없이 업력(業力)에 의하여 태어나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생명의 탄생은 신성한 것, 인연에 따라 좋은 삶 살아갔으면...♥석암 曹憲燮♥  
 160412

\*불벗님  
 즐거운 휴일  
 재밌게 지내셨지요.  
 따뜻한 봄이 되면 피로감  
 줄음, 식욕부진 등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육류, 해조류,콩)  
 등을 먹으면 줄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은 졸음운전 사고에 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411



\*블벗님 좋은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 자린고비란 흔히들 구두쇠를 자린고비라고도 하지만, 자린은 특별한 뜻이 없는 취음으로 기름에 절인이 저린, 자린으로 변한 음이고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 “비(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나타내는 말로 제사 때 지방으로 쓰는 말인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신(辭神)이라 하여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고 지방과 축문을 태우게 되는데, 이 종이가 아까워 기름에 절여 다음 제사에 계속 쓰는 것을 자린고비라 하였다는데,

이처럼 기름에 절인고비가 자린고비(자린考妣), 이전투구(泥田鬪狗), 함흥차사(咸興差使), 두문불출(杜門不出)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

전라도 굴비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 자린고비의 주인공은 충북 음성에 살았던 조륙이라는 인정없는 목석 같은 사람 이었지만, 큰 부자가 되어 늙어서는 이를 반성하고 주위 사람을 돕는 자선가로 변했다는 얘기가 흐뭇하네요.♥석암 曹憲燮♥

**\*블벗님!**

**하루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금세 주말이네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누구**

**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참 마음으로**

**존중하고 나의 지혜로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블벗님의 가정에 화창한 봄기운의 정기 속에 꽃들의 향기로운**

**미소처럼 행복이 넘치는나날 되시길 바라면서...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409**

**\*블벗님! 좋은 아침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하고 세사가 첩첩산중...**

**딱 두 줄로 말할라치면 상쟁양와각[相爭兩蝸角]-달팽이 뿔 위에 서로 싸운들**

**소득일우모[所得一牛毛]-얻어봐야 한 가닥 쇠 털 뿐이고 호각지세고 오십보백보인걸...**

**선거철이 되니 곡학아세[曲學阿世]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니**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같이 무식한 자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횡설수설[橫說豎說]은 원래는 횡설종설[橫說縱說]에서 유래한다는데,**

**횡으로 종으로 조리 있게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었대네요.**

**이 말은 고려 시대 정몽주 선생이 성균관에서 당시에 들어온 사서집주에**

**막힘없이 설명하자 이색 선생이 “몽주의 논리가 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쓰이던 말이 오늘날 우리 세사를 빗대는**

**부정적인 말이 되어 버렸으니...나야말로 꽃샘 엄동이 풀리니 춘곤에 못 이겨 횡설수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항상 기분 좋은 날 되소서. ♥석암 曹憲燮♥**

**160408**

\*대구엔 밤새도록 고운 비가 내리네요. 우리 사회에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듯.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까지 각양각색의 불신이 건전한 사회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정치인들이 상대 당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  
선거철이면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여·야의 이합집산과 대선공약인 노령연금, 경제민주화,  
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당선만 되고 나면 말짱 헛공약이 되었고  
후보자 중 40%가 전과자이고 국가부채가 1,284조 1년 전보다 72조 1,000억이 늘어났으며,  
노재현 등 195명이 파나마 로펌 조세 피난처에페이퍼 컴퍼니를 설치 국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고,  
끼리끼리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업재해 1위,노인 빈곤율 1위,  
이혼율 1위, 국가 채무 증가율 1위, 결핵환자 1위 빈부격차 1위, 노령연금 공지 삶의 만족도 공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한 작위행태들---어느 정당 하나 국가개조로바로잡겠다는 당이없으니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사람 사는 세상답지 아닐는지? 불벗님!!! ~ ♥昔暗 조현섭♥

160407

\*불벗님 반갑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다는 천하 명의 편작의 육불치론에는  
첫째=환자가 교만,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환자이고  
둘째= 자신의 몸보다 재물이 아까워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셋째=입고 먹는 것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넷째=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혈기가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며,  
다섯째=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고  
여섯째=무속에 빠져 신비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네요.  
그런데 병이 어찌 몸에만 있는 것이라? 우리 정신에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육불치는  
1, 교만하고 2,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3, 과식과 사치를 일삼고  
4, 일과 가정의 조화가 깨지며 5, 정신적 피폐함이 극에 이르고,  
6. 나쁜 짓 하여 신에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 사람이 진정 육불치의 전형입니다.  
우리 모두 돈에 우선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삶,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삶 살아갔으면... ♥昔暗 조현섭♥

160406

\*불벗님! 비바람에 벼꽃이 하얀 눈처럼 떨어졌네요.  
꽃은 쉬이 지고 바람은 철 따라 변할손고, 우리네  
인생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 흘러 덧없이 흘러가는구먼...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산과 바다, 바위 巖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의 우정도 변치 않길 바라면서...올려주신 참 좋은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405

\*바우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한비자에 보면 군주(대통령)의 전제조건은 법치를 완성하려면  
군주의 술치 즉, 정치가 제일 중요하고 준법사회를 만드는 게 군주의 일이며 정치기술이  
필요하다네요. 한비자엔 정치가 법치의 전제조건, 지위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군주(대통령)는 관리(장관 등,임명자)를 다스리고 관리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다 할 수 없기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신하(장관)의 능력을 잘 살피 자리에  
앉히고 군주의 덕목은 “은밀함” 군주가 특정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참견하면 신하는 소신을  
버리고 군주의 눈치만 보므로 목적을 이루기 어렵겠지요,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먼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잘 살피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치 술을 발휘해야 하고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며 백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주의 일이라고…활기찬 한 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昔暗 조현섭♥

160404

**\*블벗님!**

**4월 첫 휴일**

**좋은 아침입니다.**

**앞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발목을 잡지 말고,**

**이왕 잡으려면 손목을 잡어소서…**

**사랑은 끝없이 포용하고 화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네요. 꽃들이**

**만발하고 나뭇가지 새잎이 피어나는 계절!**

**휴일 아침 정기산행 관계로 살포시 다녀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403

**\*블벗님! 진달래 개나리 벚꽃들이 만개한 4월 첫주 말 꽃놀이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친구(親舊)의 한자 구성을 보면 옛부터(옛舊) '친(친할친親)'**

**나무(木) 위에 서서(立) 지켜봐(見)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로 다가와 주고**

**진정한 친구는 모두가 떠날 때 내게 오는 사람이라네요.**

**과연 나에게 그런 친구는 몇이나 될까!.**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친구일까?**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에는 잔인한 4월이 아닌 우리 모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즐겁고 외로울 때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오늘도 올려주신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402==131230

**\*블벗님께 참 좋은 4월 활기차게 열어 가시길 바라면서, 개나리가 지천을 피어나는**

**4월 어느날 23살의 이율곡은 예안 지방에 58세의 이황을 찾아가두 거장의 신비스런 만남은,**

**같은 주자학을 계승하는 유학자였지만 그 중심사상은 결코 같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들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의 학풍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큰 만남을 이루고 떠나는**

**젊은 선비 율곡에게 퇴계 이황은**

**거경궁리(居敬窮理“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경에 머무른다.”)라는 주자학을 공부하는 정신**

**통일의 수단이라는 글귀를 전하는데, 그 후 두 사람은 10여 차례 서신왕래를 하면서 서로**

**아끼며 칭찬하였는데, 퇴계는 밝고 쾌활하여 후생가외(後生可畏)할만한 인물이라 하였으나**

두 인물의 유학 체계 퇴계는 경(敬)을 바탕으로 하는 주리론자였으며, 학문적이고 도덕적이며  
영남학파의 거두였으며 율곡은 성(誠)의 원리로 현실적 개혁적이며 기호학파(경기,충청)의 거두,  
그리고 이(理)가 아니면 기(氣)가 뿌리박을 데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지할 데가 없듯이  
둘은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라는 논리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논쟁이지만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풍을 이어간 우리의 대 스승의 지혜를 이어갔으면...♥석암 曹憲燮 ♥

160401==131220

\*블벗님 춘 3월 호시절도 어느덧 막을 내리려나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담대하며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씻어야겠지요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누군가가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  
 밝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밝은 쪽으로 가고  
 어두운 말을 하면 운명은 어두운 쪽으로 간다 하오니  
 밝은 모습으로 3월을 보내고 희망찬 4월을 상쾌하게 맞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60331

\*블벗님! 반갑습니다. 치매에도 ‘문관(文官) 치매와 무관(武官) 치매’두 종류가 있다는데  
 적극적이고 씩씩하던 어른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하고 얌전해지면 문관 치매,  
 평생을 부드럽고 소극적으로 사시던 분이 갑자기 활달하고 거칠어지면 무관 치매라네요.  
 무관이 되면 평소 속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 잠재의식을 발휘하여 치매 증세가 시작된  
 시어머니가 아들(남편) 출근길 배웅을 하며 며느리에게 “왜 네가 나서니?”라고 쏘아  
 붙이기도 하고 아들을 빼앗겼다는 잠재의식이 표면화된 걸로 이해는 하지만, 황당한 심정...  
 반대로 한 고위 공직자는 “집안 어른의 문관 치매 덕분에 가정이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효도사상은 사라져 가고, 1인·2인 가구가 날로 늘어나는 요즘 문관이든 무관이든  
 치매가 두렵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모두 무병장수하셨으면~♥석암 曹憲燮♥  
 160330

\*안녕하세요. 블벗님! 3월 말을 즈음해 제가 좋아하는 이택님의 옛 시 올려봅니다.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  
 것치으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  
 아마도 것희고 속검을손 너뿐인가 하노라.  
 ◆감장새 작다 하고 대붕(大鵬)아 웃지 마라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을 너도 날고 저도 .  
 두어라 일반비조(一般飛鳥)니 네오 괴오 다르랴.  
 이택(李澤;1655~1724)

<해설>

감장새가 비록 몸이 작다고 하나 대붕아 비웃지마라 머나먼

하늘을 대붕도 날고 감장새도 난다. 네나 나나 다 똑 같은  
짐승인데 네니 나니 하고 갈라 말할 것이 있으랴. ♥석암 曹憲燮♥  
160329

\*블벗님! 휴일 즐겁게 보내셨지요.  
오래전 박봉이던 시절 봉급날을 머슴 새경 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봉급이 너무 적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지,  
봉투가 약간 두툼하면 기분이 억수로 좋은 날이라 삼삼오오 짹을 지어  
당당히 대폿집으로 향하던 기억이...주막집에 이르면 벌써 높은 분들께서  
갓끈이 풀릴 듯, 말 듯하여 꾸벅 절하고 옆방으로 갈라 하면 큰 대폿잔에  
막걸리를 칼칼 부어 주시던 그분들은 지금은 다들 저세상으로 가셨지만- - -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 먹을 것은 귀해도 인심 하나는 철철 넘치는 시절이었으니  
또한, 모내기할 때나 ,논, 밭 잡초 땔때나 추수할적에 참 이오면 이웃을 불러 참먹자며 하든시절!  
국민소득 2만 7천불 시대지만 인정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 옛 생각이 나네요.♥昔暗 조현섭♥  
160328

\*블벗님! 춘 삼월 호시절도 끝자락 휴일이네요.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 소리를 듣는 귀를 바꾸어  
삶에서 오는 어떤 고통도 다 받아들이면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  
지금 이 순간의 마음조차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오니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짜증 내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그게 바로 살맛 나는 세상일 듯싶네요,  
며칠 남지 않은 3월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60327

\*블벗님 참 좋은 주말 아침이네요.  
우리는 흔히 개판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앞뒤 순서가 형클어져 엉망이 되었을 때 일컫는 말이지만,  
개판이란!, 원래 우리 선조들은 성스럽게 이어져 오던 계불의식(稽紱儀式)  
이란 말에서 잘못 표현된 것이라는데---  
옛날 삼신님께 죄를 지은 황궁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제단에 나가  
하늘에 속죄해 줄 것을 비는 것을 계불의식이라 하였는데,  
이처럼 속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불이 있고,  
그 마음이 없으면 계불이 없었다고 하여 계불이 개뿔로 되고  
“개뿔도 없다” 라고 하였고 개불의식을 한 장소를 장(場)이 판이 되어

개판으로 펴하되고 우화로 까지 비약되었다고 하네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326

\*안녕하세요. 불벗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51세인 아마칸이라는 화가는 터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두 눈이 실명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일한 위안, 맹인이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의식안이 누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겐 약하거나 없는 이유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시각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천적 기능이 묻혀버리기 때문이라는데, 이 의식안은 제3의 눈으로 수련계에서 말하는 천목과 관계가 있는 것, 천목은 인체의 본능이라고 하며 천목의 차가 높은 사람은 우리 공간을 꿰뚫고 다른 시공을 볼 수 있으며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볼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 장애인도 기능과 예술을 초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한 순간이라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게 아닌 목석 같으며 의식하기 때문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형상이 의식안인듯...♥석암 조현섭♥

160325

\*불벗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의 불방을

찾아주시고 항상 건강을

염려해주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축원의 덕담과 안부의 글 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고맙다는 말밖엔 없네요.

오늘도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60324

\*좋은 아침! 옥야는 빼어난 미모, 부유한 집안의 교만한 딸이라 아내의 모습을 부처님이 이르되,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같은 아내,  
남매처럼 다정다감하여 서로 속이고 숨김없는 오누이 같은 아내,  
어떠한 비밀도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아내,  
정성스러움과 공경함으로 어른을 받들고 순종하는 며느리와 같은 아내  
항상 어른을 어려워하고 조심하며 교만하지 않은, 식모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이르니,  
옥야는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를 않고 부부 사이를 나그네처럼 여기며 원수와 같은 아내였고,  
밤낮으로 자지를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안 재산을 빼낼 궁리만 하는 도둑과 같은 아내였다며  
다소곳이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제가 생각이 부족하여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에겐 자애[至愛]로운 엄마,  
남편에겐 열녀로운 아내, 시부모에겐 공경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어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는 옥이...

훌륭한 남편은 어진 아내가 있고 어진 아내는 훌륭한 남편이 있기에 화목한 가정 이루겠지...♥석암 조현섭♥  
16032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

부인이 미운 남편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고

남편이 미운 부인은 교만하기 때문이라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사랑도, 헌신도, 희망도 없으며

우리 모두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나를 낮추어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감사히 보고 쉬었다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322

\*블벗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저는 모처럼 집사람과 영화 ‘귀향’(감독 조정래) 7만 5,270명에 달하는

국민 기금 후원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3만여 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국민이 만든 영화!

2002년 조정래 감독이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지 14년 만에 개봉한 ‘귀향’. 14년이라는 숫자 속에 우여곡절 이야기도 드라마틱하지만,

국내 개봉에 이어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까지 개봉관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명의 꽃다운 소녀들 중 238명만이 돌아왔으며 46명만이 남아 있다는 얘기.

‘귀향’은 전쟁 중이던 1943년을 배경으로 열네 살이던 정민(강하나)과 영희(서미지)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손에 이끌려 가족의 품을 떠나 차가운 전장 한가운데 버려지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영화의 바탕인 국민 성금으로 만든 영화를 보고나니

너무 슬퍼네요.

이웃이라고 일본 관광 하여 일본을 찬양 하는 사람, 정부의 화해 정책은 일본 교과서의

70%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놈의 술수에 넘어가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안타까울 뿐... ♥석암 조현섭♥

160321

\*블벗님!!!

어느덧 3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네요.

그 사람은 정신 건강이 완벽하고 과거를

한탄하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에

현재의 삶을 충분히 살 뿐이고 있는 그대로 볼 뿐이라네요.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우는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참 좋은 주말 아침!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으로부터 욕을 먹지않고 살기는 참 어려울 듯,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두고 염치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이해득실 여부에 따라 선악을 판별하기 때문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염치가 없으면 몰염치 파렴치하겠지---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지만,  
 파렴치하면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몰염치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람이니,  
 우리 모두 사회의 덕목인 예와 의리,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예의염치 (禮義廉恥)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의 덕목 효제충신(孝悌忠信)의 8덕을 지녔으면...  
 오늘도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이소. ♥석암 조현섭♥

160319

\*대구에는  
 봄비가 내리네요  
 우리는 매일 같이 만나  
 지만, 오늘도 댓글 쓸 수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의 단점과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며  
 내가 먼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을 아내를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 가장 큰 원칙,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불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318

\*불벗님 잘 지내시지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에는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며,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며,  
 되는 집안은 뽕뽕뽕쳐 하나가 되고,  
 안되는 집안은 뽕뽕이 흩어져 콩가루이며,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하며,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안되는 집안은 가옥(家屋)을 위한다네요.

우리 모두 불평불만, 근심걱정 없이 웃음 꽃이가득한 가정 만들어 갔으면...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曹憲燮♡

160317

\*블벗님 어느덧 3월도 중반을 지나가네요. 744년 초여름 당나라 낙양에서 이태백(44세)과 두보(33세)가 만나 함께 노닐며 술잔을 주고받았고 작품을 주고받아 문학을 논하기 위해 이듬해 가을 또다시 태양과 달이 만나듯, 전혀 다른 시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고 인정한 이백은 낭만주의의 詩를 많이 썼으며 두보는 냉철한 눈을 통해 비친 사실주의의 詩를 많이 써 이백과 두보는 나이를 초월해서 우정을 나눈 사이... 두 사람의 역사적 만남은 742~744년 나라에서 추방된 이백의 울분과 두보의 가난한 한스러움에 유랑하던 시기에 우연히 만나 이백이 자유분방함과 아름다움, 기쁨을 노래했다면, 두보는 인간의 고뇌에 깊이 침잠하여 안록산의 난 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풍부한 문장력과 현실을 꿰뚫는 그의 시는 후세에 역사, 즉 시사(詩史)라는 이름으로 널리 추앙받았습니다. 이태백은 시를 통해 혼자 술 마시고 선경을 노래했지만 두보는 시를 통해 세상을 걱정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처지에 한숨 쉬며 비록 성격은 달랐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아 극진한 벗으로 지낸 것은 참으로 오늘날 본받을 만한 만남이 아니겠는지...♡昔暗 조현섭♡

160316

\*반갑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니

대구에도 목련이 탐스럽게 피어나네요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지자(智者)=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즐겁게 살며,

인자(仁者)=마음이 좋은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였으니,

블벗님 항상 즐겁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소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60315

\*블벗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기원전 518년 34세인 공자가 53세인 노자를 만나러 노자의 고향 하남에 찾아가 공자는 열아홉 연장자 노자에 예를 올리며 배움을 청했고 노자는 반가워 송하량액이라는 술을 내어 그를 환대하여 두 사상가는 교분을 나누는 성대한 만남, 까마득한 세월, 위대한 공자의 유가 사상과 노자의 도가 사상은 근본부터 다르지만, 두 번이나 그를 찾아가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사를 논의했다는 것은 성인다운 큰 그릇이 아닌감? 철학의 꽃이 피었던 춘추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았던 두 성인의 만남은 사상과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의일 듯, 독일의 메르켈은 17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정부의 대연정 구성 조건을 타결은

사색당으로 나뉘어 서로 흠뜠고 투기질하는 현 세대에 참으로 배워야 할 청량제가 되었으면...♥昔暗 조현섭♥

**\*블벗님!**

세월이 정말 빠르군요.

丙申년 3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네요.

인생은 너무 세게 움켜지면 죽어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날아가 버리는 한 마리의 비둘기와 같다네요.

우리의 삶도 너무 느슨하게도 움켜지려고도 하지 말고 중도의 삶 살아갔으면...

참 좋은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313

**\*매일 보아도 반가운 블벗님! 우리의 인생사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이 3이요. 운이 7이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울 듯...**

이 말의 유래는 청나라 포송령(蒲松齡)이란 사람이 처음 쓴 말인데 과거시험에 여러번이나  
떨어진 포송령이 낙방의 쓴 맛을 운칠기삼으로 나타냈으며, 한 선비는 흰 수염이 나도록  
과거에 도전하여 번번이 낙방하니 아내가 가출해 버려 죽을려고 대들보에 동아줄을  
매어놓고 생각하니 자기보다 못한자가 급제한 것이 억울하여 옥항상제에게 따졌는데,

옥항상제께서 정의에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 술 시합을 시켜 정의에 신은 3잔 운명의 신이  
7잔이나 마셔 세상사 정의에 따라 행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에 따라서 행해  
지므로 3분의 이치도 소홀하지 말고 7분의 운수만 믿어서도 안 되겠지?

진인사대천명해야지, 요행만 바라도 안되며 요즘은 7분의 합리성이 있어야제... ♥석암 曹憲燮♥

160312

**\*좋은 꿈 꾸고 잘 주무셨지요. 대구의 아침도 제법 쌀쌀하네요.**

내 마음 안에 불화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

내 마음에 불만, 시기, 탐욕, 성냄이 가득한 상태로는

어떠한 평등, 자유,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네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소서...

오늘도 블벗님께서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311

**\*블벗님! 앞산서 내려오니 꽃샘추위에 하얀 매실 꽃이 안쓰럽네요.**

우주의 모든 생명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며 잘나고 못남 없이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인 듯싶네요.

바다의 넓은 마음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면

맑고 깨끗한 물이나 오염된 휴탕물, 한강 물이나 금강 물이나 낙동강 물을  
구별 않고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 평등심을 없애야  
할듯 싶네요.  
우리 모두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살아갔으면... ♥석암 曹憲燮♥  
160310

\*블랫님 잘 지내시지요. 그릇듯한 옛 유머를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군대 신병훈련소의 시설 제도를 입담 좋은 소설가의 예기를 발리면,  
훈련병들의 출신 도(道)에 따른 기원이 제각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밤 10시 직전 일제히 치른 뒤 전등 끄고 무조건 잠자리에 들게 하는 저녁점호.  
경상도 출신 때문에 생겼고,  
하도 시끄러워서. 부대 주변의 철조망은 전라도 병력 때문에 만들었으며  
호남 곡창지대 출신이라 적어도 굶지는 않았는데, 입대 후 초창기 군대의 부실한  
배식 탓에 허기에 시달리다 고향 가려고 달아나는 이들이 생겨서라네요.  
옛날 군대에서 문맹자를 위해 설치한 ‘가가학교’는 강원도 청년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네요.  
다른 도에 비해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까막눈이 너무 많아서.  
.선착순? 충청도 출신 탓이다. 하도 느려서...충청도의 이미지를 ‘느리다.’고 보는 농담은  
이 밖에도 다양하게 그 유명한 “아부지~ 돌 굴러가유~~” 등,등...좋은 하루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309

\*블랫님!  
화사하게 웃으라는  
화요일! 많이 웃으시고 ㅎㅎ  
사람을 함부로 등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어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삶 살아갔으면...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308

\*블랫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해마다 3월이면 찾아오는 황사 외출시 마스크 착용 하십시오.  
황사의 습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중국은 기원전 1150년에 '우토우호(雨土于亳)'라는 먼지현상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3000년 전에도 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라 아달라왕(174년) 때 와  
백제 근구수왕(379년)때 '우토(雨土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오며,  
644년 고구려에서 10월에 붉은 눈이 내렸다고 하고 고려 명종(1186년)과 조선 명종(1550년) 때  
한양, 전주와 남원에는 심한 황사현상이 나흘간 지속하였으며 25일간 흐렸다고 하네요.  
당시의 흙비가 내린 것에 대해 임금과 자격없는 사람이 벼슬한다는 것에대한 응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토양 대기가 오염되고, 지표면이 급속히 사막화되어가는 것을 보면 멀지않아  
그 재앙이 현실로 돌아올 것이 뻔한 이치...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밀림 지역이  
해마다 한반도보다 더 많이 파괴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자연에 자격 없는 사람이 곳곳마다  
통치하는 것이 원인인지 대기오염이 원인인지 알쏭달쏭하네요. 힘차게 한 주 열어가십시오.♥석암 曹憲燮♥  
160207

**\*춘삼월 호시절**

첫 휴일 아침이네요.

우리는 항상 가족의 기쁨도

지향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지요.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여 성취

했을 때 결국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성취감---

또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는지...~ 정기 산행 관계로

블벗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을 최상으로 쌓아 가시기 바라면서 잠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306

\* 좋은 아침! 그 언젠가 뉴스에 청소년들에게 문신을 마구잡이로 시술하여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이 문신을 호기심으로 한다니 참...  
문신의 역사는 5천 년 전 고대 원시사회에 같은 종족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맹수나 적에게  
무서운 인상으로 공포심이나 위압감을 주어 자신을 지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사랑의 불변을 약속하는 의미로 남자는 왼팔, 여자는 오른팔에 연인의 이름을 새겨  
사랑의 증표로 삼은 이 연비문신이 나중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이 문제가 된 적도 있으며  
조선 시대 어우동의 팔뚝에 새긴 연비 문신으로 음풍 사건이 양반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 문신 형벌을 경을 친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범죄조직의  
결속과 배신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바뀌었고, 빗나간 사랑의 증표로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니 청소년 지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듯...참 좋은 경칩 날 되십시오. 블벗님! ♥석암♥

160305

\*대구에는 아침부터 봄비가 내리는 포근한 좋은 아침~

세상의 모든 일은 너그럽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되 자신이 절망하고

괴로워 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모든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생각이 축원이기 때문에

삶은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오니,

우리가 하는 일은 불가능이란 없어 하면된다 할 수 있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항상 되새겼으면---

블벗님이 올려주신 고운 블방 감사히 보고 갑니다.♥석암 曹憲燮♥

160304

\*블벗님  
안녕하세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탐스러운 매화 우윳빛 목련  
하얀 매실 꽃에 벌 나비도 덩달아 노닐며 춤추는 이른 봄날~!  
말없이 일하는 자 성을 쌓고 말 앞세우는 자 오히려 성을 허문다네요.  
우리 모두 말없이 맡은 일에 충실하여 높은 성을 쌓아 갔으면--- ♡석암 曹憲燮♡  
160303

**\*블벗님 꽃샘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완전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숭고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떨어져지 않게 올바른 길을 걷게 하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기 쉬우니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의욕과 자녀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자식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자녀교육의 기본이라니,  
부모가 관심을 두고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해 부모와 자식간의 신뢰가 확고하다면  
자녀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라는데, 성공한 부모 되기도 쉬울 듯,  
어려울 듯, 마음먹기에 달릴 듯도 싶네요.  
춘삼월 호시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302

**\*날씨가 엄청 춥네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삼일 운동을 기념하는 97주년 삼일절!**  
왜놈들이 36년간을 강압으로 합방하여 총칼로 통치한 고통의 세월을 안겨주었으며,  
역사서를 읽어본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1592년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  
조선은 전 국토가 파괴되었고 농작이 1/3로 줄었으며 양민 학살로 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왜놈은 국보급 문화재를 약탈하여 도자기 기술, 인쇄기술 등을 전수받아 급격한  
문화성장을 이루어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던가?  
죄없이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오늘날까지 독도문제로 사사건건 심기를 자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기록 유산 포기의 대가로 10억 엔에 합의해주었으니...  
"독도는 우리땅" 이라 는 노래를 발표했던 정광태를 한국 정부는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몇 번을 지정했고, 김종필 전 정보부장이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을 확인,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 은 자기 영토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지진 때 500억 가까이 모금해주었으니...지금부터라도 정부의 확고한 대처가 필요할 듯,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어느덧 2월도 꽃샘추위와 함께 떠나려나 봅니다.

채근담에 이르기를, 운명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지요.

이 세상에 가장 친한 벗은 나 자신 이고 가장 나쁜 벗도 나 자신이며.

나를 구할 수 있는 큰 힘도 나 자신 속에 있고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나쁜 칼날도 나 자신 속에 있으니

결국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떠나는 2월 잘 보내시고 꽃피는 3월 알차게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60229

\*블벗님!

포근한 휴일이네요.

책이 두껍다고 다양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얇은 책 우리가 얻을 것이 있겠지요.

우리네 삶 저 만 리 운산 오르기도 힘겹고

산 개울물 살짝 얼은 살얼음판 되듯 힘들지만.

우리의 만남도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그 또한 즐거움이겠지요.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昔暗 조현섭 ♥ .^\_.^~'

160228

**\*2월의 끝자락 주말이네요. 신라의 손순은 먹을 것을 두고 노모와 어린 자식과의**

**싸움을 보다못해 어린 아기를 업고 들판에 나가 생매장하려고 땅을 팠다는**

**효도 지상주의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은 자식이 상전이 되어버린 세상인 듯,**

**어려서는 애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늙어서는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세상이니...‘무너진 등우리 안에 온전한 달걀 없다’고 하듯,**

**부모의 권위가 없어진 가정은 가정이랄 수 없지만, 내세울 수도 없는 세대...**

**성경에서 가장 엄숙한 단어 3개는 가정, 천국, 어머니라고 합니다.**

**가정은 황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가꾸는 심신의 안식처이고**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며,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눈물이 결정체이기 때문이라니, 자식이 상전이 아닌 부모의 희생이 심신의**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만들었으면...블벗님의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227

\*블벗님

안녕하세요.

2월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나무는 나무로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오직 한 곳에서 그곳의

물만 먹기 때문이라네요. 지방-세상이 아무리 그칠고

험해도 선하고 이쁘게 살아갔으면--- ...금쪽같은 금요일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226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거가 달포 남짓 남았는데,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공약들로 표를 얻어 당선되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유권자를 사기 치는 후보자를 두 눈 부릅뜨고 여야를 막론하고 살펴야 할 듯, 또한,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나 금품, 향응, 관권까지 동원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흑색선전, 중상모략들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미사여구가 아닌 약속을 따르는(메니포스트) 운동으로 안되면 말고 식의 공약,유권자를 기만하는 선전행위는 이제 그만두고 정책경쟁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야당 도시였을 때 서울, 부산, 대구 3대 도시였든 내가 사는 대구가 부끄럽게도 보수 여당만 당선시켜준 대가가 전국에서 국민소득이 20년째 꼴찌라니... 의석수가 늘어나는 서울, 경기, 충청이 부럽네요. 블벗님 좋은 날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60225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높이 나는 새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난 새

모이를 많이 줍니다지요.

우리도 새처럼 부지런히 활개치면

건강에도 좋고 먹고사는 걱정 없겠지요.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昔暗 조현섭♥

130224

\*굿모닝! 보름달 보셨는지요. 저는 앞산 산행길에서 새벽 달보고 소원 빌었네요.

통계청은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니 보통 일이 아닐듯싶네요,



자영업의 위기를 이대로 두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하니 걱정이네요.

연일 한파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 생활이 자꾸 움츠러들어 서민 생활은  
더더욱 어렵지만, 골목길 모퉁이 실내포장 앞을 지나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합찜에 채주 한 잔과 푸짐하게 떠주는 홍합 안주로 얻었던 몸을  
훈훈하게 녹여 정다운 친구와 옛이야기 나누며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보시구려,  
오늘도 힘내시고 활기찬 나날 되시길 바라며, 불벗님의 불방에 쉬었다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223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정월 대보름 달 보기가 어렵다네요.

오곡밥, 이명주. 부럼, 아홉 가지 나물

많이 드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더위팔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액운을 없애기 위해

지신밟기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생각들 많이 나시죠?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그 시절 나름대로 정겹고 즐거웠던 것 같네요.

불벗님 올해는 보름달처럼 모나지 않는 사랑과 소망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60222

**\*상쾌하고**

**포근한 휴일 아침,**

**먼 훗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이른 아침 불벗님 불방에 살포시 다녀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221

\* 어느덧 2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네요.

덕본재말(德本財未)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

근본을 소홀히 하고 말단을 소중히 여기면

백성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타툰다지요,

재물은 하늘의 것이고 사람은 잠시 맡은 청지기(머슴)일 뿐,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하고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합니다.

그저 남한테 빌리려 가지 않을 정도면 족 하지요,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느긋하게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220

\*겨울이 지나 눈은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날 우수 ,

이 때쯤이면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이 트고

우리 조상들은 우수가 되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또 기러기들이 시베리아로 찾아가고,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오늘부터 봄이 찾아와 좋은 시절이 오겠지요.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60219

\*블벗님 반갑습니다. 이인(李仁`1896~1979`) 선생의 3불이란!  
불노불소(不怒不笑)-함부로 화내지 말고 웃지도 말아야,  
불급불완(不急不緩)-바쁘지도 느리지도 말아야,  
불허불영(不虛不盈)-비어있지도 채우지도 말아야 연(然)한 삶이 이루어지니...  
신용불식향이(神龍不食香餌)요, 채봉불입조룡(彩鳳不入雕籠)이라.  
"신령스런 용은 맛있는 먹이를 탐내지 않고, 기품 있는 봉황은 새장이  
예쁘다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자존감을 지킨다는 말인데  
작은 이익을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을 보고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隨處作主)라,  
'있는 곳곳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주인'으로서 살아야한다네요.  
우리 모두 자존감을 지키며 내가 소중 할 수록 더불어 사는 구성원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온전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듯... ♡석암 曹憲燮♡

130218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녀가셨네요.  
丙申년 한 해에는 삶에서 오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 살아가소서...  
나의 원이 크고 원대하면 장애도 크게 와 시련을 겪게 마련이죠!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보고시킨다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장애도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도전하며 살아가소서...  
블벗님께서 잘 꾸며놓은 블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30217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오늘은 부설거사의 (열반송)을 올려봅니다.  
목무소견무분별(目無所見無分別)--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면 분별함도 없고  
이청무성절시비(耳聽無聲絕是非)--귀로 듣는 소리가 없으면 시비도 끊어진다  
분별시비도방하(分別是非都放下)--분별하고 시비함을 모두 놓아버리고  
단간심불자귀의(但看心佛自歸依)--오직 마음의 부처를 지켜서 스스로 귀의하라  
계송을 마친 부설은 그대로 앉아 입적했을 때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가득 펼쳐지고  
선선의 아름다운 음악은 허공에 가득 메아리쳐 향기는 사방에 가득하고 꽃비가 내려  
묘화 부인은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출가시키고, 전 재산을 내놓아 '부설 원'을 세우고  
부설 거사의 뜻을 받들어 평생 보살행을 실천하다 110세가 되어 편안히 앉아 입적하여  
등운과 월명은 부설 거사가 창건한 묘적암 등운암, 내소사의 월명암에 토굴을 지어  
위법 망구 정진 끝에 대성 득도하였다네요.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날 되소서...♡석암 曹憲燮♡

160216

\*2월도

절반을

지냈네요.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도 어제 친구와 오랜만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선본사 갯바위에 갔더니만 세찬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에서 몰려온 오르내리는

인파에 가다 서다 겨우 촛불도 켜지 못 하고 내려오는 길에 불로동 전통

시장 횃집에서 채주 한 잔 옛이야기 나누며 좋은 추억 만들고 하루해를 보냈답니다.

블벗님 좋은 한 주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215

\*즐거운 휴일 아침! 변명이라 할까

일일이 블벗님께 답글 못해 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댓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쉽게 찾아

접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그 말의 어원이나 유래를 알고 쓰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랑방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하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그리고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기억을 돌릴 수 없기에...죄송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석암 조현섭♥

160214

\* 블벗님 즐거운 주말과 휴일 꽃 같은 고운 향기를 심어 보십시오.

꽃의 향기는 십 리를 가고 여인의 향기는 천 리를 간답니다.

우리 모두 언제라도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았으면---

여인들이여 여자의 한이 오뉴월에 서리 내리면

남자의 한은 칠 팔월에 함박눈이 온다네요.

내 몸이 도끼 되고 너 말이 비수 되어 한 맺고 원수 맺어 죽어 다시

만난 곳이 부부로 만난다지요.

어떤 일이든 비관적인 말은 하지 말고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등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 훗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방에 꼭 빠졌다 갑니다. ♥昔暗 曹憲燮♥

160213

\*안녕하세요. 선인들은 물처럼 바람처럼 살라 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공을 세워서 자랑하려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굳림하려 하면 넘어질 것이고 자랑하려 하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어쩌면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을듯---

블벗님이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212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세월도 얼마나 빠르지 어느덧 2월 중순이네요.

매년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 등 신수를 보는데, 제일 흉[凶]한 별이 제웅직성으로

그 해 구설수가 많고 재수가 없다고 하오니 어쨌거나 나이에 따라 제웅직성이 따라오니

남자는 제웅직성이 10살에 들어 19세, 28세, 37세, 46세, 55세, 64세, 73세, 82세

9년마다 돌아와 구설수가 많고 재수가 없는해고

여자는 제웅직성이 11세에 들어 9년 마다 20세, 29세, 38세, 47세, 56세, 65세, 74세, 83세가 해당함

간단히 말해 구설수가 많고 재수가 없는 제웅직성이 돌아오는 해는 남자는 10살부터 시작해 9년

마다 돌아오고 여자는 11살부터 시작하니 남자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드니 그해에는 조심할 지언저--

그리고 추명학[推命學]의 대가인 한림거사[韓林巨師]의 기원전 2637년에 기록된

신비의 역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행의 상생지도는

각 띠의 좋은 궁합은 4살 차이가 세모별을 이루어 조화가 잘 되어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각 띠의 나쁜 궁합은 6살 차이는 직선이 되어 마주하기 싫은 상극 관계가 돼오니,

블벗님 제웅직성이 드는 해는 만사 조심하여 만사형통하소서... ♡석암 曹憲燮♡

160211

\*설 명절 연휴 끝자락 그 옛날 장인 장모님께 올린 권주가 한 자락 블벗님께 올립니다.

“ 자브시오 자브시오 이 술 한잔 자브시오.

이 술 한잔 자브시면, 천만년이나 사오리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무한제승로반(武漢帝承露盤)의

이슬 바든 술이오니 쓰나다나 자브시오.”

중년에 마시는 황혼주가 약도 되고, 독도 되고, 즐겁기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술이 되게 절제하고 자중함이 으뜸이니 알맞게 자브시오.

마신만큼 취하니 정직한 친구 술! 처음 만난 친구도 한 잔술 주고받으면

좋은 친구가 되고 할 일 없는 백수도 한 잔 하면 백만장자가 되고

내일 삼수갑산에 갈망정 마시는 순간만큼은 즐거운 술~ 자브시오.

탈무드에는 사흘에 한 번 마시는 술은 금이요, 밤에 마시는 술은 은이요,

낮에 마시는 술은 구리요, 아침에 마시는 술은 납이라는 말이 있으며

팔만대장경에도 "술은 번뇌의 아버지요, 더러운 것들의 어머니"란 구절도 있지요.

마시면 신 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래서 누구나 어울려 한 잔 하는 재미,

술 주정 없이 인생을 즐긴다면 어느누가 탓하고 힐난할 것인가? 애주가 ♡석암 曹憲燮♡

160210

\*똑똑, 똑, 블벗님

불노초 술을 빚어 만년 배(杯)에 가득 부어  
 설 술, 만수주 한 잔 드시고 만수무강 하십시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천이 흐르니 그 물로 술을  
 빚어 술을 한 잔 잡수시면 만수무강 하노라.  
 만수무강을 바라며 만수주 한잔 올립니다.  
 희망찬 음력 설 초이를 지난 한해 동안 깊은 관심과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曹憲燮♡  
 160209

\*하필이면 까치설날!  
 북한은 광명성 4호 위성  
 인지 미사일인지 성공했다네요.  
 고유의 설 명절 복잡한 귀성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소중한 일가친척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수락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운 덕담 고맙습니다. ♥昔暗 조현섭♥  
 160207

\*불벗님 설 연휴를 맞이하여 애주가들이 좋아 할듯한 이백 님의 옛 시 독작을 올려 봅니다 .  
 독 작(獨酌) 이백 詩  
 天若不愛酒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약불애주  
 酒星不在天 하늘에는 주성이 없었을 것이고,  
 주성불재천  
 地藥不愛酒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약불애주  
 地應無酒泉 땅엔 응당 주천이 없었으렸다,  
 지응무주천  
 天地既愛酒 하늘과 땅이 술을 사랑한 터에,  
 천지기에주  
 愛酒不槐天 술사랑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애주불괴천  
 하지만 술이란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면 보약이요, 과하면 독약 명심하시길...♡석암 曹憲燮♡  
 160206

\*음력 설달의 세밀가지이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삶의 애착과  
 불만족스러운 무거운 짐뿐인 것을...  
 버릴 것이 무엇이며 가질 것은 또한 무엇인가.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무거운 짐인걸...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복잡한 귀성길이 안전운행 하십시오. 잠시 들렀다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205

\*오늘이 봄이 시작되는 입춘! 동양 철학 명리학에서는 새해 기점을

신정도 구정도 아닌 태양의 황경이 315°에 와 있을 때를 입춘이라 했는데,

입춘 세시풍속 가운데는 새롭게 시작하는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 날은

입춘적선공덕행(立春積善功德行)입춘 날 적선과 공덕을 행하여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는 행실을 하면 한 해의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네요.

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며,

歲在丙申萬事如意亨通하소서~ 불벗님!... ♡昔暗 조현섭♡

160204

\*불벗님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나무의 뿌리이고, 버릇은 잔뿌리들이며,

노력은 가지이고 용서는 이파리며 감사는 열매!...

나쁜 습관을 발견하는 것은 나무의 해충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고 집중해 싹을 잘라 내고,

좋은 습관을 지니면 운명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

내가 건넨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타인의 삶에 엄청난 힘을 주고 때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니 우리 모두 항상 온화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건네는

좋은 습관 길러 행복하게 살았으면... 곱게 올려주신 불방 즐감합니다. ♡昔暗 조현섭♡

160203

\*안녕하세요. 동양에선 사람의 취미를 6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성향 취미 생활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뜻에 응마주색난석(鷹馬酒色蘭石)이란,

청년기에는 매 사냥과 말타기를 즐기고, 중년기가 되면 여자와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며,

장년기가 되면 란과 수석을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 연륜이 깊어지면 사람의 성정이

동적에서 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되어 기르고 가꾸는 성향으로

변화되는가 봅니다, 응마주색난석의 진정한 의미는 학덕이 높은 선비들의 청담한

정신 세계와 상통하는 원숙한 노(老)의 추구야말로 사람이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것을...

불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202

\*새로운 달

2월 첫 날 월요일

부터 새롭게 시작하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것도 블로그 벗님과 좋은 말과

고운 글이 씨앗이 되어 나쁜 행동을 멀리

하고 좋은 행동은 가정의 평화에 밑거름이 되어

건강하고 평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벗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소서... ♥昔暗曹憲燮♥

160201

\*블벗님 새해 인사 한것이 엇그제 같은데 한 달을 마무리하네요.

공자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

우리의 청소년도 입시 위주가 아닌

인성교육을 살려 예를 지키고

자신을 억제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조현섭♡

160131

\*블벗님 1월 끝자락 주말 아침 처음으로 앞산의 눈길을 걸어보니 눈꽃송이 아름답고 흰하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동이 틀 무렵 첫 새벽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우환이나 수험생을 축원할 일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정안수라 부르기도 하는 이물은 새벽달이 마지막으로 비칠 때 그 달을 물과 함께

바가지로 길은 물은 물 중에서도 으뜸이지요.

물은 만물의 근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

이런 정화수를 천도교에서는 청수(淸水)라 하고, 카톨릭에서는 성수(聖水)라 하며,

불교에서 물을 떠, 남에게 주는 공덕으로 선행의 감로수(甘露水)라 하며, 구약시대는

눗바다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네요.

혼탁한 세상을 이 정화수로 주술 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졌으면...♡석암 曹憲燮♡

160130

\*대구에도 모처럼

눈비가 내리고 있네요.

우리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진실한 벗과 교제하며 책과 인터넷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쳐 보려고 애쓰는

자세를 취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으면 ---

블벗님의 가정에 하는 일마다 용이 하늘에 승천하듯

큰 소망 이루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잘 보고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29



\*좋은 아침입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 손자가 병사들을 이끌고 적과 싸우면서 조직이 어떻게 해야 강해지고 생존하는 전략을 6천 2백 자의 한자로 남겨놓은 병법서이래요.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게 최고의 병법의 오간자는,  
향간자(鄉間者)--적국의 사람을 유인하여 활용 함이고,  
내간자(內間者)--적국의 관리를 포섭하여 이를 활용 함이며,  
반간자(反間者)--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간첩으로 활용함이고,  
사간자(死間自)--아군의 허위 사실 명령을 탐문한 간첩이 이를 적장에게 잘못 전달하게 하고,  
생간자(生間者)--반대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손자병법 가운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知彼而知己 百戰不殆).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매번진다.  
모택동은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이 바로 ‘손자병법’  
마오쩌둥도 손자병법을 정치학의 보감이요, 처세학의 교훈으로 삼았으며,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에게는 기업경영의 지침서로 삼았답니다.  
지(智) 인(仁) 용(勇) 신(信) 엄(嚴)으로... 인생살이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석암 조현섭♥  
160128

\*블벗님 구정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오니  
때론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보면---  
설날 이른 아침 집안 어르신 집에 세배인사 다녀와서 집안이 많으니 캄캄하도록  
10집 제사 모시고 집집마다 떡국과 제사떡 한 모가치 받아 다 먹었으니 배도 크지-  
이틀날 선조님 산소 찾아 예 올리고 윷놀이하고 재기 차며 잣치기하고 말타기하며  
밤이면 동네 입구에 콩쿠르 대회에서 양은 술, 냄비 타던 때와  
집집마다 뽕가리 치며 지신 밟던 추억이 생각나는 구려...  
지난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잘 꾸며놓으신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127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10대는 이른봄, 싹트는 계절이고, 20대는 봄, 꽃피는 계절이며  
30대는 초여름, 신록의 계절이고, 40대는 한 여름, 성숙의 계절이며  
50대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고, 60대는 늦가을, 단풍의 계절이며  
70대는 초겨울, 낙엽의 계절이고, 80대는 한 겨울, 백설의 계절이며  
90대는 잠자는 계절이라는데,  
우리가 처한 나이에 따라 항상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갔으면...  
블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60126

\*블벗님 매서운 동장군아 위세를 떨치는 휴일은 잘 지내셨는지요.

대구는 분지라 그런지 1년 내내 눈치우기 한번 안했는데 제주도와 중 서부엔 눈이 많이 내렸다지요.  
 눈이 오면 길이 막히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반면 득(得)도 많다네요.  
 눈은 비보다 땅에 오래 남아 봄 가뭄을 막아주고 대기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며  
 요즘 논란이 많은 미세먼지(PM10)·이산화황(SO)은 눈이 내린 뒤 대기 중 농도가 낮아진다고네요.  
 6년 전인 2010년 1월 4일 대관령(31.6cm)·서울(25.8cm)에 큰 눈이 왔는데  
 국립기상연구소는 당시 내린 눈의 가치를 8,254억 원으로 추산  
 봄가뭄 피해 경감 효과 7,958억 원, 대기질 개선 효과가 253억 원이나 된답니다.  
 눈은 성가시지만 반가운 겨울 손님이기도 하며 눈이 많이오면 풍년이 든다고도 하지요.  
 아침 산행 갔다 오니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열어가십시오.♡석암 曹憲燮♡  
 160125

**\*불벗님 혹한의 맹추위에도 잘 지내시지요.**  
 이렇게 추울 때 어릴 적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차기와 딱지치기, 눈싸움하며 썰매 타고  
 모닥불 피워놓고 양지바른 언덕에 기대 연날리며  
 화롯불에 군고구마 구워먹던 그시절!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퇴색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추위도 좋았던가봅니다.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24

**\*불벗님 이른 아침 앞산에서 내려오니 엄청 추운데 내일은 임자 만난 것처럼 더 춥다네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임자(壬子) 만났다고 하지요.  
 임자(壬子)라는 말의 임(壬)은 천간(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중의  
 하나로 수(水)에 해당하므로 숫자로는 1을 나타내며  
 물은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이 시작되므로 제일 첫 번째이고  
 임자의 자(子)도 12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운데  
 자(子)가 제일 첫 번째이자 물(水)을 나타내므로 따라서 임자는 천간, 지지, 에서도  
 번째 가장 으뜸을 만났다. 라는 뜻으로 제일 센 상대를 만났다라는 뜻이라네요.  
 임자를 만났을 때의 처신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가니 순응하소서... ♡석암 曹憲燮♡  
 160123

**\*소한 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잡놈 없다는 대한이 지났지만 혹한이네요.**  
 오랜만에 어릴 적 외우고 다녔던 원효스님의 글을 올려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풀잎에 이슬이요 물 위에 거품이요.  
 콩 심으면 콩이나고 팥 심으면 팥이나고  
 복을 지어 복을 받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착한일만 하려해도 인생 육십 잠깐이니

짚세짚세 복을 짚세 하세하세 착한 일 하세~

오늘도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22

\*불벗님 경기도 어려운데 날씨까지 동장군이 대한 한파에 움츠리게 하네요.

중서부 지방에는 진눈깨비와 함께 엄청 춥다지요?

언제나 반가운 불벗님과 고운 대화 나누면서

지나친 출세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실을 다져 나가는

겸양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갔으면...

불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21

\*반갑습니다. 불벗님

소한 날 따뜻하더니만

대한땀을 하려는지 상당이 춥네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미한 도심을 길러

위태로운 인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자신에게

공을 들리는 삶이야말로 참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지요.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60120

\*불벗님 앞산 올라갈 때 단도리하고 갔지만 내려올 적엔 엄청 추우니 방콕이 제일인 듯,

저가 어릴 적 손가락을 왼손으로 잡다가 엄마로부터 꾸중을 들은 기억이---

하지만 양손잡이가 훨씬 경쟁사회에서 유리할 듯.

양손은 좌뇌와 우뇌에 깊은 관련이 있어 우뇌는 신체의 왼쪽을, 좌뇌는 오른쪽을 관장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재능을 발휘, 좌,우 뇌의 역할이 다르므로 양쪽 뇌가 골고루 잘 발달해야 한다는 것,

양손잡이로 키우려면 7~8세 까지 왼손잡이로 그 이후 오른손잡이로 바꾸어 양손잡이로

사용하면 좋을듯... 저는 양손잡이 사용하니 모든 것이 편리하네요. ♥석암 曹憲燮♥

160119

\*불벗님 강추위가 온다 하니 단도리 잘하시고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것과 맞물려 프리미엄 패딩의 인기가 대단하다네요.

일명 '캐몽'이라 부르는데 개당 일,이 백만 원을 호가하지만 불티나게 팔려 없어서

못 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프리미엄 패딩이 혹한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게 해줄까.

좋은 소재를 쓴 만큼 따뜻하겠지만, 과잉보호의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인간의 몸은 과잉보호를 할수록 그만큼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몸은 추위를 느끼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저항력이 강해지고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는 데 익숙해지면 저항력이 약해지며

‘춥다 춥다’ 하면 더 춥게 느껴지는 법. 평소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적당히 땀을 흘리며 운동으로 근육이 많아지면 추위도 그만큼 덜 타겠지요. ♡석암 曹憲燮♡

160118

**\*블벗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휴일을 맞이하여**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로그 잘 보았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겸허하며,**

**많은 사람에게 음덕을 쌓고 때때로 부끄움을 참회하며 살아갔으면...**

**오늘도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60117

\*블벗님 1월도 중반을 지나는 주말이네요. '관포지교(管鮑之交)'일화를 살펴보면

제나라 때 포숙이 자금을 관중이 경영을 맡아 동업하였으나 관중이 이익금을 독차지했는데,

포숙은 관중의 집이 가난한 탓이라며 너그럽게 이해하였고, 전쟁에 함께 출병하여

관중이 세 번이나 도망을 쳤으나 포숙은 관중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네요.

그 후 두 사람은 정계에 진출하여 관중은 공자 규를 포숙은 환공을 각각 섬기게 되어 서로

대치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얼마 후 공자 규가 죽고 환공이 제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

관중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포숙이 환공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관중의 목숨을 살려냈고

훗날 포숙과 관중은 수상이 되어 환공을 패자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답니다.

관중이 포숙을 가리켜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제가 아는 벗은 오직 포숙 뿐이로다."

우리도 벗을 사귈 때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는 중국의 관중과 포숙, 신라의 다사함과 이사부,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을 본보기로 삼아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는 못되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참된 교우가 이루어졌으면...좋은 주말 되소서~고운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60116

**\*굿모닝. 어릴 적 배운 글귀 중 현 세태를 잘 대변하는 내용이라 댓글로 올려봅니다.**

**『천하만사[天下萬事],종차타괴[從此墮壞]라』.**

**“낡은 관습을 따르고 편안함만 좇으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임시변통으로 둘러대면 천하만사가 이로부터 잘못되니 경계하라는 말씀”**

조선 영조 때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선생은 만년에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여덟 자를 병풍에 쓰고 후학들에게  
모든 일은 미봉[彌縫]이 책[策]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천하만사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일그러지고 만다는 것을 참고 하시어  
블벗님의 가정에 만사여의형통(萬事如意亨通)하시길 바랍니다.

160115

\*블벗님 대구엔

눈이 안 내리네요.

고통스러운 인내 없이는

성공이란 말처럼 쉽지 않은 듯.

인내의 인[忍]은 심장(心)에 칼날(刃)이

박힌 모습을 본뜬 글자,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누구나 가슴에 칼날 하나쯤은 있게 마련

그것을 참느냐 못 참느냐, 에 따라서 삶이 길흉이 결판날 듯...

참을 "忍"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니, 인내하시길 바라면서 잘 꾸민 블방에 쉬어갑니다.♡석암 曹憲燮♡

160114

\*블벗님 반갑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쾌락도 있고 비애도 있는 것,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인 듯,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 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면 항상 나를 가로막은 것은 나였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지은 자도 나였고 받은 자도 나이니

오는 고통 달게 받고 좋은 종자 다시 심어 우리 모두 사랑으로 즐겁게 가꿔보세 .

짜증 내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온 천지가 감사한 걸...

오늘도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13

\*블벗님 잘지내시지요. 한의학에서는 일침, 이구, 삼약이라 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첫째는 침이요, 둘째는 뜸이요, 셋째는 약이라 하였는데 어떤 자는 침은 일침이라 한번

맞아보면 알고, 뜸은 두 번 놓아 보면 알고 약은 셋 첩 먹어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

일침[一鍼]이란? 하늘의 기운을 끌어들여 질병을 치료해주는 방법이므로 이를 천(天)이라 했고

이구[二灸]는 땅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고 자란 쑥은 약의 성질이 따뜻하여 지(地)를 나타내며,

칠년지병 삼년애구(七年持病 三年艾灸)라 칠 년의 병마도 삼 년 동안 쑥 뜸질하면 낫는다는데,

삼 약이란 약물을 치료할 때 사람을 다스리듯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天,地,人을 나타낸다는 뜻,

인생필유사(人生必有死)라!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걸---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소인의 죽음을 사(死)라 하였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  
군자의 죽음을 종(終)이라 하였으니 모두가 선하게 잘살다가 선종(善終)하였으면...♥석암 曹憲燮♥  
160112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도 고향 친구 부부와

비슬산 용연사 옥연저수지

송해 들레길 한 바퀴 돌아 빙어회와 새주에

옛이야기 하면서 먼 훗날 추억의 한 장면을 남겼답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 가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60111

**\*휴일 아침 오랜만에 영정중월(詠井中月) 이규보(李奎報 1168~1241) 詩 한 수 올려봅니다.**

山僧貪月色 (산승탐월색),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

并汲一瓶中 (병급일병중), 병 속에 물과 달을 함께 길었네,

到寺方應覺 (도사방응각),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으리라

瓶傾月亦空 (병경월역공), 병을 기울이면 달빛조차 간 데없음을...

평생 8,000수에 이르는 시를 지은 백운거사 이규보는 고려의 대문호인데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하였으나 관운이 일찍 열리지 않아 젊은 시절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네요.

장편서사시라고 할 수있는 ‘동명왕편’과 ‘개원천보유사’시와 같은 연작시도 유명하지만,

그의 기발한 착상과 풍부한 상상력은 절구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앞에 인용한 「산석영정중월」이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명작,

이규보의 시를 두고 최자,허균, 김석주, 이엽 등 역대 문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남용익은 이시를 우리나라 오언절구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았다네요. ♥昔暗 曹憲燮♥

160110

**\*블벗님! 신년 둘째 주말이네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을 즐겁게 했던 것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술이고 그 다음이 향이라!**

옛날 귀족층에서 애호하던 향에는 침향[沈香] 사향[麝香] 용연향[龍涎香] 세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귀한 향[香]일지라도 영혼이 맑은 사람의 심성향 만큼이나 향기로운 것은 없을 듯...

옛날 중국 당나라 화엄종의 무착스님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에게

들었다고 전해지는 문수동낙게로 불리는 짧은 계송에,

면상무진 공양구[面上無賑 供養具]요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口裏無曠 吐妙香]이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비록 짧지만, 일상의 마음과 몸가짐이 참다운 도[道]와 둘이 아니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가르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昔暗 曹憲燮♥

160109

\*블벗님 소한이 지나니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듯이 우리의 인연과 꿈, 생명도 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무정한 세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듯,  
 내가 줬던 마음과 받았던 온정 내가 품었던 꿈과 애썼던 노력의 정신...  
 세월은 가고 사람도 가지만, 그 마음의 행적만은 남아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발자국에는 고운 마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힘써 나갔으면...  
 오늘도 올려주신 고운 블방 즐기하며 쉬어갑니다. ♡석암 曹 憲 變♡  
 160108

\*블벗님 앞산서 내려오니 날씨가 꽤 춥습니다. 단도리 잘하십시오. 나의 어릴 때의 기억은 시골 시장  
 갔다가 늦게 올 때 달을 보며 걸음을 재촉하노라면 달과 그림자가 자꾸만 따라오던 기억이 나네요.  
 멈추어 서면 달 또한 멈추고 그것이 신기하여 조금 가다가 또 멈추어 서서 달을 올려보던 그때가...  
 일월삼주 [一月三舟]라 멈추어 있는 배에서 달을 보면 달이 가만있고, 남쪽으로 가는 배에서  
 달을 보면 남쪽으로 가며, 북쪽으로 가는 배에서 보면 달 역시 북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듯이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 중국, 미국, 북한이나 각종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이 제각각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모두가 그들의 이해관계 득실에 여러 가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듯...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 모두 살아남는 길을 가자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이처럼 사람의 견해도 제각기 달라 세상의 이치, 단 하나의 진리도 각자 다르게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닐는지? 마음에 달 가듯이 가는 심중월(心中月)처럼...♡昔暗 조 현 섭♡  
 160107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이네요.  
 소한에 전해 내려오는 말, 말, 말들을 보면---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  
 "소한 얼음 대만에 녹는다."  
 "소한 만한 대만 없다."  
 "소한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  
 "소한이 대한 집에 몸 녹이러 간다." 등이 전해져 오는데,  
 블벗님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생강차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석암 조 현 섭♡  
 160106

\*블벗님 한 해 첫주 시작은 잘 하셨는지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지요.  
 TV를 켜면 세상사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설왕설래하여 말이 말을  
 만들어 내듯,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주장하는 일에 더 골몰하고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편견과 아집으로 상대의 말을 끊어 버리는 것을 보면,  
 이청득심(以聽得心)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이청득심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이해하며 반응해야 하는지 상대 마음을 여는 노하후인데,  
 우리 모두 나의 주장만 펴지 말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진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소서---

잘 꾸며놓으신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105

\* 불벗님 신정 연휴 잘 지내셨지요?

마음이 바뀌면 표정(表情)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行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習慣)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人格)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運命)이 바뀐다니

2016(丙申)년에는 우리 모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보입시다...

희망에 찬 새해 힘차게 출발하소서---- ♥석암 조 현 섭♥

160104

\*불벗님! 희망찬 병신년 첫 휴일 아침이네요.

숙면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 0시~4시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낮은 체온이기 때문이라네요.

새벽 5시는 인체의 맥박이 가장 빨라지는 시간으로

잠을 자기보다는 활동을 상쾌한 기분을 가지게 되어 더 효율적입니다.

저의 부부가 아침 다섯 시에 산에 가는 것도 상쾌한 기분 때문이라합니다.

오늘은 병신년 첫 정기 산행일 산행 가기 전 살포시 다녀갑시다. ♥普暗 조 현 섭♥

\*불벗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저도 우리 블로그 선생님과 카톡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새해 덕담에 복을 분에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모두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신정 첫날 아침 가족과 함께 해맞이 가면서 안일사에서 떡국 먹고

썩어빠진 권력가들의 이야기 지루하지 않는 세 시간짜리

조성우, 이병헌, 백윤식 주연에 우민호 감독의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서

언론과 재벌, 위정자들이 국민은 뒷전이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재미있게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네요.

신년 연휴 잘 보내십시오. 다녀갑시다. ♥석암 조 현 섭♥

160102

\*불벗님!!!

근하신년(謹賀新年)

새해 첫날 원단(元旦)에

송구영신(送舊迎新)을 맞이하여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출발하여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길 바라며~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소망 이루는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석암 조 현 섭♥





\*사랑하는 불벗 선생님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청양의 해 을미년도 아쉬움을 남긴 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오늘 하루뿐, 희망에 찬 홍신(紅申)의 해 병신년에는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昔暗 曹 憲 燮♥

151231

\*불벗님

을미년 한 해

잘 지내셨지요,

한 해 동안 소중하고

다양한 곱디 고운 불방에

아름다운 영상과 모든 정보를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더욱더 돈독한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 憲 燮♥

151230

\*올 한 해도 저물어가네요

성인과 신선의 차이는 백성을 제도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완벽한 경지에 다다른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성인은 백성의 안위를 근심하고 신선은 자신의 자족함에 머물며,

성인은 늘 세간에 머물고 신선은 자신만의 고요한 곳에 머문다네요.

각자의 길이 다르지만 위대한 화합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참으로 화합이 아닌감?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도 각자의 사고가 다르겠지만 완벽한 사회와 가정을 이루었으면...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에 폭 빠졌다 갑니다. ♥昔暗 曹 憲 燮♥

151229

\*불벗님! 황금연휴 잘 지내셨지요. 그 옛날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소학이나 천자문,

‘명심보감’이나 ‘채근담’,이 인성교육으로 많이 퍼졌던 것인데 나물 뿌리를 먹듯

담담하고 평범한 것을 선호하는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겨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안빈낙도의 살아감을 지향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던 것,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하신 말씀이  
國以民爲本[국이민위본]--나라는 백성이 근본이요.  
民以食爲天[민이식위천]--백성을 먹는 것이 하늘이라  
먹고사는 일이 서민들에게는 하늘처럼 여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실업자가 수십만에 이르고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오늘이 안타까우이---  
한 해의 끝자락 이월하는 한 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열어 가십시오. ♡석암 曹憲燮♡  
151228

**\*블벗님 반갑습니다.**

**어제저녁엔 초딩 동기생**

**모임에 부어라, 마셔라 했더니만,**

**아침까지 땀 하여 인제야 찾아웁습니다. 오늘도 모임이 있으니 어쩔담---**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흘러~ 올미년도 어느덧 한 닷새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초 계획했던 일 다 못 이루셨다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멋진 휴일 되시기 바라면서 살포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227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민족은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헌법전문에도 나오는 말로, 단군조선은 교육법 제1조 교육이념  
[홍익인간]이 단군조선의 국가이념을 교육의 도로 한다고 하는 법정화한 사실이지만,  
4294년간 이어온 단기 뿌리를 깡그리체 없애버리고 1961년 법 개정으로  
예수의 기원인 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각조차 왜놈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라우데자네이루와 남한뿐,**

**고종 황제 때만 해도 광무 몇 년이라고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국호도 없고 전시 작전권도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국호도 되찾고 자주국방인 전시 작전권도 되찾는 강국이 되었으면...  
북한도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주체연호를 쓰고 있다니...  
지가 무슨 황제라도 되는 줄 아는가 봐? 바우님! 연휴 즐겁게 지내십시오.♡석암 曹憲燮♡  
151226**

**\*블벗님! 오늘부터 즐거운 성탄절 황금연휴네요**

**고전하의 <부드러움의 힘> 중에는 천국을 짓는 이는 지옥도 짓는다는데,**

**삶의 기쁨에만 취하지 말고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며,**

**구름이 흘러가듯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그대의 몸을 맡겨 영혼의 닳을**

**자기 존재의 근원에 내린 자는 진정한 쉼을 누린다네요.**

**다른 뻔족한 방편이 없으니, 달력과 시간의 횡포에 놀아나지 말고**

살아 있는 현재를 누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겼으면...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1225

**\*Marry Christmas 성탄절의 이브가 시작되었군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러브앰**  
**즐거운 성탄절, 사랑과 추억 잘 간직하시고**  
**블벳님의 가정에 건강만땅 사랑만땅 행운만땅 하옵시며**  
**하시느 일 소원성취하소서...~^^**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석암 조현섭♥**  
151224

\*대구엔 비가내리네요. 지식인이라 일컫는 대학교수들의 사자성어를 간편하게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째 제구포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편다는 자부심으로 출발한 것이,  
2013년 계사년에는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피하는 것을  
비유하여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에 이어,  
2014년 갑오년에는 사슴을 말이라고 함으로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이며 농락해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록지위마(指鹿爲馬)'이며  
올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인데,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 교수님의 평가가 왜이렇게 야박한 것인지?  
나 같이 무식한 서민층이 몰라서 그러는지? 헛갈리지만,  
하나같이 좋은 평가가 없는 것이 안타까우니,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뺏지 달 인사 때문에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것은 아닌지?  
수첩인사, 정실인사에만 의존해 인사실패, 인사참사를 불러온 무책임한 정부라고  
평가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새로운 인사시스템 개발과 국정쇄신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위정자들도 거짓과 눈속임을 중단하고  
성찰해야 하지만 우리국민 스스로 맑은 마음으로 참 좋은 한 해가 되는  
병신년 사자성어로는 태평성대의 세상이었으면... 수락골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51223

**\*오늘이 지나면 하루에 1분씩 낮이 길어진다는 동짓날**  
**동지[겨울冬이를쫓]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밤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긴 날이며 옛사람은 설 날로 삼아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데,**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길 이 없고, 오는 시간 또한, 막을 길 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묵묵히 일하는 청지기처럼 살아갔으면...**  
**블벳님 동지팔죽 드시고 액운은 소멸하고 행운만 깃드시길 빕니다.♥석암 曹憲燮♥**  
151222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도 어제는 재구 종친 모임에 한 잔 했습니다.**

**을미년 12월도 한 열흘 남은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시경에 이르기를 술개는 하늘 높이 훨훨 나는데**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노는구나 !**

**이 말은 위아래를 두루**

**살펴보라고 한 것이며,**

**우리 모두 행할 일은**

**명백히 보고 총명하게 들으며**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은 성실히**

**하며 모든 일은 조심하고 의심나는**

**것은 물으며 화가 날 때는 참고 또 참으소서 ...**

**블벗님 올려주신 좋은 작품 보며 머물다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1221**

**\*블벗님 어제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방에서만 만나다가**

**한양캠프틴 이혜영 선생님의 주선으로 대구, 경북 블방 선생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뵈옵게 되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블벗님 저가 제가 처음 (12년 8월 9일)블로그 공개할 때 생각은 블로그를 운영**

**하시는 분은 모두 좋은 분 같아 “근묵필치 근주필주(近墨必淄 近朱必朱)라”**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착한 사람되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고 행복한 삶, 누리고 싶어 친구를 신청하여 좋은 자료를 주고**

**받다 보니 모두 좋은 분이라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으로 감사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하며 맺으신 친구분과 카페 개인 방을 만들어**

**각자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나 새로운 자료 등을 시간 나는 데로 복사, 또는 새글로서**

**카페로 올려 블로그 통합 카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령 순이나 가나다순으로 하든 의논하여**

**순번제로 희망자에 한하여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블로그는 몸이 불편하든지 하여 장기간 왕래가 없으면 댓글란도 폐쇄된다 하오니**

**통합 카페를 운영하면 폐쇄될 위험도 줄어들고 영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참하실 분이 100여 명 이상 되면 통합 블로그를 한 번 만들어 볼까 하오니**

**좋은 의견과 함께 저의 댓글란에 동참이란 글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51220**

**\*안녕하세요.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듯,**

**개인도 집단도 이익을 챙기려고 세강속말(世降俗末)의 노예가 되어 가는가 봅니다.**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을 우리는 이판사판(理判愚判)이라 하지요.**

**이 말은 원래 불교 화엄경에서 유래 했다고 하는데... 세계의 차원을**

눈에 보이지 않은 본질의 세계를 이판=참선,경전 등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을 일컫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사판=절의 행사 등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을 말하는데,  
 조선조에 와서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 에 따라 천민으로 전락한 승려들이 살아갈 길은  
 깊은 산속으로 은둔하거나 관가에서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산속에서 수행을 이어간 승려를 이판승, 종이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산성을 축조해  
 지킴으로써 연명한 승려를 사판승이라 불렀다네요.

어쨌든 이판이든 사판이든 당시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끝장을 의미했음으로  
 이판사판이라카나 뭐라 카나---주말 아침 불벗님 불방 즐감하고 다녀갑니다.♥석암 조현섭 ♥

151219

\*불벗님!

연말연시에  
 송년회다 뭐다  
 바쁘신 와중에도  
 변치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자가 이르기를  
 십목소시(十目所視) 십수소지(十手所指)라.  
 많은 사람이 나를 눈으로 감시하여 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나의 행동을 꿰뚫어 손가락으로 가리  
 키고 있으니 우리의 처세를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갔으면...

금쪽같은 금요일 행복 가득~ 미소가득한 날 되소서--- ♥昔暗 조현섭♥

151218

\*불벗님! 엄청 출네요. 단도리 잘 하십시오.

혈구지도[絜矩之道]란 자신의 처지로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써 추기급인과 같은 뜻이며,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 하여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기소욕 시어인[己所欲 施於人]이 되어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뜻으로 이는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黃金律]과 같은 말로서  
 “남에게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구절을 생활화하여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우리 모두 베풀면서 살아갔으면...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51217

\*날씨가 추워 지려나 봅니다. 손님이란 유럽 등 이동성 민족은 낮선 손님이 오면 경계하고 적대시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선 손님이란 외지에서 온 낮선사람을 말하는데 지나가는 객이나 이웃,  
 친척을 한결같이 며칠씩 묵고가도 따뜻하게 모셨으며 하물며 역적으로 몰려 귀양살이한 사람까지도.  
 원래 손이란 일진에 네 방위를 돌아다니며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악귀였는데,

그래서 이사할 때나 먼 길을 떠날 때 장 담글 때도 손이 들지 않은 날로 방향을 택하였다네요.  
 그 손에게 극진히 존칭을 붙혀 손님이라 부르는 것도 그 악령을 환대함으로써 해코지할 수 없게끔  
 주술적인 바람이었던 것이라, 심지어 이부시숙(以婦侍宿)이라 하여 귀한 손님이 들면 처, 첩이나  
 딸을 잠자리를 더불어 하게 하는 환대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너무했죠!  
 고려 태조 왕건의 왕비 오씨가 그렇고, 태산이 높다 하되...로 알려진 양사언의 어머니도 시숙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부시숙 성 문화는 오늘날 성 상납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나 뭐라나 ... ♡昔暗 조현섭♡  
 151216

\*어느덧 12월도  
 중반을 지나가네요.  
 모든일은 사물의 이치를 분석  
 해야 알고, 알고 나면 성실해지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곧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으로 삼았으면...  
 불벗님이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215

\*불벗님! 휴일 잘 쉬셨지요. 벌써부터 국회의원 선거 나올 분들이 산악회 차에 인사차 다니는  
 것을 보면 아직 공천도 받기 전에 헛물만 켜는 것은 아닌지? 한성 판윤 자리가 평양감사자리  
 만큼 인기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내 배부르니 평양감사가 조카 같다” 등 평양감사를 인용한 속담은 잘못된 속담인 듯,  
 감사(監司)란 조선 시대 외관직인 관찰사를 달리 부르는 관명이며 팔도마다 한 명씩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평안도에서 근무하는 관청이 평양에 있고 한양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대동강변의 평야 지대로 특산품이 많고 중국과 통하는 관문이라 온갖 귀한 물건을 접할 수 있어  
 남남북녀란 말이 있듯이 미인 기생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니 평양감사가 부름을 사는 자리인 지라  
 평안감사를 평양감사로 잘못 민간에 퍼지게 된 이 말은 ‘탐관오리’를 빗대어 한 말이라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曹憲燮♡  
 151214

\* 참 좋은  
 휴일 아침  
 불벗님! 우리는 늘 ~  
 자주 만나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아도 나의 가슴엔 우리들의  
 이야기가 살아 있고 주고받는 댓글 속에서라도  
 조용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쩌다 우연한 곳에서 마주칠 때면 자주 만났던 것처럼  
 악수를 하면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고 차 한 잔, 췌주 한 잔에

가슴에 담아놓기만 해도 좋은 사람 만들어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오늘도 올려주신 인연의 끈 즐겁하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

151213

\*블벗님!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이네요. 구당 선생님은 65세 때 쓰러져 사흘이 지나서야 깨어나 40일을 산소마스크에 의존했고, 6개월 동안 입원해 심근경색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잡히지 않아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퇴원하여 본인의 몸을 볼모 삼아 침·뜸의 진가를 집에서 아들이 구당 선생이 일러준 혈 자리에 뜬을 놓아 얼마 지나자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지금까지도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무극보양뜸을 놓게 하고 100세가 넘는 지금도 건강하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배워서 남 주자는 게 내 오랜 신조"라며 "내 시술이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보람 있고 행복하다"라며 시술한 사회적 공헌으로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2008년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지만, '침사' 자격은 있지만 '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여 법원은 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어 그 전에도 의료법위반으로 몇 번이나 신고되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침뜸의 효과에 대한 임상 실험이 불가능해지자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으니 백 한 살의 노 명의 구당 김남수 웅 께서 한국에서 연구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둔것이 안타깝네요.♥昔暗 조헌섭♥

151212

\*블벗님!!!

어느덧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대학에 이르기를 모든 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하는 일에는

시작과 끝남이 있어, 먼저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어긋남이 없이 순탄하다네요.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昔暗 조헌섭♥

151211

\*대구엔 이슬비가 내리네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경찰이 한상균 노총 위원장 체포하러 1,000여 명이나 갔지만, 자승 총무원장 말 한 디에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화의 정신으로 돌아서니... 화쟁사상은 절대자유와 평화완덕(平和完德)을 그 이상으로 삼은 것으로, 석가모니 이후 우리나라 불교에서 꽃피우게 된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다네요, 조선왕조 500년의 억불책 속에서도 불교가 그 혜명(慧命)을 전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화쟁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원효가 주창한 화쟁사상의 근본원리는 인간세상의 화(和)와 쟁(諍)이라는 양면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 화쟁은 화와 쟁을 정(正)과 반(反)에 두고



그 사이에서 타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합(合)이 아니라, 정과 반이 대립할 때 오히려 정과 반이 가지고 있는 근원을 꿰뚫어보아 이 둘이 불이(不二)라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쟁도 화로 동화시켜 화쟁론으로 전개시킨 참 좋은 화쟁사상을 언론에서는 불교를 욕지걸하고 있으니--- 화쟁사상(和諍思想)은 모든 반목과 대결의 논쟁[諍]을 화합[和]으로 바꾼다는 한국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심오한 사상이란 생각이 드네요. 역지사지에 기반한 독선과 아집의 타파를 통한 화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봅니다. 불벗님께 행운을 한 아름 놓고 갑니다.♥昔暗 曹憲燮♥  
151210

\*안녕하세요, 불벗님! 중용 14장에 이르기를,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며  
낮은 자리에 있어도 윗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했지요.  
자신을 바로잡고 남에게 바라지 않으면 아무 탓할 것이 없듯이 위로는  
하늘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사람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 내 탓으로 돌렸으면---  
현명한 사람은 중용의 도에 머물러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는데요.  
올려주신 마음에 와 닿는 고운 불방 즐감하며 잘 쉬어갑니다. ♥昔暗 曹憲燮 ♥  
151209

\*반갑습니다. 불벗님! 요즘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온 간데 없고 성적 위주의 교육이 필수라네요. 퇴계 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땅히 예로써 우선을 삼으라 하셨고, 예의가 없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될 수 없고 배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다네요.  
사엄생경(師嚴生敬) 스승은 엄하고 학생은 공경하여 그 도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며,  
사엄도존(師嚴道尊) 선생이 엄격하면 그 가르침도 자연히 존귀하다는 말이고.  
사영불가답(師影不可踏)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며,  
사부일체(師父一體)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은 존경이 숨어 있는 것,  
교실에서 권위의 요소는 교사의 지식, 인격, 행동 가르침의 핵심이며  
교사가 수업을 통솔하지 못하면 학생은 선생의 지식을 무시하게 되고  
인격까지 무시 당하게 되며, 교사의 권위는 말씨, 행동, 옷차림, 태도, 교실환경 등에서  
우러나온다는데,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가 되면 권위가 생겨나게 되는 것,  
스승의 자세와 가르침을 본받을 제자의 자세가 필요한 때인 듯---♥昔暗 曹憲燮 ♥  
151208

\*불벗님!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 눈은 내리지 않네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사고, 무시당하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말은 적게 하며 할 이야기는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말하라는 것,

그리스 철학자 제논은

“귀나 눈은 둘인데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보는 대신 말은 적게 하라”하였으며,  
아라비아 속담엔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했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는데 쓰잘데기없는 말을 줄이는 게  
현명한 늙음이라지요.

판단하려는 나를 비워내고 내면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우리는 공감을 위한 경청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진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였으면...

12월 둘째 주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열어가입시다--- ♥昔暗 曹憲燮 ♥

151207

**\*블벗님! 참 좋은 휴일 아침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잘 먹고 잘 입고 자식 낳고 부부끼리 사랑하며 잘 살면 행복한 것,  
그러나 내 배를 불리다 보니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의 사람을 강취 하기도 하며  
욕심이 과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모두가 자기 행복만을 생각 하는데서 오는 것을...

동물은 수치를 모르지만, 만족할 줄 알고 사람은 수치는 알아도 만족은 모른다고 하지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 내게 단 하루가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단 한 번뿐인 인생! 현실은 죽음을 향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승에서의 생명은 영원으로 가는 과정일 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알면 이 세상살이가 한층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잠시 쉬었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아름답고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昔暗 조현섭♥

151206

**\*블벗님! 세월이 정말 너무 빨라 올미년도 어저께 새해 인사**

나눈 것 같은데 어느덧 송년의 12월 첫 주말이네요.

논어 계시편에 이르기를,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제일 위요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다음이요,

막힘이 있으면서 애써 배우는 사람은 또 그다음이라는데,

그러나 애써 배우지도 아니한다면 이는 곧 최하의 사람이라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보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소서...

정성스레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昔暗 조현섭♥

151205

**\*안녕하세요. 블벗님! 오래 되지 않은 시절 한국인 노인이 신비의 동양의학으로 죽을병에 걸린**

수 많은 사람을 살려낸 기인의 처방술은 우리나라의 청결한 하늘의 기운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한약 제조법, 즉 공간의 기운을 끌어들이어 향암제, 향 방사능제로 효과있는 약을 제조 한 것은

개에게 인삼을 먹이고 돼지에게 부자를 먹이며, 닭은 독사와 구더기,오리에게는 참웃 껍질과 초오,

흑염소에게는 음양곽을 먹이면 생약 속에든 모든 독성을 제거하여 치료할 수 있는 영약 오핵단(五核丹)이 만들어진다는데,  
 동양 전래의 음양설에 따르면, 서방은 만물을 죽이고 없애는 것을 맡은 속살지방(肅殺之方)이며,  
 동방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기운을 주재하는 생기지방(生氣之方)으로 나타나는데,  
 서방 종족이 인류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핵(殺人核)을 만들어내면, 동방생기(東方生氣)의  
 발생처인 한국인이 활인핵(活人核)사람을 살리는핵)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오핵단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으면 동양의학을 계승하도록 도움은커녕 사이비 무자격  
 의료 행위라 하여 경찰에 고발되어 신비한 영약은 그 후 제조되지 않았다고 하니 안타까우이  
 어쨌거나 신비의 영약은 깨끗한 하늘의 정기로 만들어지는데,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중국의 스모그 현상이 우리나라까지 오염된 하늘이 어찌 안타깝지 않을 손가? ♥昔暗 조현섭♥  
 151204

\*블벗님 엄청 반갑습니다. 서울 등 눈이 내린다니 미끄럼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주인이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수양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이 올바른 사태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노여움과 두려움, 걱정이 있으면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하고 ,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네요.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昔暗 조현섭♥  
 151203

\*블벗님! 12월 출발은 잘 하셨는 지요. 8세기 중엽 당나라 현종 때 바둑의 명수 왕적신이 펴낸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말을오늘날까지 우리 생활에 응용되고 있는 비결의 교훈에는---  
 남을 이기려거든 욕심을 내지 말고 상대의 세력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말며,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결함을 살피고 돌 몇 점 희생 하더라도 선수를 잡으며,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며, 위험을 만나면 모름지기 버릴 줄 알아야 하고  
 경솔하거나 졸속하게 두지 말고 신중하게 상대의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이 강하면 스스로 먼저 보강하고 적의 세력 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는 빨리  
 살아 두어야 함이니.....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할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절묘한 후절수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소서... 석암 曹憲燮♥  
 151202

\*  
 블벗님!!! 참  
 세월이 빠르지요.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두서없이 올미년 한 해도

헛되게 보내는구나 하는 마음뿐이네요.

브라이언 피어스의<동행>중에는 깊이 바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고통의 원인과 직접 부딪혀 해답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우리 모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노력의 고통을 통해 자유를 향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해와 통찰의 길을

안내해 주셨으면...항상 올려주신 드림가족 가족 나드리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201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요즘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볼 멘 소리라는데,  
 도무지 분위기가 형클어져 수업이 안된다고 불평이고 학생들이 쓰는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네요.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데,  
 한때 자모들이 학교에 갈 때 봉투를 들고 갔듯이 옛날 학부모는 서당에  
 갈 때 산에서 회초리 감 싸리를 한 아름씩 잘라다 갖다 바쳤다나.  
 그 싸리가 다 닳도록 우리 아이의 종아리를 쳐 사람 되게  
 해달라는 뜻이 담겼다네요.  
 교편이란? 가르칠 교(敎) 채찍 편(鞭),  
 학생을 가르칠 때 교사가 가지는 회초리라는 뜻이며,  
 지도편달(指導鞭撻)이란? 가르킬 지(指) 인도할 도(導) 채찍 편(鞭) 매질할 달(撻)  
 채찍으로 매질해서 가르쳐 인도해 달라는 뜻이라는데, 지금부터라도 학부형과 선생님 모두가  
 교편과 지도편달의 뜻을 되새겨 올바른 교육이 되었으면---즐거운 12월 맞이하십시오. ♥昔暗曹憲變♥  
 151130

\*블벗님! 11월 오늘내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워렌버핏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낸다지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린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매사에 조심하여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늘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  
 습관의 사슬은 평소에는 너무 가벼워 느껴지지도 않다가, 그 습관이 너무 무거워 끊기 힘들어  
 졌을 때야 비로소 느껴진다 하니,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은 기르고 나쁜 습관은 단칼에 베었으면...  
 참 좋은 일요일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살포시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1129

\*블벗님! 어느덧 11월도 끝자락 주말이네요.  
 세월이 가고 인생도 가고 모든 것이 변천하여  
 밤낮으로 흘러 흘러 쉬지 않는구려,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길 없고 오는 시간 또한 막을 길 없으니,  
 인생 60 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고  
 // 70 이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으며  
 // 80 이 지나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주어진 삶 다 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 가십시오.

주말 아침 곱게 올려주신 불방 느긋하게 즐감하고 다녀갑니다.♥昔暗 조현섭♥

151128

\*불벗님 첫 추위에 천식, 감기에 조심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 ★감기 예방법은 아침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손을 자주 씻으며 충분한 수면이 최고라네요.

★감기 치료법으로는 감기약 항생제 대응으로

◆목 감기=요구르트 5병+식초 1술갈 넣고 끓여 먹고 땀 2시간

◆뺨 쭈시고 식은땀=커피 3잔+소금 작은 1술갈 타서 먹고 2시간 땀

◆기침 콧물, 몸살감기=생강차 3잔+흙 설탕 1술갈+식초 1술갈 끓여 먹고 2시간 땀내면 감기 뚫,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감기 처방법 권해 보고싶네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져 뇌졸중 위험도 커지니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체력 조건에 맞는 운동으로 나의 건강은 나 자신이 지켜나가기길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51127

\*불벗님!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살의 종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이로운 살도 되고 흉살이 되기도 한데,

도화살=은 화려한 복숭아 꽃에 수십 마리의 벌이 나를 죽이는

이성과의 만남에서 한 부분에 매력을 갖는 것이고

화개살=연애 중에는 사랑을 몰랐다가 이별한 후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역마살=변덕이 심하여 환경을 자주 바꾸는 것이고

백호살=평생 첫 사랑을 못있는 것이고,

망신살=말이나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월장도화살=남자들이 죽기 살기로 담을 넘어 물 묻은 바가지 깨 달라볼듯 여자의 집으로

물려가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겁 살=대체로 흥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살이 좋지 않을 때 그 기운을 풀어주는 것을 “살풀이” 나쁜 액을 쫓아내는 것,

누구나 다 살을 끼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신하느냐에 따라 길흉이 점쳐진다 하니

우리 모두 나쁜 살이 범적도 못하도를 잘 대처하여 한평생 좋은 일만 가득하소서...♥昔暗 曹憲燮♥

151126

\*불벗님! 비가 올는지 날씨가 꾸무리 하네요. 오늘 아침엔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몸바치신

파란만장한 정치생활을 거친 민주화의 거목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 빈소가 차려진

두류공원 안병관 올림픽기념 유도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왔습니다.

1979년 9월 16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뷰를 한 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전화를 걸어 기사를 취소하라고 종용하자

“나보다 박정희가 먼저 죽을 거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1979.10월 4일 의원직 제명 직후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리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를 제명하면 박정희는 죽는다.”  
1979년 10·26일 말이 씨가 되었는지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님도 서거하셨으니 참 딱하기도 하지요.  
올바른 길로 나갈 때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산[巨山] 친필이 저의 집 거실에 있는 것을 보며 명면을 생각해봅니다.  
부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드립니다 .♥昔暗 曹 憲 燮♥

151124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네요.일본 도자기의 원조는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40여 명 충남 공주 출신인 이삼평은 일본에서 고령토를 발견해 일본백자를 만든 최초의 인물로,  
이삼평을 기린 신사(神祀)가 일본 큐슈 사가현에는 일본 도자기의 산실로 육성되어 있는데,  
그는 1616년 아리타 동부의 이즈미산에서 자기의 원료 백자광을 찾아내고 마침내 백자를  
구워내는 데 성공하여 일본 자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삼평은  
일본의 '도조(陶祖)'로 받들어져 매년 5월 4일에는 도조 축제가 열리고, 도산 신사에는  
이삼평을 끌고 온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끌려온 이삼평을 함께 기릴 정도라네요.  
도조 이삼평의 예술혼은 15, 16세기를 풍미했던 계룡산의 철화분청사기가 바탕이며,  
강진·부안의 고려청자, 여주·이천 등지의 백자와 함께 우리나라 도자의 3대 본산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의 노력도 미약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일본은 우리것을 2016년  
400주년 축제 준비에 분주하다는데, 계룡산 길가에 텅구는 도편은 우리정부의 기능공 양성의  
무심함을 비웃는 듯하여 씁쓸하네요. 불벗님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가십시오♥昔暗 曹 憲 燮♥

151123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병약한  
친구가 쓰러져 죽어 같이 있다가 죽었으니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다급해진 이 사람은  
송강 정철에게 응소장(應訴狀)을 부탁한 글의 내용을 보면,  
독주재방 불음불취(毒酒在傍 不飲不醉) 독한 술이 곁에 있으나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아니하고  
부승재수 불인불절(腐繩在手 不引不絕) 썩은 노끈이 손에 있으나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응소장(應訴狀)을 받아 읽어보니 자신이 범인으로 물리게 썩어져 있어 대감 어찌 저를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철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건 장난삼아 한번 써본 거라며 소장을 다시 써준 내용은.  
유풍잔등 무풍잔멸[油風盞燈 無風自滅]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절로 꺼지고.  
동헌황울 불상자락[東軒黃粟 不霜自落]동헌에 누른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가을이면 그냥 떨어진다.  
그 사람은 이 응소장(應訴狀)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또에게 가져갔는데, 사또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으나.  
소장(訴狀)을 읽어 보더니 죽을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은 게로구먼 이라며 무죄판결 하였다네요.  
어떤 일이든지 생각하기에 따라 양면의 칼날...불벗님! 오늘도 즐거운 휴일되소서--- ♥석암 조현섭♥

151122

\*어느덧 11월 하순 첫 주말이네요. 우리는 가족과 이웃, 친구와 함께 좋던 싫든 간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함께하는사람의 자질 여부에 따라 환경이 달라질 터,

이웃과 친구의 생활 환경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을 “이웃효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신문에 연재된 ‘존스네’란 만화에 의해 생겨났는데,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목걸이 핸드백 명품 소지품을 보면 모두 그 친구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많은 술값을 보라는 듯이 계산해 버리는 동기생을 보고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낄 때, 소비 수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 합니다.

또한, 과수원을 이웃에 둔 양봉업자는 유실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양봉이 가능하기에 기뻐하고 반면 독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면 꿀벌의 떼죽음과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지요.

우리에게 미국은 멀지만 중요한 나라이고, 중국은 가깝고도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대립의 뿌리가 되는 과거사는 청산해야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디---

블벗님 참 좋은 주말과 휴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제 다녀올게요.♥석암 조현섭♥

151121

\*안녕하세요. 대구엔 10여 일 가랑비에 옷 젖는다더니 산행 오갈 때 물소리, 낙엽소리 즐겁운 아침~

20세기의 신비주의 문인[文人] 제임스 엘런은 ‘생각하는 그대로’라는 저서에서

“사람은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며,

스스로 거두는 것을 얻는 것이라는데,

소망과 기도는 생각과 행동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고 하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꿈꾸는 것을 실행하지 않아,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우리 모두 수기치인 실천 궁행[修己治人 實踐躬行]이라,

몸소 갈고 닦아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자세로 임하면

결국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듯,

지그 지글러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며,

오직 계단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어느 계단까지 서 있는가? 그리고 내일은 어느 계단까지 갈 것인가?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1120

\*블벗님!!!

안녕하시지요.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달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생각하며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 할 듯, 우리가 예전에

배웠든 한자나 역사도 수능과 공무원 시험, 신문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으니 잊혀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



한자나 역사 속에서도 도덕, 예의 인성교육 등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블벗님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 행운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에 다녀갑니다.♥석암 조현섭♥  
151119

\*안녕! 우리의 부모는 ‘미국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서니 조선은 조심해야 한다.’

는 말 수 없이 들어왔지요. 러 일 전쟁 발발 후 포츠머스 강화 회담이 1905년 8월 9일~29일까지의

회담에서, 제, 2조에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여

필리핀은 미국이 권리를 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에 넘겨진 포츠머스 강화 회담,

1905년 11월 9일 일본 왕은 이토히로부미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을사조약을 체결되어 나라를 빼앗겼던 것,

독립군은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해방을 했지만. 후손들의 혜택은 미미하여 어렵게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평평거리며 살고 있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땅인 독도와 북한을 빼앗긴다 해도 어느 누가 북한과 독도지킴이를 하겠는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념 논쟁에 여야 당파싸움만 하는 동안 일본은 또다시 미국을 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일어서고 있으니, 위정자는 국정화니 뭐니 정쟁만 하지 말고 국가안위에

노심초사하였으면... 댓글이 쉴쉴하지만, 블벗님 즐겁고 좋은 하루 열어가십시오. ♥석암 조현섭♥

151118

\*블벗님!!! 오늘도 만나 뵈웁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면 편견이 따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네요.

고죽(孤竹)나라 왕자인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남의 악함을 미워해도

나중에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숙제(伯夷 叔齊)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지요 .

우리 모두 타인에게 미움과 원망 사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석암 曹憲燮 ♥

151117

\*블벗님 휴일 잘 보내셨지요. 황진이가 평생 그토록 사랑한 남자는 화담(花潭) 서경덕을

찾아와 술잔을 나누며 거문고를 통기며 한 곡조 부르는데,

“산은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니 옛물이 있을손가

인걸도 물과 같아 가고 오지 않노 메라.” 하니

화담曰 “과연 걸창 이르고, 그대가 그동안 떠나 보낸 인걸이 몇이란 말이던가?

산속에 흐르는 녹수가 언제 스치는 산봉을 어찌 다 세어본다고 하더이까”

하하 그래 그대 아직 젊고 곱거늘 어디까지 흘러야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른다 할 수 있을꼬?

소첩 오늘 제 눈앞이 큰 봉우리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사옵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이 밤 그대와 나의 운우지정을 나누어 보세나” 하며 그날 밤 소녀경을

다 외어버렸나봐! 황진이는 당시 높은 교육을 받은 것은 물론 외모와 지혜가 뛰어난 1520년대

최고의 절세가인으로 불렸지요. 새로운 한 주 사랑과 행복을 불벗님께 배달합니다.♥昔暗 曹 憲 燮♥

15111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150원x28,000불=3,220만 원x3인 가족=9,660만 원이라지만, 3인 가족 년 소득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하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구주의 4분의 1가량은 노후준비가 전무한 상태라고 하니...

성경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는 구절을 인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컬어 “마태효과” 라고 부른다는데,

가진 자는 더 많이, 덜 가진 자는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착안한 것이라는데,

국민 소득의 양극화 현상, 빈곤의 악순환, 지식 교육 격차 등 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사회 불만 세력도 생겨날 듯 하오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한 나눔이 절실한 때인 듯 하네요.

불벗님! 어느덧 11월 중반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

151115

\*안녕하세요. 어느덧 음력 10월 시제[時祭]의 시기가 다가왔군요.

저의 창녕 조[曹]가는 시월 초 정[丁]일 시조 묘제를 시작으로 지낸답니다.

사람이 정의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으며 고인 물은 곧 썩어 마실 수도 없으니

사람도 늙어 썩기 전에 흐르는 물이 쉬지 않고 흘러 바다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양한 지식 쌓아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불벗님!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바라는 소망 이루시길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5111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150원x28,000불=3,220만 원x3인 가족=9,660만

원이라지만, 3인 가족 년 소득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하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구주의 4분의 1가량은 노후준비가 전무한 상태라고 하니...

성경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는 구절을 인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컬어 “마태효과” 라고 부른다는데,

가진 자는 더 많이, 덜 가진 자는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착안한 것이라는데,

국민 소득의 양극화 현상, 빈곤의 악순환, 지식 교육 격차 등 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사회 불만 세력도 생겨날 듯 하오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한 나눔이 절실한 때인 듯 하네요.

불벗님! 어느덧 11월 중반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

\*불벗님 대구엔 가랑비가 네리네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왜놈이 박아 놓은 쇠말뚝이

전국 명산에 무려 남한에 183개 북한에 182개 등 모두 365개의 혈침을 박아기를 찍어

인물의 배출을 막으려 한 짓인데, 우리나라의 일부 친일파 학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풍수침략이라 보지 않고 일본이 지도나 해도 작성을 위해 위치 표시로

박아놓은 삼각점이라는 것, 참 어처구니없는 노릇,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고

하듯이 어찌 그들을 한민족[韓民族]이라 할 수 있겠는가?

땅이 병들면 인간이 병들고, 지맥을 자르면 사람의 맥도 잘리는 것,

이런 풍수 침략에 한술 더 떠 산, 이름, 우리말, 땅이름까지도 바꾸는

창지개명을 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녀이 빠진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강점은 한국이 억압받고 수탈을 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

100여 년 전 있었던 경술국치의 일제 치하 35년간의 치욕을 잊어버린 듯하여 씁쓸하네요.♥석암 曹憲燮 ♥

151113

\*오늘은 수능시험일 같고닭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면서---

요즘 시험철 때 커닝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지, 용, 신, 인, 의, 예, 6가지 커닝 도(道)가 생겨났으니

1, 감독자의 특성과 우등생의 위치를 아는 것은 `지(智), 라하고

2, 감독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과감하게 실행 하는것을 `용(勇)이라 하며,

3, 커닝한 답이 이상해도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4, 남이 커닝하다 들킨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니니 이를 `인(仁), 이라 하며,

5, 커닝하다 들켜도 근원지를 밝히지 않으니 이를 `의(義), 라 하고

6,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베끼는 것이니 이를 `예(禮)라 한다네요.

오늘은 불벗님께서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느긋하게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51112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 자동차세 미납 차량이 일백만대가 넘어 3조 7천억 체납이라네요.

중국 선비족의 우두머리 고향은 여러 아들에게 재주를 시험해보려고 뒤엎힌 삼실

한 뭉치씩을 나눠주고 추려내 보도록 하였는데, 다른 아들은 한올 한 올씩 뺨느라

진땀을 흘리지만, 양이라는 아들은 잘 드는 칼로 흥클어진 삼 실을 싹둑 잘라

버리고는 득의에 찬 표정을 짓는데 이에 놀란 아버지 앞에 나간 고양은

“난자수참(亂者須斬),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쾌도난마(快刀亂麻)라는 말이 생겼는데

엷히고설킨 삼실 덩어리를 칼로 싹둑 자르는 쾌도와 오캄의 면도날처럼 엷히고설킨 세상사,

부정부패를 시원하게 쾌도할 수 있었으면... 불벗님께 행운을 한 아름 놓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51111

\*불벗님 수능시험일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네요.

선조들의 과거장 시험일에는 오불심요(五不心要) 금지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는데...

1. 과거 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간밤의 꿈을 묻지 말라 했습니다.

나쁜 꿈이면 부담을 갖게 되고 좋은 꿈이면 요행을 바라게 되어 긴장을 늦추게 되니까요.

2. 부처님 등 신에게 빌지 말라 했습니다.

신에 의지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 수험생에게 부담감을 준다네요.

3. 시험일에는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거나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신체의 리듬이 깨지면 사고의 리듬도 깨진답니다.

4.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붓이나 벼루를 새것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평상시 쓰던 물건이 손에 잘 익어 답안지 작성이 쉬워집니다.

5. 부모·형제가 과거장 밖에서 기다리지 말라 했습니다.

수험생의 마음은 급해지고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답니다.

고3 수험생을 가진 가정은 마음에 새기시어 부디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51110

\*블벗님

대구는 엇그제

부터 비가 오는 등

마는 등 하더니만 그쳤네요.

배우고 생각 하지 않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사상에 빠지기 쉬우며, 높은

덕행은 학문과 사색을 병행하는 데서 이룩된다 하니,

우리 모두 깊은 학문과 높은 덕행 쌓아 세상 이치를 통달하였으면---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1109

\*블벗님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 날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때는 청춘 남녀의 결혼철...

지금은 궁합을 잘 안보지만 출가시킬 자녀가 있다면 참작해 보았으면...

궁합은 띠만 가지고 보는것이 겉궁합이고 원진(元眞), 삼합(三合) 오행으로 보는것이 속궁합,

어제는 삼합 궁합에 이어 오늘은 궁합이 나쁜 원진(화합을 못하고 갈등을 빚는 살)을 살펴보면,

쥐띠-양띠=쥐는 양의 배설물이 조금만 몸에 묻어도 몸이 썩어 들어가며 털이 다 빠져 좋지 않고

소띠-말띠=소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말은 놀면서 음식을 먹고 게으르기 때문에 싫어하며,

범띠-닭띠=범은 닭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수닭이 해를 세 번 이상 치면 호랑이도 놀라 달아나고

토끼-잔나비=토끼는 자기 눈 색깔과 같은 원숭이의 궁둥이를 싫어하며,

용띠-돼지=용은 열두 동물의 형태를 모두 형상화 하였는데 잘 생긴 모습중에 돼지의 코를 닮아 싫어하고

뱀띠-개띠=뱀은 금속성의 개짖는 소리를 들으면 허물을 벗다 기절초풍한다니 나쁜 궁합,

요즘 궁합과 가문을 안 보고 서로 좋아한다며 결혼한 것이 이혼 증가율이 1위라네요.♥昔暗 曹憲燮.♥

151108

\*블벗님 반가운 단비 소식 있는 주말 비라도 많이 내려 가뭄 해결을 소망해봅니다.

때는 결혼의 계절이라 매주 토, 일요일이면 젊은 청춘들이 짝을 많이 짓는데,

궁합이 좋은 삼합(4살 차이 세 가지 띠는 서로 좋은 합을 나타내어 화합을 이룸)

쥐띠-용띠- 원숭이띠= 삼합으로 궁합이 좋고, 소띠- 뱀띠-닭띠=삼합으로 궁합이 좋으며,  
범띠-말띠-개띠=.삼합으로 궁합이 좋고, 토끼띠-양띠-돼지띠=삼합으로 궁합이 좋으니,  
생년월일시(四柱)가 기유정(既有定)인데 부생(浮生)이 공자망(空自望)이라.

평생 사주가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인생 공연히 해매라!

하지만 옛날만큼 궁합을 중요시 않지만 등가홍상(等價紅裳)이라

음식에도 궁합을 찾는 세상인데 악연보다는 이연이 되어야제

요즘 궁합과 가문을 안 보고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그런지 이혼 증가율이 1위라네요.

덧붙여 이사하거나 여행 할 때 손 없는 날은 가장쉬운 방법은

9,19,29일과 10,20,30일 0과9일은 손이 하늘로 날아간다 해서 손이 없는 날이니

두루 잘 살펴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1107

\*저의 불방을 찾아주신 불벗님 감사합니다. 조선왕조의 묘호[廟號]를 살펴보면,

조[祖]는 공[功]이 있는 경우이고 종[宗]은 덕[德] 있는 경우이며,

조(祖)는 왕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7명으로 국가를 세웠거나 국가에 큰

역할을 한 경우, 그 외는 종[宗]으로 불려지고, 종(宗)=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하게 한 왕[王],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군주 조선조 27대 왕조 중 태조 세조 등

7조와 연산군, 광해군 9대를 제외한 왕조는 종으로 구분되며, 정비에서 태어난 딸을 공주,

후궁에서 태어난 딸을 옹주[翁主]라한다네요.

아들은 세종대왕이 18명, 성종 16명, 정종 15명 순이고

딸은 태종이 17명, 성종 12명, 중종과 선조가 11명이며,가장 짧은 재위기간 : 12대 인종(9개월),

가장 긴 재위기간 : 21대 영조(51년 7개월)

끝으로 이씨조선,이조백자 등은 은 왜놈들이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 낸 단어들인데

조선왕조가 이씨조선이면 고려조는 왕씨고려, 신라는 박, 석, 김씨신라란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불벗님께서 잘 꾸며신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1106

\*안녕하세요. 불벗님 반갑습니다. 지리산(1915)은 신라 5악의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하여 지리산이라 불렀고,

‘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하며,

옛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백두산과 금강산은 승낙을 하였으나

지리산은 "뜻을 달리한다"하여 뜻(志)다를(異)뫼(山)으로도 불렀다고도한다네요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화엄사~대원사 약 44km 110리

경남의 하동, 함양, 산청,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으로 3도 1시 4군 15개 면에

걸쳐 있는 방대한 산이며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산행 인이 찾는 여가장소로

2015년 3월 1일 총 거리 291km를 둘레길을 개통하여 최고의 명산, 지리산을 소개해 봅니다.♥석암 조현섭♥

151105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채근담에 이르기를,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마음쓰임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하네요 .

오직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의 적음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오직 마음이 편한 사람만이 마음쓰임이 많음이 재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고

부질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며, 늘~ 생활을 즐겁게 하며 살아갔으면...

늘~함께해주셔서 감사인사 드리면서, 고운 블방 잘 보고 갑니다.♥昔暗 曹 憲 燮♥

151104

**\*블벗님 웃으며 살자고 유머 한 편 올려봅니다. 저승에 간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

**"흥부 놀부는 듣거라.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보이느냐?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놀부가 쩍싸게 먼저 "저는 꿀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놀부는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너라."**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상대의 몸을 훑아라."는**

**그 말에 놀부는 죽을상이 되었는데,**

**잠시 후 흥부 아내와 놀부 아내가 염라대왕 앞에 왔는데,**

**"흥부 아내와 놀부 아내는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갔다 나오겠느냐?"**

**놀부 아내가 놀부를 슬쩍 쳐다보니 놀부가 똥통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을 하여**

**놀부 아내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대왕님 저는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놀부 아내는 똥통에 들어가고, 흥부 아내는 꿀통에 들어갔다 나오너라."**

**"자,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와 마주 서서 아내의 몸을 깨끗이 훑아라."는**

**그 말에 놀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는 우스갯소리 ㅎㅎ 웃으며 사입시더,♥석암 曹憲燮 ♥**

151103

**\*휴일 잘 지내셨지요. 대장님!!!**

**그 옛날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등산가친(燈山可親)이라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네요.**

**요즘 어디 청명한 가을날에 막새 바람 제쳐 두고 방콕하고**

**틀어박혀 책(冊)만 읽고 있을쏜가?**

**바리바리 울러메고 울긋불긋 단풍 곱을 찾아 산으로 가는**

**등산인을 보면 가을은 정녕 등산가친의 계절이라!**

**“사람의 몸도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뇌도 가만두면 녹슬어” 못쓰게 돼오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시원한 막새 바람, 갈바람 타고 둘레길이라도**

**걸어보면 몸에는 보약... 건강이 최고라지요. 우째거나 건강하이소---♥석암 曹憲燮 ♥**

151102

\*어느덧 시월도 가고 11월 첫날 휴일 아침.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지요.

11월에는 불벗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소서~

정기 산행 일이라 이른 새벽

살포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

151101

\* 아침 날씨가 차갑네요. 불벗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정부는 11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규모는 ▶기업 2332조4000억원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1127조3000억원 ▶가계 1085조3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236조8000억원 지난해 기업+정부+가계 ▶부채 합계가 4781조원 국민 ▶1인당 빚이 9440만원 아기가 태어나면 1억 빚지고 노인 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니 출산율이 썩지, 상반기에도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55년 만에 최대 적자로 세계 1위인 조선업이 애물단지라네요. 이러다가 개인파산, 금융파산, 국가파산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도 관료와 정치인들은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교과서 국정화니 검정 교과서니 패거리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하는 교락성이란... 수소차, 전기차도 개발은 먼저 해놓았으나 주유소와 충전소가 없어 외눈 되놈에게 빼앗겼으니...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신산업 육성이 없고 경기 침체 탓에 그만큼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 이라지만, 썩썩 얼어붙은 경제가 언제 살아날지 걱정이네요. 걱정거리만 남겨두고 다녀갑시다. 떠나는 시월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11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불벗님! ♥석암 曹憲燮 ♥ 151031

\*반갑습니다.

시월 상달도 오늘 내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예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과 덕행, 성실과 신의 네 가지라는데,

학문과 덕행은 실천이 따라야 하고 성실과 신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니 실천과 행동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 가소서...

불벗님이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1030

\*불벗님 잘 지내시지요. 일요일이면 역사 탐방겸 육신사를 가끔 찾아보고 느끼는 것은 정부에 빌붙은 김질과 정창손 등은 간생이로 기록되지만, 사육신(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의 육각비를 보면서 능지처참을 당했지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으니 헛된 죽임이 아닌 듯싶으며 생육신(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은 살아서 절개를 지킨 것을 보면 요즘 지조없는 철새 정치인들과 비교가 되는 것같아 씁쓸하네요. 또한, 무오사화에 연류된 김종직, 김굉필·정여창·조위, 김일손, 유호인 과 기묘사화로 사림파인 조광조, 김식, 김정, 김안국, 등의 죽음도 헛되지 않은 듯,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정몽주, 송시열, 윤선도, 허균, 정인홍 등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에 반대하고 절개있는 분들만 우리의 역사에 살아 있으며  
노벨 평화상의 인물도 정부에 반기를 들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온고지신이라 현재의 정치인들도 후대에 좋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 있을랑가...  
블벗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석암 曹憲燮♡  
151029

\*반갑습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린다 했더니만,  
비가 오는 등 마는 등  
간에 기별도 안 오게 왔네요.  
농촌엔 오곡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요로운 마음 가득하시고  
등화가친의 계절에 모든 것 보고 듣고 익히며 마음의  
양식에 살찌우시길 바라면서~ 블벗님의 고운 블로그에 쉬어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28

\*대구에도 반가운 비가 내리네요. 블벗님!! 박수현 의원이 23일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KF-X사업이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사기행위”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다는 것.  
조선 시대에는 임금을 속이면 대역죄로 다스렸다는데,  
미국은 국방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해 3~4월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고 우리가 구매한 F-35의 정비권도  
왜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통령에게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밝혀지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해임시키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방사청에 대한 감찰에  
나섰지만 난감해한다네요.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27

\*휴일 잘 지내셨지요. 즐겁고 행복 가득한 끝자락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구구팔팔 복상사(腹上死)"로 생을 마감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십백천만"의 이론의 실천이라고 하네요.  
-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십: 하루에 열 번 이상 웃으며,  
-백: 하루에 백 자 이상 글을 쓰고  
-천: 하루에 천 자 이상 글을 읽으며,  
-만: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는 것입니다.  
블벗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옵소서.~^^~♡석암 曹憲燮 ♡

151026

\*안녕하세요. 불벗님! 일본 방위성 장관 발언은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고 남한까지 100여 년 전처럼 통째로 삼키려는 것 아닌지? 일본식 한자인 부락(部落)은 어떤 의미에서 불리었을까? 일본의 에도 시대에 최하층 천민이 사는 곳 애타, 즉 3D업종 가축도살, 피혁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부라쿠(部落)라 불렀다네요. 이처럼 치욕스러운 말을 일정시대 조선 총독 부령으로 우리나라 마을을 전체를 천민시 하려는 의도에서 부락으로 개칭한 것이니 시방부터라도 우리 부락이란 말을 버리고 우리 마을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축제(질祝제사祭)란 한자 풀이를 해보면 제사를 지내다라는 일본말인데 각종 행사에 사용하며, 국민(國民)이란 일본 황제의 신민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했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미소, 연인, 세대주, 일석이조,무뎃포 등, 위정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뿐 아니라 현재 시각조차 왜놈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시간과 언어도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면... 휴일 즐겁게 보내십시오.♥석암 曹憲燮 ♥

151025

\*참 좋은 주말! 푸른사랑님의 불방에서 발췌한 유머자료 세금의 종류를 올려봅니다.

♣ 태어났더니~~~~~.주민세. ♣ 살았을때 쫓더니~~~~~증여세.  
♣ 죽었더니~~~~~.상속세. ♣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갑근세.  
♣ 한대 물었더니~~~~~.담배세. ♣ 퇴근하고 한잔했더니~~~주류세.  
♣ 아껴 쓰고 저축하니~~.재산세. ♣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방위세.  
♣ 황당하게 술에 왜 불니~교육세. ♣ 화장품에 왜 불니~~~~~.농어촌특별세.  
♣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소득세. ♣ 장사하려 차 샀더니~~~~취득세.  
♣ 차 넘버 다니,~~~~~등록세. ♣ 회사 차렸더니~~~~~법인세.  
♣ 껌 하나 샀더니,~~~~~소비세. ♣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전기세, 수도세.  
♣ 전기많이 썼더니,~~~~~누진세. ♣ 배 아파서 똥 좀 누면,~~~환경세.  
♣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 죽으면— ~~~~~~만세  
♣ 그러니까~~~~~노세

다녀갑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불벗님!! ♥석암 조현섭 ♥

151024

\*오늘도 불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 주신 고운 불방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늘~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인연 고맙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주옥같은 글과  
고운 詩, 멋진 사진과 신 나는 음악, 다양한 자료들과 댓글을  
보면서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 빠르게만 흘러가 아쉽네요.  
변치않는 사랑과 우정 감사합니다. ♥석암 조 현 섭♥

151023

\*안녕하세요. 조선 시대의 이름난 인물들은 그만큼 탄핵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세조가 집권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예종-성종 대까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한명회는 성종 대에만 대간들로부터 1백 7번이나 탄핵당했고,

동시대의 임사홍은 1백 40번, 유자광은 56번에 걸쳐 탄핵을 받았으며

조광조,정인홍, 송시열, 윤선도,이순신 등 이 사약, 또는 탄핵을 받았던 것은

신진 사람파와 훈구파의 세력다툼이라는 배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이 거듭되면 위축되기 마련...

조선의 탄핵제도는 특정 권신(權臣)의 권력 남용을 막아 집권 세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한 셈이었는데, 지금의 고위공직자는 여·야, 관료 할 것 없이 차떼기에서 보듯 기업으로

부터 돈을 챙겨도 오히려 지위가 올라가고 탄핵을 받지 않으니 빈부격차가 심한것은 아닌지?

블벗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대박 나이쇼.♡석암 曹憲燮♡

151022

\*시월도

어느덧 하순

으로 접어드네요.

무슨 일이든 남보다

더 잘하려면 겁내지 말고

열심히 하여 먼저 내 마음부터

이겨야 한다는 것, 스스로 이기는

자가 가장 강(強)하다고 하지 않던가 ,

나에겐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면 된다는 의지로 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

오늘도 잘 꾸며놓으신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曹憲燮 ♥

151021

**\*한 많은 세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네요.**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주둔했고 혼란상을

겪으면서 유교문화인 五倫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며 원로 유학자들이 한탄스럽게 읊었다는

오절(五絶)시를 읽고 당시의 시대상을 잘 묘사한 것 같아 댓글로 올려봅니다.

父子有親 三八絶=부모나 자식을 보고 싶어도 3.8선이 생기면서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고,

부자유친 삼팔절

君臣有義 民主絶=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들어와 끊어 버렸으며,

군신유의 민주절

夫婦有別 同等絶=남녀평등이라는 평등사상이 대두 되면서 무너져 버렸다고,

부부유별 동등절

朋友有信 思想絶=그놈의 좌, 우 사상 때문에 정리가 끊겨 버렸으며.

붕우유신 사상절

長幼有序 自由絶=너도나도 자유라는 풍조가 끊어 버렸다는 풍자입니다.

장유유서 자유절

댓글이 쏘쏘하지만, 불벗님 즐겁게 보내십시오. ♥석암 조현섭♥

151020

\*불벗님

주말과 휴일

잘 지내셨지요.

우리의 삶 언제나

바람 부는 데로 물 흐르듯

구름 가듯 ~평온한 마음 가지시고

가을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하면서 올려주신 고운불방 즐겁하고 갑니다.♥석암 曹憲燮♥

151019

\*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데,

즉,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은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이지만,

잠재의식이란 자기의 마음이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숨어 있는 마음이라

잠재 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 하고 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

공부하자고 하는 현재 마음이 있어도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크게 성적이 올라갈 수 없는 것,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공부에 취미를 붙혀 그 무엇보다도 공부가 재미있고

TV나 음악 게임 같은 것은 재미가 없어야 우등생으로 가듯이---

요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보수든 진보든 맹목적으로 통합 정치가 아닌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도 모자라 동-서로 자식 손자와 노인세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못된 정치인들, 상대를 수구골통, 진보 빨갱이란 잠재의식이 통합되지

않는 한 통일은커녕 분열을 틈타 대원군과 민비 때 처럼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벗님 참 좋은 휴일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석암 曹憲燮♥

151018

\*불벗님 상쾌한

주말 아침이네요.

사람의 도리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량과 자기

자신에게는 신중하고 대인 관계에는

너그럽게 하여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살았으면...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불방 즐겁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17

\*불벗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남자는 상대방 여자가 가진 어머니에게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자는 상대방 남자가 가진 자기 아버지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가족 관계로부터 뻘뻘스러운 탈출을 도모해야 하고  
 자식에게 효도 받겠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효도에 대한 지나친 강박증은 도리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자식 또한, 부모의 재산이나 후광에 비굴하게 의지하는 근성을 버려야 하며  
 부모의 후광역시 스스로 정체성에 흠집이 될 수도 있을 듯 하오니  
 품 안에 자식이란 말 처럼 부자지간에도 서로 바라지 않고 근심.걱정 없이살았으면...  
 오늘도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금쪽같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1016

\*블벗님 시월 상달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네요.  
 히말라야 설상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우는 야명조(夜鳴鳥)라는 새는  
 깃털이 없어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밤새도록 울면서 내일은 꼭  
 내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날이 밝아 햇살이 비치면 지난밤의 일을  
 까맣게 잊고 온종일 정신없이 놀다가 또다시 밤이 오면 낮의 일을 후회하며  
 내일은 꼭 황토집으로 방이 펄펄 끓도록 집을 지어야지 하고 다짐을  
 되풀이하면서 밤마다 서럽게 숨이 넘어갈 듯 애절하게 우는 야명조,  
 고통스러운 밤과 쾌락의 낮을 번갈아 보내며 야명조는 초라하게 늙어간다네요.  
 사람도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하면 새로운 삶을 맹세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면  
 어려웠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지요.  
 원효대사는 중생의 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매번 반복해 겪는 것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석암 曹憲燮♥  
 151015

\*안녕하세요. 블벗님! 반갑습니다.  
 정(精)의 도리 버리면 몸이 박(薄)해지고  
 몸이 박해지면 마음이 천(賤)해지며,  
 명(命)의 도리(道理) 버리면 기(氣)가 탁(濁)해지고  
 기가 탁(濁)해지면 명(命)이 짧아지며,  
 성(性)의 도리(道理) 버리면 마음이 악(惡)해지고  
 마음이 악(惡) 해지면 재앙(災殃)이 생겨나니  
 우리 모두 부디 성(性), 명(命), 정(精)의 도리 등지는 삶  
 살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즐감하면서 다녀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14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으면 편견이  
따르고 공평 무사한 사람이 정의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으며 고인 물은 곧 썩어 마실 수도 없으니  
사람도 늙고 썩기 전에 다양한 지식 쌓아 행동과 언행이 일치되면  
흐르는 물이 쉬지 않고 흘러 바다에 모이는 것처럼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우러러보겠지만,  
내 노랄 것 없는 저는 그저 남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만,  
미천한 저의 불방을 찾아 격려와 스크랩도 해주시고 항상 건강을 염려해주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축원의 덕담과 안부의 글 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블벗님 늘~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조현섭★  
151013

**\*블벗님 시월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지요. 옛날에는 젊은 남녀들이 어디서 만났을까?**  
물레방앗간, 우물가, 주막집, 빨래터, 뽕밭 모두가 남의 이목이 잘 띄는 곳인데,  
서울의 잠실이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잠실도회(蠶室都會)를 설치하였기에  
잠실이란 지명을 얻게 되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기에는 뽕밭이 제격,  
해마다 4-6월이면 청춘들의 정기가 왕성하고 뽕잎도 무성하것다.  
밀희의 장소로는 최적지로 꼽지요. 시경에 뽕나무 밑에서  
일어나는 성희를 노래한 구절이 있는데,  
운수지사(云誰之思) 누구를 그리워하나 ?  
강맹강의(姜孟姜矣) 아름다운 강씨네 딸  
기아호상중(期我乎桑中) 만나자고 한곳은 뽕밭이라네.  
이렇게 하여 뽕밭에서 만나 남녀 간의 밀희나 음행의 즐거움을 상중지희(桑中之喜)라네요.  
어느덧 시월 중순 둘째 주 힘차게 출발하소서...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12

**\*블벗님 참 좋은**  
**연휴 일요일 아침이네요.**  
**채근담에는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마음씀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면서 오직**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의 적음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오직 마음이 편한 사람만이 마음씀이 많음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니, 우리 모두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고**  
**부질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며, 늘~ 생활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입시다.♥석암 曹憲燮♥**  
151011

\*주말이자 임산부의 날이지만 임산부 보기가 드무네요.

그 옛날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등산가친(燈山可親)이라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네요.

요즘 어디 청명한 가을날에 막새 바람 제쳐 두고 방콕하고 틀어박혀 책(冊)만

있을쏜가? 바리바리 올려메고 울긋불긋 단풍 곶을 찾아 산으로 가는

등산인을 보면 가을은 정녕 등산가친의 계절이라!

“사람의 몸도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뇌도 가만두면 녹슬어”

못쓰게 되 오니 시원한 막새 바람, 갈바람 타고 둘레길이라도 걸어보면

몸에는 보약... 건강이 최고지요...

블벗님 정성 담아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10

\*안녕하세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훈민정음 반포 569돌 한글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기리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지켜 나가는 마음을 굳건히 다져 나가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이 되었지만, 절대 써서는 안 될 일본말 찌꺼기들을 보면

구루마-수레, 노가다-막노동, 다반사-흔한 일, 단도리-단속,채비, 담합-밀약, 축제-잔치,

땡깡-투정, 고참-선임, 18번-애창곡, 뽀빠이-분배, 세대주-가구주, 앵꼬-바닥남, 만땅-가득,

호치키스-스테플러, 구라-거짓말, 빠꾸-뒤로 퇴짜, 사진가꾸-사진틀, 잔고-잔액, 뽀찌-집게,

무뎛포-무모함, 사시미-생선회, 잇빠이-한껏 가득, 방충망-자바라, 샷시-조립식판넬,

일석이조-일거양득, 국민학교-초등학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역시 왜놈 속담...그 외 지명은 일산, 율곡, 왜놈이 지명이 수두룩한 새도로 명을 고쳤으나 사용하지 않으니-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단기 4348년을 지키지않고 예수의 기원인 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시각조차 왜놈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라우데자네이루와 남한 뿐,

거리에 간판들은 온통 왜놈 말과 영어 간판이 판을 치고, 왜놈 앞잡이들의 재산 환수조차 물거품 되었으니---

우리것을 지키지 못해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듯,~ 블벗님 즐거운 황금연휴 되소서, ♥석암 曹憲燮♥

151009

\*반갑습니다.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한로이네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사상에 빠지기 쉽지요. 높은 덕행은

학문과 사색을 병행하는 데서 이룩된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여 높은덕행 쌓아 깊은 이치 통달하였으면...

블벗님 가정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처럼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꾸며놓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석암 曹憲燮♡

151008

\*블벗님 안녕하세요. 왜놈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문제도 정부의 사고가 확고하다면

일본이 짹짹거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식민사학이나 동북공정을 인정한 어정쩡한

대처나 작은 양보를 틈타서 왜놈, 되놈이 비비고 들어오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닐는지?

평화선을 양보하고 독도 근해를 공해로 해준 것, 우리 역사 교육을 우리 맘대로 못하고

일본 눈치를 보는 듯한 독도 지배구도가 마음에 걸리네요.

시방도 독도 개발을 경북도청에서 주장하지만, 정부는 허가를 못 한다고 하네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독도에는 수면이 얕아 헬기장과 호텔도 만들어 관광 유적지로 개발

외화도 벌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땅을 우리 맘대로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또한,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전락이 되어 공무원 시험에도 수능에도 선택 과목이라니...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이지만, 언제나 기분 좋은 날 되소서...♡석암 曹憲燮♡

151007

\*하늘이 높고 말이 살핀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요즘은 제철음식에

입맛이 땡기어 사람이 살 찐다는 천고인비[天高人肥]의 계절이라네요.

이 좋은 계절!

희망과 행복을 가득 담은

감미로운 갈바람, 솔바람이 온 몸을 스쳐 가는 계절 ~

상쾌하고 기분 좋은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블벗님 잘 꾸며놓으신 블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1006

\*재외 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동포 간 화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세계한인의 날이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 자주성의 표현으로 높이 평가한 고려 시대 묘청은

천개(天開)라는 독자연호로 난을 일으키다 김부식에게 징벌당한 일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역대의 저작이라지만 내용만큼은 사대주의에 젖어 있음을

숨길 수 없다는데, 삼국사기 내용 중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한 부분을 고구려가 교만,

오만하고 불손하여 수나라 임금에게 장차 토벌하려고 했다는 말은 황당한 편중된

역사의식이 아닐는지?

또한, 삼국 이전의 역사가 송두리째 달아나버린 내용은 작금의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왜놈의 임나본부설의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블벗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 曹憲燮♡

151005

\*상쾌한 휴일 아침이네요. 봄에 씨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님의 마음에도 풍요로운 마음 가득하시길  
바라며 등화가친의 계절에 모든 것 보고 듣고 익히며  
마음의 양식에 살찌우시길 바라면서  
블벗님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음꽃 피우는  
참 좋은 휴일 되소서...

♡석암 曹憲燮♡

\*오늘은 10월 3일 건국 기념일인 개천절이자 저의 결혼 40주년 녹옥혼식일이네요.  
아내에게 실수 없는 말과 후회 없는 행동이 몸에 배도록 항상  
조심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여 남은 삶  
아내와 가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짐해 봅니다.  
우리 모두 아내와 남편, 가족을 위해 후회없는 삶, 살아갔으면...  
오늘도 블벗님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51003

\*블벗님 우리 모두 노인을 공경하고 관심을 가져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노인의 날이네요. 옛날 선비들은 풍류로써 세상을 구하리라 생각했답니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일국의 현모지도(玄妙之道)가 풍류에 있다고  
하엿 으니 풍류 중에서도 왕희지의 “유상곡수(流觴曲水)”로 흐르는  
물에다 술잔을 띄워 보내면 그 술잔을 받는 사람이 詩를 지어 화답  
하는 놀이인데 경주의 포석정도 시를 지어 노래했던 곳이라네요.  
술 향아리에 신선이 있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취하면 이 몸도 한잔 또 한 잔에 얼큰하게 취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옛친구와 또 언제 완월장취(玗月長醉)나 할랑가...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1002

\*추적추적 비 내리는 10월 첫날 제67회 국군의 날이네요.  
예로부터 10월은 상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고운 걸음으로 고운 글 남겨 주시니  
이달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살맛 나는 10월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을 최상으로 쌓아 가시길 바라면서---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석암 曹憲燮♥

\*블벗님 한가위 연휴 동안 잘 지내셨지요.

행복이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소중히 여기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행복이겠지요.

행복은 누군가가 말하듯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가까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네요.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일 속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행복을 찾았으면...

블벗님! 9월 마무리 잘하시고 10월 상달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석암 조현섭♥

150930

\*한가위 황금연휴 끝날이네요. 주역의 건괘는 용을 네 종류로 크게 나누어,

잠룡(潛龍)=작은 물에서 고초를 감내하며 덕을 쌓는 것을 말하고

견룡(見龍)=세상에 나와 능력을 시험하면서 승천을 엿보며,

비룡(飛龍)=하늘을 나는 용으로 제왕의 위치에 오르고

항룡(亢龍)=권세와 명예가 절정에 달한 승천한 용이라는데,

그러나 항룡이 더 오르려고 욕심을 내면 항룡유회(亢龍有悔)라!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라 했거늘~.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상책인 듯...

하루 남은 황금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블벗님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60929

\*블벗님

추석 차례

잘 지내시고

선조님 묘소도

잘 다녀오시겠지 요,

저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고향 어르신,

그리고 죽마고우인 친구들도

덕담 나누다 오늘 01시에 도착했습니다.

블벗님 가정에 한가위 슈퍼문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 넉넉하고 훈훈한 소식과 함께 고향의 푸근한 정  
듬뿍 담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昔暗 조현섭♥  
150928

\*블벗님!  
즐거운 추석  
고향 가시는 길  
안전 운행 조심하시고  
내 가족과 친척분, 지인들 만나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차례 모시는 분 고운 손님 맞이하여 참 좋은 연휴 되십시오.  
저는 부산 장 조카 집으로 갑니다. 다녀와서 만나 뵈웁겠습니다. ♥昔暗 조현섭.♥  
150925

\*블벗님 오늘 오후부터 귀성길이 시작되려나봅니다. 지난주 일요일 갯바위 식당에  
밥 한 그릇 먹고 보니 식당 앞면에 오관계(五觀戒)란 글귀가 써어 있어 옮겨 봅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수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잘못과 욕심 버리고, 바른 생각으로 몸을 유지하는  
양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는 글귀를 보니,  
먹는 게 남는 것이다. 먹다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이라고 하는 먹는 것에 관해서 담소도 많습시다만,  
밥 한 끼 먹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 씁쓸이 ...  
결상이 되어야 배가 차는 긴가? 먹고 마시고 무심코 버리는 음식들!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 했거늘... 쌀 한 톨 만드는데 농부의 땀이 일곱 근 이라지요.  
추석 음식낭비가 얼마나 될지! 정부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가르쳐 버리는 음식을 줄였으면...귀성길 운전조심. ♥昔暗 조현섭  
150925

\*추석 대목인데 대구엔 어제부터 밤새도록 고운 비가 내리네요.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사는 것 걱정 없고 게으른 사람에겐  
불평불만이 따르며 변명하고 감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행복한 사랑이 오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니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한 사람 되지 말며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 가십시오,  
블벗님께서 올려주신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50924

\*옛날 화옹월태의 미모로 못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큰돈을 모은  
기생이 은퇴한 후, 풍류객 기둥서방에게 여생을 맡길 요량으로  
내 오불관언 시[詩]에 짝을 맞춘 사람에게 몸을 주겠노라며 보낸詩는  
내 집에 술 있으니 크고 작은 병 스물네 병이라 김씨도 이씨도 마시려면  
허락하겠지만 마신 뒤 취하고 안 취하고는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을 돌렸더니 즉각 답시(答詩)가 들어왔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의원(醫員)님이 내놓은 詩  
내 집에 약이 있으니 대첩 소첩 스물네 첩이라 김씨 병(病)에도,  
이씨 병에도 먹이지만 복용 후 낮고 안 낮고는 내 알 바 아니다. 라했고  
다음은 심산유곡의 스님이 보낸 시[詩]  
내 집에 부처 있으니 대불 소불 스물넷 부처라, 김씨 소원도  
이씨 소원도 기도하지만, 기도 후 복 받고 안 받고는 내 알 바 아니다.라 하였으며  
끝으로 거지(乞人)가 내놓은 시 한수! [기둥서방]  
내 집에 쪽박 있으니 큰 박, 작은 박, 스물넷 박 김씨 잔치에도  
이씨 잔치에도 구걸하지만, 구걸 후 잔치 파하건 말건 내 알바 아니다.라 하였는데  
기생 가라사대 의원[醫]과 스님[僧]은 직분에 충실치 못했으나  
거지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지라,거지가 얻어먹었으면 그만이지  
잔치가 파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라!  
반면 의원과 중은 본분을 망각[忘却]한 돌 파리와 땡 중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거지는 기둥서방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석암 조현섭,♥

150923

\*블벗님 일 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인구수가 점점 줄어 걱정이 태산입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아기를 낳기를 꺼린다고 하네요.

...

아기를 가지는 순간 행복은 끝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지만, 문제 해결은 어려운 모양  
하기야 자식 낳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경비가 너무 부담이겠지요.

20년 후에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5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니 지금 낳은  
내 아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노인 복지 정책도 중요 하지만, 청소년의 무상교육,

취업 보장 등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할 듯...주말 잘 보내십시오. ♥석암 曹憲燮♥

150922

\*불벗님 추석도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마음은 벌써 고향 집 문앞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부모님만 남겨둔 채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를 떠올리면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 이럴 때 우리는 불초소생(不肖小生)이라고 하지요.

불초는 아니(不), 다했을(肖)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는 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큰

효도를 했는데 자신은 아버지의 효심을 닮지 못했다는 말이며 또한, 임금이 선왕을

닮지못해 큰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겸손한 뜻으로

맹자(孟子) 만장(萬章)편 상권에 있는 말로 자식과 임금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일부 뜻을 모르는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불초소생인 저를 뽑아 주셔서 어찌고 저찌고...

불초소생인 제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 등등, 언중 번죽 지껄이는 걸 보면 참 가관이지요.

부모님에게 불초소생 되지 말고, 아들딸 에게는 불초지부가 되지 마음소서...♥석암 조현섭,♥

150921

\*오늘도 높고 푸른 화창한 가을 날씨에 곳곳마다 가을 잔치가

열리고 희망과 행복을 가득 담은 감미로운 갈바람이

웃길을 스쳐 가는 이때 상쾌하고 기분 좋은 휴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불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50920

\*불벗님 자고 나면 사건.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중국 한나라 유방이 진나라를 점령한 후 진의 백성에게 선언한 법령에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나라의 까다로운 법에 시달려 왔으며,

악법을 비방하는 자는 가족까지 죽이고 짝을 지어 이야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 법을

다 없애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만 약속한 것을 보면,

첫째=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사람을 상하게 한 자와 도적질 한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받는다.

셋째=그 나머지 법은 모두 없앤다.” 이것이 그 유명한‘약법삼장(約法三章)’

우리의 법도 중죄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약법삼장으로 바꾸어 보았으면---

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이기에 간단하면 간단할 수록 좋고 복잡하면 그 옳가미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며, 법의 가치는 양심에 따른 정정당당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인자함과 후덕함으로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으로 간단한

약법삼장을 통해 일생의 위업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 추석 전 주말 잘 보내소서,♥석암 조현섭,♥

150919

\* 불벗님 반갑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대목에 많이 바쁘시죠? 하고 물어보면 장사가 안되어 대목 탄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네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며 노력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일 듯,  
우리는 욕심과 이익, 행운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아낌없이 주면 모두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오늘도 고은 불방 설달 그믐날 즐겁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918

\*불벗님 안녕하시지요. 강태공[姜太公]이 지었다는 육도의 장수를 선발하는 여덟 가지 기준을 팔징[八徵]에 보면 ...  
첫째 ; 질문을 하여 상세한 지식[知識]을 살피고  
둘째 ; 말로써 궁지에 몰아넣어 변화[變化]를 살피며,  
셋째 ; 더불어 일을 도모해 그 성실[誠實]함을 살피고  
넷째 ; 명백하고 단순한 질문으로 덕성[德性]을 살피며,  
다섯째 ; 재물을 다루게 하여 청렴[清廉]함을 살피고  
여섯째 ; 여색으로 시험하여 정조[貞操]를 살피며,  
일곱째 ;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어 용기[勇氣]살피고,  
여덟째 ; 술에 취하게 하여 태도[態度]를 살핀다네요.  
이처럼 여덟 가지 기준을 갖추면 어진 사람인지 불초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 장수를 뽑는 기준으로 삼았다네요. ♥석암 조현섭♥  
150917

\*불벗님 반갑습니다. 율곡 이이(栗谷 李珣) 선생님의 가을시 한 수 올려봅니다.  
“화석정(花石亭)” 율곡 이이(栗谷 李珣)  
林亭秋已晚 蘇客意無窮-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임정추기만 소객의무궁

遠水連天碧 霜風向日紅-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 올라라.  
원수연천벽 상풍향일홍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 오르고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산토고수월 강함만리풍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새홍하처범 성단모운중  
율곡선생님의 시선은 가을을 멋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가을을 그리는 전통적인 이미지들이 모두 동원된 느낌입니다. ♥석암 조현섭♥  
150916

**\*상큼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내 한 몸의 부와 인격을**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좋은 일은 실천하고**

**나쁜 일을 배척할 줄 알며 말을 앞세우지**

**않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야말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네요.**

**블벗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소서---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915**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별초하고 난 후 “참소 봉영 유감(瞻掃封榮 有感)” 한시를 올려봅니다.**

**망운지감 불초비(望雲之感 不肖悲)- 불초소생이 고향 선영을 그리워 하며,**

**월계산봉 암루시(月桂山峰 暗漏嘶)- 산봉우리에 달이 걸리면 몰래 추모의 눈물 흘렸네,**

**작야상풍 음덕혜(昨夜祥風 蔭德惠)- 지난밤 상서로운 바람은 조상의 음덕이요.**

**금조서기 조선자(今朝瑞氣 祖先慈)- 오늘 아침 좋은 일기는 선조의 인자함이라.**

**하시무성 영변초(夏時茂盛 塋邊草)- 한여름 무덤 주변 풀은 무성하고**

**염제번웅 묘편지(炎際蕃凝 墓偏枝)- 더운 날씨에 묘소 주변 나뭇가지는 엉키었는데,**

**전벌탄성 참소후(剪伐殫誠 瞻掃後)- 정성을 다하여 베고 깎아서 살피 청소한 후**

**공심부복 헌배치(恭心俯伏 獻拜卮)- 공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맑은 술을 올립니다.**

**차가 밀리고 잡초가 많아 고생은 했지만, 선영 여섯석을 깨끗하게 별초를 하고 오니 기분은 짱!-석암-**

**150914**

**\*즐거운 휴일 이른 아침, 저도 오늘 고향 선조님 별초하러 갑니다.**

**마음을 수양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책망할 것이 없으나**

**내가 남의 인격이나 지식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네요.**

**블벗님 추석 달 팔월 초하루 휴일 알차게 보내십시오. ♥昔暗 조 현 섭♥**

**150913==120923**

**\*어느덧 초가을, 주말 아침 시인도 아닌 제가 자작시 올려봅니다.**

**“초, 가을” 석암 조현섭**

**땀 흘려 가꾼 오곡**

**익어가는 초가을 날,**

**풍성하게 여물은 황금빛 들녘,**

**셋 빨간 석류, 능금 시기하듯**

**탐스럽게 익어가고**

**산에는 구절초 들엔 들국화**



스치는 갈바람에 시샘이나 하는 듯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바라보고 웃음짓네

가을 마중 오는 기러기는 끼룩끼룩 왁 왁  
뭉게구름 타고 두둥실 노래하고  
별 나비는 국화꽃, 잠자리는 코스모스  
신바람, 갈바람에 노닐며 춤추누나.  
시원한 솔바람에 내 마음 설레네.

블벗님 가정에도 알맹이 꽉찬 오곡처럼 좋은 일만 풍성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150912

\*설하님 즐겁고 풍성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옛시 한 수 올려봅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이양연(李亮淵1771~1653)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밤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에는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금일아적행(今日我行跡)--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이 시의 작가로 흔히 서산대사로 알려져 있으나 순조 때 활동한  
이양연(李亮淵1771~1653) 으로 몇년 전 알려졌답니다. 서산대사의 문집인 청허당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며 대동시선에 이분의 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블벗님 항상 기분 좋은 날 되소서... ♡석암 曹憲燮♡

150911

\*블벗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성실성과 신의,

그리고 자기 인격 도야의 과정에서

남에게 정성과 신의를 지키며 잘못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일일삼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덕을 쌓고 지식을 쌓아 정의를 실천하며 잘못을 고치는 것이  
인격 도야의 길이라니 우리 모두 열심히 행하여 선하게 살아갔으면...  
오늘도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910

\*안녕하세요. 천안삼거리길 능소 실화에 보면 조선 중엽 경상도 살던 유봉서라는  
홀아비가 능소라는 어린 딸과 지내오던 중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변방의 군사로  
뽑혀 가면서 천안삼거리에 이르러 더 이상 어린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주막에 맡기며 버드나무 지팡이를 삼거리부근에 꽂고,

“이 나무에 잎이 나면 너를 데리러 오마”하고 달랜 뒤 홀연히 떠난 아버지는  
돌아오질 않고 세월이 흘러 능소는 아름답고 착한 여인으로 성장 하여  
한양길 과거 보러 가던 전라도의 박현수 선비와 인연을 맺게 되고 선비 역시  
과거 급제해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떠났는데,

능소는 전장으로 가신 아버지와 과거 보러 간 선비, 두 사람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꽂아놓은 버드나무 잎이 나오던 날  
버선발로 뛰어 나가보니 전장에 나가신 아버지도 살아 돌아오시고  
선비역시 과거급제 삼남의 어사로 부임 받아 눈앞에 나타나서 부른  
노래 “천안 삼거리흥 ~ 능수야 버들은 흥~” 하며 춤을 추며 흥타령 민요가  
만들어진 천안에 삼거리흥타령 축제가 올해도 10월 7일~11일 열린다네요.  
150909

\*찬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이네요. 언젠가 연수원에서 경제 강연을 들은 기억으로 ‘낙수효과,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업의과 자산가에게 힘을 실어주어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 중산층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것, 즉 넘치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분배보다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낙수효과라는데, 지금은 정부의 법인세 등  
지원으로 대기업이나 부자가 잘되어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네요.  
사람 대신 자동화 설비를 하고 고용을 소극적으로 하여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욱 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낙수효과에 반대되는 분수효과란 밑에서 위로 분수가  
치솟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여 소비 증가를 생산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면 어떨까 싶네요.  
세종 대왕께서는 국이민위본(國以民爲本),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  
나라는 근본은 백성의 이요, 백성을 먹이는 것이 하늘이라 하였으니...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908

\*불벗님 9월 첫 주말과 휴일 잘 지내셨지요.  
저는 어제 천안 태조산을 갔는데 날씨가 시원하여 산행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우리는 옛것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개척함이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라네요.

하루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의 마음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0907

\*

**\*블벗님 잘 주무셨지요. 오늘 정기 산행 관계로 이른 아침 살포시 왔습니다. ~**

**영국 여성지 굿 하우스 키퍼에서 발표한 금슬 좋은 부부가 되는 5섯가지 방법은,**

**1. 바랄 것을 바라십시오.**

**2. 문제를 함께 풀어 보십시오.**

**3. 공정하게 일을 나누어 조금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4. 잘 말하고 잘 들어십시오.**

**5. 항상 여유를 가지십시오.**

**한번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치기 어렵고 떨어진 꽃은 가지에 오르지 못한다 하니,**

**다섯 가지 방법 한 번 참작해 보시고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갔으면...♡석암 조현섭♡**

**150906==130818**

**\*블벗님!**

**안녕하세요.**

**9월 첫 주말!!**

**새벽은 어둠을 해치고**

**가을 햇살은 오곡을 알차게**

**하며, 시원한 가을바람은 가슴속을**

**파고드는 상쾌한 아침, 오늘도 힘찬 하루**

**즐겁고 행복한 주말과 휴일 참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곱게 올려주신 블방 즐감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905**

**\*블벗님 안녕하세요.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수명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인문학적 빈곤은 아마 인간의 고독과 인간적 삶의 회의,**

**쾌락 추구에만 빠지는 인간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듯하네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평온하게 노닐 수 있는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와 푸른 하늘을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길 기원하옵니다.**

**언제나 주옥같은 작품을 올려주셔서 기분 짱짱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석암 조현섭 ♡**

**150904**

**\*블벗님 우리는 손주 손녀에게 인내를 기르도록 힘 써야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고**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기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지요.!

우리 모두 인내와 끈기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뜻을 다른데로 돌리지 않고, 많은 고통과 장애를 이겨내어

성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올려주신 고운 글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903

\*블벗님 잘 지내시지요. 우리는 부부든 자식이든 그 누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좋은 점만 칭찬해주면 부지런히 정진하여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성서의 가르침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교만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듯,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모양을 갖고 태어났기에

번데기에서 나온 동충하초가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존중되고 인정받아 멋있는 삶, 살아갔으면---

옛말에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굳이 비교하려면

위가 아닌 아래와 견주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좋은 방법 비교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석암 曹 憲 燮♥

150902

**\*블벗님! 결실의 계절 9월 첫 날, 보람찬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대구엔 새벽부터 비가 내리지만,

우산을 받쳐 들고 앞산에 올라가 아침 갈바람을 길게 들이마시니

가슴이 뽕 뚫리는 것 같네요.

엇그제 8월의 공기와 9월의 공기는 느낌이랄까..., 많이 다르군요.

가을과 함께 익어가는 풍성한 오곡처럼 한 달 내내 행운만 가득하소서\*\*\*

♥석암 曹 憲 燮♥ 다녀갑니다.

\* 또 한 달을 마감하는 월말 아침 불벗님이 정성 들여 올려주신

소중한 불방 잘 보았습니다.

행복은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속에도 평온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을 한다지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지시자부(知是者富) 라.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네요. 늘~행복하소서...♥석암 曹憲燮♥

150831

\*불벗님 어정 칠 등등 팔월이라 드니 8월 4일 지뢰사건에 한 달을 휴일과 함께 마무리하네요.

원(元)나라 황제 인종 시대의 최고 명필로 손꼽았던 조맹부는 관도승 이라는 시화에

걸출한 아내와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 그 청송이 저잣거리에 자자했는데.

어느 날 조맹부는 찻집에서 최윤영이라는 가녀(歌女)를 만나 그만 정신을 놓고

그녀를 첩으로 들여 앉힐 생각을 아내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내가 보내온 시에

"진흙으로 당신과 나를 빚으니 기쁘기 이를 데 없네요.

다시 무너뜨려 물을 부어 이리저리 섞어 또 당신과 나를 빚지요

내 진흙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진흙 속에는 내가 있어요." 라는 시를 보고

벼락을 맞은듯한 충격으로 조맹부는 첩 들이려는 마음을 얼른 거두었다네요.

부부지간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시옵소서... 휴일 아침 ♥昔暗 曹憲燮♥

150830

\*

\*불벗님 오늘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8.29.)강제병합을 당한 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의 애도를 표하며 조기를 달아야겠네요

우리가 어릴 적 40~50년 전 까까머리 60명이 넘는 학생들로 교실이 꽉 찼지만,

에어컨, 선풍기는커녕 부채조차 없어 책 받침으로 부채 삼아 사용 쉬는

시간이면 마음껏 뛰놀며 체력을 단련하였지만, 지금은 인구 장려정책

실패로 농촌 모교들이 사라져 가고 체력은 국력이라 했지만,

학생들이 덩치만 컸지 폭염과 폭한을 이겨낼 체력이

약하다니 걱정이네요.팔월 끝자락 토요일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불벗님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50829

\*블벗님 안녕하세요. 판문점이란 이름은 450여 년전 역학·풍수·천문·복서 등의 원리를 이용해 한반도의 미래를 기록하였고, 임진왜란, 동학 농민 운동, 한일 병합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한국 전쟁,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등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으며, 2012년 박 씨 성을 가진 여성 지도자가 등장해 분열되어 있던 동서를 화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 큰 맥락을 같이 한다.는 예언을 남긴 인물 격암 선생 "450년 만에 신비의 베일을 벗는 민족의 경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언가 격암 남사고[南師古1509~1571년] 선생이 남긴 격암유록에 삼팔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인즉, 십[十]자에 반[反]자와 팔[八]을합치니 널빤지[板]. 호[戶]자가 둘이 좌우로 합치니 문[門]자 이며, 주점[酒店]에서 주[酒]자를 떼어내니 가게 점[店]자이니 세 글자가 각각 8획이니 3-8 즉, 삼팔선에 판문점이 생기는 기라.” 450여년 전 파자속에 담겨진 오묘한 내용이 설마 우리의 숙명은 아니길 바라면서-- 석암 조현섭- 150828

\*블벗님 반갑습니다. 엇그제, 남, 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지요. 판문점[板門店]의 유래를 보면 옛날 어느 임금이 지방 순행을 나가 개성 동남쪽 사천이란 냇가를 건너려니 다리가 없어 일행이 물을 건너지 못하고 주춤하자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대문짝을 뜯어다가 임시다리를 놓아 임금을 건너게 하였는데, 그 후 이곳은 “널빤지 다리를 놓기 위해 문짝을 뜯은 마을”이라 해서 널문리라고 불리게 되었다네요. 1951년 이 마을은 개성에서 열리던 6·25전쟁 휴전회담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회담에 중공군이 참여하게 되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를 공용하게 되자 이 널문리 가게를 중국어로 표기한 게 놀랍네요, ‘널’을 “널빤지 판[板]자”로, 문을 문 문[門]으로 대치하여 마을 표기를 ‘판문[板門]’으로 하고 거기에 가게 점[店]자를 붙혀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임금이 건넜다던 그 널빤지 다리가 통일의 다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석암 조현섭♥ 150827

\*안녕하세요,^^

김기덕 감독님의 말처럼 “열등감을 먹고 자란 괴물”이라며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지 않으며,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상책인 듯,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원인이 아닐는지!!

블벗님께서 잘 꾸민 블로그 사라진 백중놀이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826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첫 술부터 배부르지 않지만, 그나마 타결되어 다행이네요.  
김선달이 봉이라는 별호를 얻게 된 것은 장에 갔다가 닭 전 옆을 지나다가 마침  
닭장 안에는 유달리 크고 모양이 좋은 닭 한 마리가 있어서 주인을 불러 그 닭이 '봉(봉황새)  
아니냐고 물어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묻자 귀찮아서 봉이라고 대답하였다네요.  
선달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닭을 고을 원님에게로 달려가 그것을 봉이라고 바치자,  
화가 난 원님이 김선달의 볼기를 치니 자기는 닭장수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하자,  
닭장수를 대령시켜본 결과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닭값과 볼기맛은 값으로 많은 배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봉'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데, 봉이 김선달이 잔머리를 굴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으니... 어쨌거나 오늘날 생수개발의 편드스토리니,  
서민들이 안심하고 즐겨 끓여 먹는 물, 보리차는 중금속을 흡수해서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  
우리 몸의 특효약이랍니다. 보리차 물이 자작나무 수액보다, 괴테나 마돈나가 먹었던 물보다  
더 좋은 을 엄마 표 안심수(安心水)가 될지니... 블벗님 좋은 물 드시고 건강하소서...♥석암 조현섭♥

150825

\*블벗님 오늘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8.29.)강제병합을 당한 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의 애도를 표하며 조기를 달아야겠네요  
우리가 어릴 적 40~50년 전 까까머리 60명이 넘는 학생들로 교실이 꽉 찼지만,  
에어컨, 선풍기는커녕 부채조차 없어 책 받침으로 부채 삼아 사용 쉬는  
시간이면 마음껏 뛰놀며 체력을 단련하였지만, 지금은 인구 장려정책  
실패로 농촌 모교들이 사라져 가고 체력은 국력이라 했지만,  
학생들이 덩치만 컸지 폭염과 폭한을 이겨낼 체력이  
약하다니 걱정이네요.팔월 끝자락 토요일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블벗님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석암 조현섭♥

150829==130819

\*블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노력과 숙련이 필요한 때인 듯,  
남이 한 번으로 잘하면 나는 백 번이라도 반복하고  
남이 열 번으로 잘하면 나는 천 번이라도 되풀이하하며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내어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고운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824

\*불벗님 휴일 아침이지만, 즐겁지 못하고 남북 대립에 뒤숭숭한데 고위급 회담이 열려 다행이네요.

‘처서(處暑)’ 석암 조현섭

오늘은 처서 날!

땅에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

이른 새벽 앞산 등산(登山) 길

시도때도 없이 울고 있는 매미 울음소리

이젠 마지막 발악(發惡)을 하는 듯,

귀뚜라미 소리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새벽잠도 못 자고 올어대는

처량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등산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 듯

산야(山野)의 등성이 넘나 들어

귀뚜라미 가을 소리 갈바람 타고 오려나.

2015년 처서 날 아침에 두 번째 자작 詩 올려봅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昔暗 조 현 섭♥

150823

\*안녕하세요. 남,북한의 긴장속에 어느덧 주말이네요.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사는 걱정 없고

게으른 사람에겐 불평불만이 따르며,

변명하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행복한 사랑이 오지 않으며,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네요.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간사한 사람 되지 말며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갔으면...

불벗님의 고운 불방 잘 보고 다녀갑니다. ♥昔暗 조 현 섭♥

150822

\*불벗님 남북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이 불안한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가 봅니다.

노자(老子)의 수유육덕(水有六德)에는 ,

1. 바위도 뚫는 물방울의 끈기와 인내

2.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3.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

4.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5.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6.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물은 온갖 것을 섬기고 어느 무엇과도 겨루지 않으며



모두가 꺼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해 그저 묵묵히 흐를 뿐...

넘치도록 가득 채우지도 않고 적당한 때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마음이며, 아무리 큰 비가 내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이 오물이든 맑은 물이든 가리지 않고 품어주는 물처럼 살았으면~~~

150821

\*견우와 직녀가 까막까치가 놓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석 날 ,

대구에는 아침부터 고운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블벗님 가정에 기쁨과 사랑, 행운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고운 불방 잘 보고 다녀갑니다. ♥昔暗 조 현 섭♥

150820

\*블벗님 칠월 칠석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네요. 어릴적 참외와 수박서리 하면서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탁족지유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이 지은 어부가 빙그레 웃으며 노를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을것이라고

하면서 사라지니이 부분을 특별히 <어부가, 또는 창랑가 >라 이름 지어 불렀는데,

맹자는,“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하니,

이것은 물 스스로가 그런 사태를 가져오게 한 것이라며,”

행복이나 불행은 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처신 방법과 수양 여부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 선조는 더위를 이겨내면서도 우주와 세상의 진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

지식인의 참다운 책무에 대해 고민하였다네요. 지금 현재 창랑의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상향을 갈고닦아야 할 때인지?

우리 모두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입시다~석암 조현섭~

050819

\*블벗님! 자주 만나지만 만날때 마다 반갑습니다.

승리자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자는 슬픔에 살며.

승리나 패배를 버린 자는 행복하게 산다고 하네요.

청도 운문사 입구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우리 모두 승패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블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 현 섭♥

150818

\*연휴 잘 지내셨지요. 블벗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클리톤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매국노나 배신자, 변절자나 살인범, 패륜아나 강도, 매춘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며 바로 산다는 것은  
 첫째,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둘째. 아름답게 사는 것이며,  
 셋째, 보람있게 사는 것,  
 거짓되게 살고 추잡하게 살며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도록 “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니, 말과 생각도 바로 하고, 행동과 생활도 바로 하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해야 잘살 수 있다며  
 바로 살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면서 죽음 앞에서도 잘 살라고  
 부탁하였으니 과연 훌륭한 철학자의 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昔暗 曹憲燮♡  
 150817

\*황금연휴 끝자락 주일이네요.  
 산악회와 앞산을 20~30여 년 다니면서 산소를 보급해  
 주고 물을 정화해주는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태풍을 막아 주고 홍수를 막아 주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 나무,  
 나무 같은 친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의 나무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불벗님 잘 꾸며놓으신 불방 느긋하게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816

\*불벗님! 연휴 잘 지내시죠? 오늘은 36년간 왜놈한테서 해방된 8-15 광복절 70주년 이네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놈들 믿지 말며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러 일 전쟁 발발 후 포츠머스 강화 회담이 1905년 8월 9일~29일까지의 회담에서,  
 제, 2조에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미군 놈들이  
 필리핀은 미국이 권리를 가지고 한국은 일본에 넘겨진 포츠머스 강화 회담,  
 독립군은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해방을 했지만. 후손들의 혜택은 미미하여 어렵게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평평거리며 살고있으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의  
 땅인 독도를 빼앗긴다해도 어느 누가 독도지킴이를 하겠는가?  
 문제는 고종임금,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명성황후 민비와의 주도권 싸움에 왜놈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미국, 러시아, 영국에 조선을 맡아 달라 친서를 보냈으니  
 국제정세에 세상 물정 모르고 귀를 막고 있었던 것,  
 당파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으니... ♡석암 曹憲燮♡  
 150815

\*오늘은 왜놈들한테 해방된 광복절 70주 년 전일 임시공휴일 황금연휴네요.  
 70년 전 친일파와 반역자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정신을 팔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독립군 후손들은 친일파 후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후세대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정의가 사라지고 부(富)만따라 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때 왜놈의 조총 앞에 활과 칼로 무뎡포가 승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란 말 밖엔 ...  
 왜놈들이 전쟁의 책임도 잊은 듯 전범 7인 묘비를 순국열사로 지칭하여 날뛰고  
 이제는 전쟁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나,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대처할 생각은 않고 남북으로 동서로 신세대와 구세대로 갈리고 있으니...  
 불벗님 오늘부터 사흘 동안 황금연휴 즐겁게 좋은 나날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50814

**\*불벗님!**  
 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산산한데,  
 한 낮엔 그래도 무더울 것 같네요.  
 오늘도 삼썩한 아침 공기가 내 마음  
 한결 상쾌하고 깨끗해지는 기분... 비가  
 오다 말다 하는 건 장마에 식중독 과 불쾌  
 지수가 높으니 건강 잘 챙기시어 아름답고 멋진  
 나날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반갑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의 기운이 말복에 굴복한다는 말복 날인데.**  
**밤새 비가 내린 탓인지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대구에는 새벽 비가 내려 매일 다니든 앞산행을 포기하고 우산을 받쳐 들고 땡 대신**  
**닭이라 했던가 두류공원을 한 바퀴 둘러오니 문득 한 줄의 시가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두류공원★ ♡석암 조현섭♡**  
**동내 어귀 돌고 돌아 두류공원 돌아보니**  
**말매미, 애매미, 참매미 삼총사들**  
**소프라노 음악처럼 즐겁게 들리는데,**  
**까막까치, 어치의 삼총사도**  
**정겹게 사랑 노래 부르면,**  
**길옆 숲 속엔 풀벌레들 장단 맞춰 춤추는 듯**  
**바람 따라 나뭇잎도 나부끼며 춤추누나!.**  
**온몸엔 땀 방울 삼복더위라던가!**  
**빗물인지 땀물인지 뒤범벅이 되었지만**  
**돌아와 샤워하니 기분은 날아갈 듯...**

블벗님 비 피해 없도록 단디 하시오. 올려주신 고운 작품 즐감하고 갑니다. ♥昔暗 조현섭♥

150812

\*안녕하세요, 저의 블로그는 동영상과 음악을 제외한 글들은 대부분 직접 쓴 글이다 보니  
철자법. 문맥 등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블벗님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고도 해 주시고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한없이 고맙겠습니다.  
성원과 칭찬, 격려도 좋지만,  
도오선자 시오적 도오악자 시오사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라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 했듯이  
칭찬 보다는 많은 충고와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양약고어구 이리어질 (良藥苦於口 而利於疾)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언역의이 이리어행(忠言逆於耳 而利於行) 충고하는 말은 귀에 그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하니,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고운 불방 잘 보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811

\*폭염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시기 힘 드시지요.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무덥다는 대서를 지나  
말복이 다가오니 가을 기운이 세 번이나 여름에게 굴복한다'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삼복철이면 누구나 축 처지게 마련' 한여름의 더위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지만,  
더위를 식히고 피하는 방법은 사뭇 달라졌다네요.

옛날 우리 선조는 어떻게 여름을 냈을까?

문명이 발달한 지금은 에어컨이다 뭐다 해서 한여름에도 더위를 모르고 지내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른바 '복더위'를 피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 그 대표적인 것이  
열[熱]로서 더위를 다스리는 이열치열의 원리와 서늘함[冷]으로 더위를 식히는  
이냉치열[以冷治熱]의 방법인데, 이열치열의 피서는 더위를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겨내는 피서법으로 일부러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벌도 마다치않고 제각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더위는 자연스레 물러간다는 것.

또한, 찬물로서 열을 다스리다는 이냉치열[以冷治熱]의 방법은 옛날 웬만한 집안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한 동네에는 물맛 좋고 이가 시릴 정도로 찬 우물이 하나쯤 있게 마련,  
찬물로 등물을 치고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을 우물물에 담가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 땐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하였지요.

블벗님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810

\*블벗님 찜통 같은 무더위 잠 못 이루어셨지요? 세월이 유수 같아 저의 블로그를 개방한 지  
어느덧 3년 블벗 선생님의 정성스런 좋은 글과 고운 詩, 꼭 필요한 정보와 음악 동영상,  
맛난 요리 등 다방면으로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미숙한 댓글 지금 되돌아보니 동문서답도 많았고 예우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또한, 개개인의 답글 올리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앞산 갔다 오면 7시, 9시부터 생업에 시달리다 보니 시간이 ...죄송...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불벗 선생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불방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석암 曹憲燮♡  
150809

**\*불벗님 일 년 중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라지만 많이 무덥네요.**  
**우리 삶의 3분지1은 노후에 속하지만 설마설마 하다가 속빈 강정같은 날이 반복될 듯,**  
**노후가 되면 경제력, 건강, 활력, 역할, 친구등 줄어드는 것 투성일 터,**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재 정비하여 사용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겠지?**  
**남은 시간 쪼매라도 건강하게 살라카마 물처럼 좋은 보약도 없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편식은 건강의 적이니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최고의 건강식품은**  
**콩과 멸치 마늘을 많이 잡수시랍니다.**  
**“과식단명 소식장수”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 욕심은 명 재촉의 지름길이며**  
**몸은 움직여야 건강하고 뇌는 가만 나두면 녹 손다지요.**  
**매일매일 낙천가가 되어 즐거우면 근심 걱정은 발붙일 곳이 없어 썩 물러간다나...♡석암 조현섭♡**  
**050808**

**\*오늘도 폭염 주의보는 계속될 듯 싶네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며**  
**자식의 장래는 그 어머니의 노력에 따라 정해진다네요.**  
**우리 모두 바른 것은 가까이 하고 그릇된 것은 멀리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식들의 본보기가 될 듯...**  
**불벗님 찌는듯한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조현섭♡**  
**150807**

**\*불벗님 엄청 덥지요. 연일 찜통 같은 폭염이 여름 값을 하네요.**  
**소크라테스는 철학(哲學)이란 죽음의 연습 공부라는데,**  
**철학이란 학문은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학문이라며, 언제 죽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죽을 수 있는 마음자리를**  
**준비하는 철학이기에 확고부동한 사생관을 확립하고 종용하게**  
**죽을 수 있는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철학의 긍정적 목표이랍니다.**  
**에밀이 쓴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철학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것,**  
**잘 꾸며놓으신 불방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806**

**\*불벗님 찜통 같은 무더위 잠 못 이루어셨지요?**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혈떡인다.” 란 속담이 있듯이, 더위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위를 먹는다.’는 건 더위 때문에 몸이 이상해지는 증세를 한의학에선 서병(暑病) 혹은 서증(暑症)이라고 한다네요.  
심하게 더위를 먹으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데 쉽게 말해 몸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 나 중추신경과 근육, 간·콩팥 등 장기가 고장 나는 것,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5도 이상 치솟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며 제때 손을 쓰지 못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간이 손상돼 황달이 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일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이소.  
요즘 찜통더위가 이어지니 샤워라도 자주 하면서 잘 이겨 내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참 좋은 블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805

\*블벗님 휴가는  
다녀 오셨는지요.  
저도 8월 3일 까지  
휴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덧 결혼 40주년이라  
자식들이 여행 예약을 해놓아 못  
이기는 척하고 4박 5일 다녀 왔습니다.  
빈방 지켜 주셔서 감사하며 그동안 찾아  
뵈옵지 못하고 인제야 뵈옵게 되어 죄송합니다.  
무덤지만 화사한 웃음 가득한 화을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50804

\*사랑하는 불벗님 저도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휴가랍니다.

"헌섭이도 오늘 휴가 떠나기에 이른 아침 샤프시 문안 왔습니다.

구구팔팔 복상사(腹上死)"로 생을 마감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십 백천만"의 이론이라네요.

-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십: 하루에 열 번 이상 웃으며,

-백: 하루에 백 자 이상 글을 쓰고

-천: 하루에 천 자 이상 글을 읽으며,

-만: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는 것이라네요.

"일십 백천만"의 이론으로 늘~건강하게 무병장수하소서. 다녀와서 뵈올께요.♥석암 曹憲燮♥

150729

\*휴가철! 휴가 계획은 하셨는지요?

세월이 참 유수와 같아 6.25 동란내기로 태어나 보릿고개와 4.19, 5.16 5,17 등등

소용돌이 세월을 근근이 살아남아 일편단심 처자식을 위해 골육이 상접한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이제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속절없이

떠밀려가는 신세, 남은 지푸라기라곤 내 사랑하는 당신뿐인데 그 당신의 머릿속엔

꼭 필요한 네 가지는 돈, 건강, 친구, 딸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는

아내, 부인, 처, 마누라뿐인 것을... 이 얼마나 일종쳐사인가?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사랑받게 되는 듯.

무더운 날씨엔 자외선지수, 피부질환, 식중독 등 조심하소서...

불벗님 올려주신 고운불방 느긋하게 감사히 즐감했습니다. ♥昔暗 曹憲燮♥

150728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철이네요.

모처럼 휴일 날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겨 상해임시정부와 일본, 북한 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선조님의 친일파 “암살작전”을 그린 영화

최동훈 감독의 “암살”을 감명 깊게 보았으며, 저녁에는 두류공원에서

치맥페스티벌 잔치 마지막 날이라 동네 친구들과 한잔하고 즐거운 휴일이었네요.

7월 남은 한 주도 기쁨과 사랑 행운이 가득하게 힘차게 열어가소서... ♥석암 曹憲燮♥

150727

\*어느덧 어정 7월도 끝자락 휴일이네요. 즐겁고 행복 가득한 휴일 되시길 바라면서,  
매미의 애벌레인 굴뻥이는 구더기와 비슷하여 보기에는 징그럽고 더럽기 짝이 없지만,  
동의보감에는 신장, 간장질환, 중풍, 당뇨병, 간암 등의 종합 치료제랍니다.  
어릴 적 시골이나 민속촌의 초가집 지붕에 덮여 있던 짚단을 걷어낼 때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하얀 애벌레를 보신 적이 있지요. 굴뻥이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고대로부터 한약재로 쓰여 왔는데 '제조'라고 부르다네요.  
매미의 애벌레는 2~6주 만에 알에서 부화되어 짧게는 2~7년 길게는 13~17년 만에  
성충이 되어 허물을 벗어내고 여름의 소프라노인 매미가 되는데,  
이렇듯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겨우 하늘을 날며 노래를 부르게 된 매미는 아무것도  
먹지않고 오직 맑은 이슬만 먹다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1~3주 만에 죽고 마는 삶!!  
매미의 삶도 울음소리도 슬프죠!!~ 불벗님의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50726

\*많이 덥지요. 불벗님!! 어느덧 칠월도 끝내기 주말이네요.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대구가 무덥고 삭막한 도시의 대명사 였지만,  
지금은 영천, 합천, 밀양, 경산 등지로 전국 최고기온을 빼앗겼답니다.  
이유인즉슨, 무소속으로 당선된 민선 1,2기 문희갑 대구시장님께서  
1차[96년~2000년] 5개년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으로 1050억 원을 들여  
포플라 나무 등 300만 그루를 심었으며 학교 공원 아파트 주택까지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 산소와 녹색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 하였으니 마중물 같은  
역할에 역대 대구시장님 중 가장 존경받는 문희갑 시장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추진력이 돋보이는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대구 민선 무소속 남구청장 재직 시에  
삼각로터리 부근 대명동 우리동내[18~19번 도로] 140여 개의 퇴폐 유흥업소를  
조직폭력배들의 협박 속에서도 단 몇 개월 만에 모두 문을 닫게 한 분이신데.  
문희갑 시장님은 한나라당으로 이재용 청장님은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셔서 당리당락에  
막혀 큰 일을 못하시니 안타깝네요. 지금 당적을 가진 단체장들은 무엇을 하는지? ♥석암 曹憲燮♥  
150725

\*또 한 주를 마감해야 하는 금쪽같은 금요일이네요.  
옛 성현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알려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을 실현하려면  
꾸준히 노력하여 충분한 능력을 길러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남들 앞에 우뚝 설수 있겠지요.  
오늘도 저의 불방을 찾아주신 불벗님의 가정에 늘~건강과 웃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석암 曹憲燮♥  
150724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무덥다는 대서이자 중복 날 아침 김상옥 시인님의 관탈섬 시 한 수 올려 봅니다.

관탈섬에 가서 관(冠)을 벗고/ 끈적끈적한 탐욕을 벗고/  
무거운 죄업을 씻어내고/ 사랑도 미련도 훌훌 털어버리고/  
이름마저 버리고/ 오직 사랑만을 간직한 채/  
이름 없는 하나의 섬이 되어/ 밀려오는 파도와 잔정 나누며/  
한라산 영봉에 눈 맞춤 하며/ 한 오백 년 살고지고/ 살고지고/  
관탈섬은 추자도에 있는 섬으로 옛날 귀양 객들이  
갓을 벗기고 직위를 삭탈 당했기에 관탈(冠脫)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조선시대 유배지가 무려 408곳이 되었으니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곳을 떠나면서 권력에 의해 뒤집어쓴 죄를 눈물로 씻으며 처절한 외로움을  
문학과 예술의 경지로 승화해나갔던 곳,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정약전의 '자산어보' 등은  
고독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꿈과 이상을 펼쳐나간 그들의 생활이 어찌 마음조차  
유배할 수 있으리오. 여름 휴가철 남편과 아내의 손 잡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땅으로 여행이나 한 번 하였으면... 오늘도 불벗님 불방 즐겁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723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실컷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네요.  
불벗님 후덥지근한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150722

\*불벗님 어느덧 어정어정 7월 하순 비가 올는지 날이 꾸무리 하네요.  
어릴 적 펌프질로 지하수를 끌어 올리려 할 때 물을 한 바가지(마중물)쯤 부어야 관 속에  
물이 차서 지하수와 연결되고 그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마중물 따라 올라와 식수도 하고  
시원하게 등물도 치고 하였지요. 손님을 '마중한다' 할 때의 바로 그 마중을 뜻하는 것,  
물을 얻기 위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하겠죠!!  
우리가 기쁨을 잃고 우울할 때, 또는 믿음을 잃고 이리저리 방향할 때,  
답답한 삶의 심연 속에 시원한 생수로 찾아온 마중물 같은 사람, 마중물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 누군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7월 하순 활기차게 출발하소서...  
♥昔暗 조 현 섭♥  
150721

\*불벗님 휴일 잘 지내셨지요. 시원한 월을 아침에 풋말 때문에 망신당한 우스갯 소리를  
올려봅니다. 찌는 듯한 여름, 더위도 잊고 몸매도 자랑하고 싶은 호순이가 수영장 찾는데,  
비키니 차림으로 수영을 하던 호순이는 수영복 하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어쩐지 시원하고 허전하더라니"

당황한 호순이는 옆에 있던 풋말로 아래를 가리고 물에서 나오니 순간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있어 풋말을 보니 풋말엔 "남성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당황한 호순이는 얼른 다른 풋말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크게 웃고 있어  
 바꿔 들은 풋말엔 "대인 3천 원, 소인 2천 원"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바꿨더니 더 큰 폭소가 터져 뭔가 보니 이번엔 "깨끗이 씻고 들어오세요"였네.  
 얼굴을 들 수조차 없게 된 호순이는 마지막 남은 풋말로 얼른 아래를 가렸는디그러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진 이유를 보니  
 "수심이 깊어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네요.  
 별것도 다 올렸다고 욕하지 마시고 즐겁고 웃음 가득한 한주 되십시오.♥昔暗 조 현 섭♥  
 150720

**\*상쾌한 휴일 아침이네요.**  
 조선조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님의 말 중에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라며 내 탓으로  
 돌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스렸으니 성군이 되셨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의 위정자들도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 생각하면 좀 더 진보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좋은 일요일 먼 훗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남경님 불방 즐감하고 다녀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719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이네요. 여름철 불청객'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모기는**  
**“우리에게 가장 집요하고 치명적인 적”** 이라고 불리는데, 모기는 물 위에  
 알을 낳아 습지나 늪, 물웅덩이 등이 좋은 산란 장소이기에 비가 잦은  
 여름 장마철이 ‘모기들의 천국’이 되는 이유인가 봐,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해 질 무렵 바깥  
 활동을 삼가하고 주변에 있는 습기를 없애는게 상책인 듯,  
 피부질환과 자외선, 불쾌지수,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며. 황색포도구균  
 등은 몇 시간 만에 발병하는 반면, 노로바이러스 등은 1~2일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생물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 시 충분히  
 가열하여 드시는 게 상책이라네요. 찜통 같은 더위와 국지성 장마에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불벗님의 잘 꾸며신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조현섭 ♥  
 150718

**\*오늘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67주 년 제헌절!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써 일부러 이 날과 맞추어 공포했다네요.**  
 우리 모두 낙천가가 되었으면---, 하루가 즐거우면 열흘이 편안하다네요.  
 짜증 내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못된 마음

들은 전부다 내빼리리고, 오직 즐거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昔暗 曹憲燮♥  
150717

\*잘 지내시지요. 반갑습니다.  
주역에서는 항룡유회(亢龍有悔)라 했던가!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나면 이욕고 쇠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니  
끝없는 욕심에는 반드시 후회만 남게 되는 것, 달도 차면 기우나니...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중용지도[中庸之道]로 세상을 살라 하였으니...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정도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  
우리는 너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中庸]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자신에게는  
망신이 되고 남에게는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십시더 ...  
블벗님의 참 좋은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조 헌 섭♥  
150716

\*블벗님 초복이 지나가니 엄청 덥네요. 마른 장마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무더위 대처법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듯,  
나만의 대처법에는, 짧고 가볍게 헐렁한 옷을 입고, 식사 때는 열량이 적은  
채소를 많이 먹으며, 불필요한 전기 기구를 끄고, 물을 자주 마시며  
냉동실 냉맥을 발이나 뒷목에 수건에 싸서 올려놓으면 몸 전체가  
시원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네요. 그래도 더위를 못 견디  
겠다면 찬물을 가득 채운 냉탕을 찾아 ‘삼십육계  
줄행랑’이라도 쳐서 더위를 이겨 보십시오.  
삼복더위엔 30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에  
건강 유의 하소서... ♥석암 조 헌 섭♥  
150715

\*블벗님!  
어제 초복 날  
복다림 잘하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세상은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은  
타고난 년, 월, 일, 시. 즉, 사주팔자를 탓 도  
해보지만, 꼭 노력한 그만큼의 성장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것 같네요. 오늘도 소중한 하룻길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정성 들여 올려 주신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 ♥석암 조 헌 섭♥  
150714

\*대구 앞산엔 비 온 뒤 산천초목이 깨끗하게 세탁하여 물소리와 함께  
바람에 휘날리니 내 마음도 한결 깨끗하네요.

오늘은 찜통 같은 삼복(三伏)더위의 첫 패 초복(初伏), 간단히 삼복의 유래를 정리하자면,  
삼복은 음력 6~7월에 있는 속절로 하지 후 셋 째경일을 초복, 넷 째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경일을 말복이라 하고 이를 삼복이라 하며  
삼복은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꺾는 날, 즉 더위를 정복하는 날'  
함께해주신 불벗님께 저의 마음으로 삼계탕과 복분자 한 병 보내 드리오니 맛나게 드시고  
삼복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ㄱ ㄱ\* 초복 날

ㄱ ㄱ 에는

| 복 | 원기

| 분 | 회복

| 자 | 복분자

ㄴ — ㄱ 한 병, 안주는 삼계탕. 석암 조 헌 섭 드림

150713

\*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 소식 있는 일요일이네요. 사내가 여인의 배 위에서 죽는 것을  
복상사라 하는데 황홀한 황천길이므로 쾌락사, 극락사라 하여 길사로 여긴다네요.  
즉 성관계를 하다가 지나친 섹스 열정이 절정감에 달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섹스 중에 배 위에서  
난 사고를 마상풍(馬上風), 성교후에 일어나는 급사를 마하풍(馬下風)이라합니다.  
조선조 마지막 기생 '명월'과 동침한 남성들이 연이어 복상사했는데  
이후 명월은 30대에 요절하였고 일본은 동침한 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명월의 시신을 부검, 그녀의 생식기를 척출하여 보관해 명월 생식기라 불리며  
최근까지 국과수에 보관되어 왔는데, 이것이 문화제 제자리찾기 재단과 소송  
문제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져 재판부가 그 생식기를 폐기하라는 판결로  
폐기되었으나 생식기를 척출해 수사자료로 사용한 일제의 인권유린이 극에  
달한 처사이지요. 좋은 예기는 아니지만, 불벗님 기분 좋은 휴일 되소서--- ♥석암 曹憲燮♥

150712

\*어느덧

어정 7월도

중순에 접어

드는 주말이네요.

공자께서는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는 것이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이 흐리어

온 종일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 하니 우리도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불벗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석암 曹憲燮♥

150711

**\*대구에도 밤새도록 꽤 많은 비가 내렸네요.**

오복이란 1,수명, 2,부유함, 3,편안함, 4,훌륭한 덕, 5,제명에 태연자약하게 죽는것,  
천수복(天壽福)으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과 무병장수하며 선행과  
덕을 쌓으며 살다가 편히 죽는 일이라. 참으로 바라고 바라는 일이 아닐는지요?  
이놈의 복을 잡으려고 옛날 민가에서는 박쥐 그림을 부적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福 자를 거꾸로 매달아 박쥐 모양을 만들어 붙였지요.  
박쥐의 한자어 박쥐복(蝠)자를 福자로 해석하였으며, 박쥐를 하늘나라의 쥐라고 하여  
천서(天鼠)라고 하고 신선의 쥐라하여(仙鼠)라고 도 하여 일상용품이나 회화 공예 등의  
문양으로 사용되었지만----~  
어쨌거나 불벗님 건강하게 배우자와 일거리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 같으니  
황금박쥐 꿈 잘꾸어 수, 부, 강녕, 유호덕, 고종명 하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0709

**\*대구엔 밤새도록 대지를 적셔주는 고운 비가 내렸네요**

비가 내리는 날은 사색에 잠기어  
모든 것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홀하기도 하지만,  
속 시원히 전국 저수지와 강정보 등 16개보 녹조현상을  
확 쓸어갈 정도로 비가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벗님 항상 즐겁고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나날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저의 블로그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암 曹憲燮♡

150708

**\*어느덧 여름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는 소서(小暑)이네요,**  
우리의 부모님은 고향 집 홀로 지키며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머님!  
백발삼천장이 되도록 자식 잘되기만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삼효(三孝)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봅시다.  
존친(尊親) - 부모를 존중하며 높이 받들고,  
부욕(不辱) -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봉양(奉養) -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히 모시는 것,  
“不孝父母 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사후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 )  
애일지성(愛日之誠)이란 말처럼 하루해를 아쉬워하며 부모에게 효도하여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오늘도 불벗님 불방에 쉬어갑니다.♡석암 曹憲燮♡  
150707

**\*불벗님 7월 첫 주말과 휴일 잘 지내셨지요. 자연은 망설임과 회의(懷疑)도 없고 반성이 없나**  
봅니다. 마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심신을 상실 한것같습니다.  
어제 계족산성에서 내려다본 대청호의 불이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데---  
”옛날 사람들은 이럴 때 ‘나라님’을 탓했다네요.  
민심이 흉흉해지자 영의정이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사직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지만,

이 시대에도 하늘을 원망하며 남 탓만 할 수 있을까?  
 올해의 긴 가뭄도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의 탓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구 온난화는 이제 기후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니...  
 영국의 BBC방송은 미국 버클리대 연구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개인 범죄는 15%, 집단 갈등은 50% 이상 증가한다네요”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모를 일이죠!  
 하지만 내일부터 비소식이 있으니 가뭄 해갈이 되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게 열어가소서, ~ ♡석암 曹憲燮♡  
 150706

\*블벗님 잘 주무셨지요! 헌섭이는 정기 산행 관계로 이른 아침 살포시 왔습니다 ~  
 대학에서는 심성구지 난불중 불원의(心誠求之 難不中 不遠矣)라 했지요.  
 성심으로 목표를 추구하기 바란다면 비록 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울지라도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릿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절반으로 여기는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7월 첫 휴일 잘 보내십시오.  
 150705

\*여름의 중반 7월의 첫 주말이네요.  
 우리는 “우공이산 정신일도 하사불성[愚公移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  
 우공이 태산을 옮기듯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을 거듭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처세에는 남보다 꼭 앞장서야만 직성이 풀리고 남달리 승부욕에  
 극성스러운 사람은 부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들듯 타죽고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뿔에 걸려 진퇴양난이 됨과 같아 어리석은 일이라고하였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평생 달려야 할 장거리 경주임을 명심하여 스스로 체력을 갖추어  
 달려가는 것, 남에게 앞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남보다 뒤졌다고 초조 하지 말며  
 꾸준히 맞겨진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면 남보다 앞서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 처세훈으로 삼았으면...블벗님의 불방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704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노력과 숙련이 필요할 듯, 중용 20장에 이르기를 ...  
 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기천지[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百千之]  
 과능차도의 수우필명 수유필강[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이라.  
 남이 한 번으로 잘하면 나는 백 번이라도 반복하고  
 남이 열 번으로 잘하면 나는 천 번이라도 되풀이하하며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요. 우리 모두  
 힘내어 정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블벗님 고운 불방 즐감하고 갑니다.

150703

\*모든 면이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13대 선조이신  
남명 조식 선생의 김해 산해정 계명실에 자신의 정서적 이정표가 될 좌우명에는,  
용신용근[庸信庸謹]--말은 뚝뚝하고 미덥게, 행동은 뚝뚝하고 신중하게.  
한사세연[閑邪存誠]--사악한 것 막아야 하고, 정성스러움 간직해야 하네.  
악립연중[岳立淵沖]--산악처럼 우뚝하게, 연못처럼 깊게 하면.  
엽엽춘영[燁燁春榮]--찬란히 봄꽃처럼, 피어나고 피어나리라.

남명집 1권 32장

전신사십년전루(全身四十年 前累)-- 온몸 40년 동안 쌓인 티  
천국청연세진휴(千斛淸淵 洗盡休)-- 천 섬 되는 맑은 물에 싹 씻어 버렸다,  
진토당능생오내(塵土倘能 生五內)-- 만약 티끌이 하나라도 내 오장에 생긴다면,  
직금고복부귀류(直金割腹 付歸流)-- 지금 당장 배 쪼개 흐르는 물에 배 쪼개 부쳐보내리라.  
남명은 자신의 지조[志操]를 굳건히 지키며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천길 절벽 같은 기상이 이 처럼 젊은 시절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는 듯,  
블벗님 늘~건강과 웃음.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昔暗 曹憲燮 ♥

150702

\*안녕하세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으면 하는

상반기 7월 첫 날이네요.

저의 불방을 찾아 주신님께

감사드리면서,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상반기에는

블벗님 가정에 꽉찬 강냉이 알같이 뽁뽁하게 포도처럼 주렁주렁

좋은 일만 득하시길 바라면서~잘 꾸민 불방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701

\*블벗님 어느덧 을미년도 반을 지나가네요. 세상살이가 돈과 명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승진  
대가성 뇌물 상납, 취업 빌미 뇌물 등 비리가 비일비재하여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네요.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니 인맥, 학연, 뺨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경우라지만,  
있는 사람이 더한 세상인 듯, 하기야 있어야 갖다 바치지, 없는 사람이 갖다 바치라...  
조선 시대 말기에는 곡식이나 돈을 바치고 벼슬을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봉건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 따라서 서민 계급 중에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벼슬자리를 사는 것이 합법적으로 부패연결이 성행했던 것. ~  
흔히 보리를 주고 벼슬을 샀다 하여 보리동지라고 조롱하곤 하였으며  
납속동지(納粟同知)`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보리동지의 한자 속어랍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는 말이 생겼으니 나라의 안위조차 위태로울 지경,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어야 사람행세를 하는 세상이니... 화사한 화을 되십시오.♥석암 曹憲燮♥  
150630

\*블벗님  
휴일은 잘  
지내셨지요.  
속이 가득 찬  
깡통과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무엇이랄도 조금  
들어 있는 깡통은 소리가 요란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데요.  
블벗님 오늘내일 6월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한 주 열어 가십시오.♥석암 曹憲燮♥  
150629

\*안녕하세요, JP의 증언록에 따르면 5.16은 “구질서를 붕괴시키고 신질서를 만든 장본인”  
국회의원 9선, 정당 총재 네 번, 두 차례 국무총리. 대통령은 못했지만 전무후무한 경력...  
” 박정희의 과묵과 치밀함이 JP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소령 시절(49년, 32세) 남로당에 가담해 반란을 기도했다는 좌익 혐의로 체포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형과 함께 강제 예편되었지만, 박정희 소령을 구해준 건 육군 정보국장이던 백선엽 대령, 그는 군대 내 좌익 색출 작업의 총책임자였는데, 백 대령이 “내가 책임지고 신원을 보증하겠다.”라고 나섰고, 마침 부하인 김창룡은 사생활이 깨끗한 백선엽을 가장 존경하는 상사로 여기고 있어 김창룡도 백 대령 뜻을 따라 박 소령에 대한 신원보증서에 서명하여 풀려나 5.16 군사 쿠데타를 감행 “혁명은 의지다, 숫자가 아니다” 60만 대군 중 3,600명이 "중심부 서울만 장악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 온다며 거병을 일으켜 성공하였으나 박정희 "대선 출마 않겠다" 고집, JP가 세 번 찾아가 설득하여 장기집권을 하였다네요.

아름다운 매화도 엄동설한 속에서 고초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그윽한 향기를 사방에 풍긴다,’는 뜻의 ‘매경한고발청향(梅經寒苦發清香)’을 인용한 이 글귀는 그때부터 JP의 좌우명이 되었다네요. 6월의 끝내기 휴일 잘 보내십시오.♥석암 조 헌 섭♥  
150628

\*메르스란 놈 공포에 6월도 끝자락 주말이네요.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네요.  
우리는 모든 일 기초를 잘 닦아 밑바탕을 튼튼히 하여  
거칠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살아갔으면...  
블벗님 올려주신 마음에와 닿는 고운 글 즐겁하며 잘 쉬어갑니다. ♥석암 조 헌 섭♥  
150627

\*블벗님 대구에도 단비가 내렸으니 밭, 농사는 해결될 듯 싶네요. 세상 소리를 살피고 세상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니 이풍진 세상의 만물이 깨달음을 이루었다지요.

유대인의 자녀들 가운데는 일명 비행소년이 그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기 때문인 듯, 인간은 취급받는 대로의 인간이 되기마련, 바보로 취급하면 바보가 되고 천재로 취급하면 천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녀를 내 소유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책망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부모는 마땅히 부모로서 사표를 내어야만 할 듯싶네요. ♥昔暗 曹憲燮♥  
150626

\*남쪽으로부터 비 소식(음력 오월 초 열흘 태종우 날) 있는 좋은 아침입니다.  
6.25사변으로 전사하신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족이 갈라진 지 65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통일은 멀게만 보이네요.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는

조건부였지만,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하고 38선으로 갈라져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인지 남과 북은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유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작품에 쉬어갑니다. ♥昔暗 조현섭♥

150625

\*안녕하세요.

언제 만나도 반갑고

매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님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 흐르며

좋은 글과 좋은 자료에 많은 배움을 얻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

행복이 가득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어소~

블벗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고운 글 잘 보고 갑니다. ~ ♥석암 조 현 섭♥

150624

\* 블벗님 강녕 하시지요. 암(癌)이란 한자 풀이보면 병질안 변에 입구 3개 뒀산이 형성된 뜻은 세 사람이 먹을것을 혼자서 다 먹어 과식이나 폭식함으로써 병이 산 처럼 쌓여 암이 된다는 뜻, 욕심부려 먹으면 반드시 체하고 체했을 때 손을 따 보면 시커먼 썩은 피가 나오지요.

욕심부리면 피가 썩기 때문에 썩은 피가 모세혈관을 막아 피가 유통이 잘 안 되어

피가 빨리 썩어서 결국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생겨서 암이 되는 것이라네요,

나이가 들어 노화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기 때문에 암이 생겨 노화로 일찍 죽는 것,

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마늘과 양파, 고구마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마늘과 양파와 고구마를 섭취하면 항암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네요.

또한, 암에 걸렸더라도 항상 즐겁게 살면 피가 맑아지므로 장기적으로 암이 치유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세상 모든 일과 근심을 버리고 공기 좋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산지 몇 년이

안 되어서 암이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사례들이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모두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오색오미로 소식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입시다...♥昔暗 조현섭♥

150623

\*휴일 잘 지내셨지요. 화와 복은 스스로 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

10세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 때는 여인에 움직이며,

30세 때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 때는 야심에 움직이며,

50세 이후에는 탐욕에 움직인다네요.

탐욕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와 같아서 밀 빠진 항아리요

나를 해치는 칼날이며 자기를 망치는 비상 이라니, 부디 우리는 탐욕없는 삶 살아갔으면...

불벗님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0622

\*대구엔 비가 이슬처럼 적کم 왔네요. 요[堯] 임금으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은  
순[舜] 임금 또한 성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4,300여 년 전의 순[舜]임금은  
새벽에 나가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물고기를 낚았으니 게으름을 피우던 백성들도  
임금을 본받아 부지런하게 정진하여 창힐 선생은 한자를 창안했고 바둑을 만든  
때도 이때라니 성군 때는 문화도 발달한 듯, 순 임금은 백성들과 똑같이 초가에  
살면서 마음을 항상 백성에게만 두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굶고, 추위에  
떨면 자기도 같이 떨었고 죄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죄인처럼 괴로워하였다네요.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요순시대의 격양가(擊壤歌)를 올려 봅니다  
일출이작(日出而作)--해 뜨면 농사짓고  
일입이식(日入而息)--해 지면 휴식하며,  
착정이음(鑿井而飲)--우물 파 물 마시고  
경전이식(耕田而食)--밭갈아 식사하니,  
제력우아하유제(帝力于我何有哉)--황제의 권력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불벗님께서 올려주신 고운 작품에 쉬어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이소. ♡昔暗 조현섭♡

150621

\* 오늘은 단오날 양기가 가장 번성하는 태양이 극점이 도달하는 때 천중절...  
우리 민족은 예부터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단오(端午)를 4대 명절로  
즐겼으며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 여겼지만, 지금은 강릉단오제가 1967년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었지만,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네요.  
이제라도 단오를 우리의 별런타인 데일로 새롭게 즐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전엔 단옷날 뭍쌀가루에 삶은 취나물로 만든 수리취떡을 즐겨 먹었던는데,  
단오를 즈음에 밥상에 자주 오른 단백질 식품은 준치와 민어 등 흰살 생선이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씩어도 준치’란 표현 덕에 유명해진 것이 준치.~  
글을 쓰다 보니 준치와 민어 도다리에 쇠주한잔 ㅋ 생각나구려, 불벗님 무더운 날씨엔  
자외선지수, 피부질환, 식중독, 불쾌지수가 높으니 조심하소서...♡昔暗 曹憲燮♡

150620

\*불벗님

안녕하세요.

논어에 이룩기를

智者=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즐겁게 살며,

仁者=마음이 좋은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셨네요.

우리 모두 항상 지자[智者]처럼 즐겁게 살며  
인자[仁者]처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150619

\*반갑습니다. 이항 선생은 14세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고 이항의 나이 18세에 지은〈야당(野塘)〉이라는 시는  
오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글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 올려봅니다.  
로초요요수애(露草天天繞水涯) 이슬을 머금은 풀은 파릇파릇 물가에 둘렀고  
소당청념정무사(小塘淸恬淨無沙) 자그만 연못이 맑고 조용하여 모래하나 없이 깨끗하구나  
운비조과무상관(雲飛鳥過無相管) 구름이 날고 새가 지나감은 탓할 바 없으나  
지파시시연축파(只怕時時燕蹴波) 다만 때때로 제비가 물을 찰까 두렵다.  
퇴계 이항 선생은 풍기군수 재임 중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부흥한 선례를 좇아서,  
전임 군수인 주세붕이 고려 말기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이 공부하던 땅에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 서적(書籍), 학전(學田)을 하사할 것을 감사를 통해 조정에 청원,  
이것이 조선 최초의 임금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블벗님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겁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618

\*블벗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메르스란놈이 대구 대명동 우리 동네까지  
침범하여 대명3동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 인근 목욕탕 등 이 폐쇄 되었네요.  
연일 메르스 공포에 언론매체에 도배하고 있지만,  
김 사무장이 5월 27~28일 누님과 함께 삼성병원 어머님 병문안 갔다가  
누님은 6월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받고 격리 중인 것도 숨겨 17일 동안  
노인정과 목욕탕, 회식에 상가집까지 활보하고 다녔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메르스 대책본부는 뭘 하는지 억장이 무너지네요.  
더이상 메르스 환자가 안 나와야 할 텐데 지방까지 뿔렸으니 걱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개인 각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모든 사람 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르스 조심하이소 ♡석암 曹憲燮♡  
150617

\*메르스 공포에 6월도 중반을 지나가네요. 블벗님!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기(吳起)라는 장군은 평소 병사들과 동고동락하고 다친 병사의  
피고름을 직접 자기 입으로 빨아낼 정도로 부하들을 아꼈으니 이에 감동한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덕분에 오기 장군은 76번 싸워 모두 이긴 상승(常勝)의  
장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장군으로선 일단 병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덕장(德將)이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용장(勇將) 용감한 장수는 지혜 있는 장수만 못하고,

지장(智將) 지혜 있는 장수는 덕 있는 장수만 못하며  
 덕장(德將) 덕 있는 장수는  
 복장(福將)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요즘 국민을 감동시킬 덕장이 필요한 때 이지만, 메르스 대처를 보면 위의 4장은 보이지 않고  
 졸장들만 있으니...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615

\*주말과 휴일 즐겁게 잘 지내셨지요. 불벗님!!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소중히 여기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런지요.  
 행복이란 누군가가 말을 하듯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가까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불벗님 날마다 행복한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힘찬 한 주 열어 가십시오.♥석암 曹憲燮♥  
 150615

\*휴일 아침이네요. 옛날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큰 명성과 부를 얻었으니  
 가난한 의원이 송청을 찾아와 “이토록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굳이 나에게 비결이 있다면 ‘구불약(九不藥)’ 덕분이지요.”  
 “아홉 개의 ‘불(不)’을 치유해 주는 신비로운 약이지요.” 송청이 의미를 설명한것을 보면,  
 불신(不信),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 주고  
 불안(不安),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며  
 불양(不殃), 나에게 양심을 품지 않게 해 주고,  
 불구(不勾), 내 마음이 곧다는 사실을 알려 주며  
 불치(不值), 내가 약값을 속이지 않음을 믿게 해 주고  
 불의(不倚), 나와 상대방의 거리감을 없애 주며  
 불충(不衷), 내가 성의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 주고  
 불경(不敬), 내가 공손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없애주며  
 불규(不規).”내 언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주지요.  
 명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명약이었습니다  
 만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구불약,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의 웃음입니다.”  
 불벗님 언제나 웃음과 감사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석암 曹憲燮♥  
 150614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을  
 맞이하여 불벗님이  
 정성 들여 올려 주신

고운 글 잘 보았습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없어도 누릴

권세와 명예는 없어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알콩달콩 소박한 행복을

맛보며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순리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요. 우린 순리대로 살아 가입시데이---♥昔暗 조헌섭♥

150613

\*반갑습니다. 전국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대구엔 비는 커녕 한방울 안내렸네요.

중국에는 로켓을 이용해 드라이아이스와 요오드화은을 구름층에 살포,

습도를 높임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지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술은 없다네요.

인공 비 살포 작업에는 로켓 이외에 비행기와 고사포도 이용하며 가뭄이 잦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중국은 인공강우의 양으로 볼 때 중국 전역의

1,952개 인공강우를 유도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으며, 고사포나 로켓을

발사해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만 3,000여 명이고

전국에 걸쳐 강우에 사용되는 로켓 발사대 4,687기가 갖춰져 있으며

고사포는 7,000여 문이 있어 장마를 걱정하지 가뭄걱정은 없다네요.

러시아에서는 인공강우는 물론 내릴 비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인공'소우(消雨)'도 해내고 있으니 중국은 가뭄 걱정, 러시아는 폭우 걱정은 없다나.

블벗님 언제나 웃음꽃 활짝 피우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석암 曹憲燮♡

150612

\*블벗님! 좋은 아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일화 중에는 결혼은 해야 옳으나 ? 안 해야 옳을까?

좋은 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터이니 하고 대답,

소크라테스의 처는 행패가 대단했던 악처였는데, 한 번은 부인이 소크라테스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화가 난 그녀는 밖으로

나가 걸레를 뽀 물통을 들고 와 소크라테스의 머리위에 물을 부었는데,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허, 허,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

하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보고 하필 그와 같은 악처에게 시달리며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수근

거렸는데 그 중 한 분이 왜 하필 그 같은 악처를 데리고 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훌륭한 기수는 가장 성질 사나운 말을 택하는 법이랍소,” 그런 말을 잘 달래서 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어떤 말이라도 다, 잘 탈 수 있기 때문이요.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었고 성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정말이지 좋은 배필이면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못하면 철학자가 될 여유와 아량이 있는

사람이면 결혼을 해야 옳으나 안 해야 옳을까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네요. ♥석암 曹憲燮♥

150611

\*안녕하세요.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듯, 그중에서 특히 정치 분야는 봉당 정치에 해당할 정도로 패거리 형태를 보이며 자기편이 아니면 정책이고 이론이고 무시하고 당동별이 형태를 벌이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좌파, 우파 몰아붙이는 이념적 파당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 대통령은 덕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함에도 참사 때마다 컨트를 타워도 없으며, 고위 공직자는 청렴결백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청문회를 보면 온갖 비리 백화점 같네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은 술하게 들어 왔지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블벗님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150610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남명 조식(南冥 曹植) 선생을 훗날 문인(文人)들이 평하기를...  
한강 정구(寒岡 鄭述대사헌): 선생의 기질은 태산교악(泰山喬嶽)으로 행동이  
태산과 같이 크다 하였고,  
동강 김우옹(東崗 金宇顥대사헌); 성정은 추상열일(秋霜烈日)로 가을의 서릿발이나  
여름의 태양처럼 엄정하고 권위가 있었으며,  
미수 허목(眉受許穆우의정): 선생의 처세를 불구종(不苟從)불구묵(不苟默)으로 불의를  
보고 구차하게 따르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침묵하지도 않았고,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좌의정): 선생의 공덕은 입유렴완(立濡廉頑)으로 나약한 선비를  
강하게 만들었고 탐악한 관료들을 청렴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율곡 이이(栗谷 李理 이조판서): 선비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이는 오직 이 세상  
남명 뿐이라 하였고,  
택당 이식(澤堂 李植 이조판서): 고고한 자세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고 하였으니 진정한  
처사야말로 나뿐이야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우리 역사에 유일한 처사요,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갔으면...석암 조현섭 방명록에 다녀갑니다.

150609

\*휴일 잘 보내셨지요. 엿거제 6월 4일 치르진 수능 모의 평가서가 매우쉽게 출제 되었다나...  
요즘 시험철 때 커닝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지,용,신, 인,의, 예, 6가지 커닝 도가 생겨 났으니  
지(智)--감독자의 특성과 우등생의 위치를 아는 지혜이고  
용(勇)--감독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과감하게 실행 하는 용기이며,  
신(信)--커닝한 답이 이상해도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것을 `신의라 하고,  
인(仁)-- 남이 커닝하다 들킨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니니 이를 인의라 하며,  
의(義)--커닝하다 들켜도 근원지를 밝히지 않으니 이를 의리라 하고,

예(禮)--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베끼는 것이니 이를 예이라 한다는 것,  
블벗님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올려주신 고운 작품 잘 보고갑니다.♥석암 曹憲燮♥  
150608

\*즐거운 휴일이지만 메르스 공포에 찻찻하지만, 부산 갈맷길 다녀오립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늘 경쟁자가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듯,  
전자 분야에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된 것도 경쟁자인 LG 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며, 삼성그룹이 국내 1위 기업이 된 것도 현대그룹이란  
경쟁자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네요.  
손자 왈(孫子 曰) 오월과 동주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이지만.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자 서로 구하고 도왔으니 이것이 오월동주  
싫어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기업가의 정신은 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여 사람이 사람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그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기대하면 상대도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낳겠지?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크말레온) 효과라는데.~ 휴일 잘 보내이소♥석암 曹憲燮♥  
150607

\* 안녕하세요. 농촌엔 마늘과 양파를 캐고 모내기를 하는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철인  
오늘이 망종이자 제60회 현충일! 국토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돌아가신 님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호국 영령들을 추  
모하는 의미에서 반기를 달아 슬픔을 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산행에서 집으로 오는 길엔 조기가 거의 달리지 않아 씁쓸하네요.  
블벗님 올려주신 고운 글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昔暗 曹憲燮♥  
150606

\*늘~덧글 속에 만나지만 엄청 반갑네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인 것.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두한족열(頭寒足熱)=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소육다채(小肉多菜)=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며  
소노다소(小怒多笑)=화를 적게 내고 웃음을 많이 웃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의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라네요.  
블벗님! 언제나 행복 가득 ~ 미소 가득 ~ 무병장수 하십시오. ♥昔暗 曹憲燮♥



150605

\*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욱일 승천기는 과거 일제시대 대학살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의 상징인 깃발이었는데 해를 상징하는  
붉은 원을 가운데로 하고 16줄기의 햇살이 뻗어나가도록 도안된 욱일기,  
처음에 일본 육군기로지정 되었다가 군함기로 지정 일본군의 상징이라네요.  
왜놈들이 과거 이웃나라에게 치유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관료와 의원들  
까지 전범이 묻힌 신사를 참배하는 그들의 근성을 잊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아베총리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언론(아사히 신문)에 재갈을 물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일부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등 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라도 해야지 원… 불벗님의 불방 잘 보고 갑니다. ♥昔暗 曹憲燮♥

150604

\*오늘도 또 만나 반갑습니다. 민들레(구덕초)가 나타내는 9흙 가지 덕(德)을 보면,  
1, 인(忍); 민들레는 바위에 자리 잡건 수레에 짓밟히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곳곳하게 생존하는 끈질긴 인내(忍耐)의 덕을 가졌으며,  
2, 강(剛); 뿌리를 캐어 난도질하여 심어도 싹이 돋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함이 있고.  
3, 예(禮); 한 뿌리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동시에 피는 법이 없고  
한 꽃대가 피고 진 후에야 다음 꽃대가 피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예가 있으며,  
4, 용(用); 어린잎은 나물로 무치고 뿌리는 김치를 담그며 꽃은 술이나 차로 먹을 수 있고,  
죽은 민들레에게도 사람에게 쓰임이 있으니 버릴 것이 없어 그 쓰임이 유용하며.  
5, 정(情); 꿀이 많고 향이 진해 멀리서 벌,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찾아온 벌,  
나비에게는 꿀을 주어 보내며 빈손으로 박대하지 않고 주고받는 정(情)이 많고,  
6, 자(慈); 잎이나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는 하얀 빛의 젖이 나와 상처를  
감싸주니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 모유의 형상이니 사랑의 덕이 있으며,  
7, 효(孝); 민들레는 흰머리를 검게 하고 늙은 부모를 젊게 하는 회춘  
약재로 쓰이며 아랫사람이윗사람을 공경하는 효(孝)의 덕이있고  
8, 인(仁); 민들레의 즙이 종기를 낫게 하며 학질 등 열을 내리게 하고,  
아픈 사람의 병을 돌보는 어짊이 있으며  
9, 용(勇); 민들레는 씨앗이 되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스스로 번식하고 꽃을 피우고  
모험심과 자수성가하니 개척의 용기(勇氣)가 덕입니다.  
불벗님 우리 모두 쓰임새가 많은 민들레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싶네요.… ♥석암 曹憲燮 ♥

150603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안사람과 친구와 함께 앞산을 오르며  
산을 보면서 그 높음을 사모하고 그 장중함을 배우며

그 수려함을 사랑하고 그 옛스러움을 벗어나며,  
길 다방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니 진묵대사의 詩가  
생각나 시 한 수를 읊으니…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 삼아,  
/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 삼아/ 바닷물로 술을 빚어…커어…  
언제나 몸에 배도록 락만 적으로 살아가소서- -  
오늘도 불벗님께서 잘 꾸며놓으신 블로그 즐감하고 갑니다. ♥석암 曹憲燮 ♥  
150602

\*불벗님! 새롭게 맞이하는 호국의 달 6월! 오늘이 의병의 날[광재우의 날]이네요.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 하얀 민들레는 외래종인 노란 민들레에 밀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민들레!! 약효도 좋지만, 약효보다 그 꽃이 좋아서,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서…  
우리는 민들레처럼 살아야 할듯싶네요.  
차라리 발길에 짓밟힐지언정 노리게 꽃으로 살지 말았으면…  
하얀 백합과 진한 장미의 화려함보다 흔하고 너른 꽃 속에서 자연스레 빛나는  
우리 들꽃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않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듯하네요.  
6월은 현충일, 6·10민주항쟁, 6·25, 6·29선언 등 우리 역사에 슬픈 날이 많았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말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昔暗 조현섭♥  
150601

# 석암 전집

블로그    昔暗 조 헌 섭    <http://blog.daum.net/jaguarpapa>

저자    昔暗 조 헌 섭

발행일    2017.02.18 12:39:03

 블로그